2016
집중연구

인천시 도시가치자원 현황과 자원화 방안



인천발전연구원
Incheon Development Institute

책을 펴내며

도시의 가치란 도시가 가진 독특함과 매력, 장점과 잠재력입니다. 다른 도시에서 찾기 어려운 고유한 특성, 풍부한 자원이나 발전가능성, 시민들이 느끼는 자부심, 외지인이 바라보는 긍정적 요소 등이 도시의 가치에 포함됩니다. 도시 가치는 타 도시와 비교할 때 나타나는 고유성과 비교 우위적 장점, 잠재력이라 요약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행정은 도시의 가치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 자원을 창출하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변동이 가속화되면서 도시의 가치 자원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습니다. 산업화시대에 모든 자원을 대량생산 기능을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산업화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이동하면서, 산업시설들은 차츰 기능을 잃어 간 반면 역사유적이나 새로운 문화 중심지, 친환경적 자산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전국의 지자체들도 산업화 시대의 유산인 폐산업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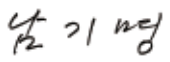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가치재창조 사업의 추진 전략을 보완하고 역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천가치재창조는 인천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천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잠재적 가치와 자원을 재발견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재발견된 가치자원을 스토리텔링을 비롯한 콘텐츠 융합 및 리모델링 등과 같은 창의적 방법을 동원하여 실용적·현실적인 가치로 전환하는 도시 혁신전략입니다.

도시 가치 자원의 가치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연구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인천시 도시자원을 조사하고 분류하였으며, 인천 도시가치 자원에 대한 시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역사문화, 인물, 화교자산, 건축자산, 산업자산, 자연자산 등의 자산유형별 주요 가치자산을 선정하고 가치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도시의 가치와 관련된 사례를 검토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발견되지 않은 도시의 잠재력을 찾아내고 그것을 현실적 가치로, 나아가 미래의 가치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 자원의 가치화 사업의 출발점은 도시가 가진 자원을 조사하고 목록화하고 평가하는 일도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연구 수행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연구 책임자인 김창수 도시경영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하여 연구진으로 수고한 최영화 연구위원, 김수한 연구위원, 채은경 연구위원, 조상운 연구위원, 정지원 연구위원, 권전오 연구위원, 김현석 연구원, 민경선 연구원, 유다형 연구원, 정남숙 연구원, 최종화 연구원, 김영은 연구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인천발전연구원장



목차

Ⅰ 서론

Ⅱ 인천의 도시자산 현황과 분류체계

1. 도시자산의 개념 및 분류체계 ····· 21
   1) 도시자산의 개념 ····· 21
   2) 도시자산 유형 및 분류체계 ····· 23
2. 자산 평가 및 대표자산 현황 ····· 30
   1) 자산평가 ····· 30
3. 도시자산 가치화방안 ····· 35
   1) 인천 도시자산의 특성 ····· 35
   2) 자산별 특성과 가치화 전략 ····· 36
   3) 자산 가치화의 과정과 방법 ····· 37

Ⅲ 인천시 무형문화재 활용방안

1. 무형문화재 개념 및 유형 ····· 43
   1) 무형문화재의 개념 ····· 43
   2) 무형문화재의 유형 ····· 45
2. 인천시 무형문화재 현황 ····· 47
   1) 국가무형문화재 ····· 47
   2) 시·도무형문화재 ····· 48
   3) 인천시 무형문화재 지원사업 현황 ····· 52
3. 인천시 시범활용 무형문화재 선정 ····· 58
   1) 시범활용 무형문화재 선정기준 및 방법 ····· 58
   2) 시범활용 무형문화재 선정결과 ····· 61

4. 인천시 무형문화재 가치화 방안 ····· 64
1) 기본방향 ····· 64
2) 가치화 방안 ····· 66

Ⅳ 인천화교 역사문화 자산의 활용방안 연구

1. 연구개요 ····· 77
2. 인천 화교사회의 형성과 기본현황 ····· 78
1) 형성 기원에 따른 인천화교 규정 ····· 78
2) 인천 화교사회의 형성 ····· 79
3) 인천화교 사회 기본 현황 ····· 82
4) 차이나타운 명소화와 화교 역사문화 자산 ····· 86
3. 인천화교 역사문화 자산 활용 방안 ····· 91
1) 인천 화교 역사문화 자산 특징 ····· 91
2) 화교 역사문화 자산 활용 정책 제안 ····· 92

Ⅴ 인적자산과 가치화 방안

1. 인적자산의 개념과 유형 ····· 103
1) 인적자산의 개념 ····· 103
2) 인적자산의 유형 ····· 104
2. 인적자산의 현황 ····· 106
1) 인적자산 현황 ····· 106
2) 유형별 인적자산 현황 ····· 107
3. 인적자산 선정과 활용 사례 ····· 115
1) 인적자산 선정 기준 및 방법 ····· 115
2) 인적자산 선정(안) ····· 116
3) 인적자산 활용 사례 ····· 121
4. 인적자산 가치화 방안 ····· 128

1) 기본 방향 ····· 128
2) 정책 제안 ····· 129

VI 인천 건축자산 조사 기초연구

1. 연구 개요 ····· 13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3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38
2. 건축자산 관련 법규 및 계획 검토 ····· 139
1) 한옥 등 건축자산법 ····· 139
2) 건축자산 기초조사 실시 가이드라인 ····· 147
3. 인천시 건축자산 기초조사 후보군 선정 ····· 150
1) 기초조사 대상 및 선정과정 ····· 150
2) 후보군 선정 ····· 152
4. 건축자산 대표사례 기초조사 ····· 157
1) 대표사례 선정 ····· 157
2) 대표사례 기초조사 실시 ····· 158
5. 추진방향 ····· 164
1) 기초조사 수행을 위한 기본방향 ····· 164
2) 건축자산 활용 촉진방안 ····· 169

VII 인천 산업유산의 가치화

1. 연구목표 ····· 177
2. 인천시 근대산업유산 현황 ····· 178
1) 인천시 근대시기와 근대산업유산 ····· 178
2) 인천시 근대산업유산 활용현황 및 문제점 ····· 178
3. 인천시 대표산업유산 선정 ····· 181
1) 대표산업유산 선정 방법론 ····· 181

2) 대표산업유산 선정과정 및 결과 ····· 182
3) 국내외 산업유산 활용사례 분석 ····· 184
4. 인천시 근대산업유산 가치화 전략 및 방안 ····· 185
1) 산업유산 활용전략 ····· 185
2) 인천시 대표산업유산 활용방안 ····· 188

Ⅷ 자연자산 가치제고

1. 자연자산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 205
1) 연구배경 및 목적 ····· 205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 205
2. 자연자산 현황 ····· 207
1) 지형자산 ····· 208
2) 생물자산 ····· 210
3) 자연경관자산 ····· 216
3. 자연자산 활용방안 ····· 219
1) 지형자산 ····· 219
2) 생물자산 ····· 222
3) 자연경관자산 ····· 225

Ⅸ 인천 도시가치 발굴 시민설문조사

1. 조사개요 ····· 233
1) 조사 배경 및 목적 ····· 233
2) 조사설계 ····· 233
3) 조사내용 ····· 235
2. 조사결과 ····· 236
1) 응답자 특성 ····· 236
2) 조사결과 요약 ····· 238

3. 시사점 및 가치화 방안 ····· 254
1) 시사점 및 가치화 방안 ····· 254
2) 정책제언 ····· 257

X 결론과 정책제언

부록1: 인천화교 역사문화 자산 현황 조사 ····· 270
부록2: 「인천 도시가치 발굴」 설문조사지 ····· 292



선단여 인천광역시 옹진군



I

서 론



개항기의 제물포 1905, George Rose

서 론

김창수 도시경영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인천시는 민선6기 들어 재정건전화 및 현안 사업의 가시적 성과와 함께 '인천 가치 재창조' 사업을 3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천가치 재창조는 인천이 보유한 고유한 특성, 잠재적 가치와 자원의 재발견을 통한 미래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설정하고 스토리텔링화, 콘텐츠화, 융합 및 리모델링 등의 창의적 방법을 통해 실용적·현실적인 가치로 만드는 도시 혁신전략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인천가치 재창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가치자원조사 평가를 비롯한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 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한 다음 연도별 추진과제 선정하는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가치재창조 사업의 추진전략을 보완하고 역점사업을 효과적 추진하여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도시 가치 자원의 가치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분야별 중점과제를 발굴하고 분야별 중점 과제의 가치화 방안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요청된다. 또한 분야별 연구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인천시 도시자원을 조사하고 분류하였으며, 인천 도시가치 자원에 대한 시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 주요 연구내용[1]

○「인천의 도시자산 현황과 분류체계 및 가치화 방안」(김창수)은 본 집중연구과제의 총론으로 인천가치재창조 관련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인천 도시자산 관련 기초 자원 현황 조사 및 특성 분석하였으며, 사업 분야별 자원 조사 평가를 통한 잠재적 자원 및 주요가치 자원제시하고 효과적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과 인천가치재창조 사업성과 가시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논문이다.

○「인천시 무형문화재 활용방안」(최영화)은 신규 제정된「무형문화재법」에 근거해 무형문화재의 개념과 유형을 검토하고, 변화된 제도에 부합하는 인천시 무형문화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관련법률·조례를 검토하고,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무형문화재 현황과 정책을 살펴봤다. 또 실효성 높은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전문가 자문회의와 워크숍을 진행했다.

○「인천화교 역사문화 자산 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김수한)는 근대 개항 이후 인천에 정착하여 살아온 중국 해외이주민과 그 후손인 '화교'의 기본 현황 및 역사문화 자산을 조사하고 이의 활용을 위한 기본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인천의 청국 조계지를 중심으로 집거하며 생활해 온 화교들이 130여년의 역사를 통해 형성해 온 역사문화 자산은 고유한 역사성과 특수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 명소화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가치를 갖추고 있다. 물리적 환경 정비나 조형물 설치 등에 집중되었던 인천화교와 차이나타운 관련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여 화교 역사문화 자산의 발굴·보존·확산을 포함한 다각적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인천의 인적자산 가치와 방안」(채은경)은 인천 인적자산 가치화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활용방안을 검토한 논문이다. 현재 구축된 인물에 대한 DB 자료를 활용하여 역사적(시대적) 분류와 활동 분야 및 활동 지역에 따른 분류를 실시하였다. 현재 구축된 인물 자료 DB는 크게 두 가지로 인천도시가치자원 및 활용 전략을 위하여 DB 화 한 것으로 318명의 인적 자원이 목록화 되어 있으며, 또 하나는 인천인물 DB로 1,205명이 목록화 되어 있다. 이들 두 DB를 기초로 하되 경인일보 특별취재팀의『인천인물 100人』과 인천발전연구원의『인물로 보는 인천사』를 주로 활용하여 개항기 이전 18명과 개항기 이후 56명의 인물을 선정하였다.

○「인천 건축자산 조사 기초연구」(조상운)는 인천시 건축자산 기초조사 실시를 위

1 집중과제「인천의 도시가치 자원 현황과 자원화 방안」연구는 모두 9개의 과제로 7명의 연구원이 참여하여 수행하였다.

한 사전연구로 건축자산 조사를 위한 대상범위와 조사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이 연구결과는 향후 인천시 건축자산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추진할 때 우선적으로 참고할 자료가 될 것이다.

○「인천 산업유산의 가치화」(정지원)의 목적은 산업유산에 대한 가치인식을 토대로 인천의 가치자원으로서 근대시기 지역 산업유산에 대한 실천적 활용전략을 검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인천 근대시기 지역 주력산업을 살펴보고 주력산업별 근대산업유산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의 근대산업유산 활용현황으로부터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이를 토대로 대표산업유산에 대한 예시적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인천 가치 창출을 위한 자연자산 가치제고 방안」(권전오)은 자연자산과 관련된 자료(인천환경백서, 자연환경조사자료, 환경부 조사자료 등)를 종합하여 자연자산 유형분류에 따라 정리하고, 자연자산의 현황과 연계된 각종 활용사례, 추가적인 활용방안, 가치화 방법 등 자연자산 가치 제고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인천 도시가치발굴 시민설문조사」(최영화)는 인천의 도시 이미지와 보유자원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조사를 통해 다양한 가치자원들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를 분석하고, 설문조사 결과에 부합하는 인천 가치자원의 활용 방안을 도출한 연구이다. 인천시 10개 구·군에 거주하는 만16세 이상 인천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면대면 조사를 시행했으며, 조사내용은 6개 분야에 걸쳐 25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연구의 구성

구분	주제	주요내용	담당
총론(방법론)	인천의 도시 자산 현황 분류체계 및 가치화 방안	- 도시가치 자산의 개념과 유형 - 가치 자산의 평가기준 - 가치자산의 재창조 기본 방향	김창수
기초조사	인천시 도시가치자산 목록 작성 및 평가 [2]	- 유형별 자원 기초 조사 (5천건 이상) - 자원가치 가치 평가 - 자원유형별 주요자원 목록 작성 (주요자원 100건 내외)	김창수
	인천 가치/정체성 시민 의식 조사 [3]	- 인천 가치(대상,인지도,가치화 방법) - 인천 정체성 (정주의식,자부심,비전) - 수도권 주민 인천 의식 실태 (200)	최영화
분야별 연구	인천시 무형문화재 활용방안	- 문화재, 역사적 사건과 장소 평가 - 가치화 사례 및 기본 방향 - 대표사업 제안	최영화
	인천의 자연 자산 가치 제고 방안	- 자연 자원 유형별 가치평가 - 자원활용 축제, 브랜드화 현황 평가 - 자연 자원 활용 가치화 방안	권전오
	인천 근대 건축 자산 조사 기초연구	- 건축자산 보전 활용제도 검토 - 건축자산 개념, 조사기준 및 유형화 - 건축자산진흥제도 도입 대응방안	조상운
	인천의 인적 자산의 가치 활용 전략	- 국내외 도시 인물 자원 활용사례 - 역사 인물 현황과 활용방안 - 활동 인물 현황과 활용방안	채은경
분야별 연구	인천 산업 유산의 가치화	- 국내외 산업유산활용사례 - 산업유산 현황과 유형화 - 대표 산업유산 활용 방안	정지원
	인천 화교 역사·문화 자산 조사 및 활용 방안	- 인천화교 역사 · 문화 자원 현황 - 인천 차이나타운 활용 현황 및 명소화 방안 - 화상국제네트워크 현황 및 활용	김수한
결론	결론 및 정책 제안 종합	- 분야별 정책제안 종합	김창수

2 인천시 도시 자산을 '역사자원', '문화자원', '경제자원', '자연자원', '인적자원'으로 유형화하고 정형화된 형식으로 목록작성 (도시인문학센터 보유자료 및 「인천도시재생전략연구」 기초조사 결과 보완)

3 인천 시민 (및 외지인) 대상으로 ① 인천 연상 이미지·상징물(시 상징물포함), 시민 선호 장소·건축물·관광지·축제·행사·문화유적·역사적 인물·역사적 사건, 인천 특산물, 인천 자연 환경과 동식물, 음식물 등을 면접 조사함. ② 인천가치에 대한 시민 의견조사: 대표가치 자원, 집중개발 자원, 잠재 가치자원, 가치자원 추천 (주관식)



인천항 파노라마



Ⅱ

인천의 도시자산 현황과 분류체계

1. 도시자산의 개념 및 분류체계
2. 자산 평가 및 대표자산 현황
3. 도시자산 가치화방안



1920년대 인천항 세관 앞

인천의 도시자산 현황과 분류체계

김창수 도시경영연구실 선임연구위원

1. 도시자산의 개념 및 분류체계

1) 도시자산의 개념

○ 도시자산은 '도시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가치자원'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 해당 도시의 지리·환경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4]

○ 도시자산의 유사개념은 지역자원, 장소자산, 지역유산, 산업유산, 사회자본, 문화관광자원, 브랜드자산, 어메니티 등이 있음.

- 지역자원: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는 것들(사람, 장소, 조직 등)
- 장소자산: 의미가 부여된 공간으로서 특정 환경 속에서 사람과 환경이 상호관계를 통해 체득할 수 있는 물리적·문화적 모든 활동과 경험을 뜻하며, 시간 속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지리적 바탕
- 지역유산: 문화유산과 어메니티 자원을 포괄하는 개념. 기성도시 혹은 농촌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역사, 경관, 생활상 등) 시설 및 활동, 시설(기초생활시설, 생산시설 등), 사회(공동체 활동, 경제활동 등) 활동 등. 물리적 공간정비, 사람의 생활, 이야

4 도시자산은 지역자산과 유사한 개념으로 지역자산의 개념과 유사개념, 분류체계 등은 다음의 논의를 참고하였음. 이왕건·박태선·박정은·류태희·이유리(2011), 「지역자산 활용형 도시재생 전략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pp. 42-43.

기, 문화가 함께하는 개념

- 산업유산: 실용적 차원에서의 지역자산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산업과 관련된 근대기에 형성된 유산을 말하기도 함.
- 사회자본: 국가·지역·조직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구성원간의 신뢰·규범·참여·네트워크 등을 기본으로 한 인간관계 속에 존재하는 무형의 자산
- 문화관광자원: 지역문화자원이란 국토의 부분공간 단위 안에서 구조적으로 독자성과 응집력을 지닌 지리·역사·경제·사회·정치·문화 등의 지역내 자원
- 브랜드자산: 지역 브랜드로 인해 추가된 지역의 상품적 가치로서 사람들이 지역에 느끼는 전체적인 호감도
- 어메니티: 지역 고유의 장소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움, 쾌적함, 즐거움, 건강함, 풍요로움, 친밀감 등 인간에게 긍정적인 감성과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환경적 요소

○ 도시자산(City Asset)은 '지역자산(Local Asset, Regional properties)'과 가장 유사한 개념임.[5] 연구자에 따라, 지역자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6]

- 이왕건 외(2011): 지역자산이란 사업의 공간적 범위가 되는 특정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유·무형의 자산을 말함.
- 임순정 외(2014): 자산기반 접근방법은 공동체의 자산을 가지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개인, 조직, 기관의 사회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 지역역량을 강화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지속가능한 접근방법을 말함.
- Kretzmann and Mcnight(1993): 지역자산이란 지역 내 주민(개인)·조직(단체)·기관의 기술·강점·역량을 말함.
- Mayer(1994): 지역자산이란 지역의 강점에 기반한 커뮤니티의 활동과 자원, 기술의 복합적인 요소로서 지역 문제해결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함.
- Fuller et al. (2002): 지역자산이란 지역주민이 후손을 위해 지키고 싶은 기반으로 두고 싶은, 유지하고 싶은 것이자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 널리 공유·인식되는 속성을 말함.
- Green and Haines(2012): 지역자산이란 지역주민·단체·커뮤니티 전체가 가난·불평등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특정한 자원이자 세대를 아울러 공유, 개발될 수 있는 스톡(stock)을 말함.

5 학계에서는 '지방'이라는 단어가 중앙을 상정하고 있어 도시를 위계서열적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지역'이라는 용어를 폭넓게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지역'도 '지방'과 함께 혼용되고 있어 중앙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표현하는데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는 '도시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함.

6 이선영·남진(2015), "도시재생수단으로서 지역자산의 의미와 활용실태 분석", 「국토계획」, 50(3), p. 128.

○ 이상을 종합하면, '도시자산'은 도시가 보유한 역사·문화·자연·산업·경제·인적 자원을 말하며, 특히 타도시와 비교하여 고유성과 특성이 두드러지고, 질적·양적 우월성이 있는 자원을 말함. 또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자부심, 외지인들이 바라보는 긍정적 요소와 매력도 도시자산이 될 수 있음.

2) 도시자산 유형 및 분류체계

(1) 도시자산의 유형

○ 도시자산은 형태에 따라 유형자산(물리적 자산)과 무형자산(비물리적 자산)으로 구분됨. 유형자산에는 건축물, 가로, 장소자산, 자연환경, 산업유산, 물리적 시설 등이 있고, 무형자산에는 문화·예술·관광자원, 사회적 자산(인적자산, 이미지 브랜드)이 있음. 경제적 자산은 유무형이 혼합된 자산으로 현실적으로 가치를 재생산하고 있는 자산임.

○ 도시자산은 연구목적에 따라 여러 유형이 있으나, 자산의 종합적 유형구분은 '문화적 자산, 사회적 자산, 자연적 자산, 구조적 자산, 경제적 자산'으로 구분하는 것임.

○ Kretzmann & Mcknight(1993): 개인자산, 기관자산, 물리적 자산.

- 영국 정부기관 DIFD(1999)의 SLA(SustainableLivelihoods Approach): 인적자산, 자연자산, 금융자산, 물리적 자산, 사회적 자본
- 이왕건 외(2011): 문화적 자산, 사회적 자산, 자연적 자산, 구조적 자산, 경제적 자산
- 이연숙(2013):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7]

도시자산의 유형



7 이연숙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국토해양부 R&D 도시재생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3년간의 실증적인 테스트베드를 통하여 재생사업을 실행해왔고 이때 재생사업을 위해 활용된 지역의 자원을 이러한 3가지로 유형화하여 여러 자원들을 네트워킹하여 실행하였다. 도시재생사업단(2013), 전주테스트베드 7차년도 연구보고서에서 인용하였음.

(2) 도시자산의 요소

○ 도사자산의 유형은 문화적 자산, 사회적 자산, 자연적 자산, 구조적 자산, 경제적 자산으로 구분됨. 각 유형에 따른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문화적 자산

○ 역사적 자산: 유형문화재, 역사적 사건, 산업유산(폐철도, 폐공장, 폐염전), 기록유산, 국방유적, 문학산성, 고인돌, 강화 고려궁지 등

○ 예술적 자산: 문학(시·소설·수필), 음악, 연극, 미술, 공예작품 등

○ 관광적 자산: 명승지(섬), 유원지, 공원, 축제, 포구(소래·화수·북성), 장시(場市), 특화거리, 체험마을 등

■ 사회적 자산

○ 인적자산: 무형문화재, 역사적 인물, 현존인물(저명예술인, 연예인, 체육선수, 과학자, 정치가)

○ 이미지자산: 개방성, 역동성(성장잠재력 및 미래도시경쟁력), 해양성, 다문화성, 관문성, 산업도시, 항구도시, 개항도시, 짜장면, 소금, 국제기구(GCF등), 최초도시

■ 자연적 자산

○ 장소적 자산: 서해 중심항, 동아지중해 거점, 남북교역 거점, 항공거점, 고속도로, 경인운하, 정서진

○ 환경적 자산: 바다, 갯벌, 섬·다도해, 한남정맥(S자축), 문학산, 청량산, 마니산, 계양산, 점박이물범, 저어새, 소사나무, 플라타너스, 노거수, 굴포천, 소래생태공원

■ 구조적 자산

○ 공간적 자산: 조계지, 차이나타운, 원도심, 개항장 문화지구

○ 시설적 자산: 인천공항, 인천항, 경제특구(송도), 인천대교, 영종대교

■ 경제적 자산

○ 기업체 자산: : 한국지엠(GM Korea), 한진그룹, 포스코, OCI(동양화학)

○ 노동력 자산: IT기술인력, 창조인력 지수

○ 생산물 자산: 자동차, 로봇, 강화 화문석, 인삼, 꽃게, 조기, 민어

도시자산 요소와 예시

구 분	요 소	유형 및 예시
문화적 자산	역사적 자산	유형 문화재, 역사적 사건, 산업유산(폐철도, 폐공장, 폐염전), 기록유산, 국방유적, 문학산성, 고인돌, 강화 고려궁지 등
	예술적 자산	문학(시·소설·수필), 음악, 연극, 미술, 공예 작품 등
	관광적 자산	명승지(섬), 유원지, 공원, 축제, 포구(소래,화수,북성), 장시(場市). 특화거리, 체험마을 등
사회적 자산	인적 자산	무형문화재, 역사적 인물, 현존인물(저명예술인, 연예인, 체육선수, 과학자, 정치가)
	이미지 자산	개방성, 역동성(성장잠재력 및 미래도시경쟁력), 해양성, 다문화성, 관문성, 산업도시, 항구도시, 개항도시, 짜장면, 소금, 국제기구(GCF등), 최초도시
자연적 자산	장소적 자산	서해 중심항, 동아지중해 거점, 남북교역 거점, 항공거점, 고속도로, 경인운하, 정서진
	환경적 자산	바다, 갯벌, 섬·다도해, 한남정맥(S자축), 문학산, 청량산, 마니산, 계양산, 점박이물범, 저어새, 소사나무, 플라타너스, 노거수, 굴포천, 소래생태공원
구조적 자산	공간적 자산	조계지, 차이나타운, 원도심, 개항장 문화지구
	시설적 자산	인천공항, 인천항, 경제특구(송도), 인천대교, 영종대교
경제적 자산	기업체 자산	한국지엠(GM Korea), 한진그룹, 포스코, OCI(동양화학)
	노동력 자산	IT기술인력, 창조인력 지수
	생산물 자산	자동차, 로봇, 강화 화문석, 인삼, 꽃게, 조기, 민어

(3) 도시자산의 분류체계

■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 도시가치 자산은 유네스코 유산(Heritage)의 가치 분류방식에 기초하여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을 분류의 기본 틀로 설정함.

○ 인천광역시의 특성에 맞춰 역사문화자산, 기록자산, 무형문화자산, 산업자산, 경제자산, 자연자산, 인적자산의 7개 유형으로 분류함.

■ 계층별 구조

○ 도시가치 자산 분류의 기본 구조는 대·중·소분류로 정리함.

총 자산 현황

대분류	수량	중분류	수량	소분류	수량
역사문화자산	1,083	건조물	449	사회·생활	114
				정치·행정	31
				치안·군사	144
				종교·무속	136
				학술·교육	15
				기타	9
		장례	191	무덤	164
				사당·정려	25
				기타	2
		회화	30	종교·무속	19
				인물	11
		조각·공예	49	사회·생활	11
				종교·무속	21
				문화·예술	17
		유물·유적 분포지	286	유물분포지	240
				유적추정지	46
		사건	19	사회·생활	6
				정치·행정	5
				교통·물류	3
				기타	5
		문화기반시설	59	공연장	36
				경기장	6
				박물관	17
기록자산	585	문헌류	41	전적	23
				문서	18
		금석문	89	비석	33
				탁본	56
		도면·회화	197	도면	168
				지도	29
기록자산	585	미디어	258	사진	240
				영상	18
무형문화자산	2,103	구전	1,861	구비문학	766
				언어전승	1,095
		공연예술	156	음악	152
				무용	2
				종합연희	2
		관습·축제	86	신앙	37
				전통지식	2
				축제	47
산업자산	176	건조물	104	생산시설	18
				저장시설	17
				상업·금융시설	69
		산업기반시설	38	교통·물류	34
				토목·관개	4
		산업생활	34	주거시설	34
				유통공간	2

경제자산	398	시장·상가	75	시장	57
				상가	18
		기업·상점	49	기업	42
				상점	7
		관광·오락	128	특화거리	39
				숙박	89
		경제기반시설	146	철도	31
				항만	8
				어항	91
				산업단지	12
				기타	4
자연자산	1,444	지질·지형	687	섬	158
				해저지형	172
				해안	56
				하천	40
				습지	3
				산지	258
		생물	383	조류	141
				동물	37
				식물	205
		자연경관	374	대기	28
				해양	2
				지질	2
				공원·녹지	306
				길	36
인적자산	318	역사인물	256	문화·체육	21
				정치·관료	183
				학술·교육	20
				종교·무속	12
				치안·군사	6
				사회·언론	5
				기업·전문직업인	9
인적자산	318	현대인물	62	문화·체육	25
				종교·무속	4
				사회·언론	22
				기업·전문직업인	11
총계	6,107				

■ 역사문화자산

○ 역사문화자산의 분류체계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분류법, 문화재청의 유적건조물·유물 분류법, 국립민속박물관 용도·기능별 소장품 분류법을 참고하여 7개의 중분류 체계를 설정함. 중분류는 형태, 소분류는 용도를 나타냄.

역사자산의 분류체계

구분	내용						
중분류	건조물	장례	회화	조각공예	유물·유적 분포지	사건	문화 기반시설
소분류	• 사회·생활 • 정치·행정 • 치안·군사 • 학술·교육 • 기타	• 무덤 • 사당·정려 • 기타	• 종교·무속 • 인물	• 사회·생활 • 종교·무속 • 문화·예술	• 유물분포지 • 유적추정지	• 사회·생활 • 정치·행정 • 교통·물류	• 공연장 • 경기장 • 박물관

■ 기록자산

○ 기록자산의 분류체계는 유네스코기록유산 분류법, 문화재청 기록유산 분류법, 국가기록원 기록물 보유 통계 등을 참고하여 4개의 중분류 체계로 설정함. 중분류는 기록방식, 소분류는 기록물의 형태를 말함.

기록자산의 분류체계

구분	내용			
중분류	문헌류	금석문	도면·회화	미디어
소분류	• 전적 • 문서	• 비석 • 탁본	• 도면 • 지도	• 사진 • 영상

■ 무형문화자산

○ 무형자산의 분류체계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분류법,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분류법, 위키피디어 무형유산지식백과 분류법, 중국 국가급 빗물질문화유산 분류법 등을 참고하여 3개의 중분류 체계로 설정함. 중분류는 전승형태, 소분류는 표현 형태를 말함.

무형문화자산의 분류체계

구분	내용		
중분류	구전	공연·예술	관습·축제
소분류	• 구비문학 • 언어전승	• 음악 • 무용 • 종합연희	• 신앙 • 전통지식 • 축제

■ 산업·경제자산

○ 산업자산의 분류체계는 니즈니 타길 헌장, 일본 경제성 근대화산업유산군, GICS 산업분류체계의 산업군 분류법 등을 참고하여 3개의 중분류 체계로 설정함[8]. 산업자산의 분류기준은 중분류는 생성 목적, 소분류는 용도임. 경제자산은 산업자산의 분류 체계를 참고하여 현재 운영중인 자산을 기준으로 시장·상가, 기업·상점, 관광·오락, 경제기반시설의 4개 중분류 체계로 설정함.

산업·경제자산의 분류체계

구분	내용		
중분류	건조물	산업기반시설	산업생활
소분류	• 생산시설 • 저장시설 • 상업·금융시설	• 교통·물류 • 토목·관개	• 주거시설 • 유통공간

■ 자연자산

○ 자연자산의 분류체계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분류법,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및 명승지 분류법, SEEA : Asset accounts의 환경자산 분류법 등을 참고하여 3개의 중분류 체계로 설정함. 분류기준은 중분류는 자연성·기념성, 소분류는 자연계의 사물·현상임.

자연자산의 분류체계

구분	내용		
중분류	지질·지형	생물	자연경관
소분류	• 섬 • 해저지형 • 해안 • 하천 • 습지 • 산지	• 조류 • 동물 • 식물	• 대기 • 해양 • 지질 • 공원·녹지 • 길

8 2003년 러시아 니즈니 타길(Nizhny Tagil)에서 개최된 국제산업유산보존위원회 총회에서 채택한 니즈니 타길 헌장에서는 산업유산을 “역사적, 기술적, 사회적, 건축학적, 또는 과학적 가치가 있는 산업문화의 유물로 이루어진다”고 정의함. 구체적인 예로 “건물, 기계, 공방 및 제조소, 광산 및 처리 정제장, 창고 및 저장고, 에너지를 제조하고 전달하고 소비하는 장소, 수송과 그 모든 것의 인프라, 그리고 주택, 종교예배, 교육 등 산업에 관한 사회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장소’ 등을 열거함.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산업유산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지만 위 개념이 가장 포괄적이고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음.

■ 인적 자산

○ 인적자산의 분류체계는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의 인물 분류법,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조선일보 인물DB 등을 참고하여 2개의 중분류 체계로 설정함. 분류기준은 중분류는 생존 여부, 소분류는 활동 분야임.

인적자산의 분류체계

구분	내용	
중분류	역사인물	현대인물
소분류	• 문화·체육	• 정치·관료 • 학술·교육 • 종교·무속 • 치안·군사 • 사회·언론 • 기업·전문직업인

2. 자산 평가 및 대표자산 현황

1) 자산평가

(1) 평가기준

○ 인천의 도시적 특성과 고유성을 지니고 있는 자원 가운데, 대중적 매력도, 미래성, 보편성 가치 등에 부합하는 자원을 주목해야 함.

○ 인천가치 자원은 타 시도에 비해 다양한 풍부한 편임. 이 가운데 실현가능성(경제성)도 고려해야 함.

○ 도시재생사업이나 관광 문화 분야의 기존 추진사업과의 연계성도 특별히 고려해야 함.

가치자원의 평가기준



평가기준 비교

인천 가치 재창조 사업	인천 도시재생 기초 자원 조사	유네스코	비고
고유성	경제성	탁월한 보편적 가치	보편성(탁월성, 매력) 완전성(제반 요소의 구비), 진정성(본래가치 보유, 보존) + 실현성(재현, 복원, 활용 가능성)
보편성	스토리텔링	완전성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제반 요소 보유)	
미래성	회복력	진정성 (본래 가치 보유)	
매력도	차별성	보호 및 관리체계 (법적, 행정적 보호 제도)	
실현성	연계성	-	

■ 인천가치·인천도시 자원 평가 지표(공통)[9]

○ 인천의 도시가치 자산의 평가지표는 보편성과 완전성, 진정성, 보호 및 관리체계의 유무를 강조하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평가기준을 토대로 설정하였으며, 도시가치의 경우 도시브랜드 및 특화 가능성인 '고유성'이 중요하므로 이를 별도의 지표로 추가하여 4대 지표를 설정하였음.

평가지표	평가내용	비고(척도)
고유성	도시 대표성, 희소성, 도시 특화 가능성	25점
보편성	탁월성과 매력도, 국제성 여부, 미래가치 보유 여부	25점
진정성	고유가치 보존 여부(훼손, 변경 여부)	25점
실현성	재현, 복원, 다양한 활용 가능성	25점
합계		100점

(2) 대표자산 현황(예시)

■ 역사문화자산

○ 역사문화자산의 대표사례는 청일조계지경계계단, 인천답동성당, 홍예문, 용동권번 계단, 문학산성, 원인재, 청학동 외국인묘지, 부영공원 땅굴, 계양산성, 검단 대곡동 지석묘군,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연미정, 교동읍성, 충민사로 나타남.

9 도시자원 평가지표는 분야별 공통지표로서, 연구분야별로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도 있음.

역사문화자산 대표(예시)

번호	항목명	지정현황	주소	비고
1	청일조계지경계계단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51호	중구 관동 1가 24	-
2	인천 답동성당	사적 제287호	중구 답동 3-1	-
3	홍예문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9호	중구 송학동 3가 20	-
4	용동 권번 계단	-	중구 용동 228	-
5	문학산성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1호	남구 문학동 산27-1	-
6	원인재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제5호	연수구 연수동 584	-
7	청학동 외국인 묘지		연수구 청학동 53	
8	부영공원 땅굴		부평구 산곡동 산20	
9	계양산성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10호	계양구 계산동 산10-1	-
10	검단 대곡동 지석묘군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33호	서구대곡동 123-1	-
11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사적 제424호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250	-
12	연미정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4호	강화읍 월곶리 242	-
13	교동읍성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23호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577	-
14	충민사	옹진군 향토유적 제1호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산9-1	

■ 기록자산

○ 기록자산의 대표사례는 각국조계석, 경고비, 강화 사기리 선두포 비석군, 암행어사 이건창 영세불망비, 참성단 중수비, 양헌수 승전비, 인천해관문서, 인천향교 앞 석비군, 김상용 순절비, 최분도 신부공덕비 임.

기록자산 대표(예시)

번호	항목명	지정현황	주소	비고
1	각국조계석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제4호	연수구 옥련동 405-55	시립박물관 내
2	경고비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836	-
3	강화 사기리 선두포 비석군	-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 선두포 62	-
4	암행어사 이건창 영세불망비		강화군 북도면 모도리 158	-
5	참성단 중수비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13호	강화군 화도면 흥왕리 산42-1	-
6	양헌수 승전비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36호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42	-
7	인천해관문서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20호	동구 화수동 140-60	
8	인천향교 앞 석비군		남구 문학동 349-2	
9	김상용 순절비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35호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416	
10	최분도 신부 공덕비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 산134-30	

■ 무형문화자산

○ 무형문화자산의 대표 사례는 애국지사 심혁성, 허암 정희량의 은둔생활, 봉산탈

춤, 은율탈춤,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 선단여이야기, 손돌목 전설, 천마산 마제봉, 어망에 걸린 인어, 왕대나무를 모신 서낭당임.

무형문화자산 대표(예시)

번호	항목명	지정현황	주소	비고
1	애국지사 심혁성		계양구 장기동 139-1	
2	허암 정희량의 은둔생활		서구 검암동 산61-5	
3	봉산탈춤	중요무형문화재 제17호	부평구 일신동 412	
4	은율탈춤	중요무형문화재 제61호	남구 숭의동 7-6	
5	서해안배연신굿및대동굿	중요무형문화재 제82-2호	남구 문학동 349-8	
6	선단여 이야기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 산30	
7	손돌목 전설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산125	
8	천마산 마제봉		계양구 효성동 산67-1	
9	어망에 걸린 인어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	
10	왕대나무를 모신 서낭당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산145	

■ 산업자산

○ 산업자산의 대표사례는 한국철도 최초 기공지, 구) 현대극장, 미츠비시 사택군, 산곡동 87-95번지 일대주택, 조양직물 건물, 동일방직 의무실, 구) 현대상가, 구) 송도역사, 조병창 및 캠프마켓 철로, 주인선, 소청도 등대임.

산업자산 대표(예시)

번호	항목명	지정현황	주소	비고
1	한국철도 최초 기공지		남구 숭의동	
2	구) 현대극장		동구 송림동 55-4	
3	미츠비시 사택군		부평구 부평동 760-232	
4	산곡동 87-95번지 일대 주택		부평구 산곡동 87-95	
5	조양직물 건물		강화군	
6	동일방직 의무실		동구 만석동 37-2	
7	구) 현대상가		동구 송림동 55-47	
8	구) 송도역사		연수구 옥련동 302	
9	조병창 및 캠프마켓 철로		부평구 부개동·산곡동 일대	
10	주인선		남구 숭의동 440	
11	소청도 등대		옹진군 대청면 소청2리 811	

■ 경제자산

○ 경제자산의 대표사례는 강화사자발약쑥, 강화인삼,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부평), 북성포구, 화수부두, 연안부두, 신포국제시장, 배다리 헌책방 골목, 부평문화의 거리, 부평대아지하도상가 임.

경제자산 대표(예시)

번호	항목명	지정현황	주소	비고
1	강화사자발약쑥		강화군	
2	강화인삼		강화군	
3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부평)		부평구, 계양구	
4	북성포구		중구 북성동	
5	화수부두		중구 화수동	
6	연안부두		중구 항동	
7	신포 국제시장		중구 신포동	
8	배다리 헌책방 골목		동구 금곡동	
9	부평 문화의 거리		부평구 부평동	
10	부평대아지하도상가		부평구 부평동	

■ 자연자산

○ 자연자산의 대표사례는 한월리 해수욕장, 실미도 바다갈라짐, 강화 마니산 일몰, 웅진 소청도 스트로마톨라이트 및 분바위, 백령도 점박이 물범 서식지, 옹진 백령도 두무진, 옹진 백령도 남포리 콩돌해안, 장수동 은행나무, 굴업도, 서포리 산림욕장임.

자연자산 대표(예시)

번호	항목명	지정현황	주소	비고
1	한월리 해수욕장		옹진군 덕적면 문갑리	
2	실미도 바다갈라짐		중구 무의동	
3	강화 마니산 일몰		강화군 화도면 흥왕리 산42-1	
4	옹진 소청도 스트로마톨라이트 및 분바위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산55-3	
5	백령도 점박이 물범 서식지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167	
6	옹진 백령도 두무진	명승 제8호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255-1	
7	옹진 백령도 남포리 콩돌해안	천연기념물 392호	옹진군 백령면 남포2리 31	
8	장수동 은행나무	인천시 기념물제12호	남동구 장수동 63-2	
9	굴업도		옹진군 덕적면 굴업리 산14	
10	서포리 산림욕장		옹진군 덕적면	

■ 인적자산

○ 인적자산의 대표사례는 고유섭, 기형도, 박두성, 비류, 심혁성, 어재연, 이경성, 이규보, 이승훈, 임경업, 조봉암임.

인적자산 대표(예시)

번호	항목명	지정현황	주소	비고
1	고유섭		중구 용동 137	
2	기형도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604-4	
3	박두성		강화군 교동면 상룡리	
4	비 류		남구 문학동 산27-1	
5	심혁성		계양구 장기동 139-1	
6	어재연		강화군	
7	이경성		중구	
8	이규보		강화군 길상면 길직리	
9	이승훈		남동구	
10	임경업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산9-1	
11	조봉암		강화군	

3. 도시자산 가치화방안

1) 인천 도시자산의 특성

■ 해양 다문화 도시

○ 인천은 해양성이란 지리적 이점을 기초로 국제적 항구도시로, 근대 산업도시로 발전해왔음. 그 과정에서 시민들은 전통적인 지방도시와 달리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심성을 갖게 되었으며, 융합적인 문화 전통이 개항이후에 형성되었음. 인천의 도시 정체성은 해양성에 기초한 국제성, 개방성, 융합성(역동성)으로 개괄할 수 있으며, 이는 '해양 다문화 융합도시'라 요약할 수 있음.[10]

인천 도시 자산의 특성



10 자장면은 인천문화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자산임. 자장면의 재료는 중국에서 왔지만, 우리의 입맛에 맞게 재탄생하여 현재 전 국민이 즐기는 '국민음식'(?)이 되었음. 이 상품은 중국의 식자재와 요리법, 인천의 부두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인천사람들의 미각적 취향, 실험정신을 고무시킨 항구도시 특유의 분위기가 어우러져서 탄생하였음.

■ 인천의 도시경쟁력: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 인천의 도시경쟁력은 교통 인프라와 국제 물류 네트워크 면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음. 인천국제공항 10년 연속 최우수 공항 선정된 바 있으며, 2012년 현재 세계 79개의 항공사가 182개 도시로 취항하고 있음. 인천항은 동아시아 해상 교역의 중심항으로 한국의 남한과 북한, 황해연안의 주요 도시를 비롯한 세계 주요 항구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인천항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항과 남항, 신항의 개발이 완료되면 환황해 최대의 국제항구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임.

■ 인천의 미래가치: 세계2위, 아시아 5대 경쟁력 보유도시

○ EIU는 보고서는 인천의 도시 미래경쟁력은 세계 2위로 평가함. 2025년 인천은 세계 70위에서 세계 43위의 도시로 성장할 것이며,

○ "세계적 수준의 항구, 교통인프라,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가 인천을 동북아시아의 상업·비즈니스·물류·레저 허브로 만들었다"고 평가함.

○ EIU는 또한 2025년 아시아 도시 가운데 가장 경쟁력 있는 5개 도시로 서울, 인천, 타이베이(타이완), 홍콩, 싱가포르로 평가함(2013년 보고서).

2) 자산별 특성과 가치화 전략

○ 인적자산은 역사인물을 중심으로 그 업적과 활동을 평가하여 현재와 미래의 귀감이 될 수 있는 분야별 대표인물을 선정하여 연도별 기념사업을 추진.
(2013년 발간『인물로 보는 인천사』및 구축 데이터베이스 활용)

○ 시민들이 느끼는 자부심이나 어메니티와 같은 이미지 자산은 상대적으로 심리적이며 가변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시민참여 속에 추진.
(베를린 도시 브랜드 슬로건'Be Berlin !'제정 사례 참조[11])

○ 현재 생산 활동의 자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조적 자산'이나 '경제적 자산'은 부차적으로 다루거나 다른 자산과 연계하여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구조적 자산'은 도시의 공간 구조에서 나타나는 특징들로 도시가 지니고 있었던 장점이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 도시계획에 반영되거나 활용된 결과임. 따라서 새로운 과제

11 독일 베를린시는 '시민참여와 쌍방향적인 소통'을 통해 브랜드 슬로건을 정립하였음. 베를린의 도시 슬로건인 "Be Berlin!"은 5년여에 걸친 대시민 캠페인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베를린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고민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도시브랜드 전략과 연결하여 성공하였음.

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나가야 할 대상임)

○ '사회적 자산'의 경우 도시의 구조적이며 추상적 성격을 다분히 지니고 있어 요소별 대상을 파악하거나 특정하기 쉽지 않음.

○ 도시 재창조는 문화적 자산(역사·관광)과 자연적 자산(장소·환경)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여 사회적 자산, 구조적 자산, 경제적 자산을 연계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융합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

3) 자산 가치화의 과정과 방법

■ 자산 가치화의 과정

○ 가치 자원의 조사·발굴·자원 아카이브 구축

○ 가치자원의 수집, 조사, 발굴

- 가치자원을 분류하고 목록작성(assets inventory)
-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구축, 아카이브화

○ 평가와 원자료화(One Source)

- 가치자원 가운데 문화적·경제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유산을 평가 선별함.
- 선별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진, 도판, 기록을 보완하고 고증을 거쳐 멀티미디어 원천 자원화(One Source), 출판 등의 방법으로 공개.
- 재창조(Multi Use)
- 가치자원의 스토리텔링, 콘텐츠화, 가치간 연계 융합, 유휴자원 리모델링, 인천정보 리뉴얼 등의 방법으로 재창조함.

■ 자원 가치화 방법

○ 가치 자원의 스토리텔링

- 장소, 역사, 인물, 관광 자원을 원소스에 기초하되 흥미롭고 인상적으로 스토리텔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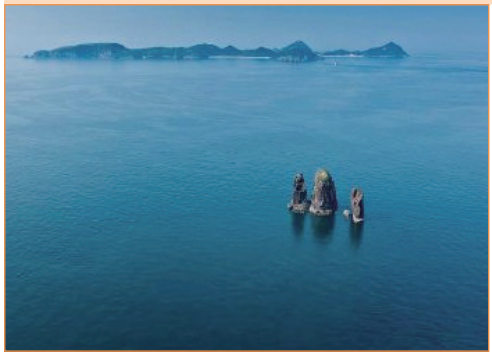
○ 역사 문화 자원의 콘텐츠화

- 비류전설, 백령도의 거타지 설화나 손돌목 전설, 인천 개항기, 산업화 시대의 이야기를 연극이나 뮤지컬을 제작하거나 만화, 게임, 캐릭터를 만들어 판매함.
- 인천 마스코트 잔점박이물범을 다양한 캐릭터로 제작하여 관광상품화함.

○ 가치의 연계와 융합

-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의 연계 : 굴업도 남매바위와 전설의 연계
-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콘텐츠와 융합 : 아름다운 선단여 전설과 비경을 주제로 실경뮤지컬을 첨단미디어 기술인 3D홀로그램을 결합하여 공연하고 이를 섬 관광코스로 개발하고 크루즈 관광 상품화할 수 있음.

선단여와 굴업도





출처: 「변화하는 인천 도시모습」(인천광역시, 2010)

○ 유휴자원(시설) 리모델링
○ 폐철도 폐공장 등 산업유산 활용 복합 문화예술 공간화
○ 폐염전의 생태공원화
○ 인천정보 리뉴얼(바로 알기, 바로 잡기)
○ 인천표준안내제작(인구, 면적, 행정, 자연, 사회, 역사, 문화, 관광, 산업, 비전 등)
○ 잘못 알려진 인천 정보 조사 정정 (공공 민간 홈페이지, 웹사이트 정보 등)

자원 가치화의 방법과 내용

구분	내용	비고
자원 조사 발굴 평가	자원 기초조사, 활용 계획 수립, (디지털화 웹/앱 기반 쌍방향 인천가치 전파)	
스토리텔링	장소, 인물, 역사, 자연자원, 관광자원의 감동적 스토리텔링	
콘텐츠화	문학·미술·음악·연극 등 예술작품화, 브랜드 슬로건 및 이미지 문화상품화(영화, 음악, 뮤지컬, 오페라, 만화, 캐릭터, 게임, 기념품)	
유휴자원 재활용/공간화	산업유산(폐공장) 리모델링, 도시재생 및 경관 조성에 인천가치 접목	
인천정보리뉴얼	인천표준안내서 작성, 인천정보 오류 조사 및 정정 (각종 안내서, 국내외 포털사이트, 위키피디아 등) 각급학교 교과과정에 인천가치 교육도입	

참고문헌

이왕건·박태선·박정은·류태희·이유리(2011), 「지역자산 활용형 도시재생 전략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기윤환(2011), 「인천시 지역고유의 문화자산을 활용한 지역밀착형 도시재생방안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이선영·남진(2015), "도시재생수단으로서 지역자산의 의미와 활용실태 분석", 「국토계획」, 50(3), pp. 123-151.

한상일·김경희(2013), "한국 사회적 기업의 지역자산 활용: 자산기반지역공동체발전 관점에서의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 모색", 「지방행정연구」, 27권 4호, pp.153-180.

인천광역시(2015), 인천가치재창조 추진보고.

인천광역시(2015), 인천가치 재창조 종합 추진계획(안)(내부문서).

인천발전연구원 도시인문학센터(2015), 「인천시 문화산업 특화방안」.

인천발전연구원(2015), 인천가치재창조 사업의 개념과 추진 방향.

글로벌인천미래연구원(2015), 인천의 역사, 문화 그리고 관광.

INCHEON URBAN DESIGN FORUM 2015(2015).

인천문화재단(2015a), 「인천의 문화적 가치 창조」.

인천문화재단(2015b), 『확장도시 인천』.



은율탈춤 인천시 국가 무형문화재



Ⅲ

인천시 무형문화재 활용방안

1. 무형문화재 개념 및 유형
2. 인천시 무형문화재 현황
3. 인천시 시범활용 무형문화재 선정
4. 인천시 무형문화재 가치화 방안



화각 제작과정

인천시 무형문화재 활용방안

최영화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1. 무형문화재 개념 및 유형

1) 무형문화재의 개념

(1) 무형문화재 개념 변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48호, 이하 「무형문화재법」)은 2015년 3월 27일에 제정되어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됨.

○ 과거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3249호)에서는 무형문화재의 개념과 범위가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2015년 3월 「무형문화재법」이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리되고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3964호)이 일부 개정되는 과정에서 무형문화재가 7개의 구체적인 영역으로 구분 및 확장됨.

○「무형문화재법」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으로서 ①전통적 공연 및 예술, ②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③한의약, 농경 및 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④구전 전통 및 표현, ⑤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⑥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그리고 ⑦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함.

(2) 무형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 변화

○「무형문화재법」제3조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삼아야 함을 명시하면서 기존의「문화재보호법」에 없던 '전형(典型)' 개념을 새롭게 도입함.

- 개정 전「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原型)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있어서 해당 원칙을 무형문화재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 적합하지 않았음.
- 학계에서도 원형 보존을 강조하는「문화재보호법」은 기본적 형태 유지와 전승환경의 변화에 따른 변이의 변증법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아 무형문화재의 창조적 계승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옴(한양명, 2006: 563).

무형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 변화

	「문화재보호법」의 원형(原型)		「무형문화재법」의 전형(典型)
사전적 의미	• 같거나 비슷한 여러 개가 만들어져 나온 본바탕	2015년 3월 「무형문화재법」이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리 → 보호의 기본원칙 변화	• 같은 부류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본보기
법령 의미	• 문화재 원 형태		• 해당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유지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고유한 기법, 형태 및 지식을 말함

자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검색 홈페이지(http://www.law.go.kr);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제2조(정의);
네이버 국어사전(http://krdic.naver.com)

○ 무형문화재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고려해 '원형'이 아닌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세운「무형문화재법」의 제정은 국제협약에도 적절하게 대응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2003년 파리에서 개최된 제3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최초의 무형유산 보호 국제협약인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을 채택함.
- 한국은 2005년 2월 열한 번째로 이 협약에 가입했고, 2016년 6월 기준으로 총 169개국이 가입되어 있음.

- 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의 "공동체 및 집단이 환경에 대응하고 자연 및 역사와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성격을 강조하면서,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무형문화유산이 정체성 및 계속성을 갖도록 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조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명시함(유네스코, 2003).

○ 또한 이러한 변화는 원형이 존재하는가 혹은 어떠한 형태를 원형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비지정 무형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새로이 무형문화재로 등재할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무형문화재의 포괄 범주를 합리적으로 넓히는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됨.

2) 무형문화재의 유형

(1) 무형문화재의 7가지 유형

○ 2015년 「무형문화재법」의 제정과 「문화재보호법」의 개정 전까지 무형문화재는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왔기 때문에 무형문화재의 범주와 유형의 구체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음.

○ 2015년의 법 개정과 제정이 이루어진 후, 「무형문화재법」은 무형문화재의 유형을 ①전통적 공연 및 예술, ②공예·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③한의약, ④농경 및 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⑤구전 전통 및 표현, ⑥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⑦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⑧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의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무형문화재의 유형 분류

유형	내용
전통 공연·예술	음악, 춤, 연희, 종합예술, 그 밖의 공연·예술 등
전통기술	공예, 건축, 미술
전통지식	민간의약지식, 생산지식, 자연·우주지식, 그 밖의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언어표현, 구비전승, 그 밖의 구전표현
전통 생활관습	절기풍속,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그 밖의 생활관습
의례·의식	민간신앙의례, 일생의례, 종교의례, 그 밖의 의식·의례
전통 놀이·무예	놀이, 축제, 기예, 무예

자료: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무형문화재를 7개 유형으로 재정의함으로써 한국의 무형문화재 분류는 유네스코 협약에서 구분하는 무형문화재의 유형과 일대일로 대응되지는 않지만 비교 가능한 유형 분류의 체계를 갖추게 됨.

-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에서 명시한 무형문화유산의 유형은 ①무형문화유산의 전달수단으로서 언어를 포함한 구전전통 및 표현, ②공연예술, ③사회적 관습·의식 및 제전, ④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⑤전통공예 기술의 5가지로 구분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협약과 한국 무형문화재법상 무형문화재 유형 비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협약	한국 무형문화재법
①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①구전 전통 및 표현
②공연예술	②전통적 공연 및 예술
③사회적 관습·의식 및 제전	③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 관습 ④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⑤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④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⑥한의약, 농경 및 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⑤전통공예 기술	⑦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 이처럼 「무형문화재법」의 제정은 기존 「문화재보호법」의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국제협약 상 무형문화재 유형 분류와 유사한 체계를 갖추도록 함으로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한국의 무형문화재 등재 가능성을 높인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2)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의 지정기준

○ 「무형문화재법」 제12조 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음.

○ 동법 제32조 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무형문화재로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음.

○ 무형문화재 지정기준도 기존 문화재보호법에서 역사성, 학술성, 예술성, 향토색을 주요 가치로 제시한 데 반해 신법에서는 역사성, 학술성, 예술성, 기술성, 대표성, 전형성의 여섯 가지 기준을 제시함.

- 기존 법에서 새로 추가된 것이 '기술성', '대표성', '전형성'인데, 원형중심주의를 극

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됨.

- 이는 한편으로는 유네스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살아있는 문화유산(living heritage)'이라는 점과 맞닿아 있음.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란 구체적으로는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창조된 것, 공동체에 의해 전승되면서 변화되는 것을 말함(임돈희, 2015: 13).

2. 인천시 무형문화재 현황

1) 국가무형문화재

(1) 국가무형문화재 개념

○ 국가무형문화재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 중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지역 또는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지닌 것,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응하여 세대 간 전승을 통해 그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말함(문화재청 홈페이지).

○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자는 「무형문화재법」에 따라 '명예보유자,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로 구분함.

국가무형문화재 구분

명칭	내용
명예보유자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 -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기간 및 실적 -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및 전수교육 실적 -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보유자	•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
보유단체	•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
전수교육조교	•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

자료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 인천시 국가무형문화재 현황

○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4월 1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총 134개 종목에 492명이 지정되어 전승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음.

○ 인천시는 총 6건의 국가무형문화재를 보유함.

- 구체적으로 궁시장, 은율탈춤, 서해안배연신굿및대동굿, 황해도평산소놀음굿, 완초장, 화각장이 있으며, 부문별로는 '기능'이 3건, '예능'이 3건임.
- 지역적으로는 인천 전역에 2건, 부평구, 남구, 강화군, 남동구에 각1건이 분포.

인천시 국가무형문화재 현황

구분	명칭	소재지	내용
국가 무형 문화재 (6건)	궁시장	부평구	전통 무기인 궁시(弓矢)를 만드는 장인
	은율탈춤	남구	단오, 석가탄신일, 백중놀이 때 행해진 탈춤
	서해안배연신굿및대동굿	인천전역	마을의 평안과 풍어를 기원하는 굿
	황해도평산소놀음굿	인천전역	소처럼 꾸민 무당이 번영을 기원하는 굿놀이
	완초장(莞草匠)	강화군	왕골로 기물을 만드는 사람
	화각장(華角匠)	남동구	쇠뿔을 얇게 갈아 투명하게 만든 판공예가

자료 : 문화재청(http://www.cha.go.kr), 2016.07.06. 검색.

2) 시·도무형문화재

(1) 시·도무형문화재 개념

■ 「무형문화재법」의 시·도무형문화재

○ 시·도무형문화재란 시·도지사가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무형문화재로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문화재 중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무형문화재를 의미함(「무형문화재법」 제6장제32조제1항).

-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로 정함(「무형문화재법」 제6장제31조제1항, 제2항).

- 시·도지사는 시·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할 수 있음(「무형문화재법」 제6장제32조제2항).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제정 및 시행

○ 인천시는 2016년 5월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인천광역시조례 제5656호, 이하 「인천무형문화조례」)를 제정해 시행하는 등 다른 시·도와 비교해 신속하게 「무형문화재법」에 대응하고 있음.

○ 조례 제정을 통해 인천시의 무형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으나 보다 구체적인 정책 시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인천시 시·도무형문화재 현황

■ 인천시 시·도무형문화재 지정 절차

○ 인천시 무형문화재위원회는 인천 고유의 가치를 내포한 무형유산을 인천시무형문화재로 지정 및 활용하기 위해 전국적·보편적인 종목의 신규 지정을 지양한다는 방침을 두고 있음. 따라서 향후 효과적인 무형문화재 보호와 활용을 위해 인천시의 지역성과 무형문화재의 특색이 고려된 정책 이행이 중요함.

○ 위원회는 2016년 2월 회의를 통해 인천시 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인정의 절차를 개선함.

- 기존에는 신청을 통해 문화재 종목지정 및 보유자를 인정하는 소극적인 방식을 취했으나 방침 개선을 통해 지정 종목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함(인천광역시, 2016: 10, 16).

2016년 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인정·지정 절차 개선

(1)	문화재 종목지정 및 보유자 인정 신청	▶	·시 문화재과 접수
(2)	문화재위원회 종목지정 신청서 보고	▶	·부적합 시: 심사부적합 통보 ·종목지정 사전(서면)심사 실시
(3)	문화재위원회 사전(서면)심사 결과보고 종목지정(예정) 및 보유자 등 공모 공고	▶	·보유자·보유자단체 공모신청자 접수
(4)	보유자·보유단체 사전조사위원 선정 신청자에 대한 사전심사 실시	▶	·심사결과 기준점수(80점)이상자 ·심의대상자 시보공고 (30일 이상)
(5)	문화재위원회 심의	▶	·문화재 종목지정·보유자 등 인정여부 결정
(6)	지정·인정가결시 인천광역시 시보 고시	▶	·당사자에 지정(인정)서 교부 ·문화재청, 해당 군·구 통보

■ 인천시 시·도무형문화재 일반 현황

○ 문화재청이 2016년 6월 30일에 집계한 전국 17개 지자체의 시·도무형문화재는 총 550건이며, 인천은 이 중 28건(5.1%)을 보유하고 있음.

- 시·도무형문화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은 전북으로 총 77개의 무형문화재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의 14.0%에 해당함.
- 다음으로 경기(59개, 10.7%) > 전남(58개, 10.5%) > 충남(49개, 8.9%) > 서울(45개, 8.2%) 순이며, 인천은 무형문화재 보유량으로 봤을 때 17개 광역 지자체 중 8순위에 해당해 중위권에 위치함.

○ 총 28건의 인천시 무형문화재는 강화군에 2건, 남구에 24건, 부평구와 서구 각각에 1건씩 분포함.

○ 종목별로는 예능 19건, 기능 7건으로 현재 인천시 무형문화재는 예능 종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기능 종목 무형문화재의 조사와 발굴, 지정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한편, '가곡(남창)-가곡(여창)', '범패와 작법무(바라춤)-범패와 작법무(나비춤)', '대금장-대금장(일반)' 등을 별도의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과도한 종목 세분화는 지양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인천시 무형문화재 현황

종목 번호	명칭(지정일)	지역	명예 보유자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1	삼현육각(1985.10.23)	남구		김석숭	
2	단소장(1990.11.09)	남구		김환중	
3	인천근해 갯가노래 뱃노래 (1988.12.24)	남구	조두영	차영녀, 김병기 차정재, 김정숙	류갑춘, 변성옥, 김귀준, 윤선월, 정건식
4	대금정악(대풍류·대금) (1989.12.28)	남구		진철호	김지용
5	주대소리(1992.05.29)	남구		김필운	유인구, 강방자, 최은순, 이정순
6	대금장(1993.07.06)	남구		임경배	
7-1	가곡(남창)(1995.11.18)	남구		도상구	신삼호
7-2	가곡(여창)(2006.10.30)	남구		김명순	
8	강화 외포리 곶창굿 (1997.07.14)	남구		정정애	고순녀, 강복희, 이기준, 정창신, 김연숙
9	대금장(일반)(2002.02.04)	남구		이정대	
10-1	범패와 작법무(바라춤) (2002.02.04)	남구		김종형	
10-2	범패와 작법무(나비춤) (2002.02.04)	남구		박치훈	우덕환, 우요찬
11	규방다례(2002.12.23)	남구		최소연	최미리, 박광옥
12	강화 용두레질소리(2003.11.10)	강화군		황인범, 황길범	배용만, 고기순
13	자수장(2003.11.10)	남구			김영순
14	단청장(2004.04.06)	남구		정성길	
15	인천수륙재(2004.04.06)	남구		박치훈	
16	인천근해 도서지방 상여소리 (2006.01.23)	남구		박상주	
17	완초장(2008.12.15)	남구		한명자	
18	서곶들노래(2008.12.15)	서구			양선우
19	갑비고차농악(2008.12.15)	강화군		전내익, 임명선	
20	휘모리잡가(2008.12.15)	남구		김국진	
21	경기12잡가(2009.03.30)	남구		이순희	
22	목조각장(2009.03.30)	남구		이방호	
23	판소리·고법(2013.04.30)	남구		조경곤	
24	꽃맞이굿(2013.04.30)	남구		김매물	
25	지화장(2013.04.30)	남구		김은옥	
26	부평두레놀이(2015.03.16)	부평구			

자료: 문화재청(http://www.cha.go.kr), 2016.08.18. 검색.

3) 인천시 무형문화재 지원사업 현황

(1) 인천시 무형문화재 관리 주체

○ 무형문화재의 관리와 활용은 인천시 문화관광체육국 내 문화재과에서 총괄 담당하고 있음.

○ 문화재과는 인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유·무형문화재의 관리 및 활용 전반을 담당함.

- 그러나 문화재 관련 전문 학예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연구와 사업의 기획 및 운영에 한계가 있음.

○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의 속성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발굴·보전·활용을 위한 전략이 별도로 계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도 이들을 따로 관리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형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무형문화재만을 별도로 관리하는 팀을 조직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나 현실적인 방안으로 전문학예사를 문화재과에 배치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의 전문화와 다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2) 무형문화재 지원 사업(2015~2016)

○ 인천시의 '무형문화재 전수학교 운영'은 교육을 통해 무형문화재의 가치 확산과 홍보를 위한 사업이고, '시민과 함께 하는 무형문화재 공연', '인천도호부청사 전통문화 한마당', '규방다례 차행사 지원', '수봉전수관 민속놀이 한마당', '무형문화재 정기공연 및 작품전시 지원'은 무형문화재를 활용한 공연, 전시 및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 사업임.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를 위한 상설공연,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공연과 교육을 통해 무형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이 직접 무형문화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복합적 성격의 사업임.

○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 '무형문화재 특별지원금 지급', '무형문화재 단체 운영지원'은 전승자, 즉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대한 직접 지원이라는 특성을 지님.

인천시 2015~2016년도 무형문화재 주요 지원사업

사업명	내용
무형문화재 전수학교 운영	• 무형문화재가 직접 학교에 출강하여 초·중·고교생들에게 전승교육 실시
시민과 함께 하는 무형문화재 공연	• 요양원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무형문화재가 직접 찾아가는 공연 실시
인천도호부청사 전통문화한마당	• 인천도호부청사 활성화를 위한 전통민속놀이 및 체험교실 운영
규방다례 차행사 지원	• 규방다례 차 문화 행사 지원
수봉전수관 민속놀이 한마당 (2015년에만 실시)	• 전국의 유명한 무형문화재들을 초청하여 수봉전수관에서 공연 실시
무형문화재 정기공연 및 작품전시 지원	• 무형문화재 원형보존과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한 계승·발전을 도모하는 공연 및 작품전시 지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위한 상설공연,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를 위한 공연,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진행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	• 시지정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전수장학생에게 월별지급
무형문화재 특별지원금 지급	• 인천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조교의 입원위로금 및 장례보조금 지급
무형문화재 단체 운영 지원	•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단체종목들의 전통문화보전·전승활동을 위한 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관리비 지원
무형문화재영상기록물 제작	• 무형문화재의 올바른 전승을 돕고 홍보 및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무형문화재 영상기록물 제작

자료 :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내부자료(2016.08.12).

○ 신규사업으로 인천시는 2016년도부터 '꽃맞이굿'(인천무형문화재 제24호)을 시작으로 '무형문화재 영상기록물 제작'을 수행하고 있음.

- 꽃맞이굿의 보유자, 전수조교, 이수자, 전수장학생을 출연시켜 전체 연희와 보유종목별 개인 연기를 영상기록물로 제작하는 사업으로서, 무형문화재의 변질이나 소실에 대비해 올바른 전승을 돕고 전통문화의 우수성에 관한 홍보자료 및 전승활동의 교육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기대됨.
- 비록 인천시의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은 타 지자체에 비해 다소 늦게 시작되었으나 꽃맞이굿 영상기록물 제작을 기점으로 향후 무형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아카이빙 작업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3) 인천시 무형문화재 지원 예산(2015~2016)

○ 인천시가 2015년과 2016년에 시행한 무형문화재 주요 지원사업에 책정한 예산의 증감액을 보면 2016년도에 시행하지 않은 '수봉전수관 민속놀이 한마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산액이 증가함.

인천시 2015~2016년도 무형문화재 주요 지원사업 예산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		
	2015년	2016년	증감
무형문화재 전수학교 운영	25,000	28,000	3,000
시민과 함께 하는 무형문화재 공연	16,000	18,000	2,000
인천도호부청사 전통문화한마당	81,000	90,000	9,000
규방다례 차행사 지원	56,000	70,000	14,000
수봉전수관 민속놀이 한마당	32,000	0	-32,000
무형문화재 정기공연 및 작품전시 지원	148,790	148,800	10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를 위한 상설공연,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69,120	90,000	20,880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	613,287	664,800	51,513
무형문화재 특별지원금 지급	1,200	3,000	1,800
무형문화재 단체 운영 지원	90,300	103,200	12,900
무형문화재영상기록물 제작	0	39,512	39,512
총 계	1,132,697	1,255,312	122,615

자료 :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내부자료(2016.08.12.).

○ 전승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제외한 사업 중 '무형문화재 정기공연 및 작품전시 지원'에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이 사용됨.

- 그러나 해당 사업에 책정된 예산 중 대부분이 예능 종목의 공연 지원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무형문화재의 유형 중 '전통기술', '전통 생활관습', '전통지식' 등은 공연을 통한 가치 확산이 어려운 분야인 만큼 무형문화재의 진흥을 위해 보다 다양한 사업이 구상될 필요가 있음.

(4) 인천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및 전수교육관 현황

■ 전승지원금 지원

○ 아래 표는 2016년 시·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의 지역별 현황임.

○ 인천광역시의 경우 보유자에 1,000천원, 전수교육조교에 500천원, 전수장학생에 200천원, 명예보유자에 800천원의 전승지원금을 지급함.

- 타 지역과 비교해 보면,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그리고 충청남도의 지급 수준보다는 낮고 강원도와는 비슷한 수준임. 또 명예보유자에 지급되는 금액은 명예보유자 인정자가 없거나 명예보유자 인정제도가 없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음.
- 전수교육조교에 대한 지급액은 부산광역시를 제외하고는 높은 수준이고 전수장학생에 대한 지급액은 타 지역과 비교해 가장 많음.
- 이를 통해 인천광역시의 전승지원금의 지급 원칙이 무형문화재의 지속가능한 전승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음.

무형문화재 심의 보류 및 신규신청 종목 현황 (단위:천원)

시·도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전수장학생	명예보유자	보유자후보	보유단체	공개행사 지원금
문화재청	일반종목 1,317 취약종목 1,710	일반종목 660 취약종목 921	263	1,000	-	A등급 : 4,200 B등급 : 3,700 C등급 : 3,200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 4,700	개인종목 : 7,000 단체종목 :11,000~21,000
서 울	1,200	500	150	1,000	-	보유자 있는 보유단체 : 800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 1,000	기능종목 : 2,000 예능종목 : 4,000 단체종목 : 8,000~10,000
부 산	1,250	600	200	1,000	800	전승지원금 없음	종목별 : 3,000
인 천	1,000	500	200	800	-	350	기능종목 : 2,400 연주,가곡종목 : 5,600 단체종목 : 6,400 굿종목 : 7,200
대 구	900	400	130	인정자 없음	-	700	개인종목 : 6,300 단체종목 : 10,400
광 주	900	400	130	인정자 없음	-	500	예능개인 : 17,500(합동) 공예개인 : 17,500(합동) 단체종목 : 5,000

대 전	800	전수교육 조교 제도 없음	100	명예 보유자 제도 없음	350	전승지원금 없음	개인종목 : 41,350(합동) 단체종목 : 3,000
울 산	700	400	선정자 없음	인정자 없음	-	일산동당제 : 700 옹기장 : 4,500	지원금 없음
세 종	900	선정자 없음	선정자 없음	인정자 없음	-	단체종목 지정 없음	개인종목 : 4,000
경기도	1,200	500	선정자 없음	인정자 없음	-	800	'15년 미확정(3~4월 확정)
강원도	개인종목 1,200 단체종목 1,000	개인종목 600 단체종목 500	200	개인종목 1,200 단체종목 1,000	-	900	개인종목 : 2,000 단체종목 : 3,500
충 북	900	400	150	인정자 없음	-	900	기능종목 : 1,800 예능종목 : 2,000 단체종목 : 4,000 ~ 4,600 합동행사 : 30,000
충 남	1,100	500	선정자 없음	인정자 없음	-	전승지원금 없음	개인종목 : 2,400 단체종목 : 7,500
경 북	900	350	100	900	-	800	개인종목 : 1,800 단체종목 : 4,800
경 남	800	전수교육 조교제도 있으나 전승지원금 없음	선정자 없음	인정자 없음	350	600	개인종목 : 1,520 단체종목 : 2,200
전 북	800	400	200	800	-	600	개인종목 : 2,500 단체종목 : 3,400
전 남	800	350	100	인정자 없음	-	500	개인종목 : 1,900 단체종목 : 3,900
제주도	700	300	150	인정자 없음	-	1,000	개인종목 : 2,000~4,000 단체종목 : 1,500

자료 :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내부자료(2016.08.12.).

■ 전수교육관 현황

○ 인천시는 2014년 8월부터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을 운영하는 등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가치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2014년 1월 제정된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인천광역시조례 제5320호)는 전수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을 ①무형문화재 기능·예능을 위해 전수, 전시 및 교육, ②무형문화재 후계자 양성 및 공연 활동, ③무형문화재 기능·예능 보존을 위한 연구·조사·발굴 및 홍보, ④무형문화재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⑤무형문화재 계승 발전 및 문화예술을 위한 사업 운영, ⑥그 밖에 전수교육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업 시행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 시의 전수교육관 수는 총 2개소(남구, 서구)로, 남구의 전수교육관은 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구의 전수관은 서구에서 운영하고 있음.

- 전수교육관에는 여러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가 입주해 교육, 체험 및 전시, 공연 및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수교육관이 직접적으로 보유자들을 지원하고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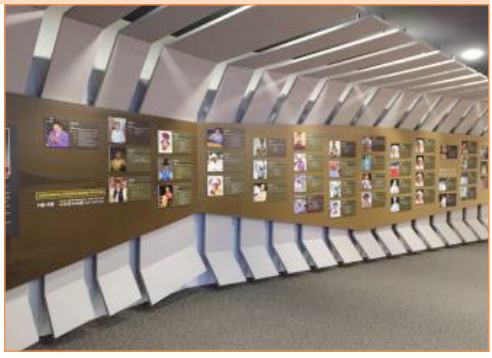
○ 남구에 위치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로 2014년에 개관하여 2015년부터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음.

- 2016년에는 '전통문화예술 교육·체험' 강좌를 상·하반기에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토요 전통문화예술 시연 및 무료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함.
- 학생들이 방학 및 주말을 활용해 무형문화재를 체험해볼 수 있도록 '여름방학 가족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무료체험교실'과 토요상설공연 및 특별기획공연을 운영.

○ 전수교육관은 3층 건물로 무형문화재 연습실과 작업실, 기획 및 상설전시실, 홍보관으로 구성되며, 그 외 별관으로 전통문화체험관과 야외공연장이 있음.

인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출처 : 연구자 직접 촬영(2016.08.31.)

○ 전수교육관 운영의 문제점

- 전문 학예인력 부재로 일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신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움. 현재는 인천시 문화재과 소속 공무원이 파견되어 프로그램 계획 및 교육관 운영을 담당하고 있음.
-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무형문화재가 함께 입주해 있고 지원 상 격차가 있어서 무

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 입주자들 간 갈등의 소지가 있음.

- 입주자들이 전수교육관에 상주하지 않아 작업실이 닫혀있는 경우가 빈번하여 방문자들의 관람 및 체험에 제약이 있음.
- 그 외에 전시관의 항온항습 시스템 미비로 전시된 목공예품에 손상이 가는 일이 있었으며, 대공연장 시설 설비의 부적합으로 인해 좋은 공연을 상연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시설 보완이 필요함.

○ 전수교육관의 향후 추진사업계획

-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인천공항에 인천무형문화재 공예품 판매 공간 마련을 건의할 예정임.
- 2017년 무형문화재대전에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3. 인천시 시범활용 무형문화재 선정

1) 시범활용 무형문화재 선정기준 및 방법

(1) 선정기준

■ 인천 도시자원 가치 평가 원칙

○ 인천의 도시적 특성과 고유성을 지니고 있는 자원 가운데, 대중적 매력도, 미래성, 보편성 가치 등에 부합하는 자원에 주목함.

○ 인천가치 자원 가운데 실현가능성(경제성), 도시재생사업이나 문화관광 분야의 기존 추진사업과의 연계성도 특별히 고려함.

■ 인천 도시자원 가치 평가지표(공동)

○ 인천의 도시가치 자산의 평가지표는 보편성과 완전성, 진정성, 보호 및 관리체계의 유무를 강조하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평가기준을 토대로 설정하였으며, 도시가치의 경우 도시브랜드 및 특화 가능성인 '고유성'이 중요하므로 이를 별도의 지표로 추가하여 4대 지표를 설정함.

인천 도시자원 가치 평가지표

평가지표	평가내용	척도
고유성	도시 대표성, 희소성, 도시 특화 가능성	25점
보편성	탁월성과 매력도, 국제성 여부, 미래가치 보유 여부	25점
진정성	고유가치 보존 여부(훼손, 변경 여부)	25점
실현성	재현, 복원, 다양한 활용 가능성	25점
합 계		100점

(2) 선정방법

■ 전문가 자문회의 통한 시범활용 무형문화재 선정

○ 전문가 자문회의 조직

- 인천시가 보유한 무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 6건, 시·도무형문화재 28건) 중 시범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무형문화재 10개(기능·예능 분야)를 선정하고, 이러한 무형문화재의 특화·육성·활용 방안 제시로 인천시 무형문화재의 가치 확산 방안을 마련하는데 참고하고자 함.
- 인천시 무형문화재위원 14인 중 기능 및 예증 종목 분야를 다양하게 고려해 5인의 자문위원을 선정함.

자문위원

성명	현 직	전문 분야
김명자	안동대학교 명예교수	민속학
김영란	한상수자수박물관(부관장)	섬유복식.공예
김세종	동국대 문화예술행정대학원 책임교수	국악
최영숙	남북출입사무소 문화재감정관	민속공예
경임순	KBS 한국방송공사 무용감독	전통(무용.음악)

- 자문회의 이전 5인의 자문위원에게 인천시가 보유한 국가무형문화재 및 시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한 고유성·보편성·진정성·실현성의 4대 공통지표에 따른 서면 사전평가를 실시함(2016.09.07.~23).
- 전문가 자문회의(2016.09.23.)에서는 1차 서면조사 결과를 재검토한 후 인천

시를 대표할 만한 시범활용 무형문화재를 선정함.

■ 인천시 시범활용 무형문화재 사전평가(서면조사)

○ 서면조사 결과를 참고해 인천시 시범활용 무형문화재 선정을 위한 논의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

○ 사전자문 결과에 대한 재검토 및 무형문화재의 '예술성' 등 보충적인 가치 평가 가중치 부여 방안을 검토하여 최종 10개의 무형문화재 확정 필요.

인천시 시범활용 무형문화재 사전 평가(서면조사) 결과: 고유성·보편성·진정성·실현성 합계

순위	구분	명칭	고유성	보편성	진정성	실현성	합계
1	국가	완초장(莞草匠)	23.3	21.3	22.0	22.0	88.5
2		은율탈춤	21.5	21.0	22.0	21.3	85.8
3	시·도	완초장(莞草匠)	20.8	20.0	21.8	22.3	84.8
4		꽃맞이굿	21.8	20.0	22.0	20.5	84.3
5		인천근해 갯가노래 뱃노래	23.5	18.8	21.8	19.0	83.0
6		규방다례(閨房茶禮)	20.8	20.0	19.5	22.3	82.5
7	국가	서해안배연신굿및대동굿	22.5	19.8	21.3	18.8	82.3
8	시·도	강화 외포리 곶창굿	23.5	18.8	20.0	19.3	81.5
9	국가	화각장(華角匠)	19.5	20.0	22.0	19.5	81.0
10	시·도	갑비고차농악	19.8	17.8	22.0	19.8	79.3
11	시·도	부평두레놀이	19.8	18.5	21.3	19.5	79.0
12	국가	황해도평산소놀음굿	20.5	18.5	20.8	18.5	78.3
13		궁시장	18.0	19.3	22.3	18.5	78.0
14	시·도	주대소리	22.3	17.5	20.3	18.0	78.0
15		강화 용두레질소리	21.3	17.3	20.0	19.3	77.8
16		범패와작법무(바라춤)	18.8	18.8	21.0	18.8	77.3
17		범패와작법무(나비춤)	18.8	18.8	21.0	18.8	77.3
18		서곶들노래	19.5	17.8	20.8	19.3	77.3
19		단청장(丹靑匠)	17.0	18.8	19.3	21.0	76.0
20		휘모리잡가	18.5	17.5	20.8	19.3	76.0

21	시·도	경기12잡가	18.5	17.5	20.8	19.3	76.0
22		지화장(紙花匠)	18.8	18.5	20.8	17.5	75.5
23		인천근해 도서지방 상여소리	19.8	18.3	19.3	17.5	74.8
24		삼현육각(三絃六角)	18.5	17.5	20.8	15.8	72.5
25		단소장(短簫匠)	17.3	17.5	20.5	17.0	72.3
26		대금정악(대풍류·대금)	17.3	17.5	20.8	16.8	72.3
27		인천수륙재(仁川水陸齋)	18.5	15.8	19.5	17.5	71.3
28		자수장(刺繡匠)	15.8	16.3	18.0	21.0	71.0
29		목조각장(木彫刻匠)	14.5	17.5	20.5	18.5	71.0
30		판소리·고법	14.5	17.5	19.5	18.5	70.0
31		대금장(大笒匠)	17.3	16.3	19.3	17.0	69.8
32		대금장(일반)	17.3	16.3	19.3	17.0	69.8
33		가곡(남창)	17.3	16.3	17.5	17.3	68.3
34		가곡(여창)	17.3	16.3	17.5	17.3	68.3

2) 시범활용 무형문화재 선정결과

(1) 인천시 10대 무형문화재 선정

○ 인천시 도시자원 4대 평가지표인 고유성·보편성·진정성·실현성 외에 무형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표 무형문화재를 선정함.

- 인류사적·역사적·문화적·문학적·예술적·민족적·민중적·언어적·전통적·사회적 가치를 별도로 고려함.
- 종목별 특징과 예술성·활용성·희소성 및 인천의 지역성에 가중치를 부여함.

○ 인천시 지정 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시범활용 무형문화재를 선정함.

- 국가무형문화재는 인천시의 특색을 나타내기 보다는 국가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므로 국가적 관리의 대상임.
- 인천시의 고유한 특색(인천의 '고유성', '향토성')을 담고 있는 인천시 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재검토 및 최종 선정을 진행함.
- 단, '은율탈춤'은 국가무형문화재이나 전수회관이 인천에 위치해 있고 활용 가능성

이 높을 뿐만 아니라 소멸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서 대표 무형문화재로 선정함.

○ '기능과 예능' 부문의 종목이 가능한 적절한 비율로 선정되도록 고려함.

인천시 시범활용 무형문화재 최종선정 결과

번호	구분	종목 명칭	선정 근거	종목 부문
1	국가	은율탈춤	국내 유일 전수회관 인천 위치	예능
2	시·도	꽃맞이굿	굿의 전 과정 보존·실현 가능	
3		인천근해 갯가노래 뱃노래	인천 고유자원	
4		규방다례(閨房茶禮)	서울·인천만 보유한 고유자원	
5		강화 외포리 곶창굿	지역 특색자원, 학술연구 필요	
6		갑비고차농악	판굿 농악, 놀이·공연 활용 가능	
7		주대소리	인천 해양문화 특화 자원	
8		인천수륙재(仁川水陸齋)	불교행사 공연(범패·작법무) 가능	
9		완초장(莞草匠)	향토자원, 공예상품 활용가치 높음	기능
10		지화장(紙花匠)	인천 유일 자원, 희소성·활용가치 높음	

(2) 인천시 10대 무형문화재 활용방안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시범활용 대상으로 선정된 10대 무형문화재의 세부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함.

○ 예능종목의 경우 놀이문화, 공연으로 특성화하거나 학술연구를 통해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인천시만의 무형문화재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기능종목의 경우에는 공예를 상품화하거나 체험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을 것이며, 전시회를 통한 교류와 청년 창업 지원 등 다방면에서 산업화, 상업화 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무형문화재를 창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장소적 특성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와 융합될 수 있도록 하며, 학술연구를 통해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문화산업 및 관광분야와 연계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

인천시 10대 무형문화재 활용방안

번호	구분	종목 명칭	선정 근거
1	국가	은율탈춤	• 은율탈춤은 황해도 서쪽 평야지대의 은율군 은율읍 장터에서 전승되어온 가면극으로 통일 대비 남북문화교류 자원으로 육성 • 인천시를 대표하는 가면극 형태의 놀이로 개발 • 전국 가면극 축제 주최 및 춘천 인형극 축제와 연계해 인천시의 놀이문화로 특성화
2	시·도	꽃맞이굿	• 꽃맞이굿은 봄에 꽃이 필 무렵 무당들이 신단에 모신 신을 위해 하는 진적굿으로 우리나라 무속의례에서는 무당은 누구나 연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굿의례임 • 최근 김금화 보유자의 '만신'이 영화화 되는 등 사회적으로 무속의례가 이슈화 되고 있음 • 무속의례 중에서 진적굿 형태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사례는 인천시 외에는 찾아보기 드물기 때문에 인천시의 꽃맞이굿을 특성화하고 그 차이점을 학술적으로 조명 • 한국 무속문화의 국내외 교류 모색
3		인천근해 갯가노래 뱃노래	• 인천 근해나 도서지방에서 갯일을 하는 부녀자와 배를 타는 어부들이 부르는 대표적인 민요란 점에서 풍어를 기원하거나 만선 귀향을 축하하는 뜻을 담고 있음. 갯가 뱃노래는 교육적 활용에 중점을 두고, 초·중·고등학교와 연계해 전승적 활로 모색 • 우리 조상들의 풍어를 기원하는 소망과 노동 후에 얻는 기쁨을 놀이형식의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으로 개발
4		규방다례 (閨房茶禮)	• 전통 차의 품종 개발과 보급을 위한 관련 전문분야의 학제간 연구와 교류 • 전통 차문화의 예절을 국내외 문화 관광산업과 연계해 관련 연행 발굴 및 개발 • 전통 의식주행과 관련된 방계 전통문화산업(전통복식, 전통자수, 전통매듭, 전통도자, 전통조각)과의 협업을 통해 문화관광산업을 발전, 견인 • 국내외 교류 및 시연
5		강화 외포리 곶창굿	• 강화 외포리 곶창굿은 도당굿의 일종으로 마을 번영을 기원하는 무속의례. 외포리 곶창굿의 가장 주된 신격은 득대장군 또는 득제장군으로 알려지며 이 신을 중심으로 뱃고사와 결합한 특별한 무속의례를 간직하고 있음 • 농경 중심 도당굿과 어업 중심 도당굿으로 구분해 학술적 연구에 중점을 두고 무형문화재 가치 제고
6		갑비고차 농악	• 갑비고차농악은 판굿 형태의 놀이와 관련된 농악이자 옛 군사훈련과도 관련성이 깊은 만큼, 공동체의식을 심화하는 놀이문화, 공연으로 심화 가능 • 인천시의 판굿 특성을 강화하고 전체 연출 및 새로운 스토리 개발을 통해 경상북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과 차별화된 무형문화재 가치 확산 • 전통문화 중 농악 종목은 국내외에 인지도가 형성되어 있으며, 화려한 시연과 정과 볼거리로 관광화에 적합

7	시·도	주대소리	• 주대소리는 인천 근해에서 닻줄을 꼬는 과정에서 불리는 어민 노동요 중의 하나로, <나무타령>, <자우소리>, <줄 놓는 소리(줄꼬기)>, <꼼새소리(줄손 돌리기)>, <술레소리(합사시킴)>, <여사소리>, <채 짓는 소리(채짓기)>, <사리소리(줄을 사림)> 등 8개 과정으로 구성 • 주대소리는 어업에 필요한 줄을 꼬는 소리이므로 농업에 필요한 줄 꼬는 소리와는 차별성을 지니고, 안전시 고유의 가치를 가짐. 이러한 무형문화재의 가치와 교육적 연계를 통한 전승 보존의 활로 모색
8		인천수륙재 (仁川水陸齋)	• 수륙재는 불교의 영혼천도의식으로, 2015년에 서울 진관사, 동해 삼화사, 마산 아랫녘 수륙재 등 여러 수륙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됨 • 인천시의 수륙재의 차별성과 고유성을 연구하고, 불교행사 공연(범패·작법무)과 연계 활용
9		완초장 (莞草匠)	• 인천 및 강화도 자연환경의 지역 특성화 전통공예로서 왕골로 돗자리, 방석, 합 등 생활용품을 만드는 기능이므로 공예품적 관점에서 산업제품류, 조형작품류, 건축장식자재류, 패션부자재류, 생활용품류 등으로 제품 디자인 및 종류 개발 산업화 •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과 연계해 인천시의 특화산업으로 활성화 및 전국에 산재한 공예박물관과 연계해 왕골기물을 전시 및 생활화 • 완초장 주제 퍼포먼스, 공연, 스토리텔링을 통해 인천축제 개발 가능 • 청년일자리 및 소규모 창업 가능 • 국내외 전시교류와 교육연수
10		지화장 (紙花匠)	• 지화는 각종 의례에서 사용되는 종이꽃을 말하며 공예품적 관점에서 활성화 방안 모색 • 지화 공예는 선물 포장기술과 연계될 수 있고, 생활용품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거나, 작은 공방을 통해 제작할 수 있으므로 일반인 대상 체험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 가능

4. 인천시 무형문화재 가치화 방안

1) 기본방향

■ 국제협약과 국내법 상 명시된 무형문화재 진흥 범위

○「무형문화재법」 제8장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이행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국제협약에 가입한 이상 국제기준에 맞는 실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므로 이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명시한 것임.

무형문화유산의 국내적 보호활동

조항	내용
11조 당사국의 역할	•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 다양한 무형문화유산 종목 지정, 정의
12조 목록	• 무형문화유산 목록 지정 및 정기적 갱신 • 무형문화유산 목록 정보 제공
13조 보호조치	• 사회 내 무형문화유산의 기능 증진 및 정책 마련 • 무형문화유산 보호 책임기관 지정 및 설립 • 무형문화유산의 효과적 보호 위한 과학적·기술적·예술적 연구 촉진 • 법적·기술적·행정적·재정적 조치 - 훈련기관 설립 및 강화, 유-산의 전수 장려 - 유산에 대한 접근의 보장 - 기록기관의 설립 및 기관 이용 편의 제고
14조 교육·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 사회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존중 및 고양의 보장 - 일반대중, 특히 젊은 세대 대상 교육·인식제고 및 정보 프로그램 - 관련 공동체 및 집단 내의 특정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 무형문화유산 보호 관리 및 과학적 연구 등 능력배양 활동 - 비공식적 지식전수 수단
15조 공동체·집단 및 개인의 참여	• 공동체·집단·개인의 유산 창출·유지·전수·관리에 적극적 관여 노력

자료 : 유네스코(2003),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전문

○ 유네스코 협약에 따르면, 회원국은 자국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님.

- 여기서 '보호'란 "무형문화유산의 지정, 기록, 연구, 보존, 보호, 진흥, 증진, 특히 형식 및 비형식 교육을 통한 전승을 포함해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은 물론 그 여러 측면들의 회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1조3항)을 의미함.

○ 위와 같은 협약 가입 당사국들의 의무를 부문별로 도식화하면 크게 ①지정, ②연구, ③관리, ④교육, ⑤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국내 「무형문화재법」에서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서 종합적 시책 마련', '전승자의 책무로서 전승활동',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인정', '전수교육 및 공개', '전문인력 배치', '무형문화재 진흥(전승, 교육, 개발, 공예품 인증, 창업·제작·유통 지원, 국제교류 지원)', '전문기관 설립', '조사 및 기록화', '무형문화재의 지식재산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 이러한 진흥 활동도 아래 다섯 가지 활동범주 안에 포함되며,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국제협약, 무형문화재법에 부합되는 무형문화재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정책사업 추진 시 염두에 두어야 할 분야임.

무형문화재 진흥 활동 범위

지정	연구	관리	교육	활용
발굴 지정 정보 제공	정책 계획 연구·기록	기관·시설 전문인력	일반교육 전수교육	활용사업 연계사업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숍을 통한 정책대안 도출

○ 다음의 정책제언은 9월 23일에 개최한 전문가 자문회의와 10월 7일에 진행된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도출한 것임.

2) 가치화 방안

(1) 새 지정 기준에 따른 무형문화재 발굴과 지정

■ 무형문화재 발굴과 아카이브 구축

○ '원형'에서 '전형'으로의 기준 변화를 수용해 '전통에 기반한 창조성'을 지닌 무형문화재를 새로이 발굴하고 지정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론도 달라져야 함.

- 지역을 대표하면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기술적 가치를 지니는 살아있는 무형문화재를 새로 발굴하기 위해 비지정 무형문화유산 축제, 경연대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공정한 심의기준을 마련해 연차적으로 경연대회를 실시한다면 아직 발굴되지 않은 새로운 무형자원을 찾을 수 있을 것임.

○ 새로 지정된 무형문화재의 목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함. 신법 제정으로 무형문화재 범주에 새로이 포함된 '전통지식'의 경우 세대 간 전수방법, 생산방식의 현장성, 지식생산에 기여하는 특정한 기술·방법·행동양식과 같은 무형적 속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공개해야 함.

- 전북대 무형문화연구소의 지식관리시스템과 같은 모델의 확산이 필요함. 무형문화연구소는 ①ICHPEDIA(무형문화유산 디지털지식백과사전) 개발과 아카이브 구축, ②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을 활용한 스마트폰과 타블렛 PC용 애플

리케이션을 개발·관리함으로써, 대중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무형문화유산 연구와 2차, 3차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정보공개, 아카이빙은 무형문화유산의 본격적인 활용을 위한 기본적인 수순이라고 할 수 있음.

■ 무형문화재 지정기준 마련

○ 신법 제정으로 무형문화재의 분야와 지정기준이 변화됐으므로 향후 국가와 지자체에서 신법 규정에 맞는 무형문화재의 발굴과 지정 노력이 요구됨.

○ 무형문화재의 지정 해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엄격한 기준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지정 무형문화재의 신규 지정이 이루어져야 함.

- 특히 기존에 무형문화재로 인정되지 못했던 '구전전통 및 표현'과 '한의약·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분야는 대상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학술적 논의와 함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지침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변화된 무형문화재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선정기준을 마련할 필요 있음.

- 기존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무형문화재 지정기준이 ①역사성, ②학술성, ③예술성, ④향토색을 주요 가치로 제시한 데 반해, 신법에서는 ①역사성, ②학술성, ③예술성, ④기술성, ⑤대표성, ⑥전형성의 여섯 가지 기준을 제시함.
- 새로 추가된 것이 '기술성', '대표성', '전형성'인데, 이는 원형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됨. 원형 그대로의 자산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교류하며 창조적으로 전승되는 무형자산을 지정할 수 있게 됨.

■ 신규 무형문화재 지정

○ 현재 인천시 무형문화재는 예능이 대부분을 차지. 무형문화재의 유형과 범위가 확대된 만큼 향후 미지정 기능 무형문화재 발굴과 조사 필요하며, 전국 각 지역마다 공통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원보다는 인천시의 지역성과 향토색을 갖는 희소성 있는 무형문화자원 중심으로 신규 지정이 이루어져야 함.

○ 무형문화재의 신규 지정 시에는 보호와 관리, 활용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과도한 종목별 세분화는 지양해야 함.

- '가곡(남창)-가곡(여창)', '범패와 작법무(바라춤)-범패와 작법무(나비춤)', '대금장-대금장(일반)' 등을 별도의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음.

(2) 무형문화재 기록화 및 연구 활성화

■ 확대된 무형문화재 범주를 포괄하는 연구와 기록화

○ 기존 무형문화재 관련 연구들은 아직 신법에서 확장된 무형문화재 유형들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므로, 그동안 무형문화재에 포함되지 않아 연구가 미흡했던 생활관습·전통지식·구전전통 및 표현 분야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 학술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연구의 축적이 국가와 시·도 무형문화재로의 지정,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에의 등재 여부와 연결돼 해당 무형문화유산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임.

○ 무형문화재는 유형문화재와 달리 보유자와 전승자의 고령화와 함께 사라질 위험이 크므로 기록화 사업이 상당히 중요함. 무형문화재의 소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천시 무형문화재위원회를 중심으로 기록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무형문화재의 목록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고, 기록화 사업이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이 이루어져야 함.

- 기록한 무형문화재 자료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상물 제작'과 '책자 발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사진집 제작 후 전시, 영상물 제작 후 상영, 도서 발간 후 교재 사용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식을 생산하고 보급에 노력을 기울여야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서 무형문화재가 공동체 안팎으로 전승될 수 있을 것임.

○ 인천시 차원에서 무형문화재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거나 연구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연구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충원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인천시 내 대학교에 부설연구기관을 설치해 운영한다면 지속적인 연구활동이 가능하며 연구결과물을 지역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고 더불어 연구인력도 양성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정책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3) 합리적인 무형문화재 관리체계 도입과 전문가 모니터링

■ 무형문화재의 체계적 관리 위한 전문인력 필요

○ 무형문화재 보전과 활용 각 단계의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인천시 차원에서 조직 재배치와 사업 재구성을 해야하며, 무형문화재 지정 후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서는 무형문화재를 별도로 관리하며 사업 기획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함.

- 인천시 문화재과 : 무형문화재 법률 및 조례 제정·시행으로 인해 무형문화재 운영·관리 업무가 강화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2016년 말에 무형문화재 진흥 기본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 2017년에 광역시도에서 법정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등 전문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하므로 무형문화재 관련 업무를 담당할 전문 학예직 공무원이 반드시 필요함. 장기적으로는 유·무형문화재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 개편이 요구됨.
-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 전문 학예인력 부재로 일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신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우므로 원활한 교육관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 5명(공연·시설·교육·홍보·안내 담당, 교육관 운영팀장 등) 이상의 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함.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을 위한 역량 있는 전문기관이 부재한 인천시의 현 상황에서는 당분간 큐레이터 등 전문학예관을 전수교육관에 배치하여 시 직영으로 운영하되 단계적으로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적·구조적 정비가 요구됨.

  ※ 전수교육관의 관리방식으로는 민간위탁 방식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민간위탁은 초기 비용을 줄이면서 전문성과 문화경영 경험을 갖춘 단체를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또 위탁기관은 평가에 의해서 재위탁 여부가 결정되므로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하게 되며, 자율성이 보장되어, 전문인력을 탄력적으로 채용할 수 있음. 이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과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장기적으로 지자체 출연 문화재단이 전수교육관을 운영할 경우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한 전문적 운영이 가능하고 전통문화유산을 현대예술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 분야와 접목하여 활용하는 데에도 유리함.

  민간위탁의 경우 운영초기에 회계와 시설관리, 기획운영 면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청(문화재과) 소속 전문직 공무원을 파견해 해당업무를 담당케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전문 학예인력은 필수적임(김창수, 2014).

○ 전수교육관 입주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단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전수교육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입주한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일주일 혹은 한 달 기준으로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전수교육관에서 전수활동을 해야 하는 의무시간을 마련하여 전수교육관의 상시적인 운영률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때, 종목별 특성을 고려해서 기준을 마련해야 함.
- 전수교육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시연, 공연, 교육, 판매 등)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무사항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공연, 시연 주기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음.
- 위와 같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전수활동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무형문화재의 입주기간을 재설정해야 함. 평가결과를 토대로 입주 기회를 차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무형문화재 전수활동을 활성화하고 추가 지정된 무형문화재의 입주공간을 확보해야 함.

○ 무형문화재위원 및 전문가에 의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전문성을 갖춘 무형문화재위원 등에 의해 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한 실사가 이루어지고, 평가 결과가 무형문화재 관리와 전수교육관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 매년 무형문화재 시연이 계획적으로 조직되어야 하고, 전문가에 의한 '평가보고서'의 작성과 발행이 이루어져야 함.

○ 전승지원금 차등 지급을 통한 전승활동 활성화가 요구됨.
- 동일한 전승지원금액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기 보다는 무형문화재 활용의 활성화 정도, 대중성 등을 고려해 전승 환경이 열악한 종목에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시 무형문화재와 국가무형문화재 간 위계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인천시 무형문화재에 대한 적극적 관리와 지원이 필요함.

(4) 목적과 대상별 맞춤형 무형문화재 교육과정 설계

■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무형문화재 교육과정 설계

○ 무형문화재가 지역 공동체 속에서 창조적으로 전승되기 위해서는 교육사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무형문화재의 교육은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교육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수교육, 두 방향으로 추진돼야 함.
- 초·중학교 수업과 연계한 무형문화재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 학교에서 무형문화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기를 원할 때 지원할 수 있어야 함. 학생

들이 전수교육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보유자, 보유단체가 학교에 파견되어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지역의 고유한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이는 교육적 효과를 볼 수 있게 될 것임.

-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형문화재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자산을 홍보하고 대중화할 수 있음. 주5일제 시행 이후, 생활 속 여가문화에 대한 수요와 요구가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무형문화재의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교육프로그램 콘텐츠로 활용한다면 무형문화재의 홍보를 넘어서 생활문화를 활성화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임.

○ 무형문화재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 설계도 필요함.

- 신법의 '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제도'에 따라 앞으로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부재로 인한 전승 단절에 대비해 전승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됨. 또한 스승과 제자 간 이루어지던 기존의 도제식 전수교육방식과 더불어 대학을 통한 전수교육도 실시될 예정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과 방법이 확대되고 전승체계가 다변화된 만큼 이에 부합되는 맞춤형 교육과정의 마련이 요구됨.

(5) 무형문화재 진흥과 활용 위한 지원시스템 마련

■ 대표 무형문화재를 시범적으로 활용

○ 조사·분석·자문을 통해 10대 무형문화재로 선정된 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시범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점차 무형문화재 활용사업의 범위를 확장함.

- 선정된 10대 무형문화재는 국가무형문화재인 은율탈춤과 인천시 무형문화재인 꽃맞이굿, 인천 근해 갯가노래 뱃노래, 규방다례, 강화 외포리 곶창굿, 갑비고차농악, 주대소리, 인천수륙재, 완초장, 지화장임.
- 예능 종목의 무형문화재의 경우, 놀이·공연·축제로 활용이 가능함. 기능 종목의 무형문화재의 경우 공예품을 상품화하여 관광지에서 판매가 가능함.
- 예능과 기능 종목의 인천시 무형문화재를 상설 혹은 특화 문화공연과 문화상품으로 활용하여 인천시민들과 공유하고 외부 방문객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인천 가치와 도시브랜드 이미지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무형문화재 진흥과 활용 위한 지원시스템 마련

○ 중앙정부의 무형문화재 지원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대응정책과 시스템 마련을 통해 무형문화재의 종목별 특성에 따른 다각적 활용 시도가 필요함.

- 신법에 따라 중앙정부는 기술 부문 무형문화재의 산업화와 상품화를 통한 자생력 확보를 목표로 '전승공예품 인증제', '전승공예품 은행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전승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컨설팅, 교육, 국내외 박람회 참가와 같은 유통판로의 확대 지원도 추진될 예정임.
- 인천시의 특색 있는 무형문화재의 상품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생산-유통-소비의 전 과정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됨. 무형문화재가 지원 속에서 상품화-전시-판매를 원활히 할 수 있다면, 무형문화재의 자생력 신장과 함께 관광을 활성화하여 지역의 명소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인천시의 특색 있는 장소 활용 : 차이나타운, 인천문화재단, 아트플랫폼, 월미도, 인천공항 등 시민들과 외부 방문객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를 연계해 무형문화재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함.

- 인천시의 특색 있는 장소에서 무형문화재의 공연과 전시를 진행. 무형문화재의 홍보와 자생력 확보를 위해 판매용의 중저가 기념품 제작 및 판매(완초장 및 유리 등 공예제품, 규방다례 관련 다기세트 등).
- 이는 무형문화재 진흥과 지역의 명소화, 브랜드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지금까지 인천시에서는 무형문화재 활용이 활발하지 않았던 만큼, 전문성에 기반한 활용 프로그램의 기획력을 높이고 예산을 추가 배정해야 할 것이며 기획된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홍보가 필요함.

참고문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신규제정 2015.03.27.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961호, 신규제정 1962.01.10.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5719호, 일부개정 1999.01.29.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0000호, 전부개정 2010.02.04.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249호, 일부개정 2015.03.27.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일부개정 2016.02.03.

유네스코(2003),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2003.10.17.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인천광역시조례 제5656호, 신규제정 2016.05.19.

김시범(2016), "대한민국 전통문화산업 관련 법제도 고찰", 『유라시아연구』, 13(1), pp. 233-254.

김영국·오승규(2015), 「무형문화재진흥법의 쟁점과 개선 방안」, 『법과 정책연구』, 15(2), 591~609쪽.

한양명(2006), 「중요무형문화재 예능분야의 원형과 전승 문제에 대한 반성적 검토」, 『한국민속학』, 44, 561~594.

김창수(2014), 『인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운영의 기본방향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인천광역시(2016a), 2016년 2월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자료.

인천광역시(2016b), 2016년 7월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자료.

한만송, 「인천시 무형문화재 지정, 원칙은 뭔가」, 오마이뉴스, 2015.07.31, 검색 2016.08.0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27235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검색 홈페이지(http://www.law.go.kr)

네이버 국어사전(http://krdic.naver.com)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제2조(정의)

문화재청(http://www.cha.go.kr)



차이나타운 패루 인천광역시 중구



Ⅳ

인천화교 역사문화 자산의 활용방안 연구

1. 연구개요
2. 인천 화교사회의 형성과 기본현황
3. 인천화교 역사문화 자산 활용 방안



차이나타운 거리예술제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화교 역사문화 자산의 활용방안 연구

김수한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1. 연구개요

○ 이 글의 목적은 근대 개항 이후 인천에 정착하여 살아온 중국 해외이주민과 그 후손인 화교들의 기본 현황 및 역사문화 자산을 조사하고 이의 활용을 위한 기본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는데 있음.

○ 인천의 청국 조계지를 중심으로 집거하며 생활해 온 화교들이 130여년의 역사를 통해 형성해 온 역사문화 자산은 고유한 역사성과 특수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 명소화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가치를 갖추고 있음.

○ 물리적 환경 정비나 조형물 설치 등에 집중되었던 인천화교와 차이나타운 관련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여 화교 역사문화 자산의 발굴/보존/확산을 포함한 다각적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인천차이나타운 개발 과정에서 주로 화교 유적·건축물 등 일부 유형자산만이 주목을 받아왔지만 인천 화교사회는 고유한 무형유산 및 근현대 유물·기록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범위 및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음.

- 우선 이 글에서는 근대 조선 개항이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 중국 대륙으로부터 이주, 인천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중국인들과 그 후손을 인천화교로 규정함.
- 인천화교 역사문화 자산이란 근대 및 현대에 걸쳐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인천화교 고유의 정치·경제·사회 생활양식이 반영된 유산으로 ▲유적·건조 ▲

무형유산 ▲유물 ▲기록물 등을 포함함.

○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우선, 인천 화교의 개념 및 화교사회 형성의 내용을 정리함. 문헌자료에 기초하여 인천화교의 형성과정을 고찰하고 인천화교 커뮤니티 현황을 정리함.
- 인천차이나타운 개발의 한계를 지적하며 화교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지역 명소화의 필요성을 제기함.
- 글의 결론에서는 본문의 내용에 기초하여 인천 화교 자산의 활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

2. 인천 화교사회의 형성과 기본현황

1) 형성 기원에 따른 인천화교 규정

○ 중국에서는 해외에 정주하는 중국 해외이주자들을 국적유지 여부에 따라 화교(華僑), 화인(華人) 그리고 화예(華裔)로 구분함.[12]

○ 그러나 이 같은 국적유지 여부에 따른 중국 해외이주자 개념은 인천을 비롯한 한국의 화교를 규정하는데 적합하지 않음.

○ 근대 조선 개항이후 부터 냉전시기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국교단절 이전에 중국 대륙으로부터 한반도에 이주한 중국인과 그 후손들을 통상적으로 한국화교, 또는 줄여서 한화(韓華)로 일컬음.

○ 한국화교들은 조상의 고향이 중국대륙이지만, 타이완에 정부를 둔 중화민국의 국적을 소지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중화민국을 조국으로 인식해 옴.[13]

- 한국화교의 조국 인식은 동아시아 냉전체제 하에서 반공진영인 한국, 중화민국과 사회주의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의 틈바구니에 끼어있게 된 결과로부터 기인함.[14]

12 화교란 일반적으로 중화민국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소지한 채 외국에 정주하고 있는 자를 가리킴. 화교 가운데 거주국 국적을 취득한 자들은 화인으로 구분하며, 중국혈통을 갖지만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거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갖는 이들을 포괄적으로 화예(華裔)라 칭함.

13 한국화교는 99%가 중국대륙 출신이며, 그 가운데 90% 이상은 산둥성 출신임. 산둥성 출신 화교들의 한국 이주와 정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옥련(2008:71-100)참고

14 한국화교는 냉전시기 한국의 내셔널리즘, 중화민국의 화교 정책 그리고 양국 국가관계 등에 영향을 받게 되면서 출신지인 중국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을 타자로 인식하고 오로지 타이완에 있는 중화민국을 조국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화교의 조국인식에 대한 역사적 고찰은 왕언메이(2013)을 참고. 한국의 국적법은 혈통주의에 기초해

○ 현재 한국화교는 귀화, 해외이주, 국제결혼 등으로 인해 국적만으로 그 정체성을 가늠하기에는 그 구성이 매우 복잡해지고 정체성에 대한 자기 인식도 매우 다양해졌음.[15]

- 한국화교는 초창기 1세대와 2대 조부의 시대를 지나 3·4세대 심지어는 5대로 이어지고 있음.
- 한국인과의 결혼을 통해 화교가정에 한국인 엄마가 70%에 달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5세대들은 자신들을 6.25세대라고 부르기도 함.
- 즉, 1세대 중국인과 한국인이 결혼하여 태어난 자녀는 50%, 2세대는 25%, 3세대는 12.5%, 4세대 부모로부터 출생한 5세대 자녀는 중국의 피가 6.25%만 섞여 있다는 의미임(국립민속박물관2012:14).

○ 따라서 국적만으로 한국화교의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특히, 1992년 한국이 타이완에 정부를 둔 중화민국과 단교하고 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게 되면서 국적 유지 여부에 따른 화교 규정은 한계에 다다름.[16]

- 이 글에서는 국적보다는 형성 기원에 기초하여 한국화교를 규정함.
- 근대 조선 개항이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 중국 대륙으로부터 이주, 한국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중국인들과 그 후손을 한국화교로 칭하며, 이 가운데 인천 지역에서 삶을 영위한 한국화교를 인천화교로 규정함.

2) 인천 화교사회의 형성

○ 19세기 인천의 청국 조계지를 통해 한국에 첫 발을 디딘 화교들은 이후 국제환경의 변화 그리고 관련 국내 정책의 영향을 받으며 쇠퇴와 부흥의 과정을 겪으며 인천화교 사회를 형성해 왔음.[17]

있기 때문에 귀화 신청을 하지 않은 중국 출신의 이주자와 그 후손에게는 한국 국적이 부여되지 않아 중화민국의 국적을 유지해 왔다. 한국전쟁 후인 1954년 당시 중화민국 총영사관에서 화교거주허가증(華僑居住許可證)을 발급하게 되면서부터 남한 화교들은 중화민국 국민이 되었다. 박상순(2001:9-19), 이창호(2011:52)에서 재인용

15 인천 화교사회의 유력인사 및 그 가족의 생애를 구술 채록하고 있는 손덕준·송승석(2012:245-281)에서는 국적 및 정체성에 대한 화교 세대별 인식을 기록하고 있음.

16 1992년 이후 대륙으로부터 한국으로 이주하여 일정기간 정주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를 신화교로, 그리고 기존 중화민국 국적 한국화교를 구화교라 구분하기도 함. 신구화교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로는 정회옥 외(2015)를 참고

17 인천화교와 차이나타운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이현식(2001:10-13),이덕훈 (2004:265-275), 이옥련(2013:40-50)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1) 청관의 형성

○ 1882년 임오군란 시기 조선에 파견된 청나라 군대의 군용품 조달을 위해 중국 상인 40여명이 한반도로 들어왔음.

○ 그 해 8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이 체결되면서 중국 상인들은 조선 정부와 민간인을 상대로 상업을 할 수 있게 됨. 뒤이어 많은 중국 상인들이 서울과 각 개항장에 몰려왔음.

○ 1883년 말 서울과 각 개항장에서 개업한 청나라 상인은 210명 정도였고, 이듬해에는 서울에 353명, 인천에 235명으로 급증함.

○ 1884년 체결된 <인천구화상지계장정(仁川口華商地界章程)>에 따라 인천에 청국조계(租界)를 형성, 조계지에 청국영사관이 소재해 있어 줄여서 청관(淸館)으로 불림.

- 청국조계로 설정된 지역은 약5,000여 평의 넓이로 현 선린동 일대 구릉지역이며, 조계지 내에서 치외법권, 무역활동, 부동산의 소유가 인정되었음.

○ 이후 청일전쟁 전후 상황에 따라 인천 화교수의 증감이 있었으나 1897년 1,331명으로 늘어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함.

○ 특히 1898년 의화단운동으로 중국 산둥성 일대가 혼란스러워지자 많은 중국인들이 한반도로 피난을 와 화교규모가 크게 증가, 인천이 점차 화교들의 정착지가 되었음.

- 인천의 화교는 1900년 2,274명이었으며, 일제강점 직전 2,886명의 화교가 조계를 중심으로 거주했음.

(2) 번영과 쇠락

○ 개항과 정착기를 거치면서 청국 조계지를 중심으로 한 화교집거지, 즉 인천차이나타운이 형성되었음.

- 1893년 중국 사찰인 의선당이 건립되고 1902년 인천화교소학교가 개교, 차이나타운은 1912년 공화춘, 1918년 중화루가 개업하는 등 화교들의 상업 및 요식업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되었음.

○ 1913년 청국조계가 폐지되었으나 조계지내의 소유권은 그대로 인정되어 차이나타운은 화교들의 집단 거주지로서 기능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음.

○ 1920~30년대 중국의 내전, 국제정세의 혼란, 국내 노동수요의 확대 등으로 중국인들의 입국 숫자가 늘어나, 1930년 인천화교는 2,427명에 이르렀음.

- 화교들은 잡화점, 비단가게, 양장점, 이발소, 요식업 등을 중심으로 점차 그 활동 범위를 확대하였음.
- 화교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한국인들과의 충돌도 많아짐. 사용하는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달랐고, 일제의 이간책으로 여러 소요들이 발생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1931년의 완바오산(萬寶山) 사건임.[18]

○ 해방이후 대중국 교역이 활성화되면서 총 무역량의 98%가 인천항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 무렵에 인천화교들은 활발한 대외무역과 경제 활동을 펼침.

- 인천화교들은 주로 중국에서 수입한 식료품과 잡화를 판매하고, 전국 화상 간 네트워크로 사업을 확대했음.

○ 해방이후에도 이어졌던 화교 사회의 호황은 동아시아 냉전의 도래와 함께 점차 막을 내리게 되었음.

-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집단거주지를 유지했던 인천 화교사회는 냉전시대의 개막 등 국제정세는 물론 화교경제를 제약하는 일련의 국내 정책의 영향으로 쇠퇴하기 시작함.
- 1949년 중국대륙에 사회주의 정권인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한국전쟁이후 동아시아 냉전기에 들어서면서 대륙으로부터의 새로운 인구유입이 중단되었음. 중국과의 교역 중단에 이은 창고봉쇄령과 외화사용 규제로 화교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음.

○ 1961년 단행된 <외국인토지규제법>에 의해 인천 및 인근 농촌지역에서 상품작물 재배 등 농업에 종사했던 화교가 토지를 잃고 도시로 진출하면서 인천 화교인구가 일시적으로 급증하였음.[19]

- 농사를 짓던 화교들이 도시로 진출하여 중국요리집을 개업하는 등 화교들의 경제활동이 요식업을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하였음.
- 이후 화교들의 재산권과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한국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 한국을 떠나는 화교가 늘어났으며, 1970년 32,989명에 달했던 인천 화교의 수가 이후 점차 감소하게 되었음.
- 한국에서는 영주권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화교들은 외국인으로서 <외국인출입국

18 1931년 중국 지린성에서 한국인과 중국인이 충돌한 완바오산(萬寶山) 사건이 전해지면서 인천, 서울, 평양 등에서 화교에 대한 배척운동과 화교에 대한 한국인들의 집단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완바오산 사건으로 한국화교 사망자 142명, 실종자 91명, 중상자 546명, 각 지역 영사관에 수용되었던 화교 이재민이 16,800여명에 달했다. 화교들에 대한 대표적인 배화(排華)사건으로 인식되는 완바오산 사건의 배경 및 이에 따른 한국화교에 대한 한국인들의 공격과 대응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진유광 저, 이용재 역(2012:185-202) 참고

19 1960년 1,973명이던 인천화교는 1962년 3,627명으로 늘어났다. 당시 정책에 의한 화교의 현황에 대해서는 박경태(2008:157-162)참고

관리법>의 규제를 받았음.

- 거주외국인으로 분류되는 화교들은 F-2비자가 주어졌고 비자가 만료되는 2년마다 체류연장 허가가 필요했으며,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화교들은 공무원이나 공공단체 임직원이 될 수 없었으며,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의료법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하는 전문직 종사자가 되기 어려웠음.
- 화교들은 은행계좌는 만들 수 있었지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 각종 생활상의 규제와 차별이 존재했음.[20]

○ 간신히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던 인천 화교사회와 화교 집거지인 차이나타운은 1990년대 들어 중흥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음.

- 1992년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수교, 1997년 IMF사태 극복을 위한 외국자본투자 유인 정책과 맞물려 화교의 경제활동을 제약했던 법제가 개선되고, 인천 차이나타운에 대한 대대적인 개발이 진행되었음.[21]
- 2000년 차이나타운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고 다음 해 월미관광특구 지정으로 차이나타운 개발이 본격화되었음.

3) 인천화교 사회 기본 현황

(1) 인천화교 인구

○ 한국정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에 분포해 있는 타이완 국적의 등록 외국인수는 2015년 기준 20,138명임.

○ 그 가운데 서울에 전체의 43.5%인 8,758명이, 인천에 13.1%인 2,643명, 경기도에 12%인 2,411명이 거주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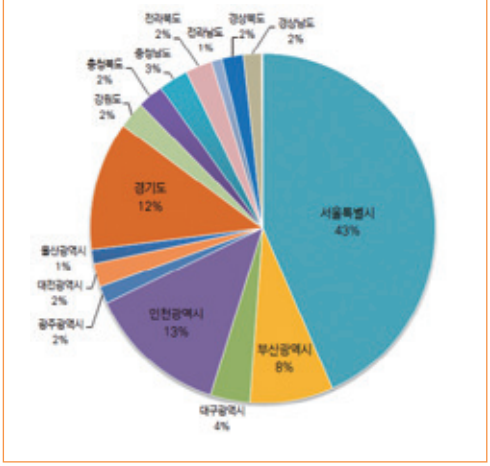
○ 2015년 기준 인천시 거주 타이완 국적 등록외국인 2,643명 가운데 41.5%인 1,096명이 차이나타운이 소재한 중구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음.[22]

20 화교에 대한 각종 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장수현(2002:248-250)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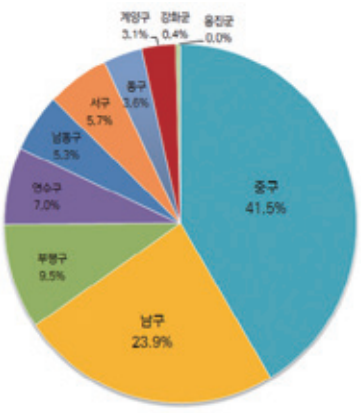
21 1998년 외국인토지 소유제한이 철폐되고 2000년 영주권제도가 도입되었음. 2004년 영주권자의 참정권제도가 개혁되어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화교 첫 투표가 시작되었음.

22 인천시 남구에 23.9%인 631명, 부평구에 9.5%인 250명이 거주하고 있음.

타이완 국적 등록외국인 전국 분포



타이완 국적 등록외국인 인천 분포



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 정리

○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화교의 국적과 정체성이 보다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화교 인구 규모에 대한 정확한 집계가 어려움.

○ 주한타이완대표처에서는 중화민국 국적보유 영주권자에 한정하여 한국화교를 약 23,000명으로 집계하고 있음.[23]

○ 인천지역 화교 1인당 월 1,000원 가량의 일반회비를 징수하고 있는 인천화교협회에서는 회비징수 현황을 고려하여, 2012년 기준 인천에 약 3,800여명의 화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기도 함.[24]

(2) 인천화교 사회단체

○ 개항이후 인천 화교사회의 형성과 유지 과정 속에서 인천화교협회와 화교학교가 화교 공동체 유지와 계승과정에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25]

■ 인천화교협회

○ 인천화교 커뮤니티의 대표적 민간사회조직으로 인천화교협회를 들 수 있음.

23 한국화교 인구수는 주한타이완대표처 홈페이지 참고 (http://web.roc-taiwan.org/kr/post/98.html 검색일: 2016-08-02)

24 관련 내용은 손덕준·송승석(2012:192) 참고

25 현재 한국 전국 각지에 40여개의 지역 화교협회가 있으며, 4개의 화교중학 및 10여개의 화교 초등학교가 있음.

○ 인천에 화교가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결성된 동향회 등의 자치단체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점차 화교협회로 단일화되었음.

인천지역 화교단체 변천 과정

명칭	연도
중화회관(中華會館)	1887~미상
인천중화상무총회(仁川中華商務總會)	1913~미상
인천화상상회(仁川華商商會)	1929~미상
인천중화상회(仁川中華商會)	1946~1947
남한화교자치구공소(南韓華僑自治區公所)	1948~1950
인천중화상회(仁川中華商會)	1948~1950
인천화교자치임시위원회(仁川華僑自治臨時委員會)	1951~1952
인천화교자치회(仁川華僑自治會)	1953~1955
인천화교자치구(仁川華僑自治區)	1955~1960
인천중화협회(仁川華僑協會)	1960~현재

자료 : 이창호(2011:49)

○ 개항 후 인천에 청국 조계가 설치된 후 화교사회 대표를 뽑아 중화회관이 설립되었으며, 동향회와 회관이 차례로 만들어졌음.

○ 타향에 이주하는 중국인들은 방(幇)이라는 동향단체를 만들고 공소로서 회관(會館)을 조성하는데, 인천 화교들은 1891년 산둥동향회, 1899년 남방회관, 1900년 광방(회관) 등을 차례로 건립함.[26]

○ 1913년 인천지역 북방, 광방, 남방 상인들의 연합조직으로 인천중화상무총회 결성했고, 이합집산을 거쳤던 화교단체는 남분 분단과 동아시아 냉전으로 인해 주한중화민국 총영사관의 영향 속에서 행정업무와 상업업무를 동시에 관할하는 화교협회로 단일화되었음.[27]

○ 중화민국 정부의 인정과 지원을 받는 화교협회는 화교사회에서 가장 권력이 있고 정치적으로 통합된 단체였지만 1992년 한중 수교에 따른 중화민국과의 단교로 화교협회의 입지가 좁아졌음.[28]

26 이정희·송승석(2015:265)

27 이창호(2011:51-53)

28 이창호(2011:55-56). 현재 인천화교협회는 회장 1인과 내무, 외무, 공관, 총무, 감사장 역할을 맡는 부회장 5인으로 회장단을 구성되어 있음. 화교 20명 추천을 받아 선임되는 이사 20여명의 투표로 회장을 선출하며, 선출 회장이 부회장을 지명한다. 화교협회에는 청년회, 부녀회 및 인화예우회 등 직능모임, 인화라이온스클럽 등 화교 친목 모임이 산하 조직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이사 선출은 주로 이 같은 모임의 추천을 통해 이루어짐. 인천 화교협

■ 인천화교학교(仁川華僑中山中·小學)

○ 인천 화교 교육기관으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모두 합해 화교학교라고 부름.

○ 2015년 현재 사립 각종학교[29] 로 분류되어 있는 인천화교 학교의 전체 재학생은 총 301명임.

- 유치원 25명, 초등부 118명, 중등부 76명, 고등부 82명으로 학급 수는 각각 2개, 6개, 3개, 3개로 이루어져 있음.

○ 인천화교학교는 화교들의 교육기관으로 세대를 거치면서 언어, 문화 교육을 통한 커뮤니티의 유지와 지속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30]

- 자녀 통학을 위해 화교들은 주로 차이나타운 인근에 거주함으로서 화교사회를 공간적으로 통합하는 역할을 함.[31]
- 화교학교는 화교협회와 함께 인천 화교사회의 중요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체육대회 등 행사를 통해 중국전통놀이·공연 등을 계승·유지하고 있음.[32]

○ 인천화교학교는 현재 중화민국의 교재를 사용하며 번자체 중문 교육을 고수하고 있지만, 중화민국 또는 한국정부로부터의 별도의 교육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며, 운영비 대부분을 재학생 학비 및 화교사회의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 인천차이나타운번영회

○ 2004년 인천차이나타운에 소재한 중국음식점을 위주로 한 상인이익단체의 성격을 갖는 인천차이나타운번영회가 구성되었음.

○ 차이나타운 개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따라 인천차이나타운번영회가 자연스럽게 화교커뮤니티에서 영향력 있는 새로운 사회조직으로 부상하였음.

- 2015년 기준 번영회 소속 회원상점은 총 73개소이며, 운영위원 32명, 일반회원 4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는 1개 음식점을 제외하고는 번영회 소속 상점 가운데 중

회 기능 및 구성에 대해서는 손덕준·송승석(2012:191-217) 참고

29 각종학교는 정규 학교로서 인가를 받지 못하였으나, 일반 정규 교육기관과 유사한 교 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를 말함.

30 인천 화교사회에서 학교가 갖는 역할 및 현황에 대해서는 손덕준·송승석(2012:231-244) 참고

31 인천화교사회 침체기였던 1980-90년대 화교들은 서울이나 인천 주안, 부평 등지에서 중식당을 경영하거나 주방에 근무하였지만, 차이나타운에 소재한 화교학교로의 자녀 통학 편리를 위해 주로 송월동 및 인천역 근방에 거주하며 인천 차이나타운을 떠나지 않았음 손덕준·송승석(2012:115).

32 관련 내용은 국립중앙민속박물관(2012:126-163) 참고

국음식점 대부분은 화교가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인들은 주로 카페나 편의점 등을 운영하고 있음. 2014년부터 화교와 한국인 공동회장제로 운영되고 있음.[33]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천 화교사회는 1883년 개항 이래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냉전시대의 개막 등 국제정세는 물론 화교경제를 제약하는 일련의 국내 정책의 영향 속에서 그 명맥을 유지해 왔음.

○ 비록 인천 차이나타운 개발로 최근 화교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동남아국가 화교 수준의 자본축적을 이루지 못했으며, 화교들의 경제활동과 업종 역시 제한적이었음.

○ 이 같은 여건 속에서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된 인천차이나타운 개발과 지역 명소화는 화교사회를 주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로 공공부문의 인프라 투자에 기반한 관광 명소화에 초점이 맞추어 졌음.

4) 차이나타운 명소화와 화교 역사문화 자산

(1) 인천차이나타운 개발

○ 2007년 차이나타운지역이 특화발전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대대적인 중국풍 경관 조성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이 추진되었음.[34]

○ 관련 사업을 통해 차이나타운 내에 중국풍 공원, 문화시설 등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근의 월미도, 연안부두, 자유공원등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관광수요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인천 차이나타운 특화거리사업 관련 인프라 조성 사례



북성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한중문화원



삼국지 벽화

33 인천차이나타운 상가 현황 및 번영회에 대한 내용은 권기영·이정희 편(2015:232-234) 및 손덕준·송승석(2012:115) 등 참고

34 보다 자세한 차이나타운 경관조성 및 인프라 사업 내용은 김수한(2009:86-92)참고


중국어마을 문화체험관


한중원


패루


중국풍 가로 정비



중국풍 상가 정비


짜장면 포토존

자료: 현지 촬영 (2009.9)

○ 인천시 중구청에서는 2012년과 2015년 각각 짜장면박물관과 인천화교역사관을 개관하는 등, 화교 관련 역사문화 유물 전시관을 조성하였음.

- 차이나타운의 유명 중국음식점이었던 공화춘(共和春)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2012년 짜장면을 테마로 한 짜장면박물관을 개관하였음.
- 2015년 한중문화관의 별관을 신축하여 인천화교역사관 개관하고 인천화교 역사 설명 안내 게시물과 관련 유물 등을 전시하고 있음.[35]

35 화교역사관 개관에 즈음하여 인천중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개항기부터 현재까지의 인천 화교사회 관련 실물·문헌·사진 및 민속자료 등 유물을 구입하였음. 관련 내용은 2015년 한중문화관(화교역사관) 유물 구입 공고문 참고 (http://www.hanjung.go.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4 검색일: 2016-10-10)

인천 차이나타운 화교 관련 역사문화 유물 전시관 조성 사례







짜장면 박물관 외관 및 내부 전시물







인천화교역사관 외관 및 내부 전시물

자료: 짜장면박물관 홈페이지(http://www.icjgss.or.kr/jajangmyeon/검색일:2016-10-04) 및 현장촬영(2016-01-29)

○ 이 같은 공공 주도의 지역특화 사업에 힘입어 쇠퇴했던 차이나타운은 인천의 대표적 관광명소로 발돋움했으며, 중국음식점을 위주로 한 화교들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었음.

-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인천차이나타운 방문객은 2013년 2,699,000명에서 2014년 3,038,000명, 그리고 2015년 3,420,000명으로 증가하였음.
- 이에 따라 차이나타운의 매출액은 2013년 252억 원에서 2014년 620억 원으로 늘어났음.[36]
- 차이나타운 개발사업 추진 전, 지역에서 운영되던 중국 식당은 대청반점과 풍미 등, 단 2곳뿐이었지만, 2000년 인천차이나타운 상점은 5개의 중국음식점을 포함 44개로 늘어났음. 2014년에는 중국음식점은 28개를 포함 전체 상점이 72개로 증

36 중소기업청 보도자료 참고(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84308906&tblKey=GMN:검색일 2016-10-11)

가하였음.[37]

(2) 화교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지역 명소화의 필요성

○ 근대 개항과 함께 인천에 정착하여 살아온 중국 해외이주민과 그 후손인 화교들은 혈연적·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인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 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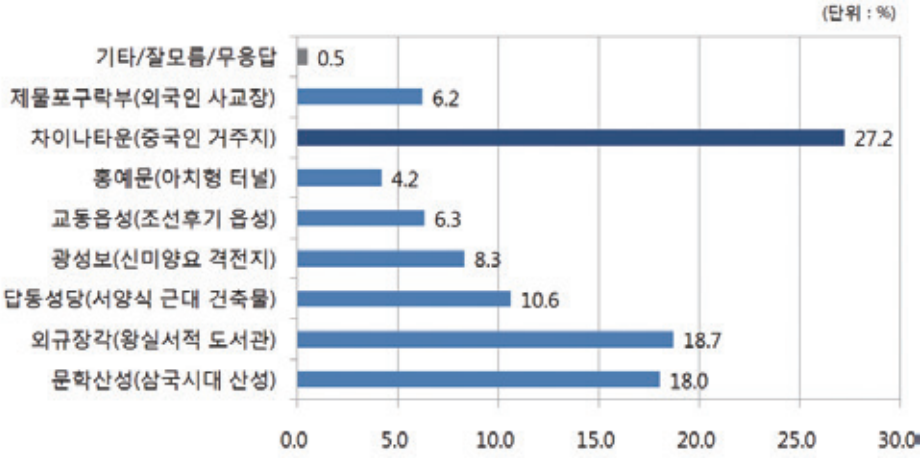
○ 우리와는 다른 이문화(異文化)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화교들은 다문화의 담지체이자 동아시아 국제교류의 상징적 집단임.

○ 더불어 화교사회의 형성과정이 인천의 근대화와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천의 역사성(또는 정통성)을 공유하고 있음.[38]

○ 이 같은 특징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인천의 고유한 역사·문화 유적지로 화교집거지인 차이나타운을 꼽고 있음.

- 인천의 도시 이미지와 보유 자원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가장 많은 27.2%가 차이나타운을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유적지로 인식하고 있음.[39]

인천 도시이미지 보유자원에 대한 시민 의식조사-고유 역사·문화 유적지



자료: 최영화·민경선(2016:20)

37 인천차이나타운 상가 현황에 대한 내용은 권기영·이정희 편(2015:232-234) 및 손덕준·송승석(2012:115)등 참고

38 인천화교가 갖는 가치와 관련하여 특수성, 탁월성, 국제성, 정통성, 실용성 등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김창수(2016)를 참고

39 관련 내용은 최영화·민경선 (2016) 참고

○ 인천화교가 갖는 특수성, 역사성은 2000년대부터 추진되어 온 인천차이나타운 개발사업의 근간이 되었으며, 인천시 중구청은 인천화교 및 화교집거지가 갖는 가치를 활용하여 장소매력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실용적 가치를 구현하는데 이를 적극 활용하였음.

○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된 인천차이나타운 개발 과정은 인위적 중국풍 경관 조성에 주안점을 둔 공공부문의 투자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쇠락했던 화교집거지는 빠르게 관광명소화 되었음.

○ 그러나 인천차이나타운 명소화 과정은 화교커뮤니티가 중점이 되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인프라 개발을 통해 이루어졌음.

○ 이 과정에서 화교의 역사와 문화를 진정성 있게 구현하지 못하였으며 상업화된 먹거리 위주의 관광명소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인천 개항장 관련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방문객들이 차이나타운을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는지 보다 자세히 파악할 수 있음.[40]

- 2015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온라인에서 작성된 개항장 관련 언급 글 가운데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63,356건의 83.1%인 52,623건이 차이나타운을 언급하고 있어, 차이나타운이 인천 개항장을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잡았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차이나타운 연관어 중 45% 이상이 짜장면, 짬뽕, 만두, 탕수육 등으로 이 지역 방문 목적이 주로 중국음식을 먹기 위한 것임을 보여 줌.
- 또한 차이나타운과 연계된 방문지역이 개항장 일원의 문화/예술 지구가 아닌 동화마을, 월미도, 자유공원, 송도 등으로 개항 역사·문화 유적지로서 인천차이나타운의 매력과 진정성의 구현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인천차이나타운 개발과정에서 물리적 환경 정비나 조형물 설치 등에 집중되었던 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주로 화교 유적·건축물 등의 활용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 인천 화교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무형유산 및 근현대 유물·기록 자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차이나특구 개발 계획이 '차이나타운=중국음식점타운'이라는 인식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는 신성희(2008:94)는 '언어', '예술', '종교' 등 다양한 중국 콘텐츠들이 역사적으로 계승되고 재생산되는 '다국적 문화력'의 구심 공간으로서 차이나타운을 특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음.

40 관련 조사 결과는 윤하연(2016:2, 5-6, 10-11) 참고.

○ 화교 역사문화 자산의 발굴/보존/확산을 포함한 다각적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인천화교 역사문화 자산 활용 방안

1) 인천 화교 역사문화 자산 특징

○ 인천 화교사회는 차이나타운 개발 과정에서 주목을 받아 온 유적·건축물 등 유형자산 뿐만 아니라 고유의 무형유산 및 근현대 유물·기록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 근현대에 걸쳐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인천화교 고유의 정치·경제·사회 생활양식이 반영된 역사문화 자산이 ▲유적·건조 ▲무형유산 ▲유물 ▲기록물의 형태로 유지되어 오고 있음.

- 인천 화교 역사·문화 자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고

○ 인천화교의 역사성과 고유성에 바탕을 둔 실용적 활용이 본연의 역사성과 고유성의 화교 가치를 증진시키고 발전시키는 "인천화교 가치의 선순환적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인천차이나타운 개발과정에서 물리적 환경 정비나 조형물 설치 등에 집중되었던 정책 방향을 전환하여 화교 역사문화 자산의 발굴/보존·유지/확산·전승을 포함한 다각적 활용을 지원해야 함.

○ 인천 화교 역사·문화 자산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우선 인천화교 유적·건조 자산은 조계지 계단 및 공화춘, 그리고 중구청에 기부 체납된 중화루터를 제외하고 대부분 비지정 문화유산으로서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41]

○ 사적소유의 유적·건조 자산의 경우 지역 장소성과 무관하게 상업적으로 이용되거나 철거되어 멸실될 수 있음.

○ 근현대 건축 자산은 기본적으로 원형 보존 원칙에 따라 온전하게 보존하면서도 일반 시민들 속에서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공간으로서 존재할 때 그 가치가 더욱 커질 수 있음.[42]

41 점포·주택은 사적소유이며 청국영사관터와 화교학교 등 공공시설은 중화민국 소유임.

42 강영문(2015:195)

○ 이 같은 측면에서 인천차이나타운에 밀집해 있는 인천화교 유적·건조 자산을 교육과 문화의 구심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인천화교 사회와 각 화교 가정을 중심으로 계승되고 있는 일련의 화교 무형자산의 경우, 세대를 거듭하면서 점차 변형되거나 멸실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개인 또는 가정에서 계승되어지고 화교 무형자산을 기록하고 이를 공적으로 보존·유지하여 전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인천화교 역사문화 활용 사업을 기회로 보다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
○ 쇠락기를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활동이 침체된 인천화교협회 등 인천화교 커뮤니티에 대한 지역 차원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함. 인천화교사회와 지역 공공기관 및 전문가 집단 간 상호이해에 기초한 협업이 필요함.

2) 화교 역사문화 자산 활용 정책 제안

(1) 유적·건조 자산 활용

○ 유적·건조 자산의 역사성과 고유성을 보존하면서 실용적 가치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
- 인천차이나타운의 유적·건조 자산의 무분별한 상업적 개조와 활용을 피하면서, 다른 유·무형 자산과의 종합적 연계를 통한 다양한 활용 방안과 모색이 필요함.
- 인천차이나타운에 밀집해 있는 인천화교 유적·건조 자산을 교육과 문화의 구심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적극 모색해야 함.
- 그 일환으로 ① 화교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확대와 ②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화교 역사·문화 안내 등을 제안 함.

■ 화교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확대

○ 인천의 화교 역사·문화 자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먹거리 위주의 차이나타운 명소화의 한계 극복 필요함.
○ 인천화교의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확대하고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차이나타운을 '장소를 통한 다문화·국제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

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43]

- 화교는 한국의 근현대 역사와 개항지 인천의 장소성을 담지하고 있는 집단이며, 화교 집거지인 차이나타운은 인천의 개항역사와 다문화집거지로서의 특징이 반영되어 있는 중요한 장소자산임.

○ 이와 관련하여 화교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시민·학생 참여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제안함.

- 인천 중구청이 2008년부터 실행하고 있는 중국어마을프로그램은 차이나타운 현장에서 중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의미 있음.
- 프로그램 성과와 한계에 대한 검토에 기초하여 차이나타운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확대 발전 필요

43 관련 논의는 신성희(2009:125-126) 참고

[참고 자료]

차이나타운 중국어마을 프로그램

○ 중구청 2008년부터 차이나타운 현장에서 중국어 및 중국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목표로 한 중국어마을 조성 사업 진행

○ 2010년 중구문화원에 위탁운영. 2013년 7월 조례제정, <중구문화체험교실>로 명칭 변경함.

○ 차이나타운의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 체험, 관광의 접목을 시도한 프로그램은 사업 초기 중국어캠프 운영, 중국어 사용 음식점·상점 지정, 화교 대학생 참여 등을 시도함.

○ 2014년 어학문화강좌 및 어린이교실 폐지하고 2016년 현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중국문화체험교실'을 운영 중

○ 마작체험, 차이나 현장학습, STAMP투어, 관광서포터즈 봉사활동, 펄러비즈 만들기 체험, 중국 전통문화 체험 등 프로그램 실행






출처: http://enews.incheon.go.kr/main/php(검색일: 2016-09-10)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화교 역사·문화 안내

○ 인천차이나타운 개발과정에서 인위적인 중국풍 경관 조성으로 인한 장소의 진정성(authenticity)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화교 건축물/유적의 난개발과 과도한 상업적 이용에 따른 문제점 보완하는 한편 화교 역사문화 안내 시스템 및 콘테츠 강화가 필요함.

○ 이 같은 배경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활용, 장소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 설명과 안내를 위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제안함.

- ①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차이나타운 안내시스템 구축을 통해, 디지털거리박물관 구현
- ② QR(Quick Response) 코드를 활용, 별도의 가이드 장치없이 스마트기기로 코드를 인식해 해당명소의 정보를 시각화, 영상화, 청각화된 자료로 제공하는 역사문화 서비스 구축[44]
- ③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홀로그램 같은 첨단 ICT를 활용, 과거와 현재의 경관, 건축물 등을 대비시켜 입체적으로 전달

○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화교 유적·건조물을 선정하여 ICT를 활용한 경관 조성 시범사업을 진행. 시민 반응 등 성과에 기초하여 단계적으로 차이나타운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2) 무형자산의 활용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천화교 무형자산의 경우 점차 변형·멸실 가능성이 높음.

○ 이에 개인 또는 가정에서 계승되어지고 화교 무형자산을 기록하고 이를 공적으로 보존·유지하여 전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무형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화교 유물·기록에 대한 보다 체계적 수집과 기록화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

- 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과 인프라를 강화해야 하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인천화교역사관의 시립박물관 직영화를 추진해야 함.
- 화교 무형유산의 발굴과 유지·발전을 위한 화교커뮤니티의 주체 역량 강화와 이를 위한 지원체계 등 협력기제를 마련해야 함.

44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개발한 미디어를 통해 양방향 개인맞춤 안내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다음 언론보도 참고(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011202109976731004: 검색일 2016-09-08)

- 이의 일환으로 ② 화교 역사·문화자산의 활용을 위한 국내외 협력기제를 마련해야 함.

■ 인천화교역사관의 강화 및 내실화

○ 무형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화교 유물·기록에 대한 보다 체계적 수집과 기록화 사업이 필요하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 및 조직 부재함.

○ 인천화교역사관을 여러 시설 및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화교유물을 모으고 전시하는 문화 플랫폼이자 신규 유물 발굴·조사의 기획 및 실행을 위한 핵심적 기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한중문화관, 인천화교역사관, 짜장면박물관 등 화교 문화인프라의 전시물 수준을 제고하고 소장 유물의 종합적 관리
- 인천화교역사관의 운영 내실화와 확대발전을 위해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직영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 인천화교역사관 주도의 <인천화교 역사·문화자산 전문가 회의>구성·운영을 제안함.

- 새롭게 발굴되는 화교 역사문화 자산의 집성과 보관 및 활용과 관련하여 화교협회, 관련 학술단체, 인천시청, 중구청, 시립박물관 등 공공부문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식적 논의의 장으로 활용

■ 인천화교 역사문화 자산 활용을 위한 협력기제 마련

○ 점차 소실되어 가는 화교 역사·문화자산의 발굴과 유지·보존 등의 활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협력을 일구어 낼 기제 마련이 필요함.

○ 협력기제의 매개로서 가칭 <인천화교역사·문화자산발전기금> 조성을 고려할 수 있음.

- 지역문화진흥법의 지역문화진흥기금 조항을 참고하여 인천 지역의 화교 역사와 문화자산 발굴·유지·활용을 위한 민관 공동 출자의 기금을 조성
- 기금재원을 인천시와 중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등의 출연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천 화교협회, 인천차이나타운상가번영회 등 화교 유관 단체와 개항장 일원의 상인, 그리고 중국대륙 및 타이완의 정부, 해외화교단체 등의 모금 등으로 다각화

○ 기금 운영과 관련 사업 기획·추진을 통해 민관협력 기제를 점진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

-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금관리위원회를 조성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사무국 설치와 운영을 통해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 기금 운영과 관련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이해관계자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인천화교역사문화재단> 수립을 장기과제로 설정

참고문헌

강영문(2015),『동남아화교비즈니스』, 전남대학교출판부.

권기영·이정희 편(2015),『인천, 대륙의 문화를 탐하다』, 학고방.

김성도(2013),『건축유산의 보존과 활용, 근현대문화재』, 도서출판 고려.

김수한(2009),"한국 차이나타운의 지역 명소화 전략 연구-인천시 중화가를 중심으로",『중국과 중국학』.10.

김창수(2016),"인천 도시가치자원 현황과 자원화 방안", 인천발전연구원(미발간자료)

김창수(2010),"인천 대불호텔·중화루의 변천사 자료연구",『인천학 연구』.13.

박경태(2008),『소수자와 한국사회』, 후마니타스.

박상순(2001),『재한중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연구: 대만계중국인을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법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박현규(2009),"인천화교 의선당의 모습과 민간신앙 조사",『역사민속학』.29.

손덕순 구술·송승석 채록((2012),『인주골 중국동네 사람들- 인천화교 손덕준의 가족이야기』, 한국학술정보

송승석·이정희(2015),『인천에 잠든 중국인들-인천화교협회소장자료를 중심으로』, 학고방.

신성희(2009),『인천시 다문화 분포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신성희(2008),『인천시 문화지구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근대시기 문화자원 밀집지역을 사례로』, 인천발전연구원.

양필승·이정희(2004),『차이나타운 없는 나라- 한국 화교 경제의 어제와 오늘』, 삼성경제연구소.

이덕훈(2004),『화교경제의 생성과 발전』, 한남대학교출판부.

이옥련(2013),"근대 개항도시의 화교사회와 동아시아 해상네트워크-인천과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김수한 외,『황해에서의 초국경 협력과 평화-한중일 역사』문화교류와 국가전략』, 인천발전연구원.

이옥련(2008),『인천 화교 사회의 형성과 전개』, 인천문화재단.

이현식(2001),『인천 차이나타운의 조성 방향』, 인천발전연구원 한중교류센터.

이창호(2011),"한국 화교사회의 정치적 조직과 역동성-인천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中央史論』.33.

이정희·송승석(2015),『근대 인천화교의 사회와 경제-인천화교협회소장자료를 중심으로』, 학고방.

인천문화재단(2015),『114년의 기억, 한국인천화교중산중소학 1902-2015』, 인천문화재단.

인천광역시립박물관(2008),『개항장 화교의 신앙과 민속』.

인천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2007),『테마로 찾아보는 인천 개항장 역사기행』, 인천광역시.

왕언메이(2013),송승석 역,『한국화교-냉전체제와 조국 의식』, 학고당.

윤하연(2016),"인천 개항장 관련 쇼셜 빅데이터 분석 결과와 제언", 인천발전연구원 시정이슈제안 제38호 (2016-11).

장수현(2002)," 한화(韓華), 그 배제의 역사",『당대비평』.19.

진유광 저, 이용재 역(2012),『중국인 디아스포라-한국화교이야기』, 한국학술정보.

정회옥 외(2015),"한국화교집단에 대한 분석:정체성과 사회경제적 배경을 중심으로",『사회과학연구』.23(1).

최영화 외(2016),『인천 도시가치 발굴 시민설문조사』, 인천발전연구원 (미발간자료).

주한타이완대표처(http://web.roc-taiwan.org/kr/post/98.html검색일: 2016-08-0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http://www.immigration.go.kr/) 통계연보.

Social metrics(http://insight.some.co.kr/campaign.html).

한중문화관 (http://www.hanjung.go.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4 검색일: 2016-10-10)

중소기업청 (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84308906&tblKey=GMN 검색일: 2016-10-11)

짜장면박물관 홈페이지(http://www.icjgss.or.kr/jajangmyeon/ 검색일:2016-10-04)

한국문화재단문화유산정보(https://www.chf.or.kr/c2/sub2_2.jsp?thisPage=1&searchField=&searchText=&brdType=R&bbIdx=101449 검색일: 2016-9-30)
인천박물관 홈페이지 및 인천시블로그(http://incheonblog.kr/2293(검색일: 2016-09-10)
http://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1412/dh20141218104053137890.htm:(검색일: 2016-10-10)
http://enews.incheon.go.kr/main/php(검색일: 2016-09-10)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011202109976731004(검색일: 2016-09-08)
http://enews.incheon.go.kr/main/php/search_view_new.html?idx=11164(검색일: 2016-10-10)



부평 향교 고유제 인천광역시 부평구



V

인적자산과 가치화 방안

1. 인적자산의 개념과 유형
2. 인적자산의 현황
3. 인적자산 선정과 활용 사례
4. 인적자산 가치화 방안



산재 고일 선생 해방전 신간회 인천지부 간부와 신문기자단과 함께 찍은 모습

인적자산과 가치화 방안

채은경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1. 인적자산의 개념과 유형

1) 인적자산의 개념

○ 인적자산(Human Assets)이란 역사적 또는 현세의 인물 중 뛰어난 사람이라고 쉽게 정의함. 사실 "인물"이란 단어 역시 사전적으로 살펴보면 생김새나 됨됨이란 표현 외에도 "뛰어난 사람"의미(네이버 사전)

○ 영어권에서도 인물을 일반적 사람을 뜻하는 "person", 사람의 특징을 뜻하는 "character"외에도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는 "figure"또는 "personage"라는 단어 사용(채은경·정남숙, 2015)[45]

○ 이러한 인물이 역사적·사회경제적으로 가치가 지닌 어떠한 실체가 될 때, 이를 인적자산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 자산(assets)이라는 개념에는 축적될 수 있다는 의미와 활용의 용이함이라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는데(최현선 외, 2012), 인적자산에는 역사적 인물과 현존

45 공통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뜻하는 의미가 이 단어 인물 또는 "person"에 담겨 있는데, "person"의 어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음. "person"의 어원은 라틴어 "persona(페르소나)"에서 찾을 수 있으며, 페르소나는 연극에서의 가면을 의미함. "per"이 접두어로 '무엇을 통해서'란 의미이며, "son"이 'sonar(소리)'를 의미하는 단어로 페르소나란 '소리를 통해서'란 의미임. 이는 고대 연극의 가면에 있던 소리 내는 부분 즉, 얇은 천에서 유래한 것으로 가면의 얇은 천을 통해서 소리 즉 대사를 읊은 것에서 유래함. 루이스 멈퍼드(2011). 예술과 기술. 텍스트 사. 영어어원사전(Online Etymology Dictionary) 인용.

인물 중 "뛰어난 사람"을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자산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와 같은 인적자산에 대한 관심을 찾아 볼 수 있음.

- 단군 신화 등 영웅 설화를 비롯하여 묘비명과 비석에 선조(先祖)의 공덕(功德) 등을 새겨둔 것으로 보아 인적자산에 대한 관심은 오래된 것으로 알 수 있음(네이버 지식백과『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해제).
- 역사적으로도 많은 인물을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는 전기의 집성 곧 인물지(人物志)가 만들어졌으며, 18세기 중엽에는 조선의 인물을 광범위하게 망라하여 다룬『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가 편찬된 바 있음(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 이러한 전기의 편찬은 어느 시대나 선조의 살아온 바를 축적하여 이를 널리 알리고 후세에 본받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현된 것임.

○ 따라서 인적자산이란 협의로는 위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역사적이나 현세에 뛰어난 인물 자체를 의미하며 여기에 더하여 광의로는 인물을 배경으로 하는 지역의 자산(People-based assets)을 의미함.

○ 즉, 여러 인물들이 모여서 어떠한 공동체나 단체를 만들어서 그들이 지역 사회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인물들이 모여서 하나의 캠페인이나 운동(movement)으로 그 지역 사회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도 인적자산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음.

○ 본고에서는 보다 협의적 차원에서 인적자산을 정의하고자 함. 즉, 역사적이나 현세에 뛰어난 인물 자체에 집중하고 특히 인적자산 중 지역과의 관계성에 제한하여 인천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뛰어난 인물로 한정하고자 함. 현세의 인물의 경우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뛰어난 인물 자체에 한정하고자 함.

○ 또한 광의로는 인물을 배경으로 하는 지역 자산적 가치로서 단체나 운동 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 역시 평가하기에는 자료가 미미한 관계로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임. 다만, 앞으로의 인적자산 중 공동체의 개념에서 접근하는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됨.

2) 인적자산의 유형

○ 인적자산을 포함한 역사 문화적 자산은 동시대인들의 공통된 기억에 근거하며, 그 기억과 사회문화적 가치가 긍정적 상관을 가질 때 선별이 되어 기록물로 남음. 그 시

대를 살아보지 않은 후세대들은 그 기록물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산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그 자산의 가치라 함은 동시대인의 평가와 후세대인들의 선별의 결과임.

○ 이러한 선별의 결과는 편견을 그 자체에 내재하게 되며 인적자산의 평가, 위 표현대로 하면 자산에 대한 판단 기준 설정과 기준에 따른 내용 구분 역시 한계가 있음.

○ 인적자산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유형 분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분류체계가 만들어짐. 분류 체계는 학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인적자산에 대하여『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의 인물 분류체계를 따르기로 함.

○ 우리나라에서 인적자산을 분류하는 또 다른 체계로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 공공기관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기 위한 것과 조선일보 등 다양한 신문사에서 분류하는 것이 있음.

- 이들 분류체계는 현대 동시대인들에 대한 분류체계로서 대부분 직업 분류를 따르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동시대인물의 경우 평가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음.

○ 역사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인물 분류체계의 대표적인 것은『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이 있음.

- 「역사 향토문화전자대전」은 9가지로 인물을 구분하고 있음.
- 문무관인, 효자·열녀, 문인·학자, 왕족·호족, 예술인, 종교인, 의병·독립운동가, 인물(일반), 가공인물
- 특정적인 것은 가공인물이 있다는 점이며, 문인과 예술인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 조선 시대의 영향으로 효자와 열녀 부분이 따로 선정되어 있다는 점임.

○ 본고의 경우, 현대의 인물(작고 인물 기준)과 역사 인물을 통합하여 현황을 살펴보아야하기 때문에, 인적 자원의 분류 기준도 이와 같이 동시대 인물을 유형화하는 것과 역사 인물을 유형화하는 것을 통합하여 분류 기준이 제시되어야 함.

○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현대 인물 분류체계를 사용하되, 역사 인물의 분류체계를 여기에 통합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단순화된 체계를 채택하기로 함.

○ 여기에서 사용하는 인적자원 분류체계는 다음 표와 같음.

인적자산 분류체계

구분	현대인물 분류체계	역사인물 분류체계	비고
문화·체육	문화예술/체육인	예술인	-
정치·관료·군사	정치인/공무원/법조인/공공기관 임직원/군인	의병독립운동가 왕족·호족 문무관인	-
학술·교육	교육인/연구·학술인	문인·학자	-
종교·무속	종교인	종교인	-
기타	언론인/사회복지기관/시민단체·노조/경제·기업인/금융인 /전문직업인	효자·열녀/인물(일반) /가공인물	사회·언론과 경제·기업을 분리하기도 하였음.

○ 인적자산에 대한 분류는 시대별 특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음.

- 역사적 인물을 다룰 때에는 정치·관료인들이 치안과 군사를 병행하게 됨.
- 사회·언론 기능 역시 학술·교육자들이 병행하며, 조선시대의 경우 관직에 없는 경우 재야에서 교육인으로 활동한 경우가 많음.

○ 역사적 인물 중 기업·전문직업인의 경우 일부는 관료직으로, 일부는 일반인들 중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기록된 경우가 많음.

○ 조선 500년 역사를 거치면서 유교 문화 내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타 직업에 대한 인물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임.

○ 즉, 단순화된 인적자산에 대한 분류 역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 따라서 이를 복잡하게 할수록 논란이 더욱 많을 것으로 판단됨.

2. 인적자산의 현황

1) 인적자산 현황

■ 「인물DB」 개요

○ 현재 인천발전연구원에는 「인물DB」 자료로 두 가지가 있음. 하나는 인천도시가치자원발굴 및 활용전략을 위하여 DB화 한 것으로 318명의 인적자원이 목록화 되어 있음.

- 318명의 인적자원의 자료출처는 크게 몇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은 자료 출처는 국가보훈처 목록임(154개, 전체의 48.4%).
- 두 번째로 많은 자료 출처는『인물로 보는 인천사』(인천광역시, 2013) 임(81개, 저체의 25.5%)
- 위 두 자료가 전체의 73.9%를 차지하고 기타 인천 역사의 자랑, 가천문화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자료 등이 해당됨.

○ 두 번째는「인천인물DB」로 1,205명의 인적자원이 목록화되어 있음.

- 여기에는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의『인천광역시사』(2002)와『자랑스런 내고장 인천』(1985),『군구별 중구사』(2010),『영종·용유지』(2008),『계양사』(2001),『부평사』(1997),『옹진군지』(1990),『서구사』(2004) 등의 자료가 참조되었음.
- 이외에도 경인일보특별취재팀의『인천인물100人』(2009), 인천고의『인고100년사』(1995), 국가보훈처 자료 등이 참조되었음.

○ 위 두 가지 자료는 겹쳐지는 측면도 있으며, 각각의 자료가 중복된 자료도 있음.[46] 이에 따라 몇 가지 원칙에 따라 유형별 인적자산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 첫째, 이번 과제를 위하여 작성된 318명 DB를 우선적으로 분석함. 다만, 이 자료는 시대적 분류에서 살펴보겠지만, 국가보훈처 자료의 특성상 일제강점기 이후의 자료가 많이 구축되어 있음. 따라서 이 자료에서 개항기 이전의 자료는「인천인물DB」를 사용함.
- 둘째,「인천인물DB」의 자료는 시대적으로 고대, 고려, 조선, 개항기 전후로 구분하여 살펴봄. 자세한 내용은 아래 유형별 인적자산 현황에서 재논의 하겠음.

2) 유형별 인적자산 현황

■ 역사적(시대적) 분류

○ 인적자산을 역사적 또는 시대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은 보편적이나, 이 역시 엄밀하게 분류하는 것은 불가능함. 왜냐하면, 인물의 생몰연도를 볼 때, 두 시대를 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임. 따라서 인적자산의 시대 분류는 활동이 활발하였다고 판

46 1,205명의 자료 중 4명의 자료는 삭제되어야 할 것임(중복 등), 위 두 DB 중 겹쳐지지 않는 인물은 105명 정도임. 즉, 213명이 중복되는 자료임. 따라서 전체적으로 DB화되어 있는 인적자원은 1,310명임(자료에 오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 자료의 수는 지속적으로 수정되어야 함).

단되는 시기를 중심으로 함. 여기서 역사적(시대적) 분류는 고대, 고려, 조선, 개항기 전후로 구분하여 살펴봄.

○「인천도시가치자원발굴DB」(318명 대상)

- 「인천도시가치자원발굴DB」(이하 「가치자원 DB」)에는 전반적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훈처 자료를 많이 인용하였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인물이 53.8%를 차지함. 또한, 현재 인물도 30.5%를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개항기 이전 DB가 매우 빈약함.[47]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의 인천 인물이 많이 확보되어 있으며, 이들 인물 자료들은 보훈처에서 공훈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대부분 확인된 자료이므로 신뢰도가 높음.
- 타 지역 자료와의 비교 검토가 필요하나, 현재 구축된 자료만 하더라도 인천 지역에서의 독립운동이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음.
- 특이점으로 1909년 1월 19일에는 연평도 등지에서 의병운동으로 5명이 사망한 바가 있음(공석두, 서여선, 원광덕, 이근수, 최흥대).[48]

47 · 고대: 비류, 연개소문
· 고려: 고종, 이규보, 이자연, 이장용, 이정공, 이허겸, 최우
· 조선: 김민선, 김상용, 김재로, 대각국사 의천, 신흠, 양헌수, 어재연, 윤동규, 이건창, 이광사, 이단상, 이세주, 이승훈, 이형상, 임경업, 정우량, 정제두, 정희량, 조헌, 채수, 허간, 허득
· 개항기: 강화석, 고요한(찰스 코프), 김구, 김기범, 김덕순, 김병훈, 남득시(엘리 바 랜디스), 서상빈, 서상집, 손승용, 신순성, 연기우, 오례당, 유명규, 유완무, 이건승, 이능권, 전학준(에우제니오 드뇌), 조원시(조지 허버 존스)

48 · 운동 계열 : 의병운동
· 이근수(李根守) 의진의 중대장(中隊長)으로 황해도 연안(延安) 등지에서 활동. 이근수는 1907년 황해도를 중심으로 활약한 이진용(李鎭龍) 의진에 소속되어 부장(部將)으로 활약함. 이진용 의진은 대규모의 접전보다는 소규모의 게릴라전을 전개하여 평산·해주 일대에서 적과 30여 차례에 걸쳐 접전, 많은 전과를 올림. 이근수 의진은 1909년 1월 중순 온정원(溫井院) 일대에서 활약하다가 수비대의 압력에 의해 연안(延安)·청단(靑丹) 역의 중간 지구를 거쳐 남방 연안 도서로 진출하였고 1909년 1월 19일 새벽 약 60여 명의 병력을 두 척의 배로 나누어 증산도(甑山島) 방면에서 연평도(延坪島) 북부로 상륙하여 해를 보내고자 함. 당시 이근수 의진은 총대장(總大將) 이근수, 중대장(中隊長) 공석두(孔石斗) 분대장(分隊長) 최흥대(崔興大)·서여선(徐汝善)·원광덕(元廣德)이었음. 그러나 이미 연평도에 진을 치고 있던 일본 수비대와 동일 정오부터 약 5시간 여에 걸친 치열한 교전 끝에 공석두는 이근수 이하 46명의 의병들과 함께 전사.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3년에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註·韓國獨立運動史資料(國史編纂委員會) 第13輯 165·166面(暴徒에 관한 編冊 黃警發 第33號 1909. 1. 20).

인적자원 시대 구분_「인천인물 DB」를 중심으로

구분	명	분포(%)
고대	2	0.6%
고려	7	2.2%
조선	22	6.9%
개항기	19	6.0%
일제강점기	171	53.8%
현대	97	30.5%
총합계	318	100%

자료 : 인천도시인문학센터「가치자원DB」

○「인천인물DB」(1,205명 대상)

- 「인천인물DB」에는 전반적으로 시사, 군·구사 자료를 많이 인용하였기 때문에 조선 시대 인물들이 전반적으로 많음(전체의 44.8%).
- 고대 인물로는 곤우와 비류가 있음.[49] 고대 인물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나, 고려 시대의 경우, 항몽전쟁시 강화도를 중심으로 많은 인물들이 활동함.

인적자원 시대 구분_「인천인물 DB」를 중심으로

구분	명	분포(%)
고대	4	0.3%
고려	73	6.1%
조선	540	44.8%
개항기	90	7.5%
일제강점기	223	18.5%
현대(해방이후)	275	22.8%
총합계	1,205	100%

자료 : 인천도시인문학센터「인천인물 DB」

○ 두 자료를 볼 때, 다른 시대의 경우, 인물이 많아 명확하게 구분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나 고대의 경우, 크게 네 명으로 요약할 수 있음: 단군, 비류, 곤우, 연개소문

49 곤우는 백제초기 다루왕 때의 장군이며, 강화 교동을 고목근이라고 하였는데, 이 때 곤의의 군사가 고목근성에 주둔하면서 말갈군과 격전을 벌여 말갈군을 격퇴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음(인천광역시사, 2002). 註·韓國獨立運動史資料(國史編纂委員會) 第13輯 165·166面(暴徒에 관한 編冊 黃警發 第33號 1909. 1. 20).

■ 인물 활동 분야에 따른 분류

○ 인물 활동 분야는 1) 문화·체육, 2) 정치·관료·군사, 3) 학술·교육, 4) 종교·무속, 5) 기타로 구분함. 다만, 기타의 경우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회·언론과 기업·전문직업인을 구분함.

○「인천도시가치자원발굴DB」(318명 대상)

- 「가치자원DB」 318명을 대상으로 활동 분야에 따른 분류를 실사한 결과, 정치, 관료, 군사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함.
- 「가치자원 DB」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시대인 일제강점기의 경우, 항일운동이 주요 항목인데, 이 부분 역시 정치·관료·군사 부분에 포괄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전체의 59.4%).

인물 활동 분야에 따른 분류_「가치자원DB」를 중심으로

구분		명	분포(%)
문화·체육		46	14.5
정치·관료·군사		189	59.4
학술·교육		20	6.3
종교·무속		16	5.0
기타	사회언론	27	8.5
	기업전문직업인	20	6.3
총합계		318	100.0

자료 : 인천도시인문학센터「가치자원DB」

- 「가치자원DB」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일제강점기 인적자원 171명을 다시 활동 분야별로 구분하면 다음 표와 같음.
- 언급한 바와 같이, 항일운동을 부분에 들어가는 정치·관료·군사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함(전체의 90.6%).[50]

50 정치·관료·군사의 155명 중 153명이 항일운동으로 분류되었음.

일제강점기 인적자원 활동분야별 구분_「가치자원DB」를 중심으로

구분		명	분포(%)	비고
문화·체육		6	3.5	문학,연극영화,음악
정치·관료·군사		155	90.6	의원,항일운동
학술·교육		3	1.8	교육,문학,학술
종교·무속		2	1.2	개신교,성공회
기타	사회·언론	1	0.6	언론인
	기업·전문직업인	4	2.3	의원,기업인
일제강점기합계		171	100.0	-

○「인천인물DB」(1,205명 대상)

- 앞서, 「가치자원 DB」가 일제강점기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를 제외하고 활동분야별 인적자원을 구분하고자함(전체 1,205명의 자료 중 707명의 DB를 검토함). 왜냐하면, 「가치자원DB」의 경우 국가보훈처 자료를 많이 인용하여, 독립운동가 등의 자료가 충실히 구축되어 있기 때문임.
- 아래 표를 볼 때, 고려나 조선시대 모두 정치·관료·군사 부분의 인적자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인천의 경우 항몽 투쟁, 병인양요 등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군사·치안 분야의 활동가가 많음.
- 조선시대의 기타 부분에 속하는 사람 중 효자, 효부, 열녀 등의 자료가 많이 구축되어 있음.

「인천인물DB」 활동분야별 인적자원 구분

구분	고대	고려	조선	개항기	합계
문화·체육		6 (8.2%)	1 (0.2%)	3 (3.3%)	10 (1.4%)
정치·관료·군사	4 (100%)	55 (75.3%)	435 (80.6%)	39 (43.3%)	533 (75.4%)
학술·교육		4 (5.5%)	40 (7.4%)	21 (23.3%)	65 (9.2%)
종교·무속		3 (4.1%)	2 (0.4%)	6 (6.7%)	11 (1.6%)
기타		5 (6.8%)	62 (11.5%)	21 (23.3%)	88 (12.4%)
총합계	4 (100%)	73 (100%)	540 (100%)	90 (100%)	707 (100%)

■ 인물 활동 장소에 따른 분류

○ 활동 장소에 대한 분류는 현재의 구·군 등 지방자치제도를 기준으로 할 때는 모호한 점이 많음. 이 때 부천과 부평 지역도 정확하게 현재의 지리적 경계선과 같지 않음. 따라서 미분류가 많음.

○ 역사 인물의 경우(1,205명의 「인천인물 DB」), 현재 발간된 『인천시사』, 『옹진군지』, 『계양사』, 『서구사』 등의 자료를 인용하기 때문에, 몇 가지 해석상 주의점이 있음.

- 각각의 자치단체가 행정적으로 분리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각 구·군별 사료가 앞선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시기적으로 후대에 쓰여진 자료를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하였음. 이 때, 후대의 자료가 더 많은 인물이 있는 것으로 오해가 될 수 있음.
- 또한, 동구나 남구, 연수구, 남동구처럼 지역사와 관련된 자료가 없는 경우 인물이 적은 것으로 오해될 수 있음.

○ 개항기 이후에는 인천항 주변 관련 인물들이 많은데, 이 또한 그 활동지를 중구·동구·남구를 특정하기 어려우나, 출생지, 활동 중심지, 사료에 나타난 명칭을 중심으로 구분함.

○ 인물 활동 장소에 따른 분류: 「인천도시가치자원발굴DB」(318명 대상)

- 인천도시가치자원(318명 대상)을 기준으로 할 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곳은 남구임.
- 이 중 문학동에 28명으로 특정 장소 인물이 많은데, 이들은 대부분 현대 인물로 무형문화재 전수자임. 즉, 현대 인물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임.
-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곳은 강화군임. 강화군은 앞서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관련 인물들이 많은 것으로 추정됨.

「가치자원DB」 활동 장소별 인적자원 구분

구분	명	분포(%)	비고
중구	27	8.5	내동4명
동구	14	4.4	창영동8명
남구	41	12.9	문학동28명

연수구	-	-	
남동구	1	0.3	
부평구	1	0.3	
계양구	2	0.6	
서구	5	1.6	
강화군	29	9.1	강화읍9명
옹진군	5	1.6	
미분류	193	60.7	
합계	318	100.0	

- 318명 자료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일제강점기 시대 171명을 지역별로 구분하면 다음 표와 같음. 물론 이들 중 대부분은 활동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임.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분들을 제외한다면, 강화군과 동구에 인적자산들이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 일제 강점기의 인물들이 주로 항일운동이나 독립투쟁, 또는 국민 계몽 운동 등에 헌신하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 분들을 중심으로 자산화 방향과 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치자원DB」 활동 장소별 인적자원 구분_ 일제강점기를 기준으로

구분	명	분포(%)
중구	6	3.5
동구	8	4.7
남구	1	0.6
연수구	-	-
남동구	-	-
부평구	-	-
계양구	2	1.2
서구	-	-
강화군	8	4.7
옹진군	1	0.6
미분류	145	84.8
일제강점기 총합계	171	100.0

○「인천인물DB」(1,205명 대상)

- 인천인물 역시 개항기 이전을 중심으로 707명에 대한 지역을 분류하면 다음 표와 같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역사 인물은 장소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활용화의 측면에서 분류를 실시함.
- 전체적으로 각 지역사에 기초하기 때문에, 지역사가 있는 중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옹진군의 인물들이 많음. 또한, 인천시사 등에서 강화 지역에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가 있음.
- 지역적으로 볼 때, 부평을 중심으로 한 계양, 서구의 인물과 강화군의 인물이 많이 나타는 것을 알 수 있음.
-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항기 이전의 경우 중구, 동구, 남구 등의 인천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와 부평, 계양, 서구 등 부평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오히려 의미가 있음.

「인천인물DB」활동 장소별 인적자원 구분

구분	고대	고려	조선	개항기	합계
중구	-	-	18 (3.3%)	19 (21.1%)	37 (5.2%)
동구	-	-	-	-	
남구	-	-	2 (0.4%)	-	2 (0.3%)
연수구	-	1 (1.4%)	1 (0.2%)	-	2 (0.3%)
남동구	-	-	-	-	
부평구	-	6 (8.2%)	60 (11.1%)	6 (6.7%)	72 (10.2%)
계양구	-	19 (26.0%)	185 (34.3%)	16 (17.8%)	220 (31.1%)
서구	-	6 (8.2%)	117 (21.7%)	12 (13.3%)	135 (19.1%)
강화군	3 (75.0%)	23 (31.5%)	123 (22.8%)	15 (16.7%)	164 (23.2%)
옹진군	-	7 (9.6%)	20 (3.7%)	11 (12.2%)	38 (5.4%)
인천+미분류	1 (25.0%)	11 (15.1%)	14 (2.6%)	11 (12.2%)	37 (5.2%)
총합계	4 (100%)	73 (100%)	540 (100%)	90 (100%)	707 (100%)

3. 인적자산 선정과 활용 사례

1) 인적자산 선정 기준 및 방법

○ 본고에서는 인적자산 선정을 위하여 특별한 방법론을 택하여 선정하기보다, 기존 선정된 자료를 1차적으로 선별하여 유형화하고 구분하는 방법을 택하고자 함.

○ 앞서 인적자산의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활동 분야별로 인물들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분야별의 형평성을 강조하고자 함.

○ 지금까지 인적자산을 선정하여 이를 책으로 발간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자료가 있음.

- 경인일보 특별취재팀(2009). 『인천인물 100人』 (다인아트)
- 인천광역시(2013). 『인물로 보는 인천사: 기억하고 싶은 인물 남기고 싶은 인물』 (인천광역시)

○ 물론 이 두 가지 책에 대한 수용성이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지역의 인적자산을 선정하기 위하여 각 책에서의 과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수용하고 이들 자료를 활용하여 2차적으로 선정하고자 함.

- 경인일보 특별취재팀이 선정한 『인천인물 100人』은 기획과 진행을 인하대와 경인일보가 맡고, 감수를 인천학연구원에서 수행하였음. 관련 내용은 경인일보를 통하여 기획기사로 나갔고, 기사화가 된 후 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독자로부터의 환류도 있었다고 예측되어짐. 기사화는 2004년 9월 16일부터 2007년 12월 26일까지였음.
- 인천광역시의 『인물로 보는 인천사』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통해 발간되었음. 발간 후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인물 선정 과정을 거쳤음. 1) 인천의 전 역사시기의 인물을 대상으로 하되, 근현대 인물이 중심이 되었음. 2) 생몰년과 활동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물 가운데 작고인물을 대상으로 함. 3) 일정한 평가 이뤄진 인물을 대상으로 선정함(국가보훈처, 인천광역시사, 구군지 등에서 발간된 경우 일정한 평가가 된 것으로 간주함). 4) 근현대 인물의 경우 문화(예술), 교육, 사회운동(항일, 사회, 의병), 정치, 경제, 과학기술, 종교, 기타 분야를 고려하여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게 함. 5) 인물의 종교, 사상과 이념은 평가의 기준으로 삼지 않기로 하지만,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인물은 수록을 보류함(인천광역시, 2013).

○ 본고에서는 이러한 2가지 책이 인적자산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평가 기준과 내용을 포괄한다고 판단하고, 이들 두 책을 기준으로 하되, 몇 가지 세부 기준을 다시 세움.

- 첫째, 경인일보 특별취재팀의 자료는 고대에서 조선시대까지의 인물 자료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고대부터 조선 시대까지의 인물은『인물로 보는 인천사』의 자료를 취함.

- 둘째, 인천광역시(2013) 자료는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도시인문학센터의 DB 자료에서 출발하고 있으나 두 자료 사이에 오차가 있음. 즉, 인천광역시(2013)의 자료는 97명을 선정하고 있으나,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도시인문학센터 DB자료(현황에서 살펴본 318명 DB)에서는 인천광역시(2013)의 인적자원 중 94명이 DB화 되어 있음. 따라서 여기서는 94명의 DB만을 가지고 재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 셋째, 경인일보 특별취재팀의 자료는 100인의 인물을 선정한 반면, 인천광역시(2013)은 97명의 인물을 선정하였는데(94명의 DB), 이 중 공통적인 인물은 56명임. 이에 따라 56명의 인물을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로 구분하여 재분석을 실시하였음. 재분석 기준은 현재의 군·구, 활동 유형별 분류이나, 개항기 이후에는 현재의 군·구가 그다지 의미가 없어서 군·구별 활동은 분석을 제외하였음.

2) 인적자산 선정(안)

○ 위 기준에 따라 인적자산을 선정한 결과는 고대부터 조선까지 18명과 개항기 이후(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 56명으로 총 74명임.

■ 개항기 이전[51]

○ 개항기 이전의 인물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8명으로 고대 1명, 고려 시대 6명, 조선 시대(개항기 이전) 11명임.

개항기 이전 인적자산 선정 결과

구분	『인물로 보는 인천사』
고대	비류
고려	이자연, 이정공, 이규보, 최우, 고종, 이장용,
조선	신흠, 이단상, 이세주, 정제두, 이형상, 김재로, 정우량, 윤동규, 이광사, 이승훈, 어재연
총합계	18명

51 개항기를 중심으로 분류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개항기가 연도로 볼 때는 조선 고종의 중반기 집권시기부터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전까지 시기적으로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역사와 지리를 동시에 감안할 때 중요한 시기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임(『인물로보는 인천사』에서도 개항기를 따로 분류하고 있음). 둘째, 논의의 현실성 때문임. 인적자산 선정 결과를『인물로 보는 인천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자료 역시 이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었음.

○ 위 18명에 대하여 활동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정치·관료 부분이 가장 많음(치안·군사를 포함할 경우 전체의 56%를 차지함).

○ 이외에 학술·교육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조선 시대 활동한 인물임. 성리학자들이 많으며, 양명학으로 사회를 비판한 정제두 등이 대표적 인물임.

○ 지역적으로 볼 때, 문학산을 중심으로 한 남촌 지역(현재의 남구 지역으로 추정)과 강화군 등에서의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활동유형 및 활동 장소별 인적자산 선정결과(안)_개항기 이전

구분	문화·체육	정치·관료	치안·군사	학술·교육	종교·무속	총합계
고대		1				1
남구		1				1
고려		4	1	1		6
인천		3	1			4
강화군				1		1
남구		1				1
조선	1	3	1	5	1	11
인천	1	3		3	1	8
강화군			1	1		2
남구				1		1
총합계	1	8	2	6	1	18

○ 앞서 검토한 2개의 DB(「가치자원DB」, 「인천인물DB」)로 볼 때, 「인천인물DB」의 자료를 토대로 보다 확장 검토되어야 할 것임.

○ 「가치자원DB」의 경우, 이 시기의 인물이 31명에 불과함. 18명을 제외한 인물들의 추가 검토가 필요함.

○ 「인천인물DB」는 이 시기의 인물의 645명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스토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인물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인적자산의 경우 활동 장소와 남아 있는 역사·문화적 유물(물리적 자료) 등이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함. 이러한 자료들을 엮어 스토리텔링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고대사의 경우 전설 속의 이야기, 조선 시대 자료의 경우, 효자나 일반인 등의 이야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효자 등의 경우 "집안" 차원에서의 집합적 인물들의 이야기가 있음. DB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물별로 각개의 내용이 되어 있으나 포괄적 스토리로 활용이 될 필요가 있음.

■ 개항기 이후

○ 개항기 이후 인적자산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물로 보는 인천사』와 『인천인물 100인』에서 공통적인 인물들로 선정함. 이에 따라 총 56명이 선정됨.

○ 이중 개항기는 12명, 일제강점기는 16명, 현대는 28명임.

○ 현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이는 『인천인물 100인』이 현대인물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임), 향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개항기 이후 인적자산 선정결과(안)

구분	『인천인물 100인』 중 56인*	『인물로 보는 인천사』 중 76인
개항기	고요한, 손승용, 전학준, 김병훈, 서상빈, 서상집, 신순성, 강화석, 김기범, 남득시, 조원시, 유완무 (이상 12명)	강화석, 이건승, 연기우, 서상빈, 서상집, 유명규, 이능권, 정재홍, 김덕순, 유완무, 코 프, 남득시, 김 구, 신순성, 김병훈, 조원시, 손승용, 전학준, 김기범, 오례당 (이상 20명)
일제강점기	유군성, 유두희, 박두성, 심혁성, 김동석, 임영균, 조진만, 함세덕, 이길용, 원세하, 고유섭, 엄흥섭, 권평근, 유경근, 유봉진, 정재홍 (이상 16명)	홍승하, 심혁성, 이 담, 유봉진, 임용우, 김교창, 김명진, 유경근, 박두성, 유군성, 박길양, 이길용, 홍 진, 유두희, 곽상훈, 권평근, 김려수, 김동수, 조광원, 진우촌, 원우전, 엄흥섭, 조진만, 임영균, 이범진, 함세덕, 김동석, 이화자, 고유섭, 이성원 (이상 30명)
현대	박세림, 조봉암, 이회림, 김찬삼, 김은하, 김정렬, 박광성, 오화섭, 유완식, 하상훈, 강재구, 박창례, 신태환, 한하운, 유희강, 이훈익, 조중훈, 김선웅, 박경원, 배인철, 최성연, 고 일, 송수안, 김재곤, 신태범, 이경성, 장극, 길영희 (이상 28명)	하상훈, 조봉암, 길영희, 송수안, 고 일, 김정렬, 박창례, 유희강, 김재곤, 신태환, 신태범, 장 극, 한상억, 오화섭, 이훈익, 이회림, 이경성, 김선웅, 유완식, 배인철, 한하운, 조중훈, 김은하, 박광성, 박세림, 김찬삼, 박영성, 박경원, 강재구 (이상 30명)

주1): 『인천인물 100인』 중 56인은 『인물로 보는 인천사』와 겹치는 인물을 대상으로 함.
2): 위 80명은 책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DB를 기준으로 한 다음 표의 76명과는 숫자가 조금 차이가 남.

○ 활동유형별로 살펴볼 때, 문화·체육이 11명, 정치·관료·군사가 14명, 학술·교육 분야가 12명, 종교·무속이 6명이며, 기타 부분이 13명임.

○ 개항기 이전 시기의 분류에서는 정치·관료·군사가 압도적이나 개항기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학술·교육과 문화·체육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사회·언론 분야와 기업인, 의사 등의 기타 분야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인천 지역의 경우 '개항' 문화와 종교, 학술, 교육 등 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인물들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활동유형별 인적자산 선정결과(안)_개항기 이후

구분		『인천인물 100인』 중 56인*	『인물로 보는 인천사』 76인
문화·체육		김동석, 김선웅, 박경원, 박세림, 배인철, 원세하, 유완식, 유희강, 최성연, 한하운, 함세덕 (이상 11명)	김동석, 김선웅, 박경원, 박세림, 배인철, 원세하, 유완식, 유희강, 이화자, 진종혁, 최성연, 한상억, 한하운, 함세덕 (이상 14명)
정치·관료·군사		김은하, 김재곤, 김정렬, 심혁성, 유두희, 조봉암, 하상훈, 강재구, 유완무, 권평근, 유경근, 유봉진, 정재홍, 길영희 (이상 14명)	곽상훈, 김은하, 김재곤, 김정렬, 심혁성, 연기우, 오례당, 유두희, 유명규, 이 담, 이범진, 조봉암, 하상훈, 강재구, 김덕순, 이능권, 유완무, 김 구, 김동수, 권평근, 박길양, 유경근, 유봉진, 김명진, 정재홍, 홍진, 길영희 (이상 27명)
학술·교육		고유섭, 김병훈, 박광성, 박두성, 박창례, 신태범, 신태환, 엄흥섭, 오화섭, 이경성, 이훈익, 장 극 (이상 12명)	고유섭, 김병훈, 박광성, 박두성, 박창례, 신태범, 신태환, 엄흥섭, 오화섭, 이건승, 이경성, 이훈익, 장극 (이상 13명)
종교·무속		고요한, 김기범, 남득시, 손승용, 전학준, 조원시 (이상 6명)	고요한(찰스코프), 김기범, 남득시(엘린바랜디스), 손승용, 전학준(에우제니오 드뇌), 조광원, 조원시(조지 허버 존스), 홍승하 (이상 8명)
기타	사회 언론	강화석, 고일, 김찬삼, 송수안, 이길용 (이상 5명)	강화석, 고일, 김찬삼, 송수안, 이길용 (이상 5명)
	기업 전문 직업인	서상빈, 서상집, 신순성, 유군성, 이회림, 임영균, 조중훈, 조진만 (이상 8명)	서상빈, 서상집, 신순성, 유군성, 이성원, 이회림, 임영균, 조중훈, 조진만 (9명)

주1): 『인천인물 100인』 중 56인은 인물로 보는 인천사와 겹치는 인물을 대상으로 함.
2): 『인물로 보는 인천사』에는 개항기 이후 80명이나 318명 DB에는 76명만 목록화되어 있어, 이들만 대상으로 유형화함.

○ 개항기나 일제강점기 이후는 인천지역은 대부분 중구와 동구로 대표, 어느 한 지역을 특정할 수 없이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나, 태어난 곳이나 출신학교, 현재 남아 있는 물리적 유산(예: 가옥 등)을 중심으로 지역 구분을 함.

○ 독립운동이나 의병운동이 활발하였던 강화군과 개항기 시기에 들어온 새로운 종교들과 경제·사회적 변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중구와 동구의 인물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활동장소별 인적자산 선정결과(안)_개항기 이후

구분	『인천인물 100인』 중 56인*	『인물로보는 인천사』 76인
중구	서상빈, 서상집, 신순성, 강화석, 김기범, 남득시, 조원시, 원세하, 고유섭, 염흥섭, 조중훈, 김선웅, 박경원, 배인철, 최성연, 고 일, 송수안, 김재곤, 신태범, 장극, 길영희, 이경성(이상 22명)	강화석, 김기범, 엘리 바 랜디스, 서상빈, 서상집, 신순성, 오례당, 조원시(조지 허버 존스), 고유섭, 곽상훈, 엄흥섭, 원세하, 진종혁, 고일, 김선웅, 김재곤, 박경원, 배인철, 송수안, 신태범, 이경성, 장 극, 조중훈, 최성연 , 김 구, 홍진, 길영희 (이상 27명)
동구	김병훈, 임영균, 조진만, 함세덕, 이길용, 유완식, 하상훈, 강재구, 박창례, 신태환, 정재홍 (이상 11명)	김병훈, 이길용, 이범진, 임영균, 조진만, 함세덕, 강재구, 박창례, 신태환, 유완식, 하상훈, 김명진, 정재홍 (이상 13명)
남구	전학준, 김동석, 이회림, 김찬삼, 김은하, 김정렬, 박광성(이상 7명)	전학준, 김동석, 김은하, 김정렬, 김찬삼, 박광성, 이회림(이상 7명)
연수구	-	-
남동구	오화섭(이상 1명)	오화섭(이상 1명)
부평구	한하운(이상 1명)	한하운 (이상 1명)
계양구	심혁성(이상 1명)	심혁성, 이담(이상 2명)
서구	유희강, 이훈익, 유완무 (이상 3명)	유희강, 이훈익, 유완무 (이상 3명)
강화군	고요한, 손승용, 유군성, 유두희, 박두성, 박세림, 조봉암, 권평근, 유경근, 유봉진 (이상 10명)	찰스코프, 손승용, 연기우, 유명규, 이건승, 박두성, 유군성, 유두희, 조광원, 박세림, 조봉암, 한상억, 김덕순, 이능권, 권평근, 박길양, 유경근, 유봉진 (이상 18명)
옹진군	-	홍승하(이상 1명)
인천+미분류	-	이성원, 이화자, 김동수(이상 3명)

주1): 『인천인물 100인』 중 56인은 인물로 보는 인천사와 겹치는 인물을 대상으로 함.
2): 『인물로 보는 인천사』에는 개항기 이후 80명이나 318명 DB에는 76명만 목록화되어 있어, 이들만 대상으로 유형화함.

○ 개항기 이후의 인물들에 대하여 활동유형과 시대별로 구분하면 다음 표와 같음.

- 인물로 보는 인천사가 활동 유형별 형평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시기와 유형별로 형평성이 있는 모습을 보임.
- 다만, 전반적으로는 정치·관료·군사 부분이 높은 가운데, 인적자산의 활용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문화 분야가 현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일제강점기 이전의 인적자산이 발굴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 또한, 『인천인물 100인』에 선정되지 않았으나, 인천과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인 김구 선생 등을 포함시키는 작업이 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시대·활동유형별 인적자산 현황_개항기 이후

구분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	총합계
문화·체육		-	3	8	11
정치·관료·군사		1	6	7	14
학술·교육		1	3	8	12
종교·무속		6	-	-	6
기타	사회·언론	1	1	3	5
	기업·전문직업인	3	3	2	8
총합계		12	16	28	56

3) 인적자산 활용 사례

■ 국외 사례

○ 셰익스피어 페스티벌(Shakespeare Festival)

- 영국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1564~1616)를 기리기 위해 셰익스피어의 고향, 스트렛퍼드 어폰 에이번에서는 1824년 이래 매년 셰익스피어의 생일을 기념하는 축제를 개최함.
- 셰익스피어와 그의 작품 속 극중 인물들로 분한 배우들과 삼바 밴드가 일대를 돌며 관중과 함께 하며, 영국의 국립극장에서는「리어왕」이 무대화되고, 셰익스피어 전문극장인 글로브 극장에서는「햄릿」공연의 전세계 투어를 기획함.
- 2016년은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으로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는 조선일보에도 관련 기사를 기고함.

○ 바이로이트 페스티벌(Bayreuth Festival)

- 바이로이트 바그너 음악축제는 독일 출신의 천재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1813~1883)가 직접 설계한 바이로이트 음악극장에서 오페라 작품을 공연하는 축제임(매년 7~8월).
- 1876년 오페라「니벨룽의 반지」전곡 초연으로 시작된 페스티벌은 바그너 집안이 4대에 걸쳐 이끌어오고 있으며, 반지의 해와 반지 안식년의 해로 구분하여 작품을 구성하고 있음(세계의 축제·기념일 네이버 백과).

○ 세인트 패트릭 데이(St. Patrick's Day)

- 세인트 패트릭 데이는 아일랜드 수호성인 세인트 패트릭이 세상을 떠난 날인 3월 17

일 전후에 아일랜드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패트릭 성인을 기리며 열리는 축제임.

- 전 세계적으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패트릭 성인을 상징하는 녹색과 토끼풀 문양으로 치장하고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특징임(세계의 축제·기념일 네이버 백과).

셰익스피어 페스티벌



http://www.bookand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3



http://photo.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4/2016042400476.html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http://bisman55.blog.me/30086336538



http://travelbible.tistory.com/327

■ 국내 사례 : 문화콘텐츠 자원으로 활용

○ 인천 역사인물 활용 문화콘텐츠 제작

- 뮤지컬「영웅」,「명성황후」의 경우 역사적 사실과 뮤지컬을 결합하여 한국인은 물론 세계인들도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창작 뮤지컬 재탄생되었으며, 드라마, 책뿐만 아니라 관련 음악도 제작됨.
- 드라마의 경우「제중원」,「이순신」,「대조영」등은 역사를 기반으로 대중에게 그 시대의 삶과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영화로 개봉한「사도」와「광해, 왕이 된 남자」,「덕혜옹주」등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작가의 창작을 더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제작됨. 이를 통해 수많은 역사인물들을 재조명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역사인물 창작 뮤지컬 제작의 예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20809000473



http://www.newspe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9

○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한 역사인물 문화콘텐츠 개발

- 팝업북, 애니메이션, 캐릭터, 축제, 음악, 영화, 뮤지컬 등 다양한 콘텐츠로 가능할 것이며,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진 콘텐츠는 앱을 통해 스마트 기기로의 재현과 교육, 관광, 홍보 등의 영역에서 활용

○ 문화콘텐츠 OSMU(One Source Multi Use) 전략

- 역사인물을 통해 창작소재 발굴 단계부터 여러 파생 콘텐츠 제작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삼국지」가 소설, 영화, 연극, 뮤지컬 등의 장르와 함께 게임으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스토리를 다양한 장르와 결합하는 것임.

■ 국내 사례 : 축제자원[52]으로 활용

○ 역사적 인물은 축제자원으로 활용될 수 도 있음. 다만, 인물 관련 축제는 인문교육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에듀테인먼트). 이와 같은 인물 관련 축제는 지역정체성 함양과 지역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줌.

○ 경쟁력 있는 역사인물축제를 발굴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한 축제는 다음과 같음. 역사인물 축제는 단순히 '역사'에 나타난 인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역사 속에서의 다양한 작품에 나타난 허구적 인물도 그 대상이 됨.

- 장성 홍길동 축제 : 양반가의 서자에서 의적 영웅으로 극적인 삶을 살았던 홍길동의 모든 것이 존재하는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에서 장성 홍길동 축제가 개

52 인물역사 축제란 역사적 사건 관련 인물이나 특정 개별 인물을 중심으로 역사적 사건을 재현하거나 인물 자체를 기념하는 축제로, 주로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문학작품, 또는 문학가 예술등 유명한 인사를 상징코드로 한 문화축제가 있음(김양식, 2015).

최. 3일동안 진행되는 축제는 사물놀이, 병영체험, 군민노래자랑, 난타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진행

장성홍길동축제






자료: 장성군 문화관광

- 곡성 심청 축제 : 올해 16회째를 맞고 있는 곡성심청축제는 '효와 함께 열어가는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개최될 예정. 이미 지역민이 화합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효(孝)와 가족사랑을 실천하는 다양한 볼거리와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하고 있음.

곡성심청축제




자료 : 곡성군 문화관광

- 남원 춘향제 : 춘향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축제이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년 연속 대표적 공연예술제로 선정된 축제임. 춘향의 절개와 정절을 부덕의 상징으로 숭상하고 이를 기리기 위한 춘향제가 매년 개최됨. 행사로는 전통문화체험, 공연예술, 놀이체험, 기타 부대행사 등이 있음.

남원 춘향제



자료 : 남원 춘향제

- 홍성역사인물축제 : 홍성은 고려 말의 명장 최영장군, 성삼문, 일제에 항거한 민족대표 33인중 한분인 한용운 선사, 청산리 전투의 승전보를 울렸던 김좌진 장군, 조선 춤의 대가이며 한국무용의 본류인 한성준 선생, 현대미술과 이응노 선생이 태어난 곳으로 그분들의 업적을 기리고 기억하기 위한 축제임.
-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생생한 역사현장 체험과 역사인물 보드게임, 홍성투어존, 캐릭터 체험존 등이 있으며 주제공연 프로그램으로 악극 뮤지컬과 여러 공연 등이 있음.

홍성역사인물축제






자료 : 홍성역사인물축제

■ 국내 사례 : 박물관·기념관·전시관 등에서의 활용

○ 인천에는 역사인물 중심의 박물관, 기념관, 전시관은 없으며, 역사인물을 중심으로 한 축제는 없음.

- 강화 삼랑산성 축제 등에서 의병장 이능권 등에 대한 위령대재를 마련하는 등의 연계 행사가 있었으며, 고인돌 축제에서는 철종임금 등극행렬 등의 연계행사가 있었음.
- 한국근대문학관 등에서는 인물로 특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최남선이나 이상 등의 자취가 있음.

○ 문학관이 가장 대표적으로 인물과 관련한 기념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유명 인물들의 생가 등도 관광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음.

역사 인물 기념관 또는 생가 사례



안중근의사 기념관



이효석 문학관



만해 한용운 생가



강진 다산 기념관

자료 : 안중근 의사 기념관 : http://www.ahnjunggeun.or.kr/ab-1084
이효석문학관 : http://map.naver.com/local/siteview.nhn?code=11780874&_ts=1470899240441
만해 한용운 생가 : http://blog.naver.com/seosanpark/220762341205
강진 다산 기념관 : http://dasan.gangjin.go.kr/

■ 국내 사례 : 그 외 활용방안

○ 역사인물 가상 인터뷰 : 최근 학교 수업 도중 '역사 인물 인터뷰'라는 방식으로 역사 인물을 이해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음.

- 역사 인물 인터뷰를 통해, 오해와 편견을 해명하고 그들의 감추어졌던 진실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역사 인물 편지쓰기 : 파주 책 잔치에서는 '역사 속 인물에게 편지쓰기' 행사를 개최함.

○ 유투브 역사인물 배틀 : 서로 추구하는 이상은 같으나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 두 인물들을 배틀을 통해 서로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 알아보고 인물들에 대해 이해하는 방식임.

○ 역사인물 활용 창작동화 제작 : 역사동화[53]는 그 시대를 살다간 실존인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역사적 사실을 재해석함과 동시에 세월과 더불어 변화하는 인물들의 인간적인 면을 서술함(김경희, 2012).

53 예시 : 이규희의 『모래시계가 된 위안부 할머니』는 일제강점기 당시 위안부로 끌려간 황금주 할머니라는 실존 인물의 삶을 재조명, 『아, 발해』는 대조영이라는 인물을 주축으로 하여 발해의 건국 과정과 영웅들의 활약상을 그림.

4. 인적자산 가치화 방안

1) 기본 방향

■ 인적자산의 가치 발굴과 현대적 재해석

○ 지역 내 인적자산은 지역의 역사를 설명하고 이로써 지역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함.

○ 인적자산을 발굴하고 가치를 제고하며, 이에 대한 지역민들의 애정과 이해도를 높일 때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음.

○ 따라서 지역 내 인적자산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재해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이 필요함.

○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과거의 삶을 통하여 현재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과거를 재해석하고 현대를 재평가하는 도구로서 인적자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

■ 인적자산 발굴 및 현행화에 대한 지속적 투자

○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도시인문학센터를 통하여 DB 작업이 되고 있으나, 기준에 따른 재분류화가 필요함.

○ 이러한 재분류화 작업과 함께 잘못된 내용은 적극적으로 수정해 나가고 새로운 DB는 발굴하는 현행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DB를 구축하고, 이를 수정해 나가는 것도 전문화된 영역이므로, 자산을 발굴하고 현행화하는 것에는 지속적 투자가 필요함.

■ 인적자산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발굴

○ 인적자산을 발굴하고 재해석하고 이를 현대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구화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수 있음.

○ 대표적으로 인적자산을 활용하여 문화콘텐츠화 하는 것에는 역사문화인물을 활용한 축제 등이 있지만, 이러한 방법 이외에도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는 만큼 공간과 시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개발이 필요함.

2) 정책 제안

■ 인천인물 DB의 현행화와 새로운 DB의 추가

○ 인천시는 시사편찬위원회의 자료, 구군지, 인천발전연구원의 「인천도시가치 자원발굴DB」 등을 통하여 일정 부분 DB가 구축되어 있으나, 하나의 틀로 통합하여 지속적으로 현행화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최근 역사 인물을 소재로 한 콘텐츠의 힘이 발휘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조선왕조실록이 읽기 쉬운 형태로 DB화 되고 있기 때문임(http://sillok.history.go.kr). 또한, 승정원일기도 2015년에 정보화사업이 완료되어 정보가 풍성해지고 있음(http://sjw.history.go.kr).

○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에서는 검색은 잘 되지 않지만, 인명 색인이나 지명 색인을 통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54]

○ 이렇게 구축된 자료에 대하여 창작 소재로 활용할 있도록 스토리북을 만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인천 가치 자원의 결합을 통한 활용 방안 모색

○ 최근의 역사 인물의 가치자원화 방향은 OSMU(One source multi use)를 통해 활용하는 것임. 즉, 애니메이션, 캐릭터, 음악, 영화, 뮤지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활용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각 사례별로 가장 적절한 콘텐츠화 방안을 찾아보고, 이를 확대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단, 인천정보산업진흥원, 대학들과의 협력이 필요함.

○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문화콘텐츠를 하는 것도 이러한 협력 구조 하에서 협의될 수 있음. 예를 들어, 미디어 파사드, 홀로그램 기술 등에 활용하여 문화 콘텐츠화 할 수 있음.

54 예를 들어, 지명 색인으로 검색할 경우 인주(仁州: 지금의 인천)에는 다음의 인물이 목록화 되어 있음. 1)창원공(昌原公): 태자로 책봉되었으나 최충헌(崔忠獻)이 희종을 폐할 때 인주(仁州: 지금의 인천)로 유배되었다. 뒤에 풀려나 창원후(昌原侯)에 봉하여지고 이어 창원공에 진봉(進封)되었다. 2)우홍수(禹洪壽)... 1389년(창왕 1) 김저(金佇)의 옥사에 관련되어 다음해에 인주(仁州: 지금의 인천)에 유배되었다가 1391년(공양왕 3)에 다시 기용되어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가 되었으나 1392년 정도전(鄭道傳)의 모함을 받아 정몽주(鄭夢周)일파로 몰려 ...

■ 이승훈 기념관 등 인물 중심 기념 시설 건립을 위한 환경 조성

○ 인천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하여 인물 중심의 기념관이 거의 없는 형편으로 대표 인물을 선정하여 관련 시설 건립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충북만 하더라도 남계박연기념관, 단재신채호기념관, 의암기념관, 김재옥여교사기념관, 한운사기념관, 정지용문학관, 오창환문학관, 조명희문학관, 운보미술관, 단재신채호사이버기념관, 정지용사이버문학관, 오장환사이버문학관이 있음(김양식, 2015).

○ 인천시 실국별 특성화 사업 중 '역사체험 순례성지 조성·박물관 건립' 사업 등이 있음. 이에 따르면, 한국 천주교 상징 인물인 이승훈 묘역 일원(장수동)을 개방형 역사체험의 장으로 순례 성지화를 조성하는 사업임.

○ 이와 같이 인물을 선정하여 자료를 축적한 후 1차적으로는 사이버 시설을 마련하고, 물리적 자료가 확보될 경우 시설을 건립할 필요가 있음.

■ 출생지, 활동 장소 등이 서로 다른 인물과 인천의 지역성 부각

○ 2014년 기형도 추모문학제가 광명시에서 열렸으며, 금천구에서도 추모행사가 마련되었음. 기형도는 대한민국의 시인이자 언론인으로 현재의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에서 출생하였음. 인천에서는 기형도에 대한 관심이 적은 편임.

○ 김구 역시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인물이나 인천에서의 행적에 대한 검토나 재조명 작업이 적은 편임.

- 치하포 사건으로 인하여 해주 감영에서 고문당하다가 인천 감리영으로 이감된 바 있음. 이 때 감옥 속에서 감옥 안의 재소자에게 글을 가르쳐 감옥을 학교로 만들었다고 함.
- 김구는 1898년 탈옥 후, 김주경을 찾아 강화도를 간 후 훈장 일을 함. 이를 계기로 교육 및 계몽운동에 적극 참여함(인천광역시 2013, 국가보훈처 DB).

○ 경인일보의 『인천인물 100人』에서도 변영로에 대하여 '인천의 대표인물이냐, 부천을 빛낸 인물이냐'란 제목으로 출생지와 활동 장소 등이 다른 인물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인물들은 이른바 '뛰어난 인물'로 인적자산으로 가치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적극적으로 인천의 관련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 역사 인물이되 '일반인'의 삶에 대한 재조명 사업

○『조선왕조실록』은 세계에 드물게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임. 조선왕조실록에서는 효자와 효부, 열녀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음. 일부는 하나의 집안이 이러한 효자 집안으로 칭송되기도 함.

○ 일반적으로 역사에서 '일반인'의 삶에 대하여 그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데 비하여 조선 시대의 일반인의 삶은 이렇듯이 효자와 효부 등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인천 지역 내에도 이러한 효자와 효부의 기록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인천인물 DB), 이러한 일반인의 삶을 스토리화하여 재조명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임.

■ 인적자산 재조명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 인천가치 재창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기획단, 전문가 자문기구, 사업추진 협력 네트워크 등의 기본 조직이 필요함.

○ 인적자산의 경우, 가장 중요한 인물에 대한 DB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대한 사업화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심 기구가 필요함.

○ 중심 기구의 역할은 1차적으로는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도시인문학센터가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다만, 현재로서는「인물자원 DB」에 대하여 수동적인 코딩 작업만을 하고 있으나, 이 자료를 토대로 사업화 할 수 있는 전담인력 등이 요구됨.

- 첫째, 기존「인물 DB」의 현행화와 새로운 자료의 DB화
- 둘째, 구축된 자료를 활용한 사업화 방향 및 과제 제시
- 셋째, 각 구군별 역사지 편찬 시 자문 역할 수행
- 넷째, 각 구군별 역사지 편찬 시 필요 자료 제공 및 자문위원회 추천 등
- 다섯째, 인천가치 사업(인적자산을 중심으로) 전개 시 자문위원회 개최, 의견수합 후 인천가치 추진위원회 또는 기획단 제출

○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는 각 구군별 인물 중심 지역사를 편찬해 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임. 각 구군별 문화원과 문화관련기구(문화재단)를 중심으로 지역사를 재편찬할 필요가 있음.

- 이 때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도시인문학센터가 협력 역할을 하며,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기존에 구축된 자료의 교환도 필요함.
- 각 지역사(인물사)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이들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자문 및 협력 네트워크로서 각 역사인물에 대한 정통한 전문가 자문 네트워크를 따로 구축하고 관내에서는 시립박물관, 시사자료실, 인천문화재단, 인천영상위원회, 구군 문화원, 관광해설사 등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음.

참고문헌

경인일보 특별취재팀(2009), 인천인물 100人, 다인아트.

김경희(2012), 역사인물을 활용한 창작동화 기법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석사논문.

김양식(2015), 충북 역사인물의 현황과 활용방안 연구, 충북발전연구원.

루이스멈퍼드(2011), 예술과 기술, 텍스트.

인천광역시(2013), 인물로 보는 인천사 : 기억하고 싶은 인물 남기고 싶은 인물.

인천도시인문학센터, 「인천도시가치자원발굴 및 활용전략 DB」(318명)

인천도시인문학센터, 「인천인물DB」(1205명)

최현선 외(2012), 커뮤니티 개발과정에서의 자산지도화기법(Asset Mapping)활용사례 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75권.

태지호 외(2016), 지역 역사 인물의 문화콘텐츠 기획에 관한 연구-고헌 박상진 의사를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제30집 1호.

강진 다산 기념관 : http://dasan.gangjin.go.kr/

곡성군 문화관광 http://www.simcheong.com/?r=home&c=4/68/71/280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남원 춘향제 http://www.chunhyang.org/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만해 한용운 생가 http://blog.naver.com/seosanpark/220762341205

바이로이트-바그너 축제극장 http://bisman55.blog.me/30086336538

승정원일기 http://sjw.history.go.kr

안중근 의사 기념관 http://www.ahnjunggeun.or.kr/ab-1084

영어어원사전(Online Etymology Dictionary) http://www.etymonline.com

유럽음악 축제 순례기 http://travelbible.tistory.com/327

이효석문학관 : http://map.naver.com/local/siteview.nhn?code=11780874&_ts=1470899240441

장성군 문화관광 http://tour.jangseong.go.kr/home/tour/enjoy/festival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index.aks

홍성역사인물축제 http://herofestival.co.kr/

더뉴스펜(2015.08.16.), "[펜리뷰]명작 뮤지컬 '명성황후', 한편의 오페라 본 듯해"

독서신문 책과삶(2014.06.01.), "영국)전 세계인들의 축제... 셰익스피어 450주기"

조선닷컴 포토영상(2016.04.24.), "英,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기 맞아 기념 축제 열풍"

헤럴드경제(2012.08.09.), "윤동주·안중근... 그리운 영웅들, 무대서 부활하다. 미리보는 서사 뮤지컬 '윤동주, 달을쏘다','영웅'"



인천 중구 개항장



VI

인천 건축자산 조사 기초연구

1. 연구 개요
2. 건축자산 관련 법규 및 계획 검토
3. 인천시 건축자산 기초조사 후보군 선정
4. 건축자산 대표사례 기초조사
5. 추진방향



구, 일본제1은행인천지점 (현, 인천개항박물관)

인천 건축자산 조사 기초연구

조상운 도시기반연구실 연구위원

1.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자원이자 도시재생의 주요 수단으로 건축자산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건축자산에 대한 가치인식이 부족하고 보전정책의 한계로 점점 멸실되고 있는 실정에 있음. 2001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에 대한 보전에 있어 큰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문화재 관리 체계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대자산은 전체의 약 10% 미만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음.[55]

○ 2014년 6월 국토부는 건축자산의 경제적·사회적·지역적 가치를 높여 멸실되지 않고 보전·활용될 수 있도록 건축법규의 특례 등 규제완화라는 지원적 성격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등건축자산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

○ 인천의 경우, 중구 일대에는 개항기(1883년) 이후 지어진 건축물이 다수 밀집되어 지역이나,[56] 일부 건축물에 한정되어 관리하고 있을 뿐 대부분은 비관리대상으로 훼손·철거되거나 방치되고 있어 인천 고유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지닌 건축자산이 점차

55 심경미 외(2013), 건축자산의 목록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제도 연구, p.3.

56 1881~1950년 이전 건립된 건축물은 293개로 조사됨(인천광역시(2003), 개항기근대건축물밀집지역지구단위계획).

사라질 위기에 있음.[57]

○ 또한, 강화군을 비롯한 각 군·구에는 다양한 근·현대건축자산이 있지만 현황파악 및 자료구축이 미비하여 체계적인 건축자산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연구의 목적

○ 건축자산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축자산의 개념을 정립하고, 건축자산의 조사 및 목록 구축을 위한 조사항목, 조사방식 등 건축자산의 조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 본 연구는 인천시 건축자산 기초조사 실시를 위한 사전연구의 성격으로, 건축자산 조사를 위한 대상범위와 조사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고자 함.

- 인천시 전체 건축자산 후보군을 파악하고, 대표 사례의 조사를 통해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의 적용가능성을 검증함.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내용적 범위

○ 건축자산 보전·활용에 관련된 제도의 취지와 내용 검토함.

- 한옥등건축자산법 제정 취지 및 건축자산 개념 및 내용
-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실천과제 검토
- 국토교통부 건축자산 기초조사 실시 가이드라인 내용 검토

○ 인천시 건축자산 기초조사 후보군 조사

-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인천시 건축자산 기초조사 후보군 선정을 위한 예비조사 실시

○ 건축자산 대표사례 분석

- 건축자산 유형별 대표 사례를 선정하여 문헌연구와 현장조사를 통해 건축물 기본정보, 연혁 및 특징, 사진 등 자료 구축

57 이처럼 멸실된 건축자산에는 화교 기독교회(2002년 상가신축으로 소실), 인천지방 경찰청(모델하우스 건립으로 소실) 등이 있음(신성희, p.134).

○ 인천시 건축자산 기초조사 추진방향 제시 및 정책 제언
- 인천 건축자산 기초조사 추진방향 및 세부 수행 방식 제시
- 인천시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정책제언

■ 공간적 범위
○ 건축자산 기초조사 후보군 선정은 인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수행
○ 대표사례 조사는 건축자산 후보군이 집중되어 있는 중구를 중심으로 유형별로 1~3개를 선정하여 조사함.

⑵ 연구 수행방법

○ 문헌연구
- 건축자산과 근대건축물 목록화 조사와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
- 건축자산 관련 법령 및 제도, 가이드라인 검토
- 인천시 건축자산 목록 관련 기존 연구 자료를 수집·분석
- 주요 공모전 수상작 조사·정리

○ 현장조사 실시
- 문헌연구를 통해 구축한 건축자산 기초조사 후보군 중 대표사례 선정
- 유형별로 대표사례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방법 및 내용 검증

○ 전문가 인터뷰 또는 자문회의
- 인천시 건축자산 자료구축과 기초조사 방식에 대한 논의
- 인천의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제도적 보완점과 정책적 대응방안 자문 등

2. 건축자산 관련 법규 및 계획 검토

1) 한옥 등 건축자산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2014년 6월 3일,「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15년 6월 1일 제정됨.
○「한옥등건축자산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고, 나아가 미래의 건축자산

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의 건축문화 진흥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됨(제1조).

(1) 건축자산의 개념 및 범위

○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법 제2조 제1항)을 말함.

- 의미상 '문화재'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으나, 법적 측면에서 중복성 문제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문화재로 지정·등록된 것은 제외하고 있음.

(2) 주요내용

■ 건축자산의 진흥 기반 마련

○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수립(법 제4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건축자산 및 지역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건축자산의 진흥과 관련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건축자산의 진흥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건축자산의 홍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건축자산의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한 건축문화교육에 관한 사항
7. 건축자산 진흥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법 제5조)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함. 수립 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광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해당 시·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함.
-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 주요 사업계획 및 사업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축자산의 보전, 활용 및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건축자산 기초조사(법 제6조)

-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와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할 경우 건축자산의 관리 필요한 건축자산 현황, 관리실태가 포함된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시행해야함.
- 건축자산 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 해당 건축자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기본현황
   가. 건축연도, 규모, 소유자 등의 정보
   나. 용도, 구조 및 재료
   다. 개·보수 현황
   라. 보존 및 관리 상태
   마. 설계자 및 시공자
   바.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해당 건축자산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요 연혁
   나. 특징 및 주요 가치
   다. 주요 보전 부분
   라. 건축자산적 가치
   마. 보전, 활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3. 해당 건축자산에 관한 사진자료

○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및 전문인력의 양성(법 제7조, 제8조)

- 시·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건축자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자산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해야하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가능 함.
- 건축자산 정보체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법 제7조, 시행령 제5조)

1. 건축자산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등이 포함된 기본현황 자료
2. 건축자산의 보전,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자료
3. 건축자산의 조사, 발굴 및 연구에 관한 자료
4. 사진, 도면, 동영상 등 건축자산에 관한 시각 자료
5. 그 밖에 해당 건축자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의 유지·보수 및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

○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법 제9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관리

○ 우수건축자산 등록(법 제10조)

-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해 지차체장은 건축물 소유주가 신청할 경우, 건축자산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음. 해당 건축자산이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경우에는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신청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시·도지사는 관계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여부를 결정함.
-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려는 건축자산은 아래 각호의 기준에 맞아야 함(시행령 제7조).

1. (별표 1) 우수건축자산의 가치에 따른 예술적 가치, 역사적 가치, 경관적(景觀的) 가치 또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것
2. 제1호에 따른 가치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방치될 경우 그 가치가 멸실 또는 훼손될 위험이 있을 것

○ 우수건축자산 지원·관리 및 특례규정(법 제12조, 제14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조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소용비용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제 12조).
- 우수건축자산은 외관 등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토계획법, 건

축법, 주차장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 조경, 건축선의 지정, 대지안의 공지, 부설주차장의 설치 등에 대한 규정을 완화 받을 수 있음(제 14조).

* 우수건축자산은 「문화재보호법」 제53조에 따라 문화재에 등록할 수 있음(동법 16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

○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법 제17조)

- 시·도지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자산 진흥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1. 우수건축자산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
2. 한옥마을, 전통사찰보존구역 등 건축자산이 밀집되어 있어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법 제19조, 제20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법 제19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법 제19조, 시행령 제13조)

1. 위치·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 건축자산 현황 및 기초조사 계획
4. 관리 기본방향 및 목표
5. 건축물의 높이, 건폐율, 용적률 및 용도 등에 관한 계획지침 및 운용계획
6.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배치·형태·색채·재료·건축선 및 외부공간 조성 등에 관한 계획지침 및 운용계획
7. 담장 및 대문, 외부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계획지침 및 운용계획
8. 그 밖의 경관계획
9. 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방안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상하수도·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
- 방재 계획
-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하는 시설물 계획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활용·관리 계획

-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은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하여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각각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음(법 제20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법령의 특례(법 제21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완화 규정 및 「건축법」 제46조·제47조·제58조·제59조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건축자산 진흥구역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법 제21조)

구분	관련법규	특례조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완화조항)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 제43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9조의 2 부설주차장의 설치계획서
건축법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58조 대지안의 공지 제59조 맞벽 건축과 연결 복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16조 참고

■ 한옥의 진흥

○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법 제24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시행령 제17조).

1. 지원의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한옥마을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함
2. 지원의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자문 및 감독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사업비 보조 및 융자
 -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도로, 전기,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를 지원할 수 있음.

○ 한옥에 대한 관계법령의 특례(법 제26조)

-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대한 특례를 아래와 같이 적용 할 수 있음(시행령 제19조).

한옥에 대한 특례 적용기준(별표 2)

구분	내용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와 관련하여 한옥 건축물 기둥의 밑단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수선할 때에는 그 개수와 상관없이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한옥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외벽선의 경우 1미터 이상으로 하며, 처마선의 경우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한옥 건축물의 높이 9미터 이하의 부분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기준은 0.5미터 이상으로 한다.
4. 「건축법」 제84조에 따른 건축면적 산정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한옥 건축물의 처마선 바깥으로 돌출하지 않고 처마의 끝선 높이 이하로 설치하는 반침(半寢)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가. 한옥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나. 한옥 건축물의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법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옥 건축기준을 고시하는 경우 이에 따른다.

○ 국가한옥센터의 설치(법 제28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한옥의 보전 및 진흥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옥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을 국가한옥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 국가한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

1. 한옥의 보전 및 진흥정책 연구·조사
2. 한옥과 관련한 전문산업의 육성
3. 한옥과 관련한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
4. 한옥에 대한 국내외 홍보
5. 그 밖에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지원, 한옥관련 산업 지원(법 제29조, 제30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옥 전통기술의 계승과 한옥산업 진흥에 필요한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옥건축 활성화와 우수한 한옥건축의 확산을 위하여 한옥 및 한옥관련 산업을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다음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

1. 한옥의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지도
2. 한옥 유형 및 모델 개발
3. 한옥 관련 정보의 알선·제공
4. 한옥과 관련한 문화관광자원 개발
5. 그 밖에 한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지역 건축문화의 진흥

○ 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 교육 및 홍보(법 제32조, 제33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의 가치 및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해야 함.

○ 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 우수사례 발굴·시상 지원(법 제34조, 제3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 및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음.

2) 건축자산 기초조사 실시 가이드라인[58]

(1) 기초조사 개요

■ 기초조사 대상 및 범위

○ 기초조사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니는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함.

○ 기초조사 범위는 매년 해당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하여 조사 대상과 범위 등을 정함.

■ 기초조사 내용

○ 건축자산의 연도, 용도, 개·보수 현황 등 기본현황과 주요 연혁 및 특징 등 건축자산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사항, 그리고 사진자료 등을 조사함.

○「한옥등건축자산법」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조사내용을 담은 양식서를 제공,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 유형별 별지서식에 따라 조사, 작성함.

■ 기초조사 시기

○ 기초조사는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변경) 하거나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기 이전에 시행되어야 함.

○ 기초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되, 조사 주기는 최대 10년 이하로 함. 우수건축자산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상정 이전에 시행되어야 함.

■ 기초조사 실시 절차

○ 기초조사는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실시 후, 건축자산 목록에 따른 총괄관리표를 작성함.

○ 조사결과 확정된 건축자산 목록은 국토교통부 장관 및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함.

※ 기초조사 결과 건축자산 대상으로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 자체적으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거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58 국토교통부(2016),「건축자산 기초조사」실시 가이드라인

건축자산 기초조사 실시 절차



(2) 기초조사 방법 및 과정[59]

■ 개요

○ 기초조사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및 건축자산 목록 정리 순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관계자 면담 및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가능함.

- 유형별 기초조사표를 토대로 조사·작성하고,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료들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서 작성

■ 1단계 : 문헌조사 등을 통한 건축자산 후보군 추출 및 정리

○ 건축물대장 및 건축행정시스템(AIS)의 자료를 이용하여 건축자산 후보군을 추출함.

○ 시지·구지, 관련 서적, 관련 기관에서 발간하거나 소장한 문헌자료를 최대한 조사, 수집, 검토하여 건축자산 후보군을 파악하여 정리함. 이와 함께 관계행정기관과 전문기관에서 시행한 유사한 조사사업[60]의 결과도 참고하여 추가함.

○ 지자체 역량 및 예산부족으로 기초조사의 한계가 있을 경우, 기존의 유사한 조사사업의 결과를 건축자산으로 간주해 당해 조사로 갈음할 수 있음(건축자산 약식 조사).

○ 국가기록원의 1912년 지적원도를 통해서 이를 전산화하고, 이를 현재의 지적도와 중첩하여 오래된 옛길 및 물길을 찾아내 도시구조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여 건축자산 후보군을 추가함.

○ 건축·도시·토목·조경 등 관련 분야의 주요 시상제도에서 수상한 건축물을 정리하여 후보군으로 추가함. 이들 자료를 종합하여 중복, 멸실, 지정문화재 대상을 제외하고 현장조사를 위한 후보군을 최종적으로 확정함.

○ 후보군을 대상으로 건축물대장을 토대로 건축물 등의 기본 현황을 작성함.

59 국토교통부(2016),「건축자산 기초조사」실시 가이드라인 참고

60 전국건축자산 조사사업(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 1999),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사업(문화재청, 2002~2005),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일제조사사업(문화재청, 2005~2008) 등이 있음.

■ 2단계 : 건축자산 후보군의 현황파악을 위한 현장조사

○ 본격적인 현장조사를 통해서 건축물의 연혁, 양식, 보존상태 등 조사항목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조사하고 사진촬영을 진행함. 현장조사 시 문헌자료 이외의 건축자산을 발견할 경우 후보군을 추가할 수 있음.

○ 현장 조사 시 필요한 경우 주민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해서 조사내용을 보완할 수 있으며, 면담 후에는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출처(정보제공자의 이름 및 특이사항)을 표기해야함.

※ 현장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자산 기초조사표(한옥등건축자산법 시행규칙 별지서식)를 작성해 내용을 정리함.

■ 3단계 : 지역 건축자산 목록의 정리

○ 1·2단계의 조사결과를 정리하여 건축자산 목록을 최종 확정하고 건축자산 분포도와 건축자산 총괄관리표를 작성함.

○ ① 건축자산 총괄관리표, ② 건축자산 분포도, ③ 각 건축자산의 조사서식[61]

※ 건축자산 총괄관리표는 국가차원의 통합 DB구축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까지 이전 조사결과와 신규 조사결과를 종합한 총괄관리표 제출

※ 기존 구축된 조사 대상일 경우는 기존에 조사된 양식서 내용을 제출

기초조사 단계별 주요과정



■ 건축자산 기초조사 내용 작성방법

○ 공통사항

- 조사 작성내용은 가치판단보다는 동일한 작성기준과 서술방식으로 현재 상태를 사실적으로 기술하도록 함.
- 조사서식은 행정 공무원 및 소유주 등이 건축자산의 관리 등에 참고할 수 있도

6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3호]

록 가급적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

- 대분류는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 중 표기하고, 각각의 중분류는 아래를 기준으로 표기한 후 일련번호를 기재함.
- 명칭은 현재명칭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옛 명칭이 있는 경우 괄호를 하고 기재함. 단, 주택의 경우 소유자의 변화에 따라 명칭에 변화가 생길 수 있으므로 번지를 이용하되 유명한 인물의 주택일 경우 함께 명기함.

○ 건축물 기본정보는 아래와 같이 정리함.

- 건축물 현황 : 건축물대장 및 건물 원적부를 참고하여 정확히 작성하되 건립용도, 용도, 층수가 건축대장과 다를 경우 현장에서 파악된 결과를 별도로 기재
- 건축년도 : 현장 조사 시 건축물대장에 명시된 년도와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상량문을 기준으로 기재는 경우 미상으로 표기
- 소유자 : 현재 소유자 표기 외에 과거 소유자 가운데 중요 인물이 있을 경우 함께 표기
- 용도 : 대장상의 용도 및 현장에서 파악하는 현재 용도는 주 용도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현장조사 시 주 용도와 1층 용도가 다를 경우 기타 란에 1층 용도를 기재(주 용도가 다수일 경우 복수 기재)
- 개보수 현황 : 개보수에 따라 형태 및 재료가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 부분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구체적인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부연설명으로 내용을 기술
- 보존상태 : 보존상태의 기준은 지자체 및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별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조사자에게 전달하여 보존상태 상, 중, 하 표기의 의미가 희석되지 않도록 함.

3. 인천시 건축자산 기초조사 후보군 선정

1) 기초조사 대상 및 선정과정

■ 기초조사 대상

○「건축자산 기초조사 실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16)」에 따르면, 건축자산 기초조사 대상은 아래와 같음.

- 1) 최초 사용이후 30년(공공소유 건축물의 경우 20년)이 지난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 중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가진 것

- 2) 건축·도시·토목·조경 등 관련 분야별 국내외 주요 공모전 수상작
- 3) 그 밖에 지자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 기초조사 후보군 선정과정

○ 본 연구는 정식으로 인천시 건축자산 기초조사 수행하기에 앞서 실시하는 사전 테스트 성격으로, 선행문헌 조사와 공모전 수상작 조사 범위를 일부로 한정하고, 지적원도의 옛길·물길조사 과정[62]을 생략하여 간략히 시행함.

○ 먼저, 건축물대장 자료를 바탕으로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을 추출하여 군·구별 기초조사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파악함.

○ 2단계로, 건축자산 관련 기존 유사 조사사업의 문헌자료를 수집함.[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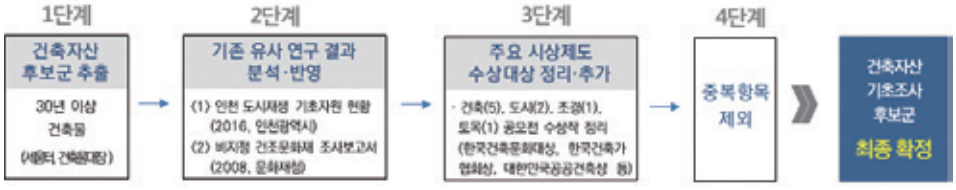
- 「2025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2016, 인천광역시)」수립 시 인천의 주요자원을 총조사한「인천 도시재생 기초자원 현황 보고서」의 건축자산 관련항목을 분석·반영
-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조사보고서(2008, 문화재청)」에 조사된 한옥 등 고건축물 반영

○ 3단계로, 관련분야별 국내외 주요 공모전 수상작은 건축분야 5개대회, 도시분야 2개대회, 조경·토목분야 각 1개 대회를 조사 범위로 설정하여 정리함.[64]

- 한국건축문화대상, 한국건축가협회상,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인천광역시 건축상,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한민국 국토경관디자인대전, 인천광역시 조경상, 대한민국 토목·건축 기술대상

○ 마지막으로, 중복 조사된 항목을 제외하여 최종 건축자산 기초조사 후보군을 선정함.

건축자산 기초조사 후보군 선정과정



62 건축자산 기초조사 실시 가이드라인에서는 국가기록원의 1912년 지적원도를 전산화하여 이를 현재 지적도와 비교하여 오래된 옛길 및 물길을 찾아냄으로써 건축자산 후보군을 추가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작업으로 본 연구에서는 생략함(국토부 국가 지적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이를 반영)

63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된 다수의 건축자산 관련 조사사업 중「2025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과「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조사보고서」에 한해 분석함.

64 건축자산 관련 주요 공모전 중 9개 대회에 한해 분석함.

2) 후보군 선정

(1) 1단계 : 건축자산 후보군 추출(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건축물대장 기준 2016년 4월 현재 인천시 전체 건축물수는 226,651동이며, 이중 건축 경과년수 산출[65]이 가능한 건물은 205,091동(90.5%) 임.

- 경과년수 미상인 건축물이 많은 지역은 중구(3,744동), 부평구(3,571동), 동구(3,298동)순이며, 비율이 높은 지역은 동구(30.1%), 중구(22.1%), 부평구(9.8%) 순임.

○ 이 중 건축자산 기초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은 총 72,705동(35.5%) 임.

-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비율이 높은 지역은 동구(54.8%), 남구(53.8%), 부평구(45.4%)순이며, 30년이상 경과한 건축물 수가 많은 지역은 남구(18,963동), 부평구(14,837동), 강화군(11,645동) 순임.

(2) 2단계 : 문헌자료 수집·조사

○ 인천시 건축자산 기초조사와 관련된 선행 연구로, 「인천 도시재생 기초자원 현황 보고서(2016, 인천광역시)」와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조사보고서(2008, 문화재청)」의 건축자산 목록을 수집하여 정리함.

■ 인천 도시재생 기초자원 현황 보고서

○「인천 도시재생 기초자원 현황 보고서」는 「2025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시 다음 문헌을 참고로 인천시 전역의 주요 자원을 총괄 정리한 것임.

65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건축 경과년수를 산출함. 사용승인일이 없는 건물은 허가일 또는 착공일을 반영하였고, 사용승인일, 허가일, 착공일이 모두 없는 것은 미상으로 처리함.

인천 도시재생 기초자원 조사 참고문헌

구분	참고문헌
기존 조사 (4)	• 『문화유적분포지도』(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재)불교중앙교원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3 • 『문화유적분포지도』(인천광역시 계양구·부평구·서구·옹진군), 인천광역시·인하대학교박물관, 2006 • 『문화유적분포지도』(인천광역시 남구·남동구·동구·중구·연수구), 인천광역시·인하대학교박물관, 2007 • 『인물로 보는 인천사』, 인천광역시, 2013 등
관련 보고서 (3)	• 김용하·이인재, 『부평역 지하공간 이용현황 및 활성화 방안』, 인천발전연구원, 2002 • 신성희, 『인천지역 근대산업유산의 문화적 재활용에 관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2009 • 이권형, 『인천 전통시장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인천발전연구원, 2011 등
자원별 데이터 (3)	• 『2009 한국 박물관·미술관 연감』,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 2009 • 각 군·구 홈페이지 •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stat.tour.go.kr) 등
참고자료 (1)	• 『근대문화로 읽는 한국 최초 인천 최고』, 인천광역시, 2005 등

○ 문화재를 제외한 건축자산은 역사자원 164개, 관광자원 61개로, 총 225개임.

- 역사자원은 중구에 88개가 밀집되어 있으며, 강화군에 27개, 동구·부평구에 각각 12개씩 위치함.
- 관광자원은 중구 14개, 동구·부평구 각각 11개 등이 있음.

「인천 도시재생 기초자원 현황 보고서」의 건축자산 현황

군구명	합계 (개)	역사자원				관광자원			
		소계	건축	산업	종교	소계	문화	산업	위락
인천시	225	164	98	52	14	61	24	20	17
중구	102	88	50	33	5	14	9	1	4
동구	23	12	7	5		11	3	8	
남구	12	8	6	2		4	1	2	1
연수구	3	0				3	1		2
남동구	7	5		5		2	2		
부평구	23	12	9	2	1	11	2	5	4
계양구	10	1		1		9	4	1	4
서구	4	1	1			3		1	2
강화군	28	27	23	1	3	1		1	
옹진군	13	10	2	3	5	3	2	1	

■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조사보고서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조사보고서(2008, 문화재청)」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건조물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국가의 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기 위한 연구로, 2008년 6월부터 12월까지 문화재청에서 실시함.

○ 조사범위는 조선시대 및 그 이전에 조성된 석조 및 목조 건조물로,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과 조선시대 이후 것이라도 전통양식과 기법에 따라 축조된 건조물은 조사 대상에 포함함.

○ 유형은 목조, 석조, 기타로 크게 구분하고, 아래와 같이 세분함.

- 목조 : 고가, 사묘 및 재실, 누·정·각·당, 서원, 향교, 사찰, 관아
- 석조 : 선사시대유적, 탑파, 불상, 성곽(산성)
- 기타 : 이외의 건조물(석등, 석교, 부도 등)

○ 인천에는 총 65개 비지정건조물이 조사되었으며, 가옥 34개, 사묘재실 3개, 사찰 3개, 관아 2개, 기타 23개 유형이 있음.

- 중구에 34개, 강화군에 25개가 밀집되어 있고 동구에 4개, 남구, 서구에 각각 1개씩 위치함.

인천 비지정 건조물 문화재 현황

군구명	합계(개)	구분				
		가옥	사묘재실	사찰	관아	기타
인천시	65	34	3	3	2	23
중구	34	21		2	1	10
동구	4	1				3
남구	1	1				
서구	1	1				
강화군	25	10	3	1	1	10

(3) 3단계 : 주요 공모전 수상작

○ 관련분야 주요 공모전 수상작은 역사적 가치보다는 예술적 가치에 근거한 건축자산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 9개 주요 공모전 수상작을 건축자산 후보군에 반영함.

66 「한국건축전」은 1994년부터 「한국건축문화대상」과 통합하여 시행

건축자산 관련분야 주요 공모전

분야	번호	공모전 명칭	주최·주관	기간	자료구분
건축	①	한국건축문화대상 (구 한국건축전[65])	국토교통부 대한건축사협회	1992~ (1971~)	건축물
	②	한국건축가협회상 (올해의 건축)	(사)한국건축가협회	1979~	건축물
	③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국토교통부 (사)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2007~	건축물/ 공간환경
건축	④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12~	건축물
	⑤	인천광역시 건축상	인천광역시	2001~	건축물
도시	⑥	대한민국 공간문화 대상	문화체육관광부 (사)한국건축가협회	2006~	건축물/ 공간환경
	⑦	대한민국 국토경관디자인대전[66]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2009~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
조경	⑧	인천광역시 조경상	인천광역시	2004~ 2011	공간환경
토목	⑨	대한민국 토목건축기술대상	매경,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학회	2005~	기반시설

○ 조사결과, 인천시 전체에 170개 공모전 수상작이 있음.

- 연수구 49개(28.7%), 남동구 27개(15.8%), 중구 24개(14%) 순임.

○ 인천시 주관 공모전인 '인천광역시 건축상(⑤)' 수상작이 112개로 가장 많고, '인천광역시 조경상(⑧)' 28개, '한국건축문화대상(①)' 21개 등이 있음.

- 중구 아트플랫폼(한국건축가협회상,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연수구 송도 컨벤시아(인천광역시 건축상, 대한민국토목건축기술대상), 계양구 어린이과학관(한국건축문화대상, 인천광역시 건축상) 등 2개 이상 대회에서 중복 수상한 작품이 13개 있음.

67 2016년부터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대전(2009~)과 대한민국 경관대상(2011~)을 통합하여 '대한민국 국토경관디자인대전'으로 개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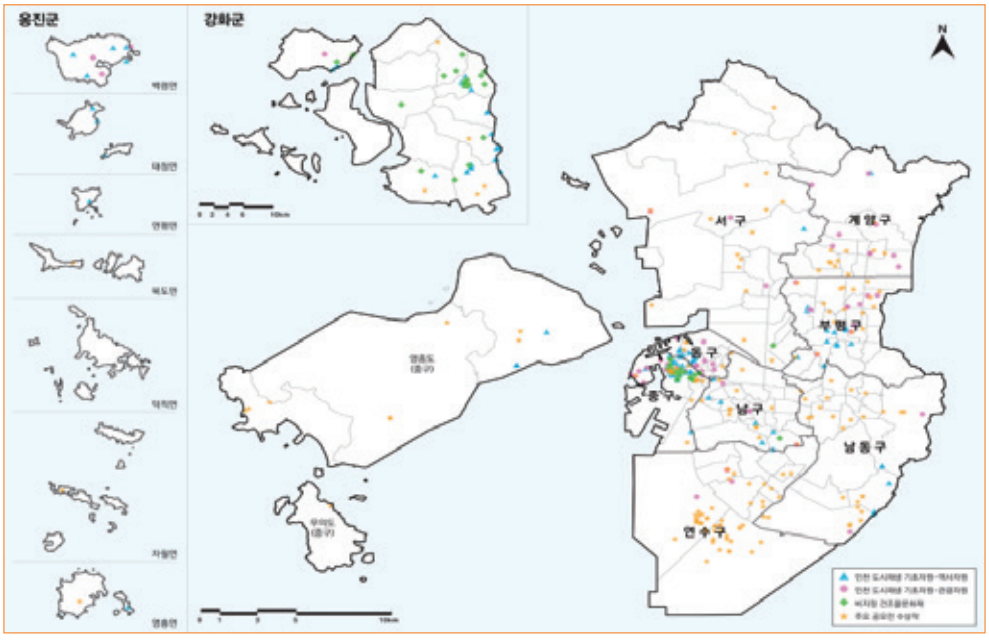
인천항 항만별 물동량 실적 추이 (단위 : 천톤)

군구명	합계(개)	공모전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중복
인천시	170	21	5	5	2	112	2	4	28	4	-13
중구	24	7	1	1	1	12	1		1	1	-1
동구	4					3			1		
남구	14	1				9			4		
연수구	49	6	2	2		35		2	7	3	-8
남동구	27	3				14		1	9		
부평구	16	1				11	1		3		
계양구	12	1				12					-1
서구	16			1	1	11		1	3		-1
강화군	5	2	2			2					-1
옹진군	3			1		3					-1

(4) 건축자산 기초조사 후보군 최종 선정

○ 중복산정된 27개 항목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선정한 인천시 건축자산 기초조사 후보군은 총 433개임.

- 중구에 138개로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고, 강화군 57개, 연수구 50개, 부평구 39개 순으로 분포함.



인천시 기초조사 후보군

군구명	합계(개)	구 분			
		도시재생 기초자원조사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주요공모전 수상작	중복
인천시	433	225	65	170	27
중구	138	102	34	24	22
동구	31	23	4	4	
남구	26	12	1	14	1
연수구	50	3		49	2
남동구	34	7		27	
부평구	39	23		16	
계양구	22	10		12	
서구	20	4	1	16	1
강화군	57	28	25	5	1
옹진군	16	13		3	

4. 건축자산 대표사례 기초조사

1) 대표사례 선정

○ 앞서 선정한 443개 건축자산 기초조사 후보군 중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함.

○ 연구의 편의를 위해 건축자산이 가장 밀집해 있는 지역은 중구 개항장 일대에서 대표사례를 선정함.

○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 세 건축자산 유형 중 건축물 대표사례 3건, 공간환경과 기반시설은 각각 1건의 사례를 선정하여 문헌연구와 현장조사를 실시함.

건축자산 기초조사 대표사례

건축물	• 일선빌딩(선광미술관) - 위치 : 중구 중앙동4가 2-26 - 건축연도 : 1932년	
	• 청국영사관 회의청 - 위치 : 중구 선린동 8 - 건축연도 : 1910년	
	• 유항렬 가옥 - 위치 : 중구 내동 143-1, 143-2, 144 - 건축연도 : 1940년	
공간환경	• 자유공원 - 위치 : 중구 자유공원남로 25 - 건축연도 : 1888년	
기반시설	• 인천항 갑문 - 위치 : 중구 월미로 376 - 건축연도 : 1974년	

2) 대표사례 기초조사 실시

(1) 일선빌딩(선광미술관)

■ 건축물 기본정보

일선빌딩 건축물 기본정보

위치	중구 중앙동4가 2-26	소유자	(재)선광문화재단
대지면적	541.5㎡	건축연도	1932년경
건축면적	318.49㎡	연면적	1,225.6㎡
층수	지상 4층, 지하 1층	용도	영업소, 근린생활시설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지붕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샌드위치판넬

■ 연혁

○ 일제강점기 때의 해운회사인 일선해운회사의 사옥으로 1932년경 건축됨.

○ 현재는 인천지역의 장학재단인 (재) 선광문화재단에서 사용하고 있음.

○ 2013년 건물 1층을 갤러리로 꾸며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미술관으로 활용하고 있음.

■ 건축적 특징

○ 거친 돌로 마감된 1층의 장식적 요소와 2, 3, 4층의 모더니즘적 요소가 결합하여 조화를 이루고 있음.

○ 2층부터 건물을 뒤로 물려(Set back) 올리고, 4층은 사각 모서리부분을 절개하여 십자형 평면을 갖도록 함.

○ 지하층의 채광을 위해 드라이 에이리어(Dry area)[68]를 설치함.

○ 주출입구 가장자리에 설치된 몰딩장식이 특이한데 이는 일본 고베에 있는 스미토모빌딩의 입구와 처리방식이 비슷함.

■ 주요가치

○ 근대 초기 절충주의 양식에서 모더니즘 양식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물로, 우리나라 근대 건축사에 중요한 사례임.

(2) 청국영사관 회의청

■ 건축물 기본정보

○ 선린동 8번지 구) 청국영사관 부지 내 인천화교중산학교 건물과 함께 위치함.

○ 1910년에 중국양식으로 건축된 단층 벽돌 건물로, 차이나타운 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중국식 건물임.

68 건물 주위를 파서 한쪽에 옹벽을 설치한 도랑으로, 지하실의 방습·통풍·채광에 유리하게 만든 구조

청국영사관 회의청 건축물 기본정보			
위치	중구 선린동 8	소유자	인천화교협회
대지면적	3,980.5㎡	건축연도	1910년
건축면적	약 147㎡	연면적	약 147㎡
층수	지상 1층	용도	업무시설
구조	연와조	지붕	기와지붕

■ 연혁

○ 인천 청국거류지의 청국영사관은 1884년에 건립되었으나, 현재 회의청 건물 하나만 남고 전부 소실됨.

○ 청국영사관 회의청은 초대 청나라 영사로 부임한 가문연(賈文燕)이 회의실 용도로 1910년 건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는 인천화교협회에서 전시관 및 집회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 복원하여 화교 역사전시관으로 활용할 예정임(중구청, 청국영사관 회의청 관광자원화 사업, 2014년, 사업비 8억원).

■ 건축적 특징

○ 기단 위에 건물을 세우고 맞배지붕을 올린 벽돌건물로, 지붕 마감재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원형이 잘 유지되고 있음.

○ 전체 5칸 중에서 좌우 양끝의 2칸은 부속실이 배치되어 있고 중앙의 3칸은 퇴칸[69]이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건축물에서 흔히 보이는 치목수법이 사용됨.

○ 어칸[70]과 협칸[71]의 창호는 정교하게 조각되어있으며, 붉은색 안료가 칠해져 있음.

■ 주요가치

○ 우리나라에 세워진 3곳의 청국영사관 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건축물로, 한국 화교 130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화교사회의 역사를 나타내는 건축물임.

○ 붉은색 창살 무늬 등 중국 건축양식과 처마 끝이 날아가는 듯한 한옥의 특징이 섞여 있는 독특한 건물임.

69 평면상 건물 중심부를 둘러싼 둘레 부분, 본 건물에 붙여 덧 달아낸 좁은 칸

70 현판 아래 가운데 두 기둥 사이 공간

71 어칸 좌우에 있는 칸

(3) 유항렬 가옥

■ 건축물 기본정보

○ 우리나라 최초의 도선사 유항렬씨가 거주하였던 주택임.

유항렬 가옥 건축물 기본정보			
위치	중구 내동 143-1, 143-2, 144	소유자	유제승
대지면적	355.98㎡	건축연도	1940년
건축면적	243.29㎡	연면적	472.72㎡
층수	지상 2층, 지하1층	용도	단독주택
구조	벽돌구조, 연와조	지붕	기와, 와즙(기와지붕)

■ 주요연혁

○ 우리나라 최초의 도선사인 유항렬씨(1910~1980)의 가옥으로 1940년경 건축된 것으로 추정됨.

○ 현재는 내부수리를 거쳐 후손이 거주하고 있음.

■ 건축적 특징

○ 당시로서는 흔치 않은 서양식 붉은 벽돌집이며, 355㎡의 넓은 대지에 연면적 472㎡, 2층으로 건축된 큰 규모의 가옥임.

○ 마당 쪽의 대지는 화강석 축대로 조성되었고, 현관은 도로와 면하는 측면에 설치되어 있음.

○ 2층 발코니와 직접 연결되는 계단이 설치되어 외부에서 1, 2층 모두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주택과 같은 벽돌로 대지 경계를 따라 1.8m 높이의 담장이 둘러져 있음.

■ 주요가치

○ 인천 일대에 남아 있는 근대건축물 중 주택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서구식 벽돌건축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우리나라 최초의 도선사가 건축하고 살았던 주택으로 역사적 의미가 깊음.

(4) 자유공원

■ 공간환경 기본정보

○ 1883년 인천 개항 후 1888년 한국 최초의 서양식 공원으로 조성됨.

자유공원 기본정보	
위치	중구 자유공원남로 25(송학동1가 11)
준공연도	1888년
관리주체	인천 중구청
종류	공간시설-공원
면적	64,480㎡



■ 주요시설물

○ 한미수교100주년기념탑

- 1882년 5월 22일 조선 전권대사 신헌과 미국 전권대신 로버트 윌슨 슈펠트가 화도진 언덕에서 조인한 한미수호통상조약의 역사적 사실을 기리고 양국의 신뢰와 우호협력관계의 지속을 위해 건립(1982년 12월 14일, 한미수교100주년기념사업위원회).
- 설계 : 건축가 강석원, 조각 : 조각가 최만린, 시공 : 현대건설

○ 맥아더장군 동상

- 1957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 시민 성금으로 건립

○ 충혼탑, 석정루, 연오정, 학익고인돌 등이 있음.

■ 주요연혁

○ 1883년 인천 개항 후 1888년 외국인 거류민단에서 관리 운영하여 각국공원이라 불리었으며, 1945년 해방 후 만국공원으로 불림.

○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한 맥아더 장군 동상이 응봉산 정상에 건립된 1957년부터 자유공원이라 불림.

○ 존스턴별장, 세창양행 기숙사 등이 있었으나 6·25전쟁 때 소실됨.

■ 주요가치

○ 1883년 인천 개항 후 5년 뒤인 1888년 한국 최초 서구식 공원으로 설계됨(서울

파고다공원(1897) 보다 10년 앞서 조성됨).

○ 인천 개항기, 식민지 시대, 해방기를 거쳐 한국전쟁 전후에 이르는 한국 현대사의 흐름이 반영된 역사적 장소임.

(5) 인천항 갑문

■ 기반시설 기본정보

○ 최대 10m에 달하는 인천연안의 조수간만의 차이를 극복하고 24시간 선박이 안전하게 하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축조됨.

○ 1966년부터 8년의 공사를 거쳐 동양 최초이자 세계 여섯 번째 갑문식 항으로 1974년 완공됨.

○ 동양 최대 규모로 최대 5만톤급 선박이 입출거할 수 있음.

인천항 갑문 기본정보

위치	중구 월미로 376(북성동1가)
준공연도	1974년
관리주체	인천항만공사
용토	하천구조물-갑문
규모	5만톤급 갑거 : 길이 436m, 폭 36m 1만톤급 갑거 : 길이 326m, 폭 22.5m
재료	콘크리트



■ 주요시설물

○ 5만톤급, 1만톤급 배가 들어가는 갑거 2기와 물을 막는 갑문본체, 물을 넣고 빼는 취·배수문 등으로 구성

■ 주요연혁

○ 1883년 인천항 개항

○ 1918년 인천항 제1도크 준공(우리나라 최초 근대 갑문시설)

○ 1974년 인천항 제2도크, 갑문시설 준공

○ 1989년 5만톤 급 갑문 1기 증설

○ 2005년 1만톤 급 갑문 1기 증설

○ 2006년 갑문 게이트 작동장치 개량 완료

○ 2013년 인천항 갑문 홍보관 개관
○ 2015년 갑문 비상견인 설비 설치, 홍보관 쉼터 조성

■ 주요가치
○ 우리나라 최초의 갑문으로 각종 무역선이 드나들며 물류와 문류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 중요한 공간이었음.
○ 준공후 40년 간 대한민국 경제재건과 산업화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옴.

5. 추진방향

1) 기초조사 수행을 위한 기본방향

■ 인천 건축자산 기초조사의 목적 규정
○ 한옥등건축자산법 제6조에 의거하여 건축자산진흥 시행계획 수립 또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건축자산 기초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향후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위한 인천의 우수건축자산 후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음.
○ 이차적으로는 인천시 건축자산의 현황 및 관리실태 파악을 통한 효율적 유지·관리와 건축자산진흥 관련 정책추진을 위한 주민홍보 및 설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나아가 인천 건축자산 기초조사는 인천 지역 내 수준 높은 건축물 확산에 기여하고 인천 지역의 건축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인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인천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인천 건축자산의 개념 정의
○ 기초조사의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의 조사대상 및 분류체계,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필요함.
○ 인천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건축자산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근거한 가치판단기준 설정을 통한 기초조사 수행을 하도록 함.
- 특히, 개항기(1883) 이후의 근대 건축자산이 다수 남아 있는 지역이 있다는 것을 볼

때, 근대적 건축양식 및 문화를 특징지을 수 있는 개념으로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 함.

■ 건축자산의 가치기준 구체화

○ 건축자산의 가치판단 기준은 법적으로는 역사적 가치, 경관적 가치, 예술적 가치, 사회문화적 가치의 4가지 가치기준이 제시되어 있음(법 제7조1항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별표1).

○ 이처럼 포괄적인 가치기준을 제시하여 가능한 많은 대상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우수 건축자산을 선별하여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객관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 해외의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 영국의 경우 건축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 기준을 토대로 시대 및 희귀성, 미학적 가치, 선별성, 국가적 가치, 보수의 시급성 등을 제시함.
- 미국의 경우 역사적 중요성과 온전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본은 개별 건축물 및 토목구조물, 동종의 것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가치인정 기준, 군으로서의 가치 고려, 관계자들의 합의 등을 제시함.

○ 제주시의 경우 「근대문화유산 목록화사업(2003)」 수행시 제주도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건축자산의 가치기준을 별도로 만들고, (가)~(마) 5등급으로 분류하여 사후 관리의 우선순위를 갖도록 함.

○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로 인천시 건축자산의 가치기준을 구체화하고, 우수건축자산 등록 여부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건축자산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심의위원별, 지역별 편차를 최소화하도록 함.

제주시 근대문화유산 목록화사업 건조물 분야 등급분류 기준

등급	가치기준
(가)급	한국근대사의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학술적으로 탁월한 가치가 있고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
(나)급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며 그 역사문화적 가치가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 또는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최소한의 보수를 통하여 복원이 가능한 것
(다)급	현재에는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부족하나 장래에 지역의 근대시기에 대한 모범적 자료의 가능성이 양호한 것 또는 어느 정도 훼손되었으나 적극적인 보수과정을 통하여 복원이 가능한 것
(라)급	지역의 역사문화적인 가치가 부족하고 훼손정도가 심각하여 보존가능성은 현저히 감소하나 지역의 근대시기에 대한 역사문화적 내용을 참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기록 등 최소한의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
(마)급	근대문화유산의 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목록에만 등재대상이 되는 것

■ 분류체계의 수정·보완

○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분류체계는 조사대상인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을 대분류로 하고, 각각 2~6개의 중분류 항목으로 세분하고 이에 따라 코드를 부여하여 조사표를 작성하도록 규정함.

○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 분류체계를 따르되, 실제 조사 단계에서는 유형별로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항목 발견 시 분류체계를 조정하여 유연하게 분류체계를 재구성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건축물의 경우 한옥/비한옥으로만 분류하였는데, 건축물의 사용용도 또는 국가에 따라 이를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용도 : 주택, 상가, 업무, 공공시설 등
- 국가 : 일본식, 청식(중국), 유럽식, 한국식 등

국토부 가이드라인 건축자산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건축물	①한옥 ②비한옥
공간환경	①주거지(마을) ②산업단지 ③시장 ④공간시설 ⑤가로(옛길) ⑥기타
기반시설	①교통구조물 ②하천구조물 ③기타

■ 개별 건축자산에 대한 DB시스템 구축

○ 공공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축자산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얻고, 건축자산 소유자가 보존가치를 인정하고 자부심을 갖도록 하여 건축자산의 보존·활용에 긍정적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별 건축자산에 대한 철저한 기초조사를 전제로 DB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건축자산 조사표는 건축자산 1개소 당 두 페이지로 간단히 작성하지만 개별 건축자산에 대한 방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 결과를 최대한 상세히 정리·분석하여 건축자산의 가치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 조사 결과의 체계적 관리 및 건축물의 가치와 특성에 맞는 재생사업에의 활용방안 모색 등을 위해 조사결과의 입력과 업데이트, 분석이 용이한 DB관리 시스템을 우선 구축해야 함.

- DB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조사에 착수한다면 향후 우수건축자산 지정 및 활용을 위한 심의 단계에서 재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비효

율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 건축자산 DB를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작성하도록 하기 위한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 가이드라인(국토부)」이 현재 개발 중에 있으므로, 가이드라인이 배포되면 이를 준용하여 DB를 구축 하도록 함.

■ 조사표 작성과 정리의 전문화

○ 기초조사는 건축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뿐 아니라 가치판단에 필요한 다소 주관적인 정보가 기술되어야 하므로, 가급적 건축적 지식과 소양을 갖춘 조사자에 의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므로 신뢰성 있고 수준 높은 조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함.

○ 또한 조사자들이 공통된 기준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작성하도록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건축자산 기초조사의 단계별 또는 지역별 실시

○ 인천광역시 전체를 기초조사 범위로 하여 일시에 전수조사를 실시할 경우, 단기간에 인천시 전체의 건축자산의 총괄적인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한정된 예산과 시간,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해 개별 건축자산에 대한 상세한 파악이 어렵고, 조사결과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기초조사를 단계별로 나누어 추진하고, 1차년도에는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기초조사를 수행하도록 함.

- 이는 1차년도 조사과정 상 발생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점검·보완하여 향후에 추진되는 기초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임.
- 예를 들어, 인천 중구 일대와 같이 건축자산이 밀집해 있고, 조사의 시급성·활용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 기초조사 세부내용

○ 1차년도(2016)에는 기초조사 기본구상 및 1개 지역에 대해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4년간(2017~2020) 2~3개 군·구를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시행하여 5년 내에 인천시 전체 10개 군·구 조사를 완료함.

○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매

년 신규 대상 및 멸실 자산에 대한 추가조사와 목록 업데이트를 실시함.

○ 1차년도 인천 건축자산 기초조사는 다음과 같이 행할 것을 제안함.

- 과업명 : 인천 건축자산 기초조사 기본구상 및 시범조사 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OO개월
- 공간범위
  - 1차 범위 : 인천광역시 전역(건축자산 후보군 목록화)
  - 2차 범위 : 중구 일대(건축자산 기초조사)
- 내용적 범위
  - 인천광역시 건축자산 기초조사 실시를 위한 기본구상 및 로드맵 제시
  - 인천광역시 건축자산 후보군 목록화(DB 구축)
  - 건축자산 조사·관리 DB 시스템 구축
  - 중구 일대 시범조사 실시(1차년도 기초조사)
- 주요과업 내용

① 인천광역시 건축자산 기초조사 실시를 위한 기본구상 및 로드맵 제시
  - 기본구상(건축자산의 개념, 가치기준, 건축자산 분류체계)
  - 건축자산 기초조사 연차별 시행계획
  - 활용방안

② 건축자산 조사·관리 시스템 개발
  -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 및 목적
  - 운영체계 및 세부 DB 구성내용
  - DB 입력·수정·관리시스템
  - 활용방안(인천시 관련 시스템과 연동방안 등)

③ 인천광역시 건축자산 후보군 목록화
  - 최신 건축물대장 정보를 활용하여 조성시기에 따른 건축자산 후보 건축물 총량 파악
  - 선행 유사조사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자산 후보군 정리
  - 관련 공모전 범위를 설정하고 해당 공모전 수상작 정리
  - 문화재, 중복 또는 멸실된 자산을 제외하여 최종 후보군 확정 및 목록화

④ 1차년도 시범조사 실시
  - 인천광역시 내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기초조사 전과정을 시범적으로 시행
  - 조사대상지 내 포함된 건축자산 후보군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
  - 개별 조사표 작성 및 총괄 관리표 작성
  - DB시스템에 시범 적용, 시스템 개선방향, 수정사항 도출

2) 건축자산 활용 촉진방안

(1)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보조금 확대

■ 타 시도 보조금 지원규모

○ 서울의 건축자산 조례에 따르면, 우수건축물의 외관수선시 전체 공사 비용의 2/3 범위 내에서 최대 6,000만원 지원이 가능하며, 내부수선시 공사비용 범위 내에서 최대 4,000만원 융자 지원이 가능함.

○ 대전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 및 규모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규모를 결정함.

○ 경기도 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규모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준보조율이 30~50%로 정해져 있고, 보조금액 한도는 없음.

○ 경상북도 조례에서는 한옥마을, 건축자산 진흥구역, 한옥체험형 민박사업 지역 내 한옥 유형에 한해 총사업비 1/2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함.

○ 이밖에 대구의 경우 조례에 의하지는 않지만 근대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북성로 일대에 「대구읍성상징거리 조성사업(2012~)」을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국비 42억, 지방비 28억)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근대건축물 개보수 시 개별 건축물 당 4,000~6,000만원을 지원함.

■ 인천시 보조금 지원 규모

○「인천 건축자산 진흥조례」에 따르면 외관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리모델링의 경우 총사업비 1/2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고, 그 밖에 보수행위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1/2이내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도록 규정함.

○ 서울의 외관수선 보조금 지원규모와 비교할 때 인천의 보조금은 1/3수준에 불가하며, 지원대상 및 규모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대전, 경기도에 비해 인천시의 우수건축물 보조금 지원제도는 다소 제한적임.

○ 인천은 근대건축유산이 풍부한 지역으로, 근대건축물 개보수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역사적 장소로서 독특한 분위기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임.

○ 그러므로 조례 개정을 통한 우수건축자산 보조금 지원 상향과 각종 사업비 투입을 통해 직접적으로 근대건축물 개보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확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지자체별 건축자산 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원 비교

구분	보조금 지원 내용	
인천	외관수선	• 총사업비 1/2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 지원
	내부수선	• 총사업비 1/2이내에서 최대 1,000만원 지원
서울	외관수선	• 공사비용 2/3 내에서 최대 6,000만원 지원
	내부수선	• 공사비용 범위 내에서 최대 4,000만원 융자
대전	•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름 -지원대상·규모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 수립 -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한도 없음)	
경기	•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름 - 보조금 대상사업 기준 보조율 : 30~50%(한도 없음)	
경북	• 한옥마을, 건축자산 진흥구역, 한옥체험형 민박사업 지역 중 - 한옥에 한해 총사업비 1/2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 지원	
대구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국토부) 사업비로 근대건축물 개보수 시 최대 6,000만원 지원	

(2)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확대 및 건축자산에 대한 인식 개선

■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등 건축자산 관리·지원책 마련

○ 다수의 건축자산이 군집해 있는 경우에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을 통해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등 특례적용과 수선비의 지원, 세금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인천에서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개항기 근대건축물이 밀집한 중구 일대와 비문화재 역사자산이 밀집해 있는 강화군, 동구, 부평구, 그리고 건축 관련 공모전 수상작이 밀집한 연수구 등이 있음.

○ 이중 중구 개항장 일대는 개항장 문화지구와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물 관리·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밖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면단위 건축자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중구, 강화군, 동구, 부평구 등 건축자산이 군집해 있는 지역에 대해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활성화를 통해 인천시 건축자산의 효율적 관리·활용을 도모함.

■ 건축자산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홍보 필요

○ 건축자산은 기본적으로 소유주의 자발적인 등록에 의해서 이루어짐.

○ 그러나 건축자산 후보 건축물의 소유자들에게는 건축자산에 관한 내용이 전달되는데 일정부분 한계가 존재하고 등록문화재와 같이 여전히 재산권 행사에 대한 반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건축자산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인식하고 거주자 및 소유자들에게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안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함.

○ 인천시 건축자산 보전 조례 6조에 3항에 따르면 우수건축자산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주민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 그러므로 인천시 차원에서 건축자산 보존·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홍보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함.

(3) 건축자산 목록구축 및 활용

○ 건축자산의 지정은 문화재처럼 보존·관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멸실 및 건축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축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도시재생을 위한 지역자산으로서 적극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함.

○ 면밀한 기초조사 수행을 통해 건축자산의 활용여부를 판단해야 함. 선정된 건축자산은 건축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을 통해 박물관, 전시관, 카페, 숙박시설 등 상업적·문화적 용도로의 활용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기초조사를 통해 구축된 건축자산 DB는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AIS), 토지정보시스템(KLIS),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등과의 연계를 통해 그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음.[72]

- 건축물 관리대장에 '우수건축자산'을 표기함으로써 건축자산의 철거 및 개보수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함(단, 건축법 개정 필요).
- AIS, KLIS, KOPSS에 건축자산 DB를 연계함으로써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등 도시계획 관련 의사결정 시 건축자산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되도록 함.

72 심경미 외(2013), 건축자산의 목록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제도 연구, p.222.

참고문헌

국토교통부(2016), 건축자산 기초조사 실시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권수연(2010), 인천지역 근대건축물의 문화공간 활성화 방안,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화재청(2008), 2008년도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조사보고서I, 문화재청.

문화재청((2016), 주요 업무 통계자료집,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실.

이왕기·이현식·허소영(2002), 구도심 역사문화자원 및 활성화 관련 사업 조사·연구, 인천발전연구원.

인천광역시(2003),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2004), 근대 문화유산 목록화 조사보고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2008), 인천 근대건축의 재발견,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인천광역시(2009), 건축으로 보는 도시 인천,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인천광역시 중구(2009),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 관리계획,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시립박물관(2004), 인천북부 종합학술조사보고서, 인천시립박물관.

인천시립박물관(2010), 인천남부 종합학술조사보고서, 인천시립박물관.

손장원·차동원(2005), 근대기 인천지역 주거건축 연구,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 논문집, 5(1), 24-31.

손장원(2006), 다시 쓰는 인천근대건축, 간향미디어랩.

신성희(2007), 인천시 문화지구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근대시기 문화자원 밀집지역을 사례로, 인천발전연구원.

신성희(2009), 인천지역 근대산업유산의 문화적 재활용에 관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심경미·차주영(2013), 건축자산의 목록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제도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심경미·차주영(2014),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정책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심경미(2015),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배경과 전망, 건축, 59(4), 14-17.

진 린(2006), 인천 개항기 근대 건축물 보전 및 주변 지역 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중심으로, 건축과 사회, 178-193.

제주도(2003), 제주도 근대문화유산조사 및 목록화사업.

채호경(2003), 개항 이후 인천 청국조계지의 주택 및 상업건축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경인일보(2016.1.14), 인천 고택기행 2호, 인천 차이나타운 회의청.

경인일보(2016.4.14), 인천 고택기행 15호, 선광미술관.



인천 내항 전경 _ 인천광역시 중구



Ⅶ

인천 산업유산의 가치화

1. 연구목표

2. 인천시 근대산업유산 현황

3. 인천시 대표산업유산 선정

4. 인천시 근대산업유산 가치화 전략 및 방안



1920년대 인천항 하역장

인천 산업유산의 가치화

정지원 지역경제연구실 연구위원

1. 연구목표

○ 국내에서 산업유산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기는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했던 '예술창조벨트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음.

- 대부분 산업유산은 공장이나 창고 등과 같이 단독 시설로는 미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문화적, 역사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으며, 따라서 상대적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
- 동 사업을 기점으로 근대시기에 형성된 산업시설의 '문화적 용도'에 대한 관심이 점차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산업유산을 재활용하여 문화적 창작공간을 육성하는 다양한 사업이 착수되었음.

○ 산업유산의 가치는 한 개 공장건물 자체만이 아니라, 건물과 건물의 관계성과 집합적 건물군의 분포, 생산을 위한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 노동 커뮤니티의 발전을 보여주는 장소성 등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통합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보존 및 활용전략이 매우 중요함.

- 그러나 근대시기에 형성된 부동산 형태의 산업유산들은 대부분 형성시기가 상대적으로 짧고, 개인 소유물인 경우가 많아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규제'와 '보호' 정책으로는 멸실과 훼손을 방지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함.

○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산업유산에 대한 가치인식을 토대로 인천의 가치자원으로서 근대시기 지역 산업유산에 대한 실천적 활용전략을 검토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인천의 근대시기 지역 주력산업을 살펴보고, 이들 주력산업별 근대산업유산을 검토하며, 선행 근대산업유산 목록을 대상으로 대표산업유산을 선정함.
- 또한, 인천시의 근대산업유산 활용현황으로부터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내외 사례로부터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이를 토대로 대표산업유산에 대한 예시적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인천시 근대산업유산 현황

1) 인천시 근대시기와 근대산업유산

○ 일반적으로 근대시기는 중세와 현대 사이의 시대를 일컫는 것으로, 산업화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1876년의 개항 이후부터의 시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인천지역의 산업화를 중심으로 근대시기를 정의하면, 제물포 개항이 이루어진 1883년부터 해방 이후 경제개발이 본격화되었던 60년대까지를 포함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특정 시기의 산업유산은 인간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종사하는 생산적 활동의 총체로써 해당 시기에 산업활동이 유지되었던 산업 관련시설로서 정의할 수 있음.
- 산업 관련시설로서 생산을 위한 활동에 직접 사용(공장, 창고 등)되었거나, 산업적 경제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인프라(철도, 항만, 발전소, 사택 등)와 이들과 간접적으로 연계된 행·재정시설(은행, 세관원 등)을 포함
- 그러나 '산업유산의 활용'이라는 연구목적 상 서비스, 기술 등 무형자산은 제외

○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도시인문학센터의 근대산업유산 목록의 일부와 연구진행 과정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조사된 근대산업유산을 주요 산업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2) 인천시 근대산업유산 활용현황 및 문제점

○ 인천시 및 각 기초자치단체별 문화유산 관련 사업추진 현황분석과 선행연구 검토 및 현장조사 과정을 통해 인천의 지역 근대산업유산 활용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음.

○ 첫째, 구도심을 중심으로 다양한 도심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대부분 사업이 문화관광 측면만이 강조되고 있어 활용 측면의 다양성이 크게 부족함.

- 지나친 관광 중심의 외향적 재생사업은 산업유산을 점적 활용에 그치도록 하거나, 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판별하지 못한 행정편의적 사업추진으로 오히려 산업유산이 파괴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음.
- 이는 산업유산의 문화관광적 활용에만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주민편의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재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음.

근대시기 지역 특화산업별 주요 산업유산 목록

구분	주요 산업유산
농업	인천미두취인소, 채미전거리터, 수인곡물시장,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 곡물검사소, 야마토노동조합 등
어업	만석부두, 북성포구, 화수부두, 남동구 간수저장 시설, 중구 늘목염전, 동양염전, 소래염전, 중구 운남동 염전 및 염부숙소, 부평 천일시험염전 터(표시석), 한들방죽, 부평 함봉산 새우젓굴 등
정미업	인천정미소, 타운센트 정미소, 고려정미소, 주명기정미소, 김태훈정미소 등
양조업	대동양조조합 터, 강화양조장, 금품양조장, 아사히양조회사 등
방직업	조양직물 건물, 심도직물 터, 이화직물, 동양방적 기업체와 사택 등
금융업	일본계 은행(인천일본18은행지점, 인천일본제1은행지점, 인천일본58은행인천지점 등), 대한천일은행(조선상업은행) 등
기타 식음료업	조선인촌주식회사(성냥공장), 인천탄산수제조소(스타사이다), 신흥동 크라운 소세지공장, 애경사 터 공장건물 등
기계, 금속, 화학 등 중공업	조선피혁주식회사/왕자제지/소야전시멘트회사 등 기업, 삼천리자전거/동양전선 등 기업체와 사택, 부평 미쓰비시 사택군, 한국유리 만석동 공장, 부평 폐광산 등
군수산업	일본고주파중공업, 인천조폐창, 조선기계제작소, 조선목재공업 등
소매 및 서비스업	화교마을, 조선인마을, 공화춘, 풍미반점, 평양홀 건물, 표관터, 협률사터, 옛 무라타니 선구점, 신광인쇄, 일본우선주식회사, 강화예식장, 삼우인쇄소, 송월(가축)시장 등
기반시설	개항장, 경인철도(인천역, 인천기관차사무소 주박소 등), 인천항(인천항 갑문 등), 월미도 조탕터, 팔미도 등대, 소월미도 등대터, 수인선(소래철교, 송도역사, 용현역 터 등), 송도유원지, 축항선, 구 인천세관 창고와 부속동, 인천관측소, 인천전기발전지, 경인고속도로, 한국수출산업공단 등

○ 둘째, 최근 지역의 각종 문화유산을 재활용하기 위한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산업유산과 산업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 및 활용계획은 찾아보기 어려움.
- 최근 개항장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유산과 근대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산업유산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매우 저조한 실정
- 최근 활용현황을 보더라도, 대부분 단일 시설을 재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관련 산업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집단적 활용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 지역 산업유산에 대한 철저한 현황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활용전략 및 계획이 마련되어야, 단일 건축물의 구조적 혹은 양식적 가치 등으로만 건물의 보전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가치 있는 산업유산이 유실되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유사한 용도로 중복 활용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 셋째,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산업유산 재활용 시도가 대부분 구도심 재생을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개항장과 동인천역권을 중심으로 한 중구 및 동구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타 지역의 산업유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음.
- 물론 개항장이 인천지역 근대산업의 출발점이며 가장 산업유산이 많이 분포해 있는 지역이기는 하지만, 강화의 양조산업 및 방직산업, 소래 인근의 제염업 및 관련 인프라 등 인천 전역에 걸쳐 존재하는 다양한 산업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 반면, 관광 측면에서는 산업유산이 점적으로 분산되기보다는 일정지역을 중심으로 특정 범위 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관광수요를 촉발시키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항장 지역, 개항장 배후부지 지역(배다리 등 동인천역권), 송도유원지 지역, 강화도 지역, 부평 굴포천 지역 등 근대산업유산 집적지를 중심으로 특징별로 몇 개 거점지역으로 나누어 발굴 및 활용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산업유산의 가치를 문화적, 예술적, 건축적 측면에서만 평가함으로써 단일 시설에 대한 점적활용에 그치지 않도록 역사적, 장소적 의미를 파악하고 동 산업과 관련 있는 시설 및 인프라를 동시에 발굴 및 복원하여 면적인 보존 또는 통합적 보존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산업유산의 경우는 생활공간들과 함께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역사와 생활의 대상으로서 통합적인 도시구조 속에서 당시 산업프로세스와 관련 인문, 사회학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귀중한 지역자원으로서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음.

- 특히 산업유산의 가치는 공장 건물자체가 아니라 도시를 형성하는 건물과 건물의 관계성에 있으므로 해당 산업군의 통합적 분포상황을 밝히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장소성에 맞지 않는 용도로 활용하거나 관계없는 문화 프로그램에 기반한 산업유산의 개별적 보전은 올바른 산업유산 보전정책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3. 인천시 대표산업유산 선정

1) 대표산업유산 선정 방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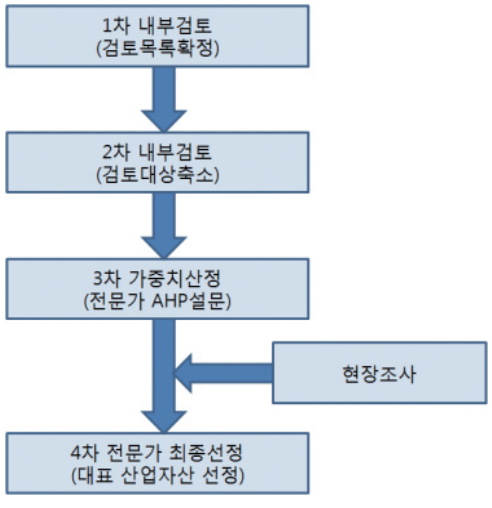
○ 본 연구에서는 동 과제의 총론적 성격을 띤 김창수(2016)[73]의 평가지표를 그대로 활용하되, 별도의 지표 가중치를 산정 및 반영하여 근대산업유산의 활용이라는 연구목적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김창수(2016)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평가기준을 토대로 고유성, 보편성, 진정성, 실현성의 4개 지표를 제시
- 4개 지표별 가중치 산정을 위하여 5명의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AHP분석 기법을 적용

○ 본 과제에서의 전체적인 대표산업유산 선정 과정은 내부 연구진에 의한 2차례의 검토과정과 현장조사, 전문가 집단에 의한 가중치 산정 및 최종 선정과정을 거침(우측 그림 참조).

- 1차 검토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한 추가 항목과 경제자산 가운데 산업유산 검토 대상으로 포함시킬 항목을 도출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내부 연구진 2인에 의해 진행됨.

인천 대표산업유산 선정 방법론



73 김창수(2016), "인천 도시가치자원 발굴 및 활용전략", 인천발전연구원

- 2차 검토는 1차 검토를 통해 도출된 산업유산 목록에 대해 3명의 내부 연구진이 토론과정을 거쳐 최종 전문가 검토대상 목록을 선정
- 3차 검토 단계에서는 전문가 5인의 서면자문을 통해 평가지표별 가중치를 산정
- 4차 최종 전문가 검토 단계에서 전문가 5인의 토론을 거쳐 대표산업유산을 선정

○ 4차 최종 전문가 검토 단계에서는 먼저 일부 현황이 불확실한 산업유산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전문가 5인의 토론을 거쳐 개별적으로 각 산업유산별 5점 리커트 척도 방식으로 점수를 할당하여 취합하고 대표산업유산을 선정함.

- 4차 전문가 검토 단계는 가중치 산정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 집단의 브레인스토밍 형식의 토론과 설문을 통해 최종 검토함. 이때 설문지는 지표별 5점 리커드 점수 형식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보조자료를 제공하였음.

○ 평가지표와 전문가 AHP설문을 통한 가중치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 4개의 가중치 가운데 고유성과 실현성이 각각 0.30과 0.33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받았으며, 나머지 보편성과 진정성은 0.18과 0.19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이는 본 과제의 '인천의 도시가치자원 현황과 자원화 방안'이라는 연구목적에 따라 지역의 독특한 산업자산이면서도, 활용가치가 높은 자산을 우선하고자 하는 참여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대표산업유산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가중치

평가기준	고려사항	가중치
고유성	▪ 도시 대표성 ▪ 희소성 ▪ 도시 특화 가능성	0.30
보편성	▪ 탁월성과 매력도 ▪ 국제성 여부 ▪ 미래가치 보유 여부	0.18
진정성	▪ 고유가치 보존 여부 ▪ 훼손, 변경 여부	0.19
실현성	▪ 재현, 복원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 ▪ 활용 가치	0.33

2) 대표산업유산 선정과정 및 결과

○ 본 과제에서는 인천도시인문학센터의 산업유산(179건)과 경제자산(419건) 목록 598건 및 선행연구와 자문회의를 통한 추가조사 목록을 대상으로 내부 연구진에 의

한 1, 2단계의 2차례 검토를 거쳐, 최종 45건의 산업유산을 도출

○ 이와 같이 1, 2차 내부 검토를 통해 도출된 45건의 산업유산에 대해 전문가 검토과정을 거쳐 지역 대표산업유산을 선정함.

- 전문가 검토과정은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먼저 3차 전문가 설문조사(3단계)를 통해 4개 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AHP방식으로 산정하고, 추가적인 산업유산을 제안 받음.
- 다음으로 가중치 산정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 집단에 의해 브레인스토밍 형식의 토론과 최종 설문(4단계)을 통해 총 45건의 산업유산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산정함.

○ 집중토론과 현장조사 자료를 토대로 한 4차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45건의 산업유산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함.

- 공화춘이 가장 높은 순위를 받았으며, 2위는 극동방송국 송출사무소, 3위는 인천항 갑문의 순임.
- 연구기간 및 예산의 범위를 고려하여, 총 45건 가운데 15위까지를 본 과제의 인천시 대표산업유산으로 제한함.

○ 본 연구의 목적이 산업유산에 대한 활용전략을 중심으로 예시적 활용방안을 제안하는 것에 있으므로, 대표산업유산의 수를 15개로 임의·한정하여 제안내용 및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였음.

- 따라서 선정된 15개의 대표산업유산은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유산으로 보기보다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예시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표본 추출과정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임.
- 대표산업유산의 선정은 당시 시기의 주력산업의 산업유산들 가운데 선정하여, 해당 산업과 관련이 있는 산업유산들을 총체적으로 조사 및 발굴하는 방안(주력산업별 선정 방식)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나, 본 과제에서는 산업유산에 대한 기초조사를 과제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인천도시인문학센터의 산업유산 목록을 최대한 그대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주력산업별 선정방식보다는 개별 유산을 대상으로 대표산업유산을 선정하되, 선정된 산업유산이 속한 주력산업에 대한 추가조사를 시행하는 방식을 채택함.

○ 이와 같이 선정된 총 15건의 대표산업유산에 대해서는 인터넷, 보도자료 등 선행자료를 통한 별도의 기초조사 과정을 거쳐, 현재 활용여부와 현존여부를 확인함.

- 기초조사 결과, 이들 중 이미 활용되고 있는 시설은 공화춘, 인천항 갑문, 팔미도 등

대, 수도국 시설, 인천 일본제1은행지점, 해안동 창고, 만석부두, 화수부두, 북성포구 등 9곳이며, 인천역은 활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극동방송국 사옥은 사유지로 활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반면, 구 인천세관 창고와 부속동, 송도역사, 축항선, 조양방직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나, 도시계획사업과 보존의 사이에서 한창 논란 중에 있음. 특히, 인천세관 창고는 문화제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활용계획이 부재한 실정이며, 송도역사와 축항선은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철거될 위기에 놓여 있음.

○ 총 15건의 대표산업유산에 대한 기초조사에서 현재 활용여부가 불확실한 4개의 산업유산은 보다 심도 있는 현장조사를 실시함.

-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한 4개 대표산업유산은 구 송도역사(7위), 구 인천세관 창고와 부속동(11위), 축항선(12위), 조양직물(13위) 등임.
- 활용계획이 미비한 송도역사, 인천세관 부속 건물, 축항선, 조양방직 등 4건의 산업유산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토대로 그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3) 국내외 산업유산 활용사례 분석

○ 산업유산의 활용유형은 산업유산의 특징과 보존정도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4개 정도로 유형화하면 체험 및 관광시설, 문화예술시설, 공원 및 교육 등 주민생활시설, 주택 및 상업시설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그러나 실제로는 단일 목적으로 재활용하기보다는 4개 유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복합형태로 재활용되는 경우가 많음.
- 다만, 국내외를 통해 4개 유형 가운데 관광 또는 문화예술시설로의 재활용 사례가 많은 반면, 보존보다는 도시재생의 측면이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는 주민생활편의시설이나 주택 및 상업시설로의 재활용 사례는 특히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빈약한 실정임.

○ 다음의 표는 각 활용유형별 국내외 일부 사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8개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산업유산 재활용 전략 설정에 참고함.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일본 기타큐슈, 미국 첼시와 우리나라 부산, 정선 등의 사례는 점적 활용이 아닌 면적인 활용을 통해 산업유산의 보존과 활용의 효과를 높이면서 동시에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미술관, 박물관 등 활용목적에 따라 단일시설에

국한된 프랑스 오르세, 서울역, 당인리 발전소의 사례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카페, 시민공간 등 다양한 보조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규모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임.

- 둘째, 일본 기타큐슈, 미국 하이라인파크, 부산의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 등 도심의 산업유산 재활용 사업은 대부분 도시개발 논리와 상충되어 어려움을 겪게 되며, 따라서 시민과 사회단체의 공감대 형성과 주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셋째, 산업유산 재활용 사업은 산업유산과 지역의 특색을 최대한 고려해 추진되어야 하며, 문화예술 및 관광 측면의 활용뿐 아니라, 공원과 주민편의시설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산업유산 활용유형 및 사례

유형	해외사례	국내사례
체험 및 관광시설	영국 빔미쉬, 뉴톤 그레인지 국립 광산 박물관, 세필드 산업박물관, 독일 LWL 산업박물관, 고슬라르 람멘스베르크 광산 박물관, 기타큐슈시 모찌코레토, 호주 시드니 달링 하버	정선 레일바이크, 포천 폐채석장, 광명 폐광, 신안 염전
문화예술시설	영국 테이트 모건. 프랑스 오르세 박물관, 호주 브리즈번 아트센터, 파워하우스 뮤지엄, 독일 칼스루헤ZKM(미디어 아트센터), 라이프치히 슈피너라이, 노르트 란트샤프트 파크	서울 당인리 발전소, 서울 문래예술공단, 군산 내항, 아산 구)장항선, 부산 아트팩토리인다대포, 인천 아트플랫폼
주민생활시설	뉴욕 하이라인 파크, 시드니 웨이버튼 파크랜드, 독일 엠셔 파크, 시애틀 가스워크 공원	경의선 숲길
주택 및 상업시설	영국 브래드포트 실크웨어 하우스, 호주 울루물루(선착장→레스토랑), 뉴욕 맨하탄 지역 나비스코 과자공장의 첼시 마켓	군산 월명동 일식 주택군, 인천 중구청 앞 일식 목조건물군

4. 인천시 근대산업유산 가치화 전략 및 방안

1) 산업유산 활용전략

○ 앞서 살펴 본 지역 산업유산 활용현황과 문제점 및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종합하면, 산업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해소되어야 할 몇 가지 기본적인 활용전략을 도출할 수 있음.

(1) 지역 산업유산에 대한 철저한 기초조사와 중장기 활용계획 수립

(2) 통합적 보존 및 활용정책

(3) 산업유산군별 거점지역 발굴 및 조성

(4) 활용측면의 다양성 확보

(5) 지역 주민과 사회단체의 참여 촉진

○ 첫째, 근대산업유산에 대한 체계적 조사 및 중장기 활용계획의 부재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산업유산에 대한 조사나 활용계획의 부재를 의미하며, 이들에 대한 논의 부재는 무분별한 철거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음.

- 남한 최초로 기계식(희석식) 소주를 만들었던 근대건축물인 조일양조 건물은 지역 문화예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는 명목 하에 인천시 중구청에서 2012년에 철거함.
- 1890년대에 설립되어 인천에서 가장 오래되었던 강화양조장도 2009년 건물주에 의해 철거되었는데, 인천시는 헐린 사실을 모르고 강화양조장, 공화춘 등 6개 근대건축물에 대해 2009년 6월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였다가,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음.
- 소래포구의 소금창고(2006년), 수인선 협궤열차 역인 소래역사(2008년) 등도 소래해양생태공원 조성을 전후로 차례로 철거되어 지역의 제염업을 대표하는 산업유산이 안타깝게 멸실되었음.
- 따라서 산업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중장기 활용전략 및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재 등록 이전 단계 산업유산의 멸실을 방지하고, 예산 등의 사유로 방치되어 있는 산업유산의 재활용방안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강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둘째, 산업유산은 건물과 건물의 관계성, 역사와 장소성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시설의 점적 활용보다는 관련 있는 시설과 장소, 인프라 등의 통합적 활용이 매우 중요함.

- 즉, 당시 주력산업으로서 공장과 시설, 관련 인프라 등 산업프로세스와 관련 인문, 사회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발굴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점적 활용이 아닌 면적인 활용을 통해 산업유산의 통합적 보존과 활용의 효과를 높이면서 동시에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원의 통합적 활용과 함께 어느 정도 규모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활용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규모가 작지만 역사적, 장소적 의미를 갖춘 산업유산은 해당 시기의 동 산업

관련 건축물, 시설, 노동자 커뮤니티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통합적 산업유산군의 형태를 찾아내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특정 산업에 대한 산업유산군의 통합적 보존 및 활용을 통해 해당 산업의 집적지를 발굴하고 조성하는 것과 더불어 개항장 등 특정지역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주요 역사문화유산 보존지역을 중심으로 거점형 관광지 조성전략이 필요함.

- 많은 근대문화유산이 개항장과 조계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반면, 개항장 배후부지 지역(배다리 등 동인천역권), 강화도의 양조업과 방직업 및 역사문화유적, 송도유원지의 과거 위락시설 지역, 소래포구 염전 지역 등도 나름대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임.
- 이들 거점지역별로 산업유산은 물론 자연·역사·인물·문화유산 등을 다양하게 연계하여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등 관광수요 확대에 기여할 수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예를 들어, 송도유원지의 경우 역사문화유산이 크게 집적해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처 능허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송도유원지, 송도석산의 드라마 촬영장소, 송도신도시 등을 연계해 관광명소화한다면 연계 관광코스로서 부각시킬 수 있을 것임.
- 현재 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문화공간은 개항장 인근에 집중되어있어, 인천을 찾은 대부분의 방문객은 반나절 내지 하루 일정으로 개항장 일대를 다녀가고 있는 형편인데, 방문객의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최소한 당일 방문이 아닌 1박 이상의 체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방문객들이 단지 복고적이거나 이국적인 감각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공간을 돌아보는 수준을 넘어, 지역의 음식과 특산물, 토산물, 공예품 등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관광상품의 적극적 개발이 요구됨.

○ 넷째, 최근 국내 문화유산 활용 행태는 점차 점적활용에서 면적인 활용으로 발전해가면서, 규모가 커지고 복합형태의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화, 관광 측면의 활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반면에 주민생활과 공동체생활 지원시설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

- 산업유산의 특성과 주변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양한 활용방안을 고민하되,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근린재생형 사업의 비중을 늘려, 공원, 복지관 등 낙후된 지역의 주민공동체 활동공간을 확대하고 지역정체성 확보와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체험, 전시 등 문화관광 시설뿐 아니라, 공원, 주택 및 주거환경, 주민회관 등 주민생활지원시설과 숙박, 식당, 상업 등 여행자 편의시설에 걸쳐 산업유산군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방문객과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지역 특성과 정체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히, 대부분 재생사업지역에서 주거, 공동생활시설 등 주민의 생활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소홀한 경우가 많은데, 산업유산 재활용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우선시 될 수 있는 재활용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개인이나 문화단체 등 민간에서도 문화산업유산을 재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상당수 있는가 하면, 지역 재생사업에서 주민과 지자체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주변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민간주도형 재생사업을 지원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민간참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소통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임.
- 근대산업유산을 새롭게 재활용하는 경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산업유산의 역사적, 문화적, 장소적 가치를 제대로 복원해야 하기 때문에 각종 문화단체와 이들에 속한 전문가 및 지역 주민의 참여와 소통 및 의견조율은 필수적임.

2) 인천시 대표산업유산 활용방안

○ 앞서 선정된 대표산업유산 15개 가운데 선행연구와 현장조사를 거쳐 아직까지 뚜렷한 활용계획이 마련되지 못한 4개 산업유산에 대하여 향후 활용방안을 예시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 선정된 4개의 근대산업유산은 조양방직, 축항선, 구 인천세관 창고, 송도역사로서 조양방직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는 모두 특정 단일산업과 연계시키는데 무리가 있는 산업인프라이며, 따라서 관련 산업을 통합적으로 조사하여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그러나 대부분 산업인프라는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를 확보하고 있어 독자적인 활용이 가능하거나, 주변에 관련 시설이 남아 있는 경우 이들과 연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함.
- 조양방직의 경우에는 강화도의 방직산업과 관련이 있는 공장이나 시설들과 함께 통합적 재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1) 조양방직 건물

■ 강화의 방직산업

○ 강화도는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중심지였던 대구와 어깨를 견줄 만큼 국내 최고의 직물생산지로 유명세를 떨쳤음.

- 강화특산품을 들라면 지금은 인삼이지만, 예전엔 본래 비단과 화문석이 유명하였으며, 1978년 당시 대소 직물공장이 24개소나 되었을 정도로 강화는 일제강점기부터 직조산업이 매우 발달하였음.
- 제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시행되고 강화직물업체는 심도직물 김재소 사장을 초대 회장으로 1963년 강화직물협회를 구성하며 70년대까지 전성기를 누렸으나, 강화직물산업은 2차례에 걸친 석유파동과 정부의 합리화 정책, 화학섬유와 산업인력의 도시집중화 영향 등으로 점차 침체기를 맞게 됨.
- 당시 직물공장으로는 홍재묵의 조양방직 외 공화당 의원이었던 김재소의 심도견직, 박영묵의 경도직물, 쌍과부 직물공장으로 불리던 황순흥, 황순신의 남화견직, 마진수의 평화직물 등이 대표적이었음.

○ 1976년 강화문화원이 펴낸 '강화사(江華史)'에는 산업으로서 강화의 직물제조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선각자 김동식(金東植·1877~1938년)에 대해 소개하고 있음.[74]

- 당시 직물에 착안한 선각자 김동식이 직기를 개량하는 동시에 대대적으로 생산을 보급 장려하는 한편 선전에 주력해 강화비단의 질을 높이고 공장을 건설해 많은 직물을 생산했다고 서술하고 있음.
- 그러나 수공업 형태이던 강화의 직물산업은 강화지역 실업가인 홍재묵·홍재용 형제가 1933년(또는 1937년) 조양방직 주식회사를 세우며 근대적 기틀을 갖추기 시작하였음.

○ 1947년부터 2005년까지 운영됐던 심도직물은 국내 굴지의 섬유회사로 1960~70년 직원이 1천 200명 정도였던 강화의 대표적인 직물공장임.

- 심도직물 공장은 2003년 '강화읍 소도읍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철거되고 부지는 공원으로 조성되었음.
- 지금 이곳에는 30m가 넘었다는 심도직물 공장 굴뚝의 일부가 남아 있는데, 이 굴뚝은 심도직물 공장 부지에 '강화도령' 철종이 살았다는 용흥궁 공원이 조성

74 김성호(2015), "[강화·옹진 인천20년 보석을 다듬자·24] 강화도의 직물산업", 경인일보 2015년 6월 18일자

되자, 심도직물을 기억하는 강화읍 주민들이 이를 기념하는 표지석과 함께 지난 2008년 세워둔 것임.

- 심도직물 굴뚝 바로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1965~1968년에 강화도에서 일어난 '심도직물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천주교 인천교구에서 세운 비석이 있음.

○ 심도직물 사건은 한국 천주교가 노동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한 첫 번째 사건으로 가톨릭 노동운동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한편으로 1960년대 여성 노동자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음.[75]

- 1965년 9월 강화성당에 전미카엘(미카엘 브랜스필드, 1929~1989) 신부가 부임하였고, 2달 후인 1965년 11월에는 심도직물 여공들을 참여시키는 가톨릭 노동청년회(가노청)가 만들어졌음.
- 1967년 5월 14일 심도직물에는 처음으로 300명이 넘게 참여하는 노조가 만들어졌으나, 회사는 지속적인 노조 와해 작업을 펴고 조합원을 탄압하는 등 갈등이 계속되었음.
- 1968년 1월 4일 심도직물 사측은 당시 노조 박분양 분회장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하였으며, 심도직물을 비롯한 강화도에 있는 21개 직물회사는 가노청 회원을 절대 고용하지 않겠다고 결의함.
- 이에 대해 주교단은 1968년 2월 9일 사회정의와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한다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내놓으며 노동자를 지지하였고, 결국 심도직물이 속한 강화 직물업자협회는 가노청 회원을 고용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철회하고 해고자 복직을 약속하며 마무리되었음.

■ 주변현황

○ 조양방직 건물은 제3장의 대표산업유산 기초조사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현재 고물상이 임대하여 '강화철제고물상'으로 운영 중이며, 2500평 규모로 건물 4개동이 현존하고 있음.

- 2010년까지는 사무실로 쓰이기도 하였으나, 비가 오면 물이 새는 현상으로 사무실로는 더 이상 활용하지 못하고, 외벽은 금이 많이 나있는 상황임.
- 2013년에는 드라마 촬영지로 선정되어 일부 보수공사 흔적이 있으며, 고물상

75 김성호(2015), "[강화·옹진 인천20년 보석을 다듬자·24] 강화도의 직물산업", 경인일보 2015년 6월 18일자

으로 사용 중이라 내부 정리정돈 상태도 양호하지 않음.

- 강화군에서 매입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주와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시행하지 못하고 있음.

○ 강화읍 신문리에 위치하고 있는 조양방직 건물은 인근에 한옥마을과 한옥 관광안내소 및 중앙시장이 입지하고 있는데, 주변에 고택이 상당 수 현존하고 있음.

- 이화직물터와 상호직물터가 반경 500m 내에 위치하고 있고, 심도직물 굴뚝과 심도직물 사건 기념비가 있는 용흥궁 공원도 인근에 위치함.
- 또한, 김구고택과 70년대 지어진 주택도 50여채 남아 있으며, 강화향교, 강화고려궁지, 외규장각, 강화산성 4대문 등 역사유적이 반경 1km 내에 상당수 보존되어 있음.

■ 활용방안

○ 조양방직은 강화관광안내지도에도 표시되어 있는데, 강화나들길 1코스를 따라 인근에 역사유적, 고택 등과 함께 하나의 근대건축물로서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임.

- 현재 남아 있는 4개동 건물은 원형을 살려 보수하고, 본관은 강화도 방직생산의 역사 및 노동운동 등 사회활동 관계를 전시하는 역사전시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나머지 건물 2개동은 과거와 같이 수작업 형태로 소창, 비단 등 고급직물을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견학코스로 운용하면서, 강화 특산품으로서 선물용으로 직접 판매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나머지 한 개 건물에는 직물생산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여, 관광객이 전시관을 통해 강화의 방직산업을 이해하고 생산과정을 견학한 후, 체험관에서 직접 직물생산이나 염색 등 관련 생산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주변에 이화직물, 상호직물 터 등은 기념비 등을 설치하여, 용흥궁의 심도직물 유산과 함께 둘러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화직물 공장은 2010년 강화군의 도시환경정비 구역으로 재정비되어 현재는 터만 남아 있고, 주변에 강화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음.
- 공장과 생산시설 외에도 노동사회활동과 관련된 유산을 연계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현존 유산 외에도 역사적 측면에서 관련 유산을 최대한 발굴 및 복원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앙시장 주변의 70년대 건축물의 일부는 상점, 주점 등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추억의 장소이자,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문제는 강화읍 신문리 일대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 사업)'에 선정되어, '새시장마을 새뜰사업'이란 명칭으로 2016년부터 향후 3년간 국비 22억원, 지방비 8억원이 투입되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그러나 주변의 70년대에 지어진 50여채의 가옥 가운데에는 과거 유명한 요정이었던 '형제옥'처럼 옛 향수를 자극하는 의미 있는 장소가 남아있으며, 이들 일부를 개보수하여 까페나 식당 등 주민과 방문객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역사적인 건축 및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과 활용은 과거 원형보존 위주에서 활용을 통한 보존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근대건축물을 개보수하여 까페나 식당으로 활용하고 있는 성공사례는 개항장 지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음. 이들 상점은 근대건축물의 보존뿐 아니라 추억의 거리를 조성하고 생동감을 불어 넣어주는 역할을 함.

강화 직물산업 기념시설 및 70년대 주택군



심도직물 굴뚝 앞 표지석



심도직물 포토존



강화성당 내 비석



신문리 70년대 주택군

(2) 축항선

■ 축항선 주변 개발계획

○ 축항선은 인천역부터 석탄부두까지 이어진 철로로, 인천 축항으로 뻗은 철도라 하여 '축항선'이라고 불리는데, 옛 주인선 철길의 일부이나, 주인선이라는 철길이 개통되기 이전에도 축항으로 가는 철도가 존재했음.

- 1900년대 초 인천항(축항)으로 인입되는 철도가 생긴 후 옛 수인선 남인천역 인근까지 화물용도의 철도가 연장되었고, 1959년 군용철도 주인선이 개통되면서 주인선으로 통합되었으며, 80년대 초에는 연안부두 인근에 석탄부두가 조성되면서 석탄부두선과 통합됨.
- 석탄열차의 도심내 운행으로 인한 분진발생, 소음 등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고, 축항선을 따라 운반되는 석탄이 인천시가 아닌 경기 반월, 전북 군산, 강원 영월 등지에서 전량 소요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축항선 및 조차장을 폐쇄하고 인근 수인선 신포역의 역세권으로 개발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음.

○ 최근 내항재개발 사업과 개항창조도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고, 개항창조도시 사업에만 세부사업 6건이 축항선 및 조차장과 관련이 있음.

- 세부사업만 총 6건에 사업규모로는 2,240억원에 달하는데, 개항장과 새로 조성될 수변공간의 단절이 우려될 뿐 아니라, 보행로 확보가 불가하여 보도육교 등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실정임.
- 해양수산부도 2016년 6월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서 2020년까지 기능폐쇄를 목표로 하였으나, 대체지역 발굴의 어려움으로 구체적인 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음.

축항선 관련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세부사업계획(안)

세부사업	사업내용	사업비(억원)
기반시설 조성사업	ㅇ 내항 광장을 비롯한 친수공간 기반시설 조성	298
개항 키즈랜드 조성사업	ㅇ 개항장 테마 놀이공원	300
인천세관 역사공원 조성	ㅇ 인천세관 청사 및 세관창고 보존 ㅇ 시민쉼터	77
상상플랫폼	ㅇ 교육·체험·창업 등 개항창조도시 콘텐츠 개발 및 운영시설	270
인천역 복합역사	ㅇ 호텔,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 건립	1,200
우회고가철거사업	ㅇ 고가철거, 보행로 확보	100

출처 : 박진영(2015a), "개항장거리와 수변공간 단절 … 인천 발전에 '알박기'", 인천일보 2015년 11월 10일자 기사 인용

■ 활용방안

○ 석탄부두 폐쇄와 관련하여 축항선과 조차장을 개발여론에 밀려 급하게 철거할 것이 아니라, 내항재개발사업과 개항창조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함.

- 석탄부두를 이용하는 석탄의 전 물량이 인천에서 소비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분진, 소음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으며,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의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석탄부두는 반드시 폐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축항선과 조차장은 인천 개항의 역사를 담고 있는 만큼, 개발여론에 밀려 급하게 철거하기보다 인천역 및 내항 제1부두 등과 연계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개항창조도시 사업은 인천역 복합역사 조성 등 내항 및 개항장 주변의 다양한 사업계획을 담고 있는데, 석탄부두의 대체이전부지, 이전시기 등의 사유로 축항선에 대해서는 뚜렷한 재활용계획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

- 한편, 민간단체인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는 인천시의 인천역 민자복합역사 개발계획안에 대해 한국철도의 시발점인 인천역 일대 복합역사 개발을 서두르지 말고 기존 인천역 보존과 철도역사공원을 접목해 신중히 계획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음.
- 특히, 1960년 신축한 경인선 유일의 간이역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인천역사와 인천기관차사무소 주박소 등 철도 관련 시설과 장소를 활용하여 철도역사공원을 조성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임.
- 축항선도 내항 개방 및 석탄부두 이전문제가 선결되어야 구체적인 재활용방안을 논의할 수 있겠지만, 현재 철거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중장기적인 재활용방안이 사전 검토되지 못하면 자칫 귀중한 산업유산이 멸실될 상황에 처해있음.

○ 따라서 내항 개방이 점차 확대되고, 석탄부두가 이전한다는 전제 하에 축항선의 재활용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당장 축항선 인근에는 개항 키즈랜드, 인천세관 역사공원, 내항과 인천역 사이 개항광장 등 관광 및 주민편의시설이 계획되어 있음.
- 따라서 축항선과 축항조차장은 공원, 전시, 체험 등 주변의 관광시설 조성 계획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활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임.

- 한편, 약 14만㎡ 면적의 축항조차장은 현재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계획의 인천세관 역사공원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포역에서 직선거리 2~300m 내에 위치함.

○ 축항선로를 따라 경전철 형태로 저속 관광열차[76]를 운영하여 주변 키즈랜드와 역사공원 등 내항 및 개항장 방문객에 대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자체적인 수익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내항이 전면 개방된다는 전제하에 8부두 입구에서 석탄부두까지 약 6km에 달하는 거리를 도보로 관광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주변에 인천역과 신포역이 위치하고 있으나 1·8부두에만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나머지 부두와 연안여객터미널, 인천 유일의 종합어시장, 해수탕 등을 고려하면 관광열차에 대한 일정한 수요가 예상됨.
- 다만, 교통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강조하기보다, 주변에 키즈랜드나 역사공원 등의 관광 및 전시시설이 입지하는 점을 감안하여 샌프란시스코의 관광목적 노면전차[77]와 유사한 저속의 관광열차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임.

○ 또한, 개항광장 예정부지와 축항조차장 사이, 이미 숲이 조성되어 있는 약 300m 구간은 개항광장 및 개항역사공원과 연계하여 관광철로 주변을 따라 숲길을 조성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서울의 경의선 숲길을 벤치마킹하여 광장 주변으로 휴식공간을 조성한다면, 관광객 및 구도심 주민들의 쉼터공간으로 변모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또한, 숲길을 따라 과거 철로주변 생활양상을 추억할 수 있도록 주변 주택 등을 복구하여 식당, 상점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한편, 1910부터 1918년까지 약 10년에 걸쳐 축조된 내항 제1부두의 갑문식 도크는 당시 한국은 물론 동양 최초로 건설된 것으로,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축항선과 연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78]
- 축항선을 따라 관광열차를 운영하더라도 축항조차장은 폐쇄 후 기존 주변 상권과 차별화된 신포역 역세권 상업지구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

76 박진영(2015b)의 "[축항조차장·석탄화물열차 '눈엣가시'] 개항창조도시 걸림돌", 인천일보 2015년 11월 10일자 기사 중 인천발전연구원 조상운 연구위원의 인터뷰 내용 인용

77 샌프란시스코의 노면전차는 노선을 따라 동력 수단인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어 '케이블카'로 불림.

78 정회진(2016), "인천 항만산업 유산 … 동양 최초의 갑문 보존해야" 인천일보 기사 (2016.01.27.) 중 김용하 박사 인터뷰 내용 인용

며, 이는 내항 재개발과 관련하여 민간투자유치 및 수익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79]

인천내항과 축항선



(3) 구 송도역사

■ 구 송도역사 주변 개발계획

○ 구 송도역사는 일제의 쌀·소금 수탈 수단으로 1937년 개통된 수인선의 유일하게 현존하는 협궤열차 역사임.[80]

- 1973년 남인천역이 폐지되면서 수인선의 종착역이 되었으나,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1977년부터 화물 운송이 중단되었고, 1995년 12월에는 여객 운송마저 멈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음. 수인선 유일의 현존 역사이면서 철제 철도급수탑, 전차대 터[81], 주변 철로 일부 등과 함께 상당한 보존가치 있음.

79 2009년 국토해양부 인천 내항 항만재개발 기본구상에서는 조차장 유지를 전제로 데크화하여 상업용도로 개발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주변 상권과의 충돌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로 2012년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수정)에서는 조차장을 제외하고 고시함(조상운(2016), "인천 개항장일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 : 내항8부두 및 축항조차장 부지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인천발전연구원).

80 과거 소래역사는 개발논리에 밀려 문화재 지정을 앞둔 2008년에 철거되었고, 현재 소래역사관의 전시관 2층 입구를 과거 소래역 입구를 본 따 조성하였음. 현재 구 송도역사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유일한 협궤열차 역사이고, 소래철교와 더불어 인천 지역에서 수인선을 추억할 수 있는 유이한 시설물임.

81 철도에서 차량의 방향을 바꾸거나 한 선로에서 다른 선로로 위치를 이동시키는 장치. 증기기관차나 전망차 등은 그 운행방향이 일정해야 하므로 왕복운행을 할 때는 한쪽에서 반드시 방향을 바꿔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 일제강점기의 철도역사 표준설계도의 특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나, 임대업체에 의해 내부변경이 수차례 진행되어 내부 원형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임.[82]

○ 그러나 현재 송도역세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보존 여부가 불투명함.

-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2021년까지 인천발 KTX의 시발역인 신 송도역을 복합환승센터로 새롭게 개발하고, 주변 28만8천㎡의 사업부지에 중심 상업지구와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
- 관련하여 인천시는 올해 안에 규모 및 개발 컨셉트 등 기본구상(안) 수립을 완료하고 송도역세권을 도시개발사업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임.
- 2012년 구 송도역사에서 약 300m 지점에 신 송도역사가 들어서면서부터 구 송도역사를 인천시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내부 변형으로 인한 건축학적 보존가치 저하 등의 이유로 현재 흐지부지해진 상태이며, 최근 인천관광을 중요시하는 인천시에서 조차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어, 도시개발사업으로 철거될 위기에 있음.

■ 활용방안

○ 구 수인선은 일제의 수탈과 해방 후 서민의 애환을 담은 귀중한 근대산업유산으로, 송도유원지 인근의 매립과정과 산업화, 도시화 과정을 보여줄 수 있어 교육 및 공원으로서의 활용도가 큼.

-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구 송도역사와 철도급수탑을 복원하여 전시하고 주민회관으로 활용하되, 전차대 터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쉼터이자 교육의 장소로 활용
- 소래포구와 소래역사관에 협궤열차 및 관련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으므로, 송도역사를 협궤열차 전시관으로 꾸미는 것은 중복소지가 큼. 따라서 전시자료와 함께 주민회관으로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시시설은 송도역사를 중심으로 일제 강점기의 수탈, 인근 송도시장의 물물교환, 수인선의 역사, 송도지역의 매립역사 및 발전과정 등을 소개하고, 공원과 함께 인근 관광시설을 연계하여 구 송도역과 송도유원지 중심의 관광코스로 개발

- 전차대가 위치하였던 자리는 현재 고물상이 들어서 있는데, 아직까지 땅속에 묻힌 채 남아 있는 철로 일부, 철로 주변의 옹벽 등을 살려 공원으로 조성함으로

전차대임(두산백과).

82 김주엽(2016), "[인천 고택기행-14] 수인선 송도역사" 경인일보 2016년 4월 7일자 기사 인용

써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 가능

- 수인선과 관련 있는 근대소설 등을 함께 전시하는 것도 수인선에 대한 서민들의 당시 추억을 되살릴 수 있게 하는 방안임.
- 인근 1km 내외의 거리에 인천시립박물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능허대, 송도석산 드라마 촬영지, 송도유원지, 아암도 해안공원 등이 입지해 있으므로, 이들과 연계해 관광코스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직까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송도유원지도 과거 대표적인 유원지로서의 기능을 전시 및 공원화하는데 대한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조사 및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인천세관 창고 및 부속동

■ 인천세관 창고 및 부속동 관련 개발계획

○ 인천세관은 부산세관(1878년)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설립되었으며, 설립초기부터 미군정 시절까지 64년 동안 외국인이 세관장을 맡는 등 수탈과 수모의 역사를 안고 있음.

- 인천세관의 설립초기 관할구역은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황해도, 평안도 등 5개도였으나, 원산세관(1924년)의 강원도와 부산세관의 경상도를 제외하고 전국을 관할하는 국내 최대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7개 지서와 2개 감시소, 1개 지정항 출장소, 29개 국경출장소와 8개 수산제품검사소를 관할함.[83]
- 초창기 인천세관의 직원들은 수출입통관 등 세관 고유업무 이외에도 제물포 조계지 도시계획, 기상관측, 우편사업, 검역 등 정부행정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였는데, 당시 세관은 개항 역사를 따라 위치를 옮겨가며 정부의 주요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종합청사 역할을 했다고 함.

○ 2013년 등록문화재 제569호로 지정된 구 인천세관의 창고와 부속동은 보존을 위해 원 위치에서 40m 이전하여 2013년 설치된 건물이며, 창고 한 개동과 부속동 건물(선거계, 화물계) 두 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음.

- 창고는 보세창고로 이용되고 있고, 선거계 건물은 창고나 인천세관 식당으로도 활용되거나 선용품업체에 임대를 주었던 적이 있으며, 화물계 건물은 현재 한

83 개인블로그, 디비딥의 인천스케치(http://db0353.blog.me/10091281047/) 인용

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경비실로 사용하고 있음.

- 문화재 지정 후에도 적절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고, 문화재 관리와는 무관한 관세청에서 건물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 현재 보세창고와 경비실로 일부 활용되고 있고, 문화재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방문객은 외부만 볼 수 있음.

○ 인천시의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구상안에 따르면, 약 77억원을 들여 구 인천세관 부속 건물을 중심으로 인천세관 역사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쉼터로 활용한다는 구상임.

- 그러나 인천세관 역사공원 조성계획에 구 인천세관 부속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담겨 있지는 않음.

■ 활용방안

○ 내항재개발사업과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이 본격화되면, 증가하는 관광객에 맞추어 관광·전시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부산시 중구 중앙동 부산경남본부세관 내에 '부산세관박물관'이 2001년 개관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개항 당시 부산항 모형, 17세기 부산포의 모습, 세관약사, 1887년 부산항 항계표시 등 부산항과 관련된 전시물이 대부분임.
- 인천세관 역사공원과 맞물려 건물 세 개동을 '인천세관박물관'으로 조성하여, 인천세관 역사는 물론 인천항의 역사를 전시, 관람할 수 있도록 함.

○ 1883년 개항과 동시에 세관업무를 시작한 인천세관과 인천항에 대한 다양한 역사적 사실을 전시하는 박물관으로서 일반에 개방

- 근대 세관행정의 역사는 물론 세관역사와 관련이 깊은 일제침략기 대한제국의 사회적 변혁과정을 전시
- 박물관은 인천세관 역사공원과 어우러져 전시, 교육 및 주민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

참고문헌

김선기(2015), “향교·서원 및 도심 폐공장 등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연진(2015), “당인리 문화창장발전소의 새로운 도전” 웹진문화관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창수(2016), “인천 도시가치자원 발굴 및 활용전략”, 인천발전연구원.

김현정(2011), “장소마케팅 관점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대한 고찰 -부산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Vol 11.

김형우(2014), “세계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관광자원화를 위한 지표개발 연구”, 배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남지현·장희숙(2014), “인천 정미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유산군의 형성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23권 제2호.

대전광역시공무국외여행보고서(2015), “도시재생 및 복지정책 분야 등 선진사례 벤치마킹”,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메타기획컨설팅(2015),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발전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박능재(2013), “부산 북항의 산업유산 발굴 및 특성 분석”,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재민·성종삼(2013), “근대 문화유산의 평가 기준과 상대적 중요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제41권 2호.

박진한·송승석·배성수(2013), “근대산업유산의 창조적 활용을 통한 도심재생과 인천지역학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방보람(2014), “도심 전통시장 보전활용을 위한 가치평가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성희(2009), “인천지역 근대산업유산의 문화적 재활용에 관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오종화(2013), “도시 쇠퇴지 활성화 전략으로써 근대역사문화자원 활용방안 연구”, 가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성태(2015), “UNWTO 총회 참석 및 뉴욕 하이라인 조사 출장 보고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성태·신용석(2015), “유엔세계관광기구 제21차 총회 참석 및 뉴욕 하이라인 조사 출장보고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형호(2012), “산업유산의 문화적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에 관한 연구 : 경쟁력 모델을 활용한 성공요인 분석”, 문화체육관광부.

이희승·홍승기(2016), “공유정책발표 및 UN 혁신허브 유치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 공무국외여행 출장보고서.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2013), “인천광역시사 : 미추홀 2000년 인천정명 600년”,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상운(2016), “인천 개항장일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 : 내항8부두 및 축항조차장 부지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인천발전연구원.

최장락(2013), “근대산업유산의 평가 기준에 관한 연구 : 보존가치 평가 지표를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장락·이상희(2013), “대전지역 근대산업유산의 가치와 활용에 관한 정책적 함의”,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디비딥의 인천스케치 (http://db0353.blog.me/10091281047/)

문화역서울 284 홈페이지 (http://www.seoul284.org/)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artfactoryindadaepo)

한국중부발전 홈페이지 (http://www.komipo.co.kr/)

해반문화 홈페이지, http://www.haeban.org/, 사단법인 해반문화

국토교통부(2011), “구 서울역사 복원 마치고 ‘문화역 서울 284’로 재탄생”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1.7.14.)

김성호(2015), “[강화·옹진 인천20년 보석을 다듬자·24] 강화도의 직물산업”, 경인일보 (2015.6.18)

김재범(2015), “탑승 292만, 경제효과 1,500억원 정선레일바이크 10년” 동아일보 (2015.6.23.)

김주엽(2016), “[인천 고택기행-14] 수인선 송도역사” 경인일보 (2016.4.07)

김학준(2006a), “[인천이 원조] (12) 정미소” 서울신문 (2006.6.30.)
김학준(2006b), “[인천이 원조] (15) 근대식 염전” 서울신문 (2006.7.21.)
박진영(2015a), “개항장거리와 수변공간 단절 … 인천 발전에 '알박기'”, 인천일보 (2015.11.10)
박진영(2015b), “[축항조차장·석탄화물열차 '눈엣가시'] 개항창조도시 걸림돌”, 인천일보 (2015.11.10)
박진영(2016), “석탄열차 스톱 … 인천 ‘몸통’ 정조준”, 인천일보 (2016.1.20)
보도자료(2016), “서울복합 발전소 1 2호기 철골입주”, 한국중부발전.
서울시(2014), “당인리발전소 관련 실무자회의 결과보고” 서울시 공문서 도시계획과-12513(2014.8.27.)
신상윤(2016), “[인천 고택기행-16] 인천세관 옛 창고와 부속동”, 경인일보 (2016.4.21)
이광표(2016), “[이광표의 근대를 걷는다]강화도 소창과 기저귀”, dongA.com (2016.8.25)
인천광역시(2004),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조사보고서”, 인천광역시.
정운(2012), “[조일양조를 다시 본다] > 하 < 생활사·주조사적 가치는” 경인일보 (2012.4.11.)
정윤수(2012), “인천의 심장은 멈춘 일이 없다” 기호일보 (2012.5.7.)
정윤수(2015), “[정윤수의 도시 이미지 읽기]개발 앞에 내몰린 ‘배다리 마을’” 주간경향 (2015.2.10.)
정회진(2016), “인천 항만산업 유산 … 동양 최초의 갑문 보존해야” 인천일보 (2016.1.27.)



영종도 겨잠포 선착장에서 본 해돋이



VIII

자연자산 가치제고

1. 자연자산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2. 자연자산 현황
3. 자연자산 활용방안



계양산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연자산 가치제고

권전오 도시기반연구실 연구위원

1. 자연자산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1) 연구배경 및 목적

○ 산, 강, 들판, 갯벌, 바다, 섬, 동물, 식물, 경관 등 다양한 자연자산들은 사람이 이 땅에 터를 잡기 이전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임.

○ 인천의 가치를 발굴하고 발전시켜 활용하고자 하는 현 시점에서 현재까지 각종 문헌, 자료, 제도 등에 의해 가치가 부여되어 왔던 자연자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유형별로 정리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함.

○ 이러한 작업을 통해 현재 파악하지 못한 자연자산의 가치가 추가로 발굴되고 인천의 가치를 더 크게 부여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1) 연구방법

○ 인천환경백서, 자연환경조사 자료, 환경부 조사자료 등 각종 자연자산과 관련된 자료를 종합하여 자연자산 유형분류에 따라 정리하였음. 자료는 문헌인용과 함께 과거

촬영 사진 등을 예시하였음.

○ 자연자산의 현황과 연계된 각종 활용사례, 추가적인 활용방안, 가치화 방법 등 자연자산 가치 제고방안을 제시하였음.

자연자산 유형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자연자산	지형	산지
		하천
		해안(갯벌, 해수욕장)
		섬
	생물	동물
		식물
		생물보전지역
	자연경관	공원녹지(휴양림 및 수목원)
		길(등산로, 나들길)
		대기(일출, 일몰)
		지질

(2) 연구내용

○ 각종 문헌을 통해 자연자산의 현황을 종합 정리하였음.

○ 자연자산 분류체계에 따라 중분류는 지형, 생물, 자연경관으로 하였음.

○ 중분류 지형에서는 산의 표고, 하천현황, 갯벌 분포현황, 해수욕장 현황, 도서현황을 정리하였음.

○ 중분류 생물에서는 동물, 식물, 생물보전지역 현황을 정리하였음.

○ 중분류 자연경관에서는 공원 및 휴양림 현황, 한남정맥 종주길, 인천둘레길, 강화나들길 현황, 일출 및 일몰 조망지역 현황, 국가지질공원 추진 현황 등을 정리하였음.

○ 자연자산 활용에서는 각 현황별 활용사례를 종합하거나 추가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음. 일부 현황 중에서 현재 활용성 관점에서 중요도가 낮거나 내용이 광범위하여 본 연구에서 포함하기 어려운 부분(특히 섬 자산)에 대해서는 활용방안 제시를 생략하였음.

연구내용(자연자산 현황과 활용방안)

중분류	번호	자연자산 현황	자연자산 활용
지형	1	조망을 고려한 높은 산지	대표 조망점 선정
			문학산 종합공원 조성
	2	하천 길이 및 유역	-
	3	갯벌분포	갯벌을 활용한 생태거점 조성
	4	해수욕장	바닷물 야외수영장 조성
	5	도서	-
생물	6	동물, 식물, 보호지역 (천연기념물, 기념물,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인천시 보호야생생물, 인천시 지정 보호수, 저어새 번식지, 야생생물보호구역, 산림유전자 보호림,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동식물을 활용한 브랜드 개발
			장수동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진달래 축제 공간 확대
			탐조관광 프로그램 개발
자연경관	7	주요 공원 및 휴양림	대표 자연경관 선정
			마니산 광역시립공원 지정
	8	등산로 및 나들길 (한남정맥 종주코스, 인천둘레길, 강화나들길)	종주길 및 나들길 활성화
	9	일출 조망지역 및 일몰 조망지역	해돋이 및 해넘이 명소개발
	10	지질 (천연기념물, 국가지질공원, 강화 및 덕적권역 지질 명소)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2. 자연자산 현황

○ 자연자산 유형분류에 따라 자료를 정리, 분석하였음.

자연자산 현황 분석 내용

구분	대상지	번호	자연자산 현황분석
자연자산	지형	1	▪ 조망을 고려한 높은 산지
		2	▪ 하천 길이 및 유역
		3	▪ 갯벌분포
		4	▪ 해수욕장
		5	▪ 도서
	생물	6	▪ 동물, 식물, 보호지역 (천연기념물, 기념물,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인천시 보호야생생물, 인천시 지정 보호수, 저어새 번식지, 야생생물보호구역, 산림유전자 보호림,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자연 자산	자연 경관	7	▪ 주요 공원 및 휴양림
		8	▪ 등산로 및 나들길 (한남정맥 종주코스, 인천둘레길, 강화나들길)
		9	▪ 일출 조망지역 및 일몰 조망지역
		10	▪ 지질 (천연기념물, 국가지질공원, 강화 및 덕적권역 지질 명소)

1) 지형자산

■ 조망을 고려한 높은 산지 분석

○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표고가 400m 이상인 산은 마니산, 혈구산, 진강산, 고려산, 별립산 등 5개이며 이중 마니산이 469m로 가장 높았음.

○ 육지부에서 가장 높은 산은 계양산으로 해발 395m 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소래산, 천마산, 호룡곡산, 백운산, 문학산 등이었음.

○ 표고가 높다고 모두 좋은 조망점을 가진 산이라고 할 수는 없음. 표고 이외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조망점을 선정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인천광역시 주요 산의 표고에 따른 순위(상위 10위)

표고 순위	위치	산이름	높이(m)
1	강화군(본섬)	마니산	469
2		혈구산	460
3		진강산	441.3
4		고려산	436
5		별립산	416
6	계양구	계양산	395
7	옹진군(선갑도)	선갑산	352.4
8	옹진군(대청도)	삼각산	343
9	강화군(본섬)	퇴미산	338.9
10		길상산	33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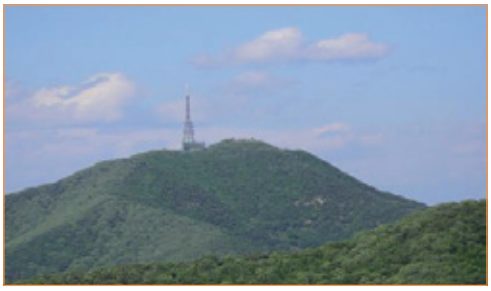
육지부 표고에 따른 10대 산

표고 순위	위치	산이름	높이(m)
1	계양구	계양산	395
2	남동구	소래산	299.6
3	부평구	천마산	266
4	중구	호룡곡산	243.6
5	중구	백운산	215.6
6	남구	문학산	213
7	남동구	거마산	205.6

8	남동구	만수산	201
9	남동구	만월산	187.1
10	연수구	청량산	171



마니산 남사면 전경(2015.09.24.)



계양산(2016.05.04.)

■ 하천

○ 인천의 지방하천은 총 31개소이며, 승기천 등 17개소는 도심하천이고 14개소는 강화군에 위치함.

○ 인천은 산이 깊지 않기 때문에 하천이 크게 발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해안(갯벌)

○ 인천지역의 갯벌은 총 709.6㎢임. 행정구역 면적이 1,046.27㎢와 비교할 때 적지 않은 면적의 갯벌이 중구, 동구, 연수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에 면해 분포하고 있음.

인천 지역 갯벌 면적

면적(㎢)	중구(동구, 연수구, 서구 포함)	강화군	옹진군
709.6	176.7	243.6	289.3

자료(출처) :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영종 남단갯벌



강화도 남단 갯벌과 두루미

■ 해안(해수욕장)

○ 인천의 해수욕장은 총 34개소이었음(심진범 등, 2011).

○ 영종도에 5개소, 강화군에 5개소, 옹진군 섬에 24개소가 분포함.

■ 섬

○ 인천의 도서는 총 168개소임. 이중 유인도는 40개소, 무인도는 128개소임.

○ 무인도서 중 26개소(강화군 8개소, 옹진군 18개소)는 독도 등 도서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음.

인천 연안도서 현황(유인도)

구분		도서명
유인도서 (40)	중점도서 (19)	영종・용유도, 무의도, 강화도, 교동도, 석모도, 주문도, 볼음도, 신도, 시도, 장봉도, 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덕적도, 자월도, 대이작도, 승봉도, 영흥도, 선재도
	일반도서 (21)	운염도, 소무의도, 세어도, 서검도, 미법도, 섬돌모루도, 아차도, 말도, 동검도, 황산도, 모도, 소연평도, 소청도, 소야도, 문갑도, 백아도, 울도, 굴업도, 지도, 소이작도, 측도

자료(출처) : 최중기 등(2007) 인천연안도서 해양환경조사 및 보전·관리 계획 수립

2) 생물자산

(1) 동물

■ 천연기념물

○ 인천광역시 천연기념물은 총 14개소임. 동식물 서식지 및 분포지가 9개소, 지질자원이 5개소임.

○ 이중 동물관련 천연기념물은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신도 노랑부리백로 및 괭이갈매기 번식지 2개소가 있음.

○ 인천에서 번식 및 도래하는 야생조류 천연기념물

- 환경백서(2013) : 두루미 등 9종
- 인천시 자연환경조사(2016) : 흰꼬리수리 등 16종
-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 : 큰고니 등 22종
-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 : 올빼미 등 19종

○ 인천에 도래하는 포유류

- 물범 1종

인천광역시 천연기념물 분포 현황

구분	동식물	지질	소계	비고
강화군	5	-	5	
백령도	1	4	5	
대청도	1	1	2	소청도 포함
기타	2	-	2	서구, 신도
합계	9	5	14	

자료(출처) :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인천광역시 야생조류 천연기념물 출현현황

채이길드	종명	천연기념물	개체수
맹금류	1. 흰꼬리수리	제243-4호	8
	2. 참수리	제243-3호	2
	3. 잿빛개구리매	제323-6호	3
	4. 붉은배새매	제323-2호	2
	5. 새매	제323-4호	4
	6. 참매	제323-1호	1
	7. 황조롱이	제323-8호	61
	8. 매	제323-7호	18
	9. 소쩍새	제324-6호	3
	10. 수리부엉이	제324-2호	2
수면	11. 큰고니	제201-2호	47
물가	12. 노랑부리백로	제361호	45
	13. 저어새	제205-1호	2,129
	14. 원앙	제327호	34
	15. 두루미	제202호	27
	16. 검은머리물떼새	제326호	613

자료(출처) : 인천광역시(2016) 자연환경조사 및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2016~2025)

■ 멸종위기 야생동물

○ 환경백서 : 1급 8종, 2급 25종, 총 33종(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 인천시 자연환경조사(2016) : 1급 7종, 2급 19종, 총 26종(야생조류, 양서파충류만 대상)

인천광역시 멸종위기 야생동물 현황(Ⅰ급: 8종, Ⅱ급: 25종)

구분	종명	등급
포유류	물범, 삵	Ⅱ
조류	넓적부리도요, 노랑부리백로, 노랑부리저어새, 두루미, 매, 저어새, 청다리도요사촌	Ⅰ
조류	개리,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검은목두루미, 말똥가리, 쇠황조롱이, 수리부엉이, 알락꼬리마도요, 잿빛개구리매, 참매, 큰고니, 큰기러기, 흑두루미	Ⅱ
양서파충류	구렁이	Ⅰ
	금개구리, 맹꽁이, 표범장지뱀	Ⅱ
곤충류	꼬마잠자리, 닻무늬길앞잡이, 물장군, 소똥구리, 쌍꼬리부전나비, 애기뿔소똥구리, 왕은범표범나비	Ⅱ
합계		33종

자료(출처) : 인천광역시(2013) 2013 환경백서.

■ 인천광역시 보호야생동물

○ 식물 6종, 곤충류 7종, 어류 2종, 양서파충류 3종, 조류 5종, 포유류 1종, 총 24종이 지정되어 있음.

○ 인천시 자연환경조사(2016)에서 일부 보완할 것을 제안함.

■ 저어새 주요 번식지

○ 보호종인 저어새의 번식지는 인천 해안 무인도서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2010년 자료에 따르면 총 15개소임.



저어새(강화남단갯벌, 2016.05.13.)



두루미(동검도, 2016.02.24.)

■ 야생생물보호구역 후보지

○ 인천시 자연환경조사(2016)에서 백로번식지 등 총 20개소의 야생생물보호구역 후보지를 제안하였음.

(2) 식물

■ 천연기념물

○ 대청도 동백나무 북한계지, 볼음도 은행나무, 신현동 회화나무, 참성단 소사나무 등 7개소가 있음.

인천광역시 천연기념물(식물)

지정 번호	명칭	수량 (지정면적)	군·구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지정일자
66	옹진대청도 동백나무 자생북한지	76,812㎡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산267-1	옹진군	62.12.03
78	강화 갑곶리 탱자나무	1주 (13㎡)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1016	강화군	62.12.03
79	강화 사기리 탱자나무	1주 (26㎡)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 135-10	강화군	62.12.03
304	강화 볼음도 은행나무	1주 (314㎡)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리 산186	강화군	82.11.04
315	인천 신현동 회화나무	1주 (412.5㎡)	서구	신현동 131-7외 6필지	윤황	82.11.04
502	강화 참성단 소사나무	1주 (314㎡)	강화군	화도면 문산리 산55 (참성단내)	인천시 (교육감)	09.09.08
521	옹진 백령도 연화리 무궁화	78.3㎡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335외	옹진군	11.01.13

자료(출처) :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 기념물

○ 장수동 은행나무, 계산동 은행나무 등 4개소가 있음.



신현동 회화나무(천연기념물)



장수동 은행나무(기념물)

■ 멸종위기 야생식물

○ 대청부채, 매화마름, 노랑붓꽃, 삼백초 등 총 4종에 대한 기록이 있음.

■ 인천광역시 보호야생식물

○ 붉노랑상사화 등 6종의 식물이 지정되어 있음.

○ 인천시(2016) "자연환경조사 및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2016~2025)"에서 멸종위기 2급인 깽깽이풀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

■ 인천시 지정 보호수

○ 2015년 6월에 추가 지정된 자유공원 느티나무를 포함하여 12종 114주가 지정되어 있음.

○ 가장 많은 종은 느티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순이었음.

인천광역시 지정 보호수 현황

구분	계	향나무	은행나무	회화나무	느티나무	상수리나무	음나무	산수유	소나무	소사나무	검팽나무	물푸레나무	플라타너스
계	114	6	21	6	58	1	1	2	8	3	6	1	1
중 구	1	-	-	-	-	-	-	-	-	-	-	-	1
남 구	1	-	1	-	-	-	-	-	-	-	-	-	-
연수구	8	1	-	-	5	-	-	-	2	-	-	-	-
남동구	5	1	1	1	1	-	-	-	1	-	-	-	-
계양구	2	-	1	-	1	-	-	-	-	-	-	-	-
서 구	13	-	3	2	4	1	1	2	-	-	-	-	-
강화군	73	4	15	3	45	-	-	-	2	3	-	1	-
옹진군	11	-	-	-	2	-	-	-	3	-	6	-	-

자료(출처) : 인천광역시(2013) 2013 환경백서
플라타너스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151호 보호수 지정고시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은 총 6개소이며 소나무림이 4개소, 소사나무림이 1개소, 혼효림이 1개소임. 위치는 대청도에 2개소, 강화도 마니산 1개소, 무의도 1개소, 영흥도 1개소, 덕적도 1개임.



마니산 북사면 소나무숲



영흥도 십리포 소사나무군락(2014.02.06.)

(3) 생물보전지역

■ 야생동식물 보호지역

○ 생태계보전지역 1개소, 습지보호지역 3개소, 특정도서 26개소 등이 있음.

○ 인천시 도시생태현황지도(2014)에서 제시된 생태경관보전지역 후보지과 자연환경조사(2016)에서 제시된 습지보전지역 지정 후보지 2개소가 있음.

인천광역시 보호지역 총괄

번호	유형	지역	면적 (㎢)	지정일자 (지정기관)	비고
1	생태계보전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옹진군 대이작도 주변해역	55.7	2003.12.31. (해수부)	자연환경 보전법
2	습지보호지역	옹진군 장봉도 갯벌	68.4	2003.12.31. (해수부)	습지보전법
3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등록 (2014.7.10.)	송도갯벌(6B공구, 11공구)	6.11	2009.12.31. (인천시청)	습지보전법
4	습지보호지역	한강하구(강화군 송해면 숭뢰리)	60.7	2006.4.17. (환경부)	습지보전법
5	람사르 습지보호지역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0.003	2008.10.13. (환경부)	-
6	특별관리해역	시화호, 인천연안	-	-	해양오염 방지법
7	특정도서	강화군 우도 등 26개소	-	-	독도 등 도서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8	야생동물 보호구역	강화군 화도면 상방리 산 58일원(마니산 북사면) 등 4개소	0.10	2002.2.5. (강화군)	야생동식물 보호법
9	천연기념물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등 14개소	-	-	문화재 보호법
10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중구 무의동 산 200-1 일원(무의도 호룡곡산 북사면) 총 6 개소	0.015	2007.8.1. (북부지방 산림청)	-

자료(출처) : 권전오와 박석철(2014) 인천광역시 생물다양성 보전 전략수립 방향에 관한 연구

3) 자연경관자산

■ 공원녹지

○ 인천광역시의 도시공원은 총 1,058개소임(인천광역시, 2015).

○ 주요 대형공원은 인천대공원, 미추홀공원, 센트럴공원, 해돋이공원, 청라호수공원, 월미공원, 중앙공원, 소래습지생태공원 등이 있음.

○ 석모도에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이 있음.

주요 공원 및 시설 현황

공원명	위치	면적 (천㎡)	주요시설
인천대공원	남동구 장수동 관모산 일원	2,665	친환경호수, 수목원, 산책로, 소동물원, 체력단련시설, 조경시설, 야외음악당, 광장, 야외극장, 론볼장, 썰매장, 온실, 주차장 등
미추홀공원	연수구 송도동 9-1	160	연못, 조형물, 인화루, 사모정, 전통문화마당, 전통놀이시설, 갯벌문화관 등
센트럴공원	연수구 송도동 24-5 일원	411	해수수로, 보트하우스(수상택시), 방문자센터, 산책로, 지하주차장 등
해돋이공원	연수구 송도동 5-1	210	음악분수광장, 조형물, 통신놀이공간, 장미원, 관리사무소, 주차장 등
청라호수공원	서구 경서동 597-1 일원	693	호수, 조합놀이대, 체육시설, 화장실, 관리사무소 등
계양공원	계양구 계산동 일원	351	전망대, 주차장, 약수터, 국궁장, 삼림욕장,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등
월미공원	중구 북성동	591	한국전통공원지구, 월미성지구, 박물관지구, 전망대, 산책로, 주차장, 이민사박물관 등
중앙공원	남동구 간석,구월동 남구 관교동 일원	354	올림픽기념비, 종합예술문화회관, 교통교육장, 수경시설, 희망의숲, 운동장 등
자유공원	중구 송학동 1가 11-1 일원	69	맥아더장군동상, 석정루, 연오정, 인공계류, 한·미수교 100주년기념탑 등
소래습지 생태공원	남동구 논현동	1,561	생태전시관, 습지, 관찰데크, 생태관찰대, 조류관찰대, 초정,탐방로, 주차장, 부인교, 관리사무소, 염전 등
연희공원	서구 연희동 일원	1,065	조류관찰지, 전망대, 다목적운동장 등
수봉공원 (AID아파트부지)	남구 숭의동, 도화동, 주안동 일원	333	인공폭포, 수경공연장, 도서관, 팔각정 등
부평공원	부평구 부평동	113	자연관찰원, 야외공연장, 전시장 등
원적산공원	부평구 산곡동 일원	227	다목적운동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축구장, 어린이놀이시설 등
문학공원	남구 학익동 일원	219	다목적운동장, 배드민턴장, 화장실, 조합놀이대, 관리사무소, 주차장 등

자료(출처) : 인천광역시(2015) 2015 환경백서

■ 길(등산로 및 나들길)

○ 한남정맥 종주코스와 인천 둘레길, 강화 나들길 등이 운영되고 있음.

인천 녹색 종주길 현황도



자료(출처) :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 내부자료

■ 대기

○ 일출 조망지역 : 거잠포 선착장, 잠진도 일원, 무의도(소무의도 포함) 동측면이 중요한 일출 조망지역으로 잠재성이 큼.

○ 일몰 조망지역 : 다수의 일몰 조망점 개발 가능

■ 지질

○ 인천시는 천연기념물 중 지질자산 5개소를 포함하여 22개소의 지질명소와 15개소의 비지질명소를 대상으로 국가지질공원을 추진 중에 있음.

인천광역시 천연기념물(지질자원)

지정 번호	명칭	수량 (지정면적)	군·구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391	옹진 백령도 사곶 사빈 (천연비행장)	해안 1km 이내 해역 (207,245㎡)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해안일원	옹진군
392	옹진 백령도 남포리 콩돌해안	해안 500m 이내 해역 (43,294㎡)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옹진군
393	옹진 백령도 진촌리 감람암 포획 현무암 분포지	6,307㎡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154-2	옹진군
507	옹진 백령도 남포리 습곡구조	79,998㎡ (해역 18,779㎡)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산 282-1 등	옹진군
508	옹진 소청도 스트로마톨라이트 및 분바위	29,686㎡ (해역 7,893㎡)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산 55-3 등	옹진군

자료(출처) :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백령도 두무진



백령도 콩돌해안(천연기념물 392호)

3. 자연자산 활용방안

1) 지형자산

■ 인천시 대표 조망점 선정

○ 인천시 자연환경조사 및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에서는 육지부와 연육된 섬 중에서 인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조망점으로 7대 조망점을 제시한 바 있음.

○ 이외에도 조망의 가치 뿐아니라 접근성 등을 종합하여 인천시 전역을 대표할 수 있는 조망점이 추가로 선정될 필요가 있음.

○ 현황부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추가 검토가 가능한 조망점으로는 소래산, 호룡곡산, 백운산, 만월산, 자유공원, 강화남산, 별립산(군사지역), 정족산, 해명산, 비로봉, 선갑산, 국사봉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주요 조망점

번호	지역	위치	특징
1	중구	월미산	• 월미공원 자체의 경관도 양호하지만 바다와 섬, 특히 영종도 일대의 넓은 갯벌 조망
2	남구	수봉산	• 인천시 구도심의 중심에 위치하며 표고가 낮은데 비하여 도심의 대부분 조망
3	남구 및 연수구	문학산	• 인천시 전역과 바다, 섬 조망, 인천시 육지부의 최고의 조망점
4	연수구	청량산	• 송도국제도시와 함께 팔미도 등 섬과 바다가 한눈에 조망
5	계양구 및 서구	계양산	• 육지부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서울남산 및 고양시, 바다 조망 가능
6	강화군	낙조봉	• 고려산 서쪽 자락인 낙조봉은 서해의 섬, 바다가 어우러진 석양이 아름다움
7		화개산	• 교동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강화의 주요 섬들과 바다가 조망되는 최상의 조망점

자료(출처) : 인천광역시(2016) 자연환경조사 및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2016~2025)

■ 문학산 종합공원 조성

○ 2015년 10월에 문학산 정상부가 일반시민에게 개방되었음.

○ 문학산 높이는 213m로 인천 도심부와 바다가 조망되는 최고의 조망점으로 판단됨.

○ 문학산성 등 다양한 문화재가 산재해 있음으로 이를 활용한 역사 문화체험공간으로 인천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지역임.

○ 문학산의 입지는 도시의 확장에 따라 남구, 연수구(송도국제도시 포함), 남동구로 둘러싸인 형국이 됨. 따라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공원으로 인식할 수 있음.

○ 시민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문학산의 자연, 역사, 조망을 즐기기 위해서는 문학산을 도시자연공원 또는 근린공원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바닷물 야외수영장(월미조탕) 조성

○ 인천 해안에는 갯벌이 넓게 분포하고 있음(709㎢, 인천시 행정구역 면적 1,046.27㎢).

○ 갯벌은 다양한 생명체들이 어울려 사는 생명의 보고이고 다양한 생태적, 환경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공간임. 이러한 갯벌을 사람들만의 유희공간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커지고 있는 상황임.

○ 갯벌을 유희적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견과 갯벌을 자연체험 공간으로서 최소한의 이용, 제한된 이용을 주장하는 의견이 상존하고 있음.

○ 따라서 이를 융합하는 대안은 갯벌을 유희적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지를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유희적 공간을 갯벌에 면한 육지부에 조성하는 것임. 즉, 갯벌 인근에 바닷물 야외 수영장을 함께 제공하는 것임. 이는 과거 월미도에 있었던 월미조탕 및 해수 수영장과 유사한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인천의 해수욕장들이 동해나 남해에 위치한 해수욕장 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것은 모래사장의 크기도 있겠지만 바다의 물빛에 대한 거부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생각해볼 때 해안변에 조성된 야외 해수 수영장은 이를 극복한 대안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즉, 육지부에 바닷물 야외수영장, 이와 연계된 제한적인 갯벌체험장 개발이 필요함.



월미조탕 전경



월미조탕 야외 풀장



월미조탕 야외 풀장



월미조탕 야외 풀장

자료(출처) : 김창수박사 제공

■ 갯벌을 활용한 생태관광 거점 조성

○ 강화 서남단 갯벌의 종합적인 관리를 통한 브랜드가치 강화, 인지도를 높여 생태관광의 핵심으로 발전

○ 인천광역시(2016)의 "자연환경조사 및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2016~2025)"에서는 천연기념물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와 천연기념물 제360호 노랑부리백로 및 괭이갈매기 번식지, 장봉도 갯벌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를 포괄하여 강화 서남단 갯벌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갯벌국립공원 내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강화 서남단 갯벌의 종합적인 관리



자료(출처) : 인천광역시(2016) 자연환경조사 및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2016~2025)

2) 생물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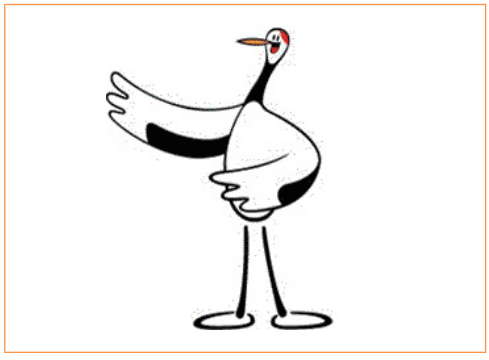
■ 자연 동·식물을 활용한 브랜드 개발

○ 시 상징물 : 두루미(시조), 장미(시화), 튤립나무(시목)

○ 시 행사시 활용 상징물 : 저어새(장애인아시안게임), 점박이물범(아시안게임)

○ 상징종으로 활용이 가능한 동식물

- 인천시 깃대종(6종) : 저어새, 두루미,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갈매기, 알락꼬리마도요, 금개구리 등(인천광역시, 2016)
- 인천시 보호종(12종) : 파랑새, 꾀꼬리, 붉은어깨도요, 붉은발도요, 흰날개해오라기, 청머리오리, 물총새, 쇠제비갈매기, 되지빠귀, 밀화부리, 오색딱다구리, 뻐꾸기
- 추가 제안종 : 산림(수리부엉이), 습지(금개구리, 검은머리물떼새, 큰고니), 꽃(진달래), 나무(은행나무, 느티나무, 소사나무)



인천광역시 마스코트 두루미(인천시 홈페이지 참조)



2014 장애인아시안게임 상징(저어새)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마스코트
(물범, 아시안게임 조직위 홈페이지)



금개구리

■ 장수동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추진

○ 남동구 장수동 은행나무는 수령이 800년이 되었으며 수형이 아름다움.

○ 강화군 볼음도 은행나무와 서구 신현동 회화나무 천연기념물에 못지않은 아름다움을 가짐.

장수동 은행나무와 볼음도 은행나무 크기 비교

구분	장수동 은행나무	볼음도 은행나무
보호수 지정 내역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12호	천연기념물 제304호
수령(년)	800	800
높이(m)	30	24.5
밑동둘레길이(m)	-	9.7
가슴둘레길이(m)	8.6	8
수관폭(m)	30	25.7(동서), 23.1(남북)

자료(출처) : 수목 안내판 참고



남동구 장수동 은행나무 안내판


장수동 은행나무 남서쪽 모습


남동구 장수동 은행나무 서쪽 모습(2016.5.20)


장수동 은행나무 서쪽 모습(2016.4.6)

■ 진달래 축제 공간 확대 조성

○ 강화 고려산 진달래 축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제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판단됨.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이 운집함으로 교통이나 이용에 불편한 점이 많을 것으

로 판단됨. 따라서 강화군내 산림지 숲이 훼손되어 복원이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대규모 진달래 군락지를 조성하여 제2의 진달래축제 공간을 조성함으로서 관광객을 분산 수용할 수 있도록 함.

○ 우선 고려 대상지로는 강화도내 군부대 관련 시설 등으로 숲이 훼손된 진강산과 덕정산 일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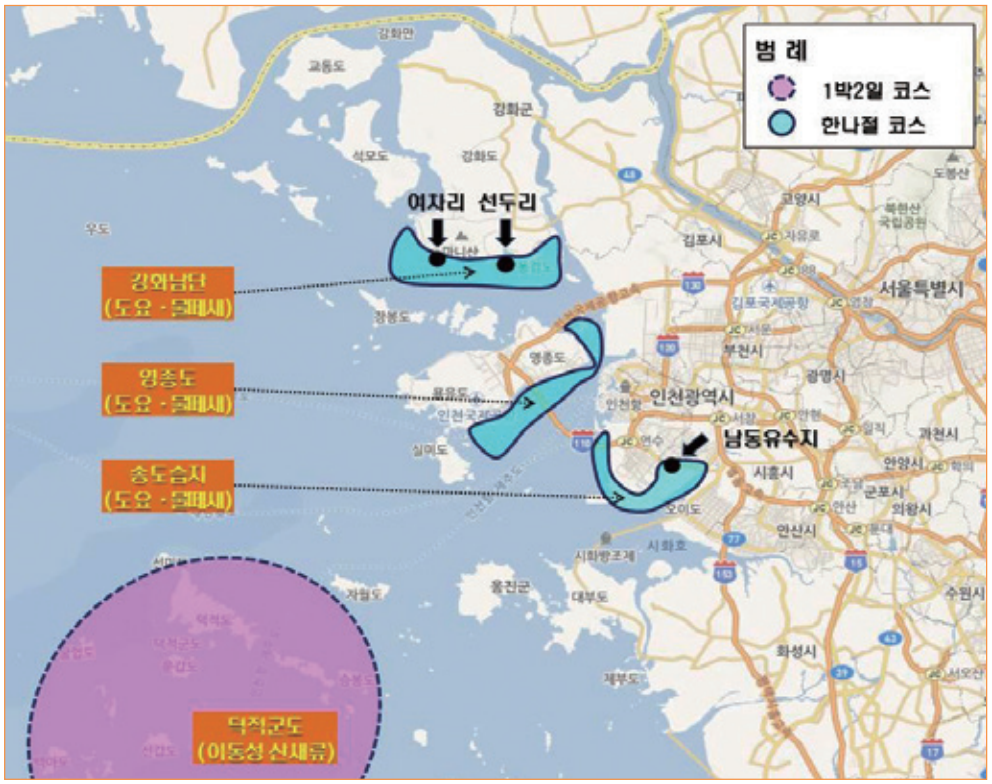
■ 탐조관광 프로그램 개발

○ 강화도 탐조 축제개최

- 강화도, 교동도, 석모도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에 탐조 축제 개최
- 전국의 사진가, 탐조 동호인 참석을 통한 자연축제

○ 탐조관광 루트 개발

- 소청도 국가철새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한 백령도 일원과 덕적군도의 많은 섬에 봄가을에 도래하는 다양한 철새 탐조
- 계절에 따라 도시 인근에서 다양한 탐조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봄철(가을철) 탐조루트



여름철 탐조루트



겨울철 탐조루트

자료(출처) : 권전오·정희은(2015) 탐조관광 및 탐조체험활동 활성화 방안

3) 자연경관자산

■ 인천시 대표 자연경관 선정

○ 인천광역시(2016) "자연환경조사 및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2016~2025)에서는 인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자연경관 10개소를 제안한 바 있음.

○ 인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자연경관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여론조사, 연구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선정되고 발굴될 필요가 있음.

10개 자연경관 제안

구분	지역	위치	특징
1	중구	영종남단 갯벌 및 송산유수지	• 넓은 갯벌 및 바다경관 연출 • 저어새 및 다양한 도요·물떼새 도래
2	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	• 염전과 갈대습지가 어우러진 경관연출
3	강화군	강화남단 갯벌	• 넓은 갯벌, 석양, 각시바위 저어새번식지, 두루미와 도요·물떼새 등의 다양한 경관요소 내포
4		마니산	• 인천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조망점인 동시에 장대한 산림경관 연출
5		전등사 및 주변 산림	• 강화군에서 최고로 잘 보전된 자연림으로 서어나무군락과 소나무군락이 어우러지며 봄, 가을 단풍이 아름다움. 주요 조망점 역할
6		연미정	• 한강과 염화수로가 만나는 수로 삼각지로 주요 경관 조망점인 동시에 500년 이상된 대형 느티나무가 웅장한 경관 연출
7		교동도 경작지 및 철새	• 교동도의 논, 석양, 쇠기러기의 군무, 난정저수지의 오리류 도래
8	옹진군	장봉도	• 섬 주변으로 펼쳐지는 광활한 갯벌과 사주, 바다가 아름다움. 바다 한가운데에서 석양을 즐길 수 있음.
9		선재도 목섬	• 조수에 따라 육지에 연결되는 작은 섬으로 CNN이 한국의 아름다운 섬 33선 가운데 1위로 선정(굿모닝인천)
10		십리포 소사나무숲	• 100여 년이 넘는 소사나무의 군락으로 산림청의 산림유전자원보전림으로 지정

자료(출처) : 인천광역시(2016) 자연환경조사 및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2016~2025)

■ 마니산 광역시립공원 지정

○ 마니산과 전등사 일원을 연계한 광역시립공원(자연공원 중 국립공원 아래 위계) 지정 추진

○ 광역시립공원 지정을 통한 브랜드 가치 향상과 함께 인지도를 높여 시민들이 자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개발

○ 기존의 자연체험 지원시설 및 자연자원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마니산 전경(남사면)



마니산 광역시립공원 경계(구상안)



정족산 전등사 경계(구상안)

자료(출처) : 인천광역시(2016) 자연환경조사 및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2016~2025)

■ 종주길 및 나들길 활성화

○ 한남정맥 종주코스 및 인천 둘레길

- 인천시가 추진 중인 사업임.

- 생태통로사업, 연결다리 조성, 복개공원 등으로 대부분의 단절 구간이 연결됨으로 종주여건이 크게 개선됨.
- 인천지하철 2호선이 2016년 7월 개통됨에 따라 종주길을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임.
- 계양산(1호선), 소래산(인천대공원후문역, 2호선), 소래습지생태공원(수인선), 문학산-청량산-봉재산(1호선)으로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이 용이해짐.
- 각 지하철역에 종주길에 대한 홍보와 함께 이용방법 홍보 필요

○ 강화나들길 활성화

- 강화군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강화나들길 전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불편사항을 파악하여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임.

■ 해돋이 및 해넘이 명소개발

○ 해돋이

- 영종도 끝단에 위치한 거잠포 선착장일원에서 해돋이를 일부 시민들의 참여로 해마다 신년에 진행하고 있음.
- 2017년 12월이면 영종도와 무의도를 연결하는 연륙교가 건설될 예정임. 따라서 거잠포, 잠진도, 무의도 전역이 바다에서 해가 뜨는 해돋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됨.

○ 해넘이

- 인천시에는 해넘이를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음.

거잠포-잠진도-무의도-소무의도의 동쪽을 따라 해돋이 거점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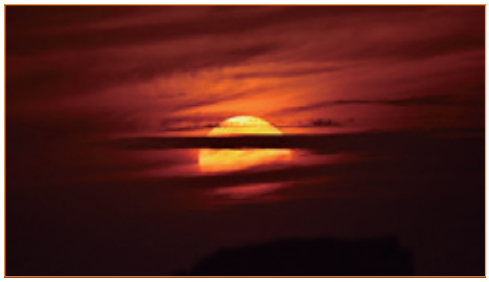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해넘이 주요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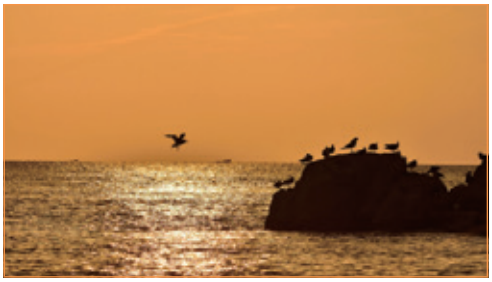
구분	해넘이 장소
계절의 영향을 적게 받는 곳	송도국제도시 솔찬공원(인천대 남단 등), 청량산, 정서진, 무의도(하나개해수욕장, 실미도해수욕장), 을왕리해수욕장, 왕산해수욕장, 장봉도, 분오리돈대, 강화도 장화리, 석모도 보문사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	월미공원, 강화도 후애돈대, 고려산 낙조봉, 석모도 민머루해수욕장

○ 해넘이는 계절에 따라 해가 넘어가는 위치가 다르고 날씨에 따라 경관의 아름다움이 크게 변화됨. 아울러 해가 넘어가는 시점, 해를 볼 수 있는 시점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해넘이를 즐길 수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해가 진 이후에는 어둡기 때문에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영종도 선녀바위 해넘이



영종도 선녀바위 해넘이



영종대교 기념관 해넘이



영종대교 기념관 해넘이

■ 국가 지질공원 인증 추진

○ 지질관련 천연기념물 5개소를 포함하여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일원의 지질 명소 22개소, 비지질명소 15개소를 대상으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고 있음.

○ 국가지질공원 지정과 함께 이를 해설, 안내, 탐방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함.

참고문헌

권전오 등(2014),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GIS 구축. 인천광역시.
권전오·박석철(2014), 인천광역시 생물다양성 보전 전략수립 방향에 관한 연구.
권전오·정희은(2015), 탐조관광 및 탐조체험활동 활성화 방안.
권전오 등(2016), 자연환경조사 및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2016~2025). 인천광역시.
심진범 등(2011), 제5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이관홍(2014), 인천지역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타당성 조사,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이기섭(2010), 번식지에서 저어새의 생태. 2010 강화갯벌의 현명한 이용과 저어새보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이수재(2015), 국가 지질공원 인증추진을 위한 기초학술조사.
인천광역시(2013), 환경백서.
인천광역시(2015), 환경백서.
최중기 등(2007), 인천 연안도서 해양환경조사 및 보전·관리계획. 인천광역시.
한강유역환경청(2012), 특정도서 모니터링 보고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2012),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 보고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2014),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 보고서.
강화나들길: http://www.nadeulgil.org/
바다생태정보나라: http://www.ecosea.go.kr/
인천생활공감지도: http://gmap.incheon.go.kr/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소래포구축제 인천광역시 남동구



IX

인천 도시가치 발굴 시민설문조사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3. 시사점 및 가치화 방안



소래습지생태공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 도시가치 발굴 시민설문조사

최영화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1. 조사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 인천시가 추진 중인 '인천 가치 재창조' 사업은 인천이 보유한 고유자원의 재발견을 통해 현재적 가치로 만들고 미래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인천의 도시 이미지와 보유 자원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인천을 대표하는 다양한 가치자원들의 인지도와 선호도를 분석하고, 이를 인천 가치자원 활용전략과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 인천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인천시민의 인지도와 선호도에 부합되는 인천 가치자원 활용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2) 조사설계

(1) 조사방법

■ 면대면 조사

○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응답자가 조사원의 설명을 듣고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방식(Self administrated survey)을 채택함.

○ 설문 목적에 맞게 충분한 사전교육을 받은 전문조사원을 통해 조사를 실시함.

설문조사 개요

구 분	내용
조사 대상	2016년 8월 인천에 거주하는 만 16세 이상의 성인 남녀
조사 규모	1,000명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1:1 직접 면접 조사
표본추출방법	인천시 10개 구·군 대상 최소표본(30명) 할당 후 인구비례 할당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조사 기간	2016년 8월 27일 ~ 9월 4일(9일간)
자료처리방법	수집된 자료는 EDITING ⇨ CODING/PUNCHING ⇨ CLEANING과정을 거쳐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
조사 기관	한길리서치

(2) 조사대상

■ 인천시민 1,000명 대상 조사

○ 2016년 8월 기준 인천시 10개 구·군에 거주하는 만 16세 이상의 인천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함.

- 2016년 6월 말 기준 인천시 전체 인구 2,935,314명을 10개 구·군별로 최소표본 30명을 할당한 후 인구 비례 할당하는 방식으로 지역별 표본 차이를 줄여 소표본 지역(동구, 강화군, 옹진군)을 분석하는데 오차를 최소화함.

인천시 구·군별 인구수 및 설문표본 수

구·군	인구 수(명)			표본 수(건)
	계	남	여	
합 계	2,935,314	1,474,326	1,460,988	1,000
중 구	114,886	59,584	55,302	57
동 구	71,940	36,264	35,676	47
남 구	406,779	205,438	201,341	127
연수구	324,103	161,731	162,372	107
남동구	532,325	265,452	266,873	157
부평구	555,223	276,363	278,860	162
계양구	332,640	166,629	166,011	110
서 구	508,640	256,961	251,679	152
강화군	67,646	33,921	33,725	46
옹진군	21,132	11,983	9,149	35

자료 : 통계청, 2016년 6월 기준 인천시 인구 현황(2016.07.06. 검색)

3) 조사내용

○ 조사내용은 총 6개 분야 25개 문항으로 구성됨.

○ 설문조사지는 응답자 특성별 분석을 위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도시이미지, 자연경관·도시경관, 역사/문화, 관광/축제, 특산물/음식, 동물/식물 자원 부문으로 구성됨.

○ 유형별로 객관식 24개 문항과 주관식 1개 문항으로 구성됨.

○ 주관식 문항은 관광/축제 부문에서 '최근에 참여한 인천시 축제명'을 기입하는 것으로 선호도, 인지도 외 실질적 참여도를 조사하기 위함임.

조사내용

항 목	세부 내용
응답자 특성	• 성별 / 연령 / 출생지 / 거주지
도시 이미지	• 인천의 도시 이미지 • 인천의 대표 가치와 자원 발굴 기준 • 인천의 대표 이미지 자원 • 인천의 도시 특성 및 강점 • 인천의 미래 도시가치 제고 조건
자연경관·도시경관	• 인천의 가치 있는 자연경관 • 인천의 자연경관을 쉽게 조망할 수 있는 장소 • 인천의 가치 있는 도시경관 • 인천의 가치 있는 수변경관 • 인천만의 특화된 마을·거리·시장 • 인천을 방문한 외지인에게 안내하고 싶은 장소
역사/문화	• 인천에서 발생한 중요한 역사적 사건 • 인천의 고유한 역사·문화 유적지(장소) • 인천의 고유한 역사유물(물건) • 대중공연으로 활용 가능한 인천의 무형문화재(민속) • 공예상품으로 특화할 수 있는 인천의 무형문화재(공예) • 인천시를 가장 잘 대표하는 역사인물
관광/축제	• 인천 축제 참여 여부 • 가장 최근에 참여한 축제 • 인천의 도시적 특성과 잘 어울리는 축제 • 인천에서 가장 선호하는 축제
특산물/음식	• 인천을 대표하는 특산물 • 인천을 대표하는 향토음식
동물/식물	• 인천을 상징하는 동물 • 인천을 상징하는 식물

2. 조사결과

1) 응답자 특성

■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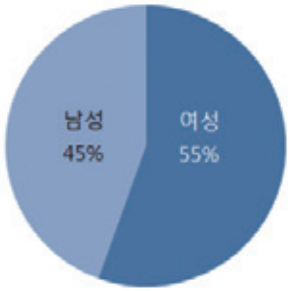
○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이 55.5%(555명), '남성'이 44.5%(445명) 임.

○ 응답자의 연령은 '60대 이상'이 23.0%(230명)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50대(21.9%) > 40대(19.1%) > 30대(17.3%) 등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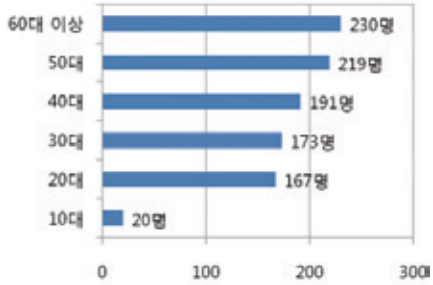
성별·연령별 응답자 수 (단위 : 명, %)

구 분		응답자수	
		빈 도	비 율
전체		1,000	100.0
성별	여성	555	55.5
	남성	445	44.5
연령	10대	20	2.0
	20대	167	16.7
	30대	173	17.3
	40대	191	19.1
	50대	219	21.9
	60대 이상	230	23.0

성별 응답자 수



연령별 응답자 수



○ 거주지별 응답자 수는 '부평구'가 16.2%(162명)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남동구(15.7%) > 서구(15.2%) > 남구(12.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거주지별 응답자 수 (단위 : 명, %)

구 분	응답자 수	
	빈 도	비 율
합 계	1,000	100.0
중 구	57	5.7
동 구	47	4.7
남 구	127	12.7
연수구	107	10.7
남동구	157	15.7
부평구	162	16.2
계양구	110	11.0
서 구	152	15.2
강화군	46	4.6
옹진군	35	3.5

○ 출신지역별 응답자 수는 '인천'이 43.1%(431명)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서울(9.4%) > 경기도(9.1%) 순임. 한편, 그 외 지역은 38.4%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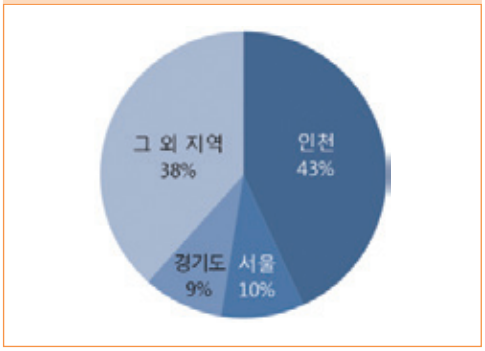
거주지별 응답자 수



출신지별 응답자 수 (단위 : 명, %)

구 분	응답자수	
	빈 도	비 율
합 계	1,000	100.0
인 천	431	43.1
서 울	94	9.4
경기도	91	9.1
그 외 지역	384	38.4

연령별 응답자 수



2) 조사결과 요약

(1) 도시 이미지

■ 인천의 도시 이미지

○ 인천시민들은 평소 인천의 도시이미지에 대해 50.7%가 '긍정적'(매우 긍정적 : 9.7% + 긍정적 : 41.0%)이라고 응답한 반면, '부정적'(매우 부정적 : 1.0% + 부정적 : 6.4%)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7.4%임.

○ 한편, '보통'은 41.9%임.

○ 인천시민들은 인천의 도시이미지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인천의 도시 이미지 (단위 :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합 계	1,000	100.0
① 매우 긍정적	97	9.7
② 긍정적	410	41.0
긍정적(① + ②)	507	50.7
③ 보 통	419	41.9
④ 부 정	64	6.4
⑤ 매우 부정적	10	1.0
부정적(④ + ⑤)	74	7.4

■ 인천의 대표가치와 자원 발굴 기준

○ 인천시민들은 인천의 대표가치와 자원을 발굴할 때 가장 우선시해야 할 기준에 대해 37.1%가 '활용 가능한 것(실용성)'이라고 응답함.

○ 다음으로는 보편적인 것(국제성, 일반성)(19.4%) > 진정한 것(정통성)(16.3%) > 고유한 것(특수성)(13.7%) > 매력적인 것(탁월성)(12.1%) 순임.

○ 한편 기타/잘모름/무응답은 1.4%임.

○ 인천시민들은 가치자원 평가 시 '진정성'이나 '특수성'보다 '실용성'과 '보편성'을 더욱 중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인천의 대표가치와 자원 발굴 기준 (단위 :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합 계	1,000	100.0
①고유한 것(특수성)	137	13.7
②매력적인 것(탁월성)	121	12.1
③보편적인 것(국제성/일반성)	194	19.4
④진정한 것(정통성)	163	16.3
⑤활용가능한 것(실용성)	371	37.1
⑥기타/잘모름/무응답	14	1.4

■ 인천의 대표 이미지

○ 인천시민들은 인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에 대해 32.0%가 '공항·항구'라고 응답함.

○ 다음으로는 섬·바다·갯벌(31.2%) > 국제도시(12.9%) > 문학·음악·예술(8.5%) > 산업·기업(5.7%) > 축제·관광(5.1%) > 고대·근대 역사(3.9%) 순임.

○ 한편 기타/잘모름/무응답은 0.7%임.

○ 이러한 결과는 <인천비전 2050 시민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인천발전연구원, 2015)에서 현재 인천시의 도시 이미지에 대해 '공항과 항만이 있는 물류도시'라고 응답한 것과 유사함.

인천의 대표 이미지 (단위 :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합 계	1,000	100.0
①고대·근대 역사	39	3.9
②문학·음악·예술	85	8.5
③축제·관광	51	5.1
④섬·바다·갯벌	321	31.2
⑤산업·기업	57	5.7
⑥공항·항구	320	32.0
⑦국제도시	129	12.9
⑧기타/잘모름/무응답	7	0.7

■ 인천의 특성 · 강점

○ 인천시민들은 인천이 가진 특성·강점에 대해 45.8%가 '공항·항구로 개방된 도시'라고 응답함.

○ 다음으로는 국제교류가 활발한 도시(14.8%) >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도시(11.0%) > 문화예술이 다양한 도시(10.3%) > 축제·관광이 즐거운 도시(7.3%), 전통유산이 풍부한 도시(6.4%) > 첨단산업이 발달한 도시(4.1%) 순임.

○ 한편, 기타/잘모름/무응답은 0.3%임.

인천의 특성·강점 (단위 :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합 계	1,000	100.0
①전통유산이 풍부한 도시	64	6.4
②문화예술이 다양한 도시	103	10.3
③축제·관광이 즐거운 도시	73	7.3
④자연경관이 아름다운 도시	110	11.0
⑤첨단산업이 발달한 도시	41	4.1
⑥공항·항구로 개방된 도시	458	45.8
⑦국제교류가 활발한 도시	148	14.8
⑧기타/잘모름/무응답	3	0.3

■ 인천의 미래 도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점

○ 인천시민들은 인천의 미래 도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21.4%가 '국제교류 확대'라고 응답함.

○ 다음으로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20.4%) > 기반시설 확충(15.1%) > 기업투자 확대(13.4%) > 자연경관 활용(11.5%) > 축제관광 확대(10.4%) > 전통유산 활용(7.2%) 순임.

○ 한편, 기타/잘모름/무응답은 0.6%임.

○ 미래의 도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국제교류 확대'와 '문화·예술활동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보아 인천시민들이 지향하는 미래 도시의 상은 교류를 통해 문화적 개방성과 다양성이 확대되는 국제 문화도시라고 유추할 수 있음.

인천의 미래 도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점 (단위 :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합 계	1,000	100.0
①전통유산 활용	72	7.2
②문화예술 활동 지원	204	20.4
③축제·관광 확대	104	10.4
④자연경관 활용	115	11.5
⑤기업투자 확대	134	13.4
⑥기반시설 확충	151	15.1
⑦국제교류 확대	214	21.4
⑧기타/잘모름/무응답	6	0.6

(2) 장소 / 자연경관 · 도시경관

■ 인천의 가치 있는 자연경관

○ 인천시민들은 인천의 가치 있는 자연경관으로 26.0%가 '강화갯벌'이라고 응답함.

○ 다음으로는 소래습지생태공원(25.4%) > 서해5도(21.7%) > 마니산(11.3%) > 전등사 및 주변 산림(5.8%) > 덕적군도(4.7%) > 십리포(3.2%) > 연미정(1.2%) > 선재도 목섬(0.7%) 순임.

장소 / 자연경관·도시경관 (단위 :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합 계	1,000	100.0
①소래습지생태공원	254	25.4
②강화갯벌	26	26.0
③마니산	113	11.3
④전등사 및 주변 산림	58	5.8
⑤연미정	12	1.2
⑥선재도 목섬	7	0.7
⑦십리포	32	3.2
⑧서해5도	217	21.7
⑨덕적군도	47	4.7

■ 인천의 자연경관을 쉽게 조망할 수 있는 장소

○ 인천시민들은 인천의 자연경관을 쉽게 조망할 수 있는 장소로 27.4%가 '월미산(중구)'이라고 응답함.

○ 다음으로는 자유공원(중구)(23.8%) > 계양산(계양구)(15.8%) > 적석사(강화군)(7.7%) > 청량산(연수구)(7.4%) > 문학산(남구)(6.3%) > 수봉산(남구)(5.5%) > 화개산(강화군)(5.1%) 순임.

○ 한편, 기타/잘모름/무응답은 1.0%임.

인천의 자연경관을 쉽게 조망할 수 있는 장소 (단위 :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합 계	1,000	100.0
①월미산(중구)	274	27.4
②자유공원(중구)	238	23.8
③수봉산(남구)	55	5.5
④문학산(남구)	63	6.3
⑤청량산(연수구)	74	7.4
⑥계양산(계양구)	158	15.8
⑦적석사(강화군)	77	7.7
⑧화개산(강화군)	51	5.1
⑨기타/잘모름/무응답	10	1.0

■ 인천의 가치 있는 도시경관

○ 인천시민들은 인천의 가치 있는 도시경관으로 39.1%가 '인천국제공항(중구)'라고 응답함.

○ 다음으로는 송도센트럴파크(연수구)(20.9%) > 인천대교(연수구)(16.4%) >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중구)(10.3%) > 부평역사(부평구)(5.1%) > 아시안게임 경기장(계양구)(3.7%) > 동북아 트레이드 타워(연수구)(2.2%) > 인천시청(남동구)(1.8%) 순임.

○ 한편, 기타/잘모름/무응답은 0.5%임.

인천의 가치 있는 도시경관 (단위 :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합 계	1,000	100.0
①인천국제공항(중구)	391	39.1
②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중구)	103	10.3
③인천대교(연수구)	164	16.4
④동북아 트레이드 타워(연수구)	22	2.2
⑤송도센트럴파크(연수구)	209	20.9
⑥인천시청(남동구)	18	1.8
⑦부평역사(부평구)	51	5.1
⑧아시안게임 경기장(계양구)	37	3.7
⑨기타/잘모름/무응답	5	0.5

■ 인천의 가치 있는 수변경관

○ 인천시민들은 인천의 가치 있는 수변경관으로 27.4%가 '월미문화의거리(중구)'라고 응답함.

○ 다음으로는 을왕리해수욕장(중구)(21.3%) > 경인아라뱃길(계양구)(20.0%) > 송도달빛공원(연수구)(14.5%) > 동막해변(강화군)(6.2%) > 수해해변(옹진군)(4.7%) > 하나개해수욕장(중구)(2.9%) > 두무진(옹진군)(2.5%) 순임.

○ 한편, 기타/잘모름/무응답은 0.5% 임.

인천의 가치 있는 수변경관 (단위 :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합 계	1,000	100.0
①월미문화의거리(중구)	274	27.4
②을왕리해수욕장(중구)	213	21.3
③하나개해수욕장(중구)	29	2.9
④송도달빛공원(연수구)	145	14.5
⑤경인아라뱃길(계양구)	200	20.0
⑥동막해변(강화군)	62	6.2
⑦수해해변(옹진군)	47	4.7
⑧두무진(옹진군)	25	2.5
⑨기타/잘모름/무응답	5	0.5

■ 인천만의 특화된 마을·거리·시장

○ 인천시민들은 인천만의 특화된 마을·거리·시장으로 28.3%가 '신포국제시장(중구)'이라고 응답함.

○ 다음으로는 송월동 동화마을(중구)(19.2%) > 강화풍물시장(강화군)(15.7%) > 부평지하상가(부평구)(14.7%) > 배다리 책방골목(동구)(5.9%) > 화평동 세숫대야 냉면거리(동구)(5.1%) > NC큐브 커넬워크(연수구)(5.1%) > 화문석마을(강화군)(4.9%) 순임.

○ 한편, 기타/잘모름/무응답은 1.1%임.

인천만의 특화된 마을·거리·시장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000	100.0
①송월동동화마을(중구)	192	19.2
②신포국제시장(중구)	283	28.3
③배다리책방골목(동구)	59	5.9
④화평동세숫대야냉면거리(동구)	51	5.1
⑤NC큐브커넬워크(연수구)	51	5.1
⑥부평지하상가(부평구)	147	14.7
⑦강화풍물시장(강화군)	157	15.7
⑧화문석마을(강화군)	49	4.9
⑨기타/잘모름/무응답	11	1.1

■ 인천을 방문한 외지인에게 안내하고 싶은 장소

○ 인천시민들은 인천을 방문한 외지인에게 안내하고 싶은 장소로 28.9%가 '월미도(중구)'라고 응답함.

○ 다음으로는 차이나타운(중구)(21.1%) > 송도국제도시(연수구)(14.6%) > 자유공원(중구)(11.9%) > 덕적도·굴업도 등 섬지역(옹진군)(8.6%) > 계양산(계양구)(6.2%) > 인천항(중구)(4.1%) > 문학산(남구)(3.3%) 순임.

○ 한편, 기타/잘모름/무응답은 1.3%임.

○ 외지인에게 안내하고 싶은 장소로 인천시민은 유원지가 위치한 월미도와 중국인 거주지 및 음식점이 밀집한 관광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인천을 방문한 외지인에게 안내하고 싶은 장소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 계	1,000	100.0
①자유공원(중구)	119	11.9
②월미도(중구)	289	28.9
③인천항(중구)	41	4.1
④차이나타운(중구)	211	21.1
⑤문학산(남구)	33	3.3
⑥송도국제도시(연수구)	146	14.6
⑦계양산(계양구)	62	6.2
⑧덕적도·굴업도 등 섬지역(옹진군)	86	8.6
⑨기타/잘모름/무응답	13	1.3

(3) 역사 / 문화

■ 인천에서 발생한 중요한 역사적 사건

○ 인천시민들은 인천에서 발생한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48.9%가 '인천상륙작전(1950)'이라고 응답함.

○ 다음으로는 강화도조약(1876)(15.8%) > 인천개항(1883)(9.8%) > 천주교(1784), 기독교(1885) 전래(9.1%) > 미추홀 건국(기원전 18년경)(6.0%) > 한미수호통상조약 체결(1882)(4.9%) > 경인고속도로 개통(1968)(4.3%) > 하와이 이민(1902)(1.0%) 순임.

○ 한편, 기타/잘모름/무응답은 0.2%임.

인천에서 발생한 중요한 역사적 사건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 계	1,000	100.0
①미추홀 건국(기원전18년경)	60	6.0
②천주교(1784), 기독교(1885)전래	91	9.1
③강화도조약체결(1876)	158	15.8
④한미수호통상조약체결(1882)	49	4.9
⑤인천개항(1883)	98	9.8
⑥하와이이민(1902)	10	1.0

⑦인천상륙작전(1950)	489	48.9
⑧경인고속도로개통(1968)	43	4.3
⑨기타/잘모름/무응답	2	0.2

■ 인천의 고유한 역사·문화 유적지(장소)

○ 인천시민들은 인천의 고유한 역사·문화 유적지(장소)로 27.2%가 '차이나타운(중국인 거주지)'이라고 응답함.

○ 다음으로는 외규장각(왕실서적 도서관)(18.7%) > 문학산성(삼국시대 산성)(18.0%) > 답동성당(서양식 근대건축물)(10.6%) > 광성보(신미양요 격전지)(8.3%) > 교동읍성(조선후기 읍성)(6.3%) > 제물포구락부(외국인 사교장)(6.2%) > 홍예문(아치형 터널)(4.2%) 순임.

○ 한편, 기타/잘모름/무응답은 0.5%임.

인천의 고유한 역사·문화 유적지(장소)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000	100.0
①문학산성(삼국시대 산성)	180	18.0
②외규장각(왕실서적 도서관)	187	18.7
③답동성당(서양식 근대 건축물)	106	10.6
④광성보(신미양요 격전지)	83	8.3
⑤교동읍성(조선후기 읍성)	63	6.3
⑥홍예문(아치형 터널)	42	4.2
⑦차이나타운(중국인 거주지)	272	27.2
⑧제물포구락부(외국인 사교장)	62	6.2
⑨기타/잘모름/무응답	5	0.5

■ 인천의 고유한 역사유물(물건)

○ 인천시민들은 인천의 고유한 역사유물(물건)으로 39.4%가 '강화 고인돌(세계문화유산)'이라고 응답함.

○ 다음으로는 마니산 참성단(단군 제단)(33.4%) > 마애석불좌상(보문사 석불상)(6.9%) > 강화 동종(조선시대 범종)(6.6%) > 강화 장정리 오층석탑(4.5%) >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53(고려 불전)(4.0%) > 갑곶돈대(조선대포)(3.5%) > 각국

조계석(외국인 거주지 표석)(1.2%) 순임.

○ 한편, 기타/잘모름/무응답은 0.5%임.

인천의 고유한 역사유물(물건)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 계	1,000	100.0
①마니산 참성단(단군 제단)	334	33.4
②강화 고인돌(세계문화유산)	394	39.4
③초조본 유가사지론 권53(고려불전)	40	4.0
④강화 동종(조선시대 범종)	66	6.6
⑤강화 장정리 오층석탑	45	4.5
⑥갑곶돈대(조선 대포)	35	3.5
⑦마애석불좌상(보문사 석불상)	69	6.9
⑧각국 조계석(외국인거주지 표석)	12	1.2
⑨기타/잘모름/무응답	5	0.5

■ 대중공연으로 활용 가능한 인천의 무형문화재(민속)

○ 인천시민들은 대중공연으로 활용 가능한 인천의 무형문화재(민속)로 31.3%가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이라고 응답함.

○ 다음으로는 은율탈춤(23.6%) > 부평두레놀이(17.9%) > 범패와 작법무-바라춤(11.5%) > 황해도 평산소놀음 굿(10.2%) > 범패와 작법무-나비춤(5.3%) 순임.

○ 한편, 기타/잘모름/무응답은 0.2%임.

대중공연으로 활용 가능한 인천의 무형문화재(민속)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 계	1,000	100.0
①은율탈춤	236	23.6
②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313	31.3
③황해도 평산 소놀음굿	102	10.2
④부평두레놀이	179	17.9
⑤범패와 작법무-바라춤	115	11.5
⑥범패와 작법무-나비춤	53	5.3
⑦기타/잘모름/무응답	2	0.2

■ 공예상품으로 특화할 수 있는 인천의 무형문화재(공예)

○ 인천시민들은 공예상품으로 특화할 수 있는 인천의 무형문화재(공예)로 33.7%가 '완초장(왕골 공예가)'이라고 응답함.

○ 다음으로는 궁시장(활 만드는 장인)(19.3%) > 자수장(전통자수)(16.5%) > 화각장(쇠뿔 판공예가)(15.6%) > 목조각장(전통조각)(9.2%) > 대금장(대금장인)(5.6%) 순임.

○ 한편, 기타/잘모름/무응답은 0.1%임.

공예상품으로 특화할 수 있는 인천의 무형문화재(공예)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000	100.0
①궁시장(활 만드는 장인)	193	19.3
②완초장(왕골 공예가)	337	33.7
③화각장(쇠뿔 판공예가)	156	15.6
④목조각장(전통조각)	92	9.2
⑤자수장(전통자수)	165	16.5
⑥대금장(대금장인)	56	5.6
⑦기타/잘모름/무응답	1	0.1

■ 인천을 가장 잘 대표하는 역사인물의 분야

○ 인천시민들은 인천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역사 인물의 분야로 66.2%가 '문화·예술'이라고 응답함.

○ 다음으로는 정치·사회(19.9%) > 학술·교육(9.5%) > 종교·무속(4.2%) 순임.

○ 한편, 기타/잘모름/무응답은 0.2%임.

인천을 가장 잘 대표하는 역사인물의 분야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000	100.0
①문화·예술	662	66.2
②정치·사회	199	19.9
③학술·교육	95	9.5
④종교·무속	42	4.2
⑤기타/잘모름/무응답	2	0.2

(4) 관광 / 축제

■ 인천 축제 참여

○ 인천시민들은 인천에서 개최된 축제에 51.8%가 '참여한 적 있다'고 응답함.

○ 반면, '참여한 적 없다'는 응답은 48.2%임.

인천 축제 참여율 (단위 :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합 계	1,000	100.0
① 있다	518	51.8
② 없다	482	48.2

■ 가장 최근에 참여한 축제 (N=512)

○ 축제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인천 시민들은(N=512) 인천시 축제 중 가장 최근에 참여한 축제로 27.2%가 '소래포구 축제'라고 응답함.

○ 다음으로는 부평풍물대축제(25.1%) > 고려산 진달래 축제(8.1%) > 송도 세계문화 축제(7.7%) > 월미도 축제(6.4%) > 화도진 축제(3.5%) >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발(3.5%) > 능허 대축제(1.5%) > 중국의 날 문화관광축제(1.4%) > 매립지 국화축제(1.4%) > 영흥도 농수산물 축제(1.2%) 순임.

○ 한편, 기타/기억 못함은 12.3%임.

가장 최근에 참여한 축제 (단위 : 명, %)

구분	빈 도	비 율
합 계	518	100.0
①소래포구 축제	141	27.2
②부평풍물대축제	130	25.1
③고려산 진달래 축제	42	8.1
④월미도 축제	33	6.4
⑤화도진 축제	18	3.5
⑥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발	18	3.5
⑦송도 세계문화 축제	40	7.7
⑧중국의날 문화관광축제	7	1.4
⑨능허 대축제	8	1.5

⑩영흥도 농수산물 축제	6	1.2
⑪매립지 국화축제	7	1.4
⑫새우젓 축제	4	0.7
⑬기타/기억못함	64	12.3

■ 인천의 도시적 특성과 잘 어울리는 축제

○ 인천시민들은 인천의 도시적 특성과 가장 잘 어울리는 축제로 38.1%가 '소래포구축제'라고 응답함.

○ 다음으로는 부평풍물대축제(26.1%) >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발(15.6%) > 고려산 진달래 축제(10.1%) > 인천-중국의 날 문화 관광축제(9.1%) 순임.

○ 한편, 기타/잘모름/무응답은 1.0%임.

인천의 도시적 특성과 잘 어울리는 축제 (단위 :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합 계	1,000	100.0
①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발	156	15.6
②부평풍물대축제	261	26.1
③소래포구축제	381	38.1
④고려산 진달래 축제	101	10.1
⑤인천-중국의날 문화관광축제	91	9.1
⑥기타/잘모름/무응답	10	1.0

■ 인천에서 가장 선호하는 축제

○ 인천시민들은 인천에서 개최하는 축제 중 가장 선호하는 축제로 37.7%가 '소래포구축제'라고 응답함.

○ 다음으로는 부평풍물대축제(23.8%) >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발(18.3%) > 고려산 진달래 축제(10.6%) > 인천-중국의 날 문화관광축제(8.3%) 순임.

○ 한편, 기타/잘모름/무응답은 1.3%임.

인천에서 가장 선호하는 축제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 계	1,000	100.0
①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발	183	18.3
②부평풍물대축제	238	23.8
③소래포구축제	377	37.7
④고려산 진달래 축제	106	10.6
⑤인천-중국의날 문화관광축제	83	8.3
⑥기타/잘모름/무응답	13	1.3

(5) 특산물 / 음식

■ 인천을 대표하는 특산물 (복수응답)

○ 인천시민들은 인천을 대표하는 특산물로 47.6%가 '강화인삼'이라고 응답함.

○ 다음으로는 강화순무(25.5%) > 꽃게(22.3%) > 새우젓(18.2%) > 강화약쑥(사자발쑥)(10.7%) > 강화속노랑고구마(7.7%) > 섬 포도(5.1%) > 민어(2.7%) > 조기(1.6%) 순임.

○ 인천을 대표하는 특산물 대부분이 강화도의 로컬푸드라는 것이 특징적임.

인천을 대표하는 특산물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 계	1,000	100.0
①강화쌀	418	41.8
②강화인삼	476	47.6
③강화약쑥(사자발쑥)	107	10.7
④강화순무	255	25.5
⑤강화속노랑고구마	77	7.7
⑥조기	16	1.6
⑦꽃게	223	22.3
⑧민어	27	2.7
⑨새우젓	182	18.2
⑩섬 포도	51	5.1

■ 인천을 대표하는 향토음식 (복수응답)

○ 인천시민들은 인천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으로 27.6%가 '아구찜(물텀벙이)'이라고 응답함.

○ 다음으로는 밴댕이회(27.2%) > 닭강정(27.0%) > 짜장면(22.1%) > 인삼막걸리(12.8%) > 쫄면(10.0%) > 냉면(9.8%) > 칼국수(6.5%) > 추어탕(5.8%) > 해장국(2.5%) > 호떡(2.1%) > 닭알탕(2.0%) > 설렁탕(1.5%) 순임.

인천을 대표하는 향토음식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000	100.0
①짜장면	221	22.1
②쫄면	100	10.0
③냉면	98	9.8
④칼국수	65	6.5
⑤아구찜(물텀벙이)	276	27.6
⑥설렁탕	15	1.5
⑦추어탕	58	5.8
⑧해장국	25	2.5
⑨닭알탕	20	2.0
⑩닭강정	270	27.0
⑪호떡	21	2.1
⑫밴댕이회	272	27.2
⑬인삼막걸리	128	12.8

(6) 동물 / 식물

■ 인천을 상징하는 동물

○ 인천시민들은 인천을 상징하는 동물로 35.8%가 '갈매기'라고 응답함.

○ 다음으로는 꽃게(27.1%) > 두루미(19.2%) > 저어새(7.0%) > 물범(6.1%) > 민어(2.6%) > 조기(1.5%) 순임.

○ 한편, 기타/잘모름/무응답은 0.7%임.

인천을 상징하는 동물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000	100
①두루미	192	19.2
②저어새	70	7.0
③갈매기	358	35.8
④물범	61	6.1
⑤꽃게	271	27.1
⑥조기	15	1.5
⑦민어	26	2.6
⑧기타/잘모름/무응답	7	0.7

■ 인천을 상징하는 식물

○ 인천시민들은 인천을 상징하는 식물로 28.4%가 '은행나무'라고 응답함.

○ 다음으로는 진달래(22.6%) > 장미(11.5%) > 목백합(10.6%) > 느티나무(7.7%) > 동백나무(7.1%) > 소사나무(서어나무)(6.4%) > 플라타너스(4.5%) 순임.

○ 한편, 기타/잘모름/무응답은 1.2%임.

인천을 상징하는 식물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합계	1,000	100.0
①목백합	106	10.6
②플라타너스	45	4.5
③느티나무	77	7.7
④은행나무	284	28.4
⑤소사나무(서어나무)	64	6.4
⑥동백나무	71	7.1
⑦장미	115	11.5
⑧진달래	226	22.6
⑨기타/잘모름/무응답	12	1.2

3. 시사점 및 가치화 방안

1) 시사점 및 가치화 방안

■ 인천의 대표적인 도시 이미지는 '공항'과 '항구'

○ 인천시민은 인천의 도시이미지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50.7%)으로 보고 있으며, 인천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공항·항구'(32.0%)라고 응답함.

- 이러한 결과는 <인천비전 2050 시민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인천발전연구원, 2015)에서 현재 인천시의 도시 이미지에 대해 '공항과 항만이 있는 물류도시'라고 응답한 것과 유사함.
- <인천광역시 시민의식조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2015)에서도 인천시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이라고 응답함.
- 공항과 항구가 상징하는 '개방성'과 주요 기능인 '교류', '연결'의 가치를 높이고 정체성을 공유하기 위한 방향 설정이 요구됨.

■ '월미산·월미문화의 거리·월미도'의 대중적 장소 가치 높이 평가

○ 인천시민은 인천의 자연경관을 쉽게 조망할 수 있는 장소, 인천의 가치 있는 수변경관, 인천을 방문한 외지인에게 안내하고 싶은 장소에 대해 각각 '월미산', '월미문화의 거리', '월미도'라고 응답함.

- 이는 인천시민들에게 접근성이 좋고 자연친화적인 경관과 장소가 중구 월미도 일대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인천비전 2050 시민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인천발전연구원, 2015)에서 현재 인천시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장소에 대한 응답이 '인천공항(41.8%)', '월미도(15.6%)' 순인 것과 유사함.
- 월미도 일대의 수변경관자원과 관광자원, 문화예술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사·보강·연계하여 인천시민과 외부 방문객들의 인지도와 선호도를 높이고 재방문을 유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모색이 필요함.

■ '인천상륙작전'과 '차이나타운'의 역사적 가치 발굴 및 활용 필요

○ 인천에서 발생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은 '인천상륙작전'(48.9%)이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 비중을 차지했으며, 인천의 고유한 역사·문화 장소로는 '차이나타

운'(27.2%)이 가장 많은 응답을 얻음.

- 2016년 9월에 개봉한 영화 <인천상륙작전(Operation Chromite)>이 한 달 만에 700만 관객을 동원해 흥행하여 대중적 인지도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스토리텔링자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활용을 통한 대중화와 가치확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근현대기에 형성된 차이나타운 또한 인천시민 사이에서 인천시의 고유한 역사·문화장소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역사성과 진정성을 담보한 자원 발굴과 가치 활용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인천시 무형문화자원의 대중적 활용 통한 가치 확산 필요

○ 인천시민은 무형문화재인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국가무형문화재)을 대중공연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이라고 응답했으며, '완초장(시도무형문화재)'의 경우 공예상품으로 특화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함.

-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은 서해안과 황해도 해안지역에서 해상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고 마을의 태평과 생업의 번창을 비는 마을굿임. 임경업 장군신 등 인천시의 역사인물과 설화자원을 활용한다면 울산시의 처용문화제와 같은 대중공연으로 활용이 가능함.
- '완초장'의 경우 왕골공예 장인과 젊은 디자이너와의 협업을 통해 고가의 예술품, 중저가의 생활용품 등을 제작하여 인천시 브랜드로 상품화가 가능함. 이미 전주시의 경우에는 가구장, 소목장 등과 디자이너의 협업을 통해 '천년전주명품온'과 같은 자체 브랜드 사업을 지속해오고 있음.

■ 인천시민들이 생각하는 인천시 대표 축제는 '소래포구축제'

○ 인천시민의 과반(51.8%)이 인천시에서 개최한 축제에 '참여한 적 있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최근에 참여한 축제(27.2%), 인천의 도시적 특성과 가장 잘 어울리는 축제(38.1%), 가장 선호하는 축제(37.7%) 모두 '소래포구축제'를 가장 많이 응답함.

- 지역성과 공동체성이 축제의 기반이자 전제라고 할 때, 인천시민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또 가장 선호하며, 도시 정체성과 잘 어울리는 축제로 보고 있는 소래포구축제를 시민참여형, 주민주도형, 공동체형 축제로 발전시켜나감으로써 지역성, 연계성, 소통성, 공동체성을 확장하고 진정한 의미의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인천의 대표 특산물은 '강화인삼', 향토음식은 '아구찜(물텀벙이)'

○ 강화쌀, 강화인삼, 강화약쑥, 강화순무, 강화속노랑고구마 등, 어류(조기, 꽃게, 민어, 새우젖)를 제외한 인천의 특산물 중 상당수가 강화도에서 생산되고 있음. 그 중에서도 '강화인삼'(47.6%)의 응답률이 가장 높음.

- 중국, 중동 등 해외에서 인삼의 효능과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고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인삼제품의 중화권, 동남아, 중동 건강식품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인삼가공식품(차, 음료, 캔디, 과자류) 등 다양한 방식의 관광상품화를 도모하여 지역 특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관광객의 유치를 확대할 필요 있음.

○ 인천시민은 인천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을 '아구찜(27.6%)'이라고 응답함.

- 인천은 마산, 군산과 함께 '아구찜(물텀벙이)'의 원조 도시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인천에서는 한국전쟁 직후부터 인천항 근처 노동자들이 아구찜을 즐겨먹었다고 전해지고 있음.
- 향토음식을 인천의 가치 자원으로 홍보하기 위한 축제 등 지역 행사와의 연계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함. 광주시의 경우 지역 향토음식인 '보리밥'을 지역 전통문화예술축제인 '무등울림'과 연계해 '선비밥상'이라는 브랜드로 오찬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좋은 평가를 받음.

■ 인천을 상징하는 동식물은 '갈매기'와 '은행나무'

○ 인천시민은 인천을 상징하는 동물을 '갈매기(35.8%)', 식물을 '은행나무'(28.4%)라고 응답함.

- 인천시의 시조이자 마스코트는 두루미이나 시민들은 인천을 상징하는 동물로 인천공항의 '비행·비상' 이미지와 항구와 바다 위를 나는 '바다새'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연상하게 하는 갈매기를 상징동물로 선택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갈매기를 상징동물이나 마스코트로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와 기업, 학교 등이 많아 인천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가치 자원으로서 차별화는 어려움.
- 또한 인천시의 시화와 시목은 장미와 목백합이지만, 인천시민은 일상 속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은행나무'를 상징식물로 택함. 남구 장수동에 소재한 '장수동 은행나무'의 경우,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12호로 수령이 800여년에 이르는 지역 명물로서 대중적 인기가 높은 것도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됨.

2) 정책제언

■ 인천 도시가치 정기조사 실시

○ 도시 이미지, 가치자원 지표에 대한 선호도와 인지도는 시간이 흐르고 공간이 변함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이므로, 이와 유사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시계열적으로 선호도와 인지도 변화 추이를 분석해 정책 방향 설정과 시책 개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매해 실시하기 보다는 2~3년을 주기로 가치 관련 조사를 시행할 필요 있음.

○ 설문문항은 '공통문항'과 '기획문항'으로 구성하여 공통문항의 경우 연도별로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획문항의 경우 시기별 현안과 관심사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임.

○ 설문조사는 인천시민들의 수요와 인식을 파악하는 데도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조사를 통해서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함.

■ 설문조사 대상의 다양화

○ 본 조사에서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인천시의 도시이미지와 가치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려면 타 지역 거주자와 방문객, 외국인들의 인식조사도 함께 진행해 결과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음.

- 타 지역 방문객과 외국인의 설문표본 수 할당 시, 최소한 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결과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이번 설문조사를 포함한 인천시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부분의 조사 참여자 연령대가 50대 이상이 절대다수이므로 향후 조사대상 선정 시 연령대별 표본 설정을 세심하게 계획해야 할 것임.

○ 인천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본 조사에서는 조사표본 할당 시 인천시 10개 구·군별로 최소표본 30명을 할당한 후 인구비례 할당하는 방식으로 지역별 표본 차이를 줄여 소표본 지역(동구, 강화군, 옹진군)을 분석하는데 오차를 최소화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구, 강화군, 옹진군의 조사표본 수는 50명 미만임.

- 차기 조사에서는 이번 조사와 같이 표본 비율을 유지하되 전체 표본 수를 확대하여 소표본 지역에서도 유의미한 조사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설문조사 지표 보완 및 개발

○ 설문문항의 구성 또한 계량화해서 주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면 연차적으로 변화추이를 분석하는데 용이할 것임.

○ 본 조사에서는 무수히 많은 도시 자원 중 크게 ①도시 이미지, ②장소/경관, ③역사/ 문화, ④관광/ 축제, ⑤특산물/ 음식, ⑥동물/ 식물의 6개 범주에 해당하는 자원을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했으나, 향후 누락된 지표를 보완하고 설문문항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개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인천의 대표 인물이나 미래 도시자원 등의 문항을 구성하는 데에는 자원선정 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최종적으로 설문문항에 포함되지 않음.

- 인물자원의 경우, 분야별·시대별로 다수의 인물이 존재하나 대부분 대중적 인지도가 높지 않아 조사결과가 유의미하게 도출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대중적 인물(연예인, 운동선수, 정치인)과 역사적 인물(독립운동가, 장군, 임금), 문화예술인(시인, 극작가, 미술사학자, 연극배우) 등을 한 문항 안에 복합적으로 나열할 경우 선정결과에 대한 해석 자체가 문제시 될 수 있음.

■ 설문조사 결과 정책 반영 및 모니터링

○ 인천시민들의 인천시 가치에 대한 선호도와 인지도가 정책 제안과 발굴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시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민들의 수요와 정책공급자의 인식 간 격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설문조사 결과를 여러 분야 정책 연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참고문헌

인천관광공사(2016), '자랑스러운 인천 100선' 선정 결과 보고.
인천관광공사(2016), 인천관광콘텐츠 가이드북 인천을 즐겨라.
인천광역시(2010), 인천광역시 기본경관계획.
인천문화재단(2010), 인천문화인물열전.
인천문화재단(2012), 2012 인천문화지표 조사연구.
인천발전연구원(2015), 인천시 상징물 관리 및 개선 방안.
인천발전연구원(2015), 인천시 스토리텔링 자원 및 활용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인천발전연구원(2015), '인천비전 2050' 시민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2015), 인천광역시 시민의식 조사.



굴포천 전경 · 인천광역시 부평구



X

결론과 정책제언



월미도 인천광역시 중구

결론과 정책제언

■ 인천의 도시자산 현황과 분류체계 및 가치화 방안

○ 도시자산의 개념

- 도시자산은 도시가 보유한 역사·문화·자연·산업·경제·인적 자원을 말하며, 특히 타도시와 비교하여 고유성과 특성이 두드러지고, 질적·양적 우월성이 있는 자원을 말함. 또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자부심, 외지인들이 바라보는 긍정적 요소와 매력도 도시자산이 될 수 있음.

○ 도시 자산의 가치화 과정

- 가치 자원의 조사·발굴·자원 아카이브 구축 단계 (가치자원의 수집, 조사, 발굴 ▶ 가치자원을 분류하고 목록작성(assets inventory) ▶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구축, 아카이브화)
- 평가와 원자료화(One Source) 단계 (가치자원 가운데 문화적·경제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유산을 평가 선별 ▶ 선별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진, 도판, 기록을 보완하고 고증을 거쳐 멀티미디어 원천 자원화(One Source), 출판 등의 방법으로 공개)
- 재창조(Multi Use) 단계 (가치자원의 스토리텔링, 콘텐츠화, 가치간 연계 융합, 유휴자원 리모델링, 인천정보 리뉴얼 등의 방법으로 재창조)

○ 도시자산 가치화 전략

- 자원 조사 발굴 평가 : 자원 기초조사, 활용 계획 수립, (디지털화 웹/앱 기반 쌍방향 인천가치 전파)

- 가치자원의 스토리텔링 : 장소, 인물, 역사, 자연자원, 관광자원의 감동적 스토리텔링
- 가치자원의 콘텐츠화 : 문학·미술·음악·연극 등 예술작품화, 브랜드 슬로건 및 이미지, 문화상품화(영화, 음악, 뮤지컬, 오페라, 만화, 캐릭터, 게임, 기념품)
- 유휴자원 재활용/공간화 :산업유산(폐공장) 리모델링, 도시재생 및 경관 조성에 인천가치 접목
- 인천정보리뉴얼 : 인천표준안내서 작성, 인천정보 오류 조사 및 정정 (각종 안내서, 국내외 포털사이트, 위키피디아 등),각급학교 교과과정에 인천가치 교육 도입

■ 인천시 무형문화재 활용방안

○ 인천시 무형문화재의 활용을 위해서는 1. 법·제도적 변화에 대응한 무형문화재 진흥책 필요 2. 중앙정부 기본계획 및 타 분야와 연계한 문화재정책 기반 마련 3. 무형문화재의 '무형성'을 고려한 진흥 및 활용방안 모색 등이 필요함.

○ 추진 사업:

1. 새 지정기준에 따른 무형문화재 발굴 및 아카이브 구축
2. 확대된 무형문화재 범주를 포괄하는 연구와 기록화
3. 합리적인 무형문화재 관리체계 도입과 전문가 모니터링.
4. 목적과 대상별 맞춤형 무형문화재 교육과정 설계
5. 무형문화재 진흥과 활용 위한 지원시스템 마련

■ 인천화교 역사문화 자산 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 인천시의 화교역사문화 자산의 발굴·보존·확산을 포함한 다각적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함. 130여년 동안 형성된 화교 역사문화자산은 고유한 특수성과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명소화를 위한 실용적 가치를 갖추고 있다. 그동안 화교 역사문화자산은 유적과 건축물 등 유형자산이 주목을 받았으며 물리적 환경정비나 조형물 설치 위주의 개발이 진행됨.

○ 사업 제안 :

1. 화교 역사·문화자산의 활용을 위한 협력기제 마련
2. 인천-산둥 화교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3. 인천화교 역사문화 전시시설의 강화 및 내실화

4. 화교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확대
5.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화교 역사문화 안내 시스템 구축

■ 인천의 인적자산 현황과 가치화 방안

○ 인적자산이란 역사적 또는 현세의 인물 중 뛰어난 사람을 의미함. 특히 이와 같은 인물이 역사적 그리고 사회·경제적으로 가치를 지닌 어떠한 실체가 되어 축적과 활용의 필요성이 있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는 지역 사회의 인적자산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정책제언

1. 인천인물DB의 현행화와 새로운 DB의 추가
2. 인천가치자원의 결합을 통합 활용방안 모색
3. 이승훈 기념관 등 인물 중심 기념 시설 건립을 위한 환경조성
4. 출생지, 활동 장소 등이 서로 다른 인물과 인천의 지역성 부각
5. 역사 인물이되 '일반인'의 삶에 대한 재조명 사업

○ 추진체계 : 본 연구는 인천가치재창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기획단, 전문가 자문기구, 사업추진 협력 네트워크 등 기본조직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또한 인적자산의 경우, 중요인물DB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대한 사업화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심기구가 필요하며 중요 사업으로 각구군별 인물중심 지역사 편찬을 제안하였음.

■ 인천 건축자산 조사 기초연구

○ 추진방향 : 본 연구는 인천 건축자산 기초조사 수행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인천 건축자산 기초조사의 목적과 개념, 가치기준이 수립되어야 하며, 분류체계의 수정 및 보완, 개별 건축자산에 대한 DB시스템 구축, 조사표 작성과 정리의 전문화, 건축자산 기초조사의 단계별 또는 지역별 실시가 필요함을 제안하였음

○ 정책제언

1.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보조금 확대 필요
2.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확대와 건축자산 관리·지원책 마련
3. 건축자산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홍보 필요

■ 인천 산업유산의 가치화

○ 인천시의 대표적인 근대산업유산으로서 15개의 산업유산을 선정하고, 자료검토와 현장 기초조사 과정을 거쳐, 최종 4개의 대표산업유산에 대한 활용전략과 방안을 제시하였음. 최종 선정된 4개의 대표산업유산은 구 송도역사, 구 인천세관 창고와 부속동, 축항선, 조양직물이며, 이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토대로 예시적 활용방안을 제안함

○ 정책제언

1. 지역 산업유산 활용전략

1) 지역 산업유산에 대한 기초조사와 중장기 활용계획 수립

2) 통합적 보존 및 활용정책

3) 산업유산군별 거점지역 발굴 및 조성

4) 활용측면의 다양성 확보

5) 지역 주민과 사회단체의 참여 촉진

2. 지역 대표산업유산 (예시적) 활용방안

1) 조양방직 건물을 활용한 기념품 생산 및 체험공간 조성

2) 인천항 개방에 대비한 관광목적의 축항선 재활용

3) 구 송도역사를 활용한 전시 및 주민 공동체생활 지원시설 조성

4) 구 인천세관 부속 건물을 활용한 세관박물관 조성

■ 인천 가치 창출을 위한 자연자산 가치제고 방안

○ 인천시 자연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활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음. 첫 번째로는 계양산 등 주요 산의 정상부를 활용한 조망점 정비사업이며, 두 번째는 갯벌의 보전과 이용에 대한 대안으로서 해안변에 바닷물을 이용한 야외수영장(월미조탕에 원형이 있음)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는 장수동 은행나무를 천연기념물로 상향하여 지정하는 것이며, 네 번째는 바닷가에서 해넘이와 해돋이할 수 있는 명소를 정비하여 시민들이 쉽게 자연경관을 경험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임

○ 이 연구는 자연자산 유형분류에 따라 자연자산의 중·소분류로 지형(산지, 하천, 해안. 섬), 생물(섬, 동물, 식물, 생물보전지역), 자연경관(공원녹지, 길, 대기, 지질)을 구분하고 다음을 정책과제로 제안함

1. 자연자산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2. 인천 가치제고를 위해 자연자산의 가치 재해석 노력 필요
3. 자연자산의 혜택을 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홍보
4. 자연자산과 인문자산을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5. 자연자산의 활용과 함께 자연자산의 보호관리 철저

■ 인천 도시가치발굴 시민설문조사

○ 설문조사 결과, 인천시민은 인천의 대표적인 도시 이미지로 '공항'과 '항구'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고, '월미산·월미문화의 거리·월미도', '인천상륙작전'과 '차이나타운',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과 '완초장', '소래포구축제', '강화인삼'과 '아구찜'을 높은 가치를 지닌 인천의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외에 인천시민은 '갈매기'와 '은행나무'를 인천을 대표하는 동·식물로 인식하고 있었음.

○ 정책제언

1. 인천의 도시 가치 정기조사 실시 필요
2. 설문조사 대상의 다양화 통화 다각적 분석 필요
3. 계량화된 설문지표 개발 필요
4. 설문조사 결과 정책 반영 여부 모니터링 실시



부평풍물축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록

인천화교 역사문화 자산 현황 조사

○ 인천화교 관련 역사문화 자산에 대한 유형별 조사에 기초하여 현황을 점검하도록 함.
- 인천화교 역사·문화 자산을 문화재청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재 유형 분류에 따라 ▲유적·건조 유산 ▲무형유산 ▲유물·기록유산으로 구분하여 조사·정리함.

1. 인천화교 유적·건조 자산

○ 문화재청에서 정하고 있는 유적·건축 문화재 세부유형은 <표 1>과 같음.

유적 건조물 문화재 유형 분류

분류	세부 항목
주거생활	주거지, 주거건축, 조경건축, 근대주거
무덤	무덤, 왕실무덤,근대무덤
정치국방	궁궐, 관아, 성, 전적지, 근대정치국방
산업생산	농어업, 염업, 제조업, 요업, 광업, 근대산업생산
교통·통신	교통, 통신, 근대교통, 통신시설
종교신앙	불교, 천주교, 개신교, 민족종교, 민간신앙
교육문화	교육기관, 근대교육문화
인물사건	인물기념, 근대인물
유물·유적분포지	육상·수상유물산포지, 유적분포지

자료 : 문화재청 문화유산 유형 분류 참고하여 작성

○ 근현대를 거쳐 조성된 인천화교 유적 및 건축물로 아래의 12개를 꼽을 수 있음.
○ 이를 원래의 용도에 따라 유물·유적, 생산·주거, 행정·교육, 종교신앙시설로 분류하여 그 형성 기원 등을 정리함.
- 유물·유적: 조계지 계단, 중화루터, 청국인 묘지터

- 생산·주거: 공화춘, 점포주택 5개
- 행정·교육: 청국영사관터, 화교학교
- 종교신앙시설: 의선당

○ 인천화교 유적·건조 자산은 아래 그림과 같이 인천차이나타운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음.

- 짜장면 박물관, 한중문화관, 인천화교역사관 등 인천 화교 역사문화 전시시설이 차이나타운에 함께 자리를 잡고 있음.

인천화교 유적·건조 자산 분포



1) 유물·유적

■ 청일 조계지 경계계단

○ 1883년 설정된 일본 조계지와 1884년 설정된 청국조계지의 경계를 이루는 계단으로 만국공원(현 자유공원)으로 연결. 2002년 12월 23일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51호로 지정

○ 조계지 경계계단은 중앙에 석조 계단이 형성되어 있고, 양단을 중심으로 급한 경사인 점을 감안하여 계단참을 두고, 조경식재 공간을 마련

- 인천시 중구청에서는 2003년 재정비를 통해 계단 좌우에 각각 중국과 일본 양식의 석등을 배치
- 2002년 6월 중국 칭다오시에서 기증한 공자상을 계단 상단부에 설치

청일 조계지 경계계단 구조

주 소	인천 중구 전동 24번지 외
건립연대	1904년 이전
현존여부	O
종 별	기타주거
용 도	계단
대 지	965.6㎡





자료 : 인천광역시립박물관(2012:32)
사진자료: 두산백과 및 현지촬영(2016-06-14)

■ 중화루(原대불호텔)터

○ 1918년 뢰소정(賴紹晶)을 비롯한 40여 명의 화교들이 한국 최초의 서양식 호텔이었던 대불(大佛)호텔 건물을 인수, 운영했던 중국요리점인 중화루(中華樓)의 터[1]

- 대불호텔은 한국 최초의 서양식 호텔로 1888년 개항장의 해운업자였던 호리 일가에 의해 건립되어 개항 후 10여 년간 호황을 누렸으나, 경인선 개통후 쇠락하여 1918년 폐업
- 당시 대불호텔은 서양식 3층 벽돌 건물로 2층짜리 목조건물이 인접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

1 인천 대불호텔과 중화루의 변천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창수(2010)을 참고할 수 있음

○ 인천 최고의 고급 중국식당으로 명성이 높았던 중화루는 차이나타운의 쇠락과 함께 경영난을 겪다 1970년 폐업

○ 건물은 1978년 철거된 후 나대지로 방치되다가 2011년 건물신축을 위한 공사 과정에서 지하에서 벽돌 기단 등 유구가 발견

○ 문화재청 원형보존 권고이후 토지소유주의 중구청 기부채납. 2016년 9월 현재 중구청의 대불호텔 외형 재현 공사가 진행 중[2]

중화루(原대불호텔) 건축구조

주 소		중구 중앙동1가 18		
건립연대		1885년 이전		
현존여부		X		
종 별		사무/상가		
용 도		사무/상가		
면적	대지	386.8㎡		
	건축	-		
	연	737.2㎡		
구조	벽체	조적조		
	지붕	우진각지붕		

자료 : 인천광역시립박물관(2012:58)
사진자료: 烟台日報 (2009-07-11) 및 한국문화재단문화유산정보
(https://www.chf.or.kr/c2/sub2_2.jsp?thisPage=1&searchField=&searchText=&brdType=R&bbIdx=101449:검색일 2016-09-30)

■ 청국인 묘지

○ 중국인묘지(의장지)는 1884년 4월 2일에 조인된 '인천구화상지계장정(仁川口華商地界章程)'에 중국인을 위한 매장의지(埋葬儀地) 조항에 따라 설치

- 관련 조항에는 "제물포에서 10여리 떨어진 지대 이내에 화상(華商)이 적당한 산전(山田)을 선정하여 공동묘지를 만들고 나무를 심을 수 있고, 묘지를 지킬 수 있는 집을 지어야 한다."고 적시

○ 이에 따라 1912년 무렵 옛 인천대학교 정문 근처인 남구 도화동 241 일대에 중국인 묘지 형성

- 1884년 이전 중국인묘지는 내동 6번지 일대에 암암리에 혹은 우리 정부로부터 무

2 대불호텔 재현과 관련한 인천 중구청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의 신문기사 참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08426: 검색일 2016-09-30)

상임대를 받아 조성. 그 후 도시화에 따라 묘역이 이전된 것으로 추정[3]

○ 도화동 소재 중국인묘지는 인천 도시계획과 선인재단의 해당지역 점용 및 학교 건설로 1959년 인천시 남구 만수동으로 1,997기를 옮겼으며 1962년 이장을 모두 마침[4]

○ 중국인묘지는 1988년 만수동 일대를 포함한 구월지구의 구획정리를 통한 택지조성으로 인해 인천부평가족공원으로 이전

- 현재 인천부평가족공원 내에 총 2,866기의 중국인 묘가 있음.

2) 생산·주거

■ 공화춘(共和春)

○ 인천차이나타운의 대표적 고급 중국음식점이었던 공화춘 건물로 2006년 4월 14일 등록문화재 제246호로 지정

○ 1908년 건립된 2층 건물은 당시 청조계지의 건축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음.

- 전체 건물형태가 '목(目)'자형으로 각각 연결된 건축물 사이에는 중정 구성

○ 화교 위시광(于希光)이 아시아 최초의 공화제 혁명인 신해혁명(1911년)을 기념하기 위해, 1912년 청조계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이자 숙박업소인 산둥회관의 명칭을 공화춘으로 변경

- 1928년 발행 지도에는 공화춘 현 위치에 미곡잡화점인 원화잔(元和棧)만이 표기. 1930년 발행된 <경성·인천전화번호부>에는 현 지번에 원화잔과 함께 중국음식점인 공화춘이 함께 표기

○ 공화춘은 1983년 폐업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터를 매입하여 2012년 짜장면을 테마로 한 짜장면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여 활용

3 관련 내용은 인천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2007:192-193) 참고. 내리에 있었던 청국인 묘지터가 갖는 공식성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송승석·이정희(2015:87-93)의 내용 참고.

4 인천 만수동 중국인 묘지 이장에 대한 인천화교협회의 문헌 내용은 송승석·이정희(2015:114-120) 참고

공화춘 건축구조

주 소		중구 선린동 38-2		
건립연대		1908년		
현존여부		O		
종 별		사무/상가		
용 도		현)전시장 원)영업소		
면적	대지	581.8㎡		
	건축	418.32㎡		
	연	836.64㎡		
구조	벽체	조적조		
	지붕	맞배지붕		

자료 : 인천문화재단(2015:29)
사진자료: 현지촬영(2016-06-14)

■ 선린동 1-5번지 점포주택

○ 정확한 건립 연대는 알 수 없으나 건축물대장에 1934년으로 등재된 중국식 점포주택. 청국조계지에 남아 있는 주택 중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음.

선린동 1-5번지 점포주택 구조

주 소		중구 선린동 1-5	
건립연대		1934년 이전 추정	
현존여부		O	
종 별		기타주거	
용 도		점포주택	
면적	대지	290.9㎡	
	건축	119.01㎡	
	연	224.79㎡	
구조	벽체	조적조	
	지붕	맞배지붕	

자료 : 인천시립박물관(2012:33)
사진자료: 현지촬영(2016-06-14)

■ 선린동 25번지 점포주택

○ 1939년 건립. 중국인 여성연 소유의 주택을 1995년 천주교재단이 매입하여 해안천주교 교육관으로 개조하여 사용

○ 최근 카페로 사용되다가 2016년 9월 현재 내부수리 중임.

선린동 25번지 점포주택 구조

주 소		중구 선린동 25-2
건립연대		1939년
현존여부		O
종 별		기타주거
용 도		(현)상업시설 (원)주택
면적	대지	190.7㎡
	건축	158.68㎡
	연	317.36㎡
구조	벽체	조적조
	지붕	우진각지붕



자료 : 인천시립박물관(2012:31)
사진자료: 현지촬영(2016-06-14)

■ 선린동 28번지 점포주택

○ 1930년 발행된 <경성·인천전화번호부>에 공의조합(共議組合) 기록이 있음.

선린동 28번지 점포주택 구조

주 소		중구 선린동 28-1
건립연대		1961년
현존여부		O
종 별		사무/상가
용 도		영업소
면적	대지	244.6㎡
	건축	163.63㎡
	연	320.65㎡
구조	벽체	조적조
	지붕	우진각지붕



자료 : 인천시립박물관(2012:31)

■ 선린동 29번지 점포주택

○ 1층은 상점, 2층은 주거공간인 인천의 전형적인 중국식 점포주택

○ 현재 대창반점 등 중국음식점과 중국제과점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

선린동 29번지 점포주택 구조

주 소		중구 선린동 29-4 일대
건립연대		1925년
현존여부		O
종 별		사무/상가
용 도		점포주택
면적	대지	414.2㎡
	건축	199.34㎡
	연	385.75㎡
구조	벽체	조적조
	지붕	맞배지붕



자료 : 인천시립박물관(2012:28)
사진자료: 현지촬영(2016-09-02)

■ 선린동 32번지 점포주택

○ 1층은 상점, 2층은 주거공간인 인천의 전형적인 중국식 점포주택으로 29번지 점포주택과 마주하고 있음.

- 1930년 발행된 <경성·인천전화번호부>에 동화잔(同和棧) 영업 기록이 있음
- 현재 풍미 등 중국음식점과 상점으로 사용 중

선린동 32번지 점포주택 구조

주 소		중구 선린동 32-6 일대
건립연대		1925년
현존여부		O
종 별		사무/상가
용 도		점포주택
면적	대지	677.9㎡
	건축	296.2㎡
	연	823.2㎡
구조	벽체	조적조
	지붕	맞배지붕



자료 : 인천시립박물관(2012:29)
사진자료: 현지촬영(2016-09-02)

3) 행정·교육

■ 청국영사관

○ 청국은 1884년 인천에 조계를 설치하고, 그 해 10월 중국 선린동에 영사관 설치. 초대영사로 자원옌(賈文燕)이 부임

- 영사관은 본청(약 466.1㎡), 순포정(158.6㎡), 전보국 등이 있었고 신포동에 분청을 둠.[5]

○ 청일전쟁 이후 일시 폐쇄되었다가 1898년 다시 개청. 한국전쟁 중에 건물 대부분이 소실되고 1934년 영사관 터에 화교중산학교 신축

청국영사관 구조

주 소		중구 선린동 9일대
건립연대		1884년
현존여부		X / 회의청 (○)
종 별		사무/상가
용 도		영사관
면적	대지	-
	건축	-
	연	-
구조	벽체	조적조
	지붕	맞배지붕







자료 : 인천문화재단(2015)
사진자료: 인천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2007:74,75)

○ 현재 남아 있는 영사관 회의청은 인천화교협회 전시관 및 집회장으로 사용[6]

- 회의청은 1910년에 자웬옌이 건립. 건축물의 구조는 기단 위에 건물을 세우고 맞배지붕을 올린 단순한 구조이지만 좌우대칭의 입면과 정교하게 조각한 문살 등으로 치장
- 정면을 5칸으로 건물 중앙부에 회랑을 둠. 6칸 접이문이 주 출입구 역할을 하고 좌우에는 각기 3개의 창문을 배치
- 건물 정면에는 자원옌이 1910년에 쓴 '만국의관(萬國衣冠)'이라는 현판과 조선인중화총상회가 1922년에 설치한 '낙선호시(樂善好施)'현판이 좌우에 함께 걸려있음.

5 인천중구문화원(2015:24-25)
6 인천광역시립박물관(2012:74.75)

■ 화교중산학교

○ 1934년 전 청국조계지 청국영사관 터에 건물을 건립. 현재 건물은 1955년 화재 후 신축된 것임.

○ 인천의 화교학교는 1902년 초등부가 학제 7년의 사숙 교육기관으로 당시 중화상회 건물에 창립[7]

- 1923년 많아진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현재 중산학교 중고등학교 건물 위치에 교실 3칸을 짓고, 학제를 6년으로 변경
- 1934년 청국영사관 터에 건물을 건립하고, 인천화교소학과 노교(魯橋:산둥출신 화교)화교소학을 인천화교 소학으로 통합
- 1942년 학생 수가 수 백명에 달하면서 2층짜리 교사 대례당(大禮堂)을 신축해 1층은 교실, 2층은 강당으로 사용
- 1955년 1월 화재로 건물전체가 소실되어 12월 복흥당(福興堂)으로 신축
- 1957년 9월 1일 중등부를 신설하면서 교명을 중국의 국부로 추앙되는 쑨원(孫文)의 호를 따서 인천중산소학과 중산중학으로 바꿈.
- 1964년 1964년 9월 1일 고등부 설립

○ 수 차례에 걸쳐 건축과 소실을 겪은 학교 교사는 1951년 지어진 소학교 건물과 1977년에 현재 중학 건물을 증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중산학교 구조

주 소		중구 선린동 8
건립연대		1934년
현존여부		O
종 별		교육시설
용 도		학교
구조	벽체	조적조
	지붕	우진각지붕





자료 :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2012:28)
사진자료: 인천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2007:74.75)

7 1902년 인천 중화상무총회 (현 인천화교협회) 건물의 창고 한 켠을 내어 인천 화교학당이 세워졌고, 사숙(私塾)방식으로 공부를 시작. 30명의 학생이 등록하였고, 당시 교장은 부영사관이었음. 인천화교학교의 자세한 역사 및 역할에 대해서는 인천문화재단 2015년 펴낸 한국인천화교중산중소학 자료집 『114년의 기억, 한국인천화교중산중소학 1902-2015』을 참고

4) 종교신앙

■ 의선당(義善堂)

○ 인천 차이나타운에 소재한 중국식 사당인 의선당은 화교들이 인천에 들어와 해외에서 단결하며 의롭게 살고 자신들이 평소 믿었던 신앙을 모시기 위해 창건

- 창건 시기는 1893년으로 추정. 의선당 위패에는 황허징(黃合卿)을 개산조로 명기
- 의선당에는 1920년~30년대에 조성한 편액이나 기물이 많이 남아있음.
- 의선당 마당에서는 석탑이 있으며, 춘절 화교사회의 단체 진향 등을 위한 화로가 놓여져 있음.

○ 의선당은 중국 전통의 불교, 도교와 토테미즘, 실존인물 등 여러 신앙체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의선당 본전에는 다섯의 신(神)과 선(善)상이 모셔져 있음.

의선당 구조

주 소		중구 북성동2가 9-13
건립연대		1893년
현존여부		O
종 별		종교시설
용 도		사찰
면적	대지	363.6㎡
	건축	148.76㎡
	연	148.76㎡
구조	벽체	조적조/목재
	지붕	맞배지붕



자료 :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2012:25)
사진자료: 현지촬영(2016-09-02)

2. 인천 화교 무형자산

○ 인천 화교들이 가정 및 공동체를 통해 전승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조사·정리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형문화재의 유형 분류를 참고하여,

○ ▲전통 공연·예술 ▲민간신앙 ▲전통지식과 기술 ▲절기풍속 ▲일생의례로 나누어 정리함.

-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는 한국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형문화재란 세대 간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일컬음.[8]
- 구체적으로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등을 포함함.
- 문화재청에서 정하고 있는 무형문화재의 각 유형에 포함되는 보다 구체적인 세부 분야는 아래 표와 같음.

무형문화재 유형 분류

분류	세부 내용
전통 공연·예술	음악, 춤, 연희, 종합예술
전통기술	공예, 건축, 미술
전통 지식	민간의약지식, 생산지식, 자연·우주지식
구전 전통·표현	언어표현, 구비전승, 그 밖의 구전표현
전통 생활관습	절기풍속, 의식주 생활, 생활관습
의례·의식	민간신앙의례, 일생의례, 종교의례
전통 놀이·무예	놀이, 축제, 기예, 무예

자료 : 문화재청 문화유산 유형 분류 참고하여 작성

1) 전통 공연·예술

○ 화교 무형 문화자산으로 음악, 춤, 연희, 종합예술을 포함하는 전통 공연·예술 및 놀이, 축제, 기예, 무예 등의 전통 놀이·무예를 들 수 있음.

○ 화교 전통 공연과 놀이는 인천화교학교를 통해 전승되고 있음.[9]

- 개교기념일 또는 운동회 등의 행사 때, 전통민속춤, 태극권 시범, 사자탈춤 및 용춤 등 전통 공연을 함.[10]
- 1950년대 각종 화교 행사시 화교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사자춤, 용춤, 죽마놀이 등을

8 관련 법률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참고

9 인천 화교 사회의 전통놀이에 대한 기록사진 및 내용은 인천문화재단(2015)의 3장 참고

10 중화문화권에서 사자춤과 용춤은 중요한 의식이 있을 때 시연되는 춤으로 액을 물리고 복을 불러들인다는 의미를 지님. 관련 내용은 국립민속박물관(2012:137-141) 참고

비롯한 전통공연을 거리에서 개최한 기록이 있음.

1950년대 인천화교 전통 공연



자료: 인천문화재단(2015)

○ 2002년부터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열리는 한중문화축제(4월30일-5월1일) 기간에도 거리에서 사자춤 등 전통공연 개최

○ 현재 한국 각지의 화교학교 가운데 인천과 부산에서만 사장춤과 용춤의 맥을 이어가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인천화교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자춤은 초창기 북방식 사자춤이 아니라 1999년 타이완으로부터 전수된 남방식 사자춤임.

2011년 인천화교 전통 공연



인천화교학교 개교기념일 행사 | 한중문화축제 거리공연

자료: 국립민속박물관(2012:138,136)

2) 민간신앙

○ 인천 차이나타운에 소재하고 있는 의선당의 신상 등을 통해 화교들의 민간신앙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볼 수 있음.

- 현재 의선당에는 법사가 없어 전통적인 신앙 행사가 열리지 않음.
- 그러나 인천화교들이 개인적으로 신앙 활동을 하고 있고, 명절 때면 화교들이 이곳에 모여 인사를 하는 등, 여전히 중요한 정신적인 장소로 역할을 함 (박현규,2009:250).

○ 의선당은 중국 전통의 불교, 도교와 토테미즘, 실존인물 등 여러 신앙체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의선당 본전에는 다섯의 신(神)과 선(善)상이 모셔져 있음.[11]

- 인천차이나타운 형성기 여러 지역의 화교들은 인천으로 이주해오면서 각각 자신들의 지역에서 신봉하고 있던 민간 신앙을 의선당으로 모셔왔고, 여러 신앙들이 수렴되어 공존하는 것으로 추측됨.

○ 묘우 정전 내부 왼쪽부터 호삼태야(狐三太爺), 사해용왕(四海龍王), 관음보살(觀音菩薩), 관우(關羽), 마조(馬祖)상이 자리를 잡고 있음.[12]

- 호삼태야는 여우를 숭배하는 산둥지역 토속신앙에서 기원했으며, 사해용왕은 바다를 관장하는 용왕으로 산둥에서 인천까지 무역을 했던 당시 청국상인들이 배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기원하기 위해서 모신 신임.
- 관음보살은 다섯 신 중에서 가장 높은 서열에 해당되는 신으로 신상의 가운데 위치. 화교들은 관음을 집안의 태평과 아이를 보호하는 신으로 여김.
- 재물과 벽사(辟邪)를 관장하는 관우를 재신으로 받들고 있음.
- 타이완을 비롯한 도서지역에서 모셔지는 해신인 마조의 상이 모셔져 있음.

○ 본전 좌우 벽면에는 오행신위(五行神位)와 약왕신(藥王神), 수문장(守門將) 등 소형 신단이 있고, 본적 바깥 외벽에는 천지군사부(天地君師父)를 모시는 소형 신단이 있음.

○ 별당에는 석가여래불, 호선, 서왕모(西王母), 천군호법(天君護法), 여조(呂祖), 장방옹조(長房翁祖), 호법소야(護法小爺), 황합경 등 신상 또는 신위가 모셔져 있음.

11 의선당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현규(2009) 및 국립민속박물관(2012:60-68) 참고

12 의선당 다섯신상에 대해서는 국립민속박물관(2012:60-68) 및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2008:39-44) 참고

의선당 본관 신단 배치 및 각 신상


신단 배치


호삼태야


사해용왕


관음보살


관우


마조

자료: 국립민속박물관(2012:62-67)

3) 전통지식과 기술

○ 인천 화교사회에서는 대를 이은 가업승계를 통해 관련 경험과 지식·기술이 전승되고 있음.

○ 인천 화교 생애사와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는 중국요리 제조기술을 비롯하여 전통의학, 신발공예 등과 관련된 전통지식·기술 전수 사례를 들고 있음.[13]

○ 인천 차이나타운연합회 초대회장 및 인천화교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쑨더준(孫德俊)과 같이 많은 화교들이 가업인 중국요리 기술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여 이를 직업으로 삼기도 하였음.

"난 기술, 요령 그런게 좀 있었던 것 같아. 몇 수 가르쳐주면 금방 배웠으니까. 그러니 중학교 들어갔을 때는 이미 면도 뽑을 줄 알고, 볶음밥도 잘 볶고 짜장 소스 다 볶았어."(손덕준·송승석(2012:68-71))

13 관련 내용은 국립민속박물관(2012:199-207) 참고

○ 인천에서 익생춘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상하이 출신 인천화교 진바오윈(金寶雲)은 3대에 걸친 전통 한방의사 집안의 후손으로서 윗대의 처방전을 보존하고 이를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우리 한의원 처방은 집안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거지만 (…) 아버지가 쓴 처방전에서 그 원리를 찾아내는 거죠, 옛날에 진단할 때 쓴 진단서 차트를 복사해서 그걸 터득을 하는 거죠 (…) 우리 집안 가보니까 누구한테도 절대로 보여주지 않아요. (국립민속박물관. 2012:199-201)"

○ 인천 신포시장에서 1940년대 개업한 중국 전통수제 신발상점인 의흥덕(義興德)을 2대에 걸쳐 운영하고 있는 화교 취더청(曲德城)과 같이 가내수공업 형태의 가업을 통해 전통기술을 전수받기도 함.

"옛날에는 신발수요가 많았어요 (…) 일이 많아서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일한거지요. 나도(취더청) 그 때부터 일 배워서 못 비뚤어진 거 손하고 망치 이용해서 펴는 법, 미싱 배우고 바닥 배우고 그랬어요. 열심히 해야지요. 아버님한테 배운 거니까. 계속 찾아오는 단골들이 있어서 좋아요." (국립민속박물관. 2012:202-207)

4) 절기풍속

○ 인천화교들은 절기풍속 및 관련 전통제례를 통해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전해오는 중국 전통과 문화를 계승해오고 있음.

- 국립민속박물관(2012)의 조사를 중심으로 인천 화교사회의 소년, 춘절, 원소절, 단오, 중추절 절기 풍속을 정리함.[14]

■ 소년(少年) - 음력 12월 23일

○ 화교들은 음력 12월 23일 소년(少年) 저녁, 집안 재물을 관장하고 부엌을 지켜주는 조왕(竈王)에게 제사를 지냄.

14 국립민속박물관(2012:96-161)의 내용 가운데 절기 풍속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

○ 소년의 조왕제사는 '상천언호사(上天言好事)', '하계강길상(下界降吉祥)' 즉, '하늘로 올라가서 좋은 말을 해 달라', '땅으로 내려와서 좋은 행운을 달라'라는 의미를 지님.

- 화교들은 조왕이 이 날 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자신이 1년 동안 머물고 있던 집 안의 대소사(大小事)를 옥황상제에게 보고한다고 여김.
- 주방 한 구석에 모셔둔 조왕 제단에 사탕과 엿, 달콤한 것들을 제물로 사용하는 독특한 제사상차림을 함.[15]

소년 조왕신 제사



조왕도



제사상



제사모습

자료: 국립민속박물관(2012:62-67)

■ 춘절(春節) - 음력 1월 1일

○ 음력설 '춘절'(春節)은 화교들에게 가장 큰 명절로서 화교들은 춘절 일주일 전부터 각종 제례 등을 준비

○ 섣달그믐날 자정이 되면 춘절제사를 준비하는데 춘절 차례상에 향, 과일, 튀김, 빵, 과자, 차(茶), 술 등을 제물로 올림.

- 중국 산동성을 대표하는 명절음식인 빵 보보(饽饽)를 반드시 올리고, 지전(紙錢)과 원보(元寶)를 준비함.
- 화교들은 춘절 때 꼭 먹는 물만두의 속으로 대추, 땅콩, 동전을 이용하기도 함. 우연히 이 만두를 먹는 사람들은 재물과 복이 온다고 믿음.

○ 화교들은 춘절에 붉은 봉투에 돈을 넣어서 세뱃돈 '홍바오(紅包)'를 자식 및 경영 식당 종업원들에 나누어 줌.

○ 가족 제례를 마친 화교들은 설날 아침, 의선당에 모여 새해 인사를 나누고, 의선당에 모셔진 신에게 진향함.

15 제물로 달콤한 간식을 올리는 이유는 옥황상제에게 달콤한 말을 전해달라는 의미임.

춘절 화교 가정 제례 및 의선당 행사



만두 빚기와 춘절 상차림



춘절 가정 제례



의선당 춘절 진향

자료: 국립민속박물관(2012:101-113)

■ 원소절(元宵節) - 음력 1월 15일

○ 화교들은 정월 대보름날을 '등불의 날' 혹은 '원소절'이라고 부름.

- 정월이 '원월(元月)'이며 달이 뜨는 저녁 이후로의 밤을 '소(宵)' 라고 하는데서 기원. 등을 켜고 그 등불을 구경하면서 찹쌀 경단인 원소를 먹음.

■ 단오(端午) - 음력 5월5일

○ 화교사회에서는 단오에 찹쌀을 대나무 잎에 싸 찐 쫑쯔(粽子)[16]를 만들어 먹고, 벽사(辟邪)의 의미로 쑥 다발을 만들어 문고리에 걸거나 건네주는 풍습이 있음.

■ 중추절(仲秋節) - 음력 8월15일

○ 화교들은 추석을 '중추절'이라고 하며 일 년 중에 달이 가장 크고 밝게 뜨는 날을 의미, 둥근 달의 모양을 한 중국의 전통과자 월병(月餠)을 먹음.

16 중국인에게 쫑쯔는 중요한 세시 음식임. 중국 초나라 회왕 때 충신 굴원이 간신들의 모함에 자신의 지조를 보이기 위해 멱라수에 투신자살을 하였는데, 백성들이 굴원의 충절을 기려, 물고기들이 굴원의 몸 대신 먹으라고 대나무 잎에 찹쌀밥을 싸 강에 던졌다는 전설에서 유래

원소절, 단오, 중추절 화교 전통 음식, 풍속, 제례


원소절 경단 및 제례상


단오 쭝즈 및 쑥다발 걸기


중추절 월병 및 제례상







자료: 국립민속박물관(2012:122-125,148-150,155-161)

5) 일생의례

○ 인천화교들의 일생의례 가운데 전통문화와 관습을 현실에 적응하여 변경하되 그 근간이 되는 핵심적 요소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관습으로 결혼 및 성묘 등을 들 수 있음.

■ 결혼식[17]

○ 인천화교들은 결혼식 당일 오전에 신랑 집에 차려둔 사당 혹은 조상위패에 제사상을 차리고 조상께 결혼식을 고함.

○ 화교들의 결혼식은 피로연을 겸해 열리며, 차이나타운의 고급 중국식당을 식장으로 이용함.

- 하객들은 식장 입구에 놓인 분홍보자기에 방명록을 작성하고, 축의금인 홍빠오를 전달함.
- 행사가 끝나면 신랑과 신부는 식장 입구에서 참석 하객들에게 사탕과 담배를 전하며 답례를 함.

17 국립민속박물관(2012:142-147)의 내용 정리

○ 결혼식을 마친 후 신랑과 신부는 신랑집 입구에서 벽사를 위해 기와장 깨기와 숯불 타넘기를 거쳐 신랑집에 들어섬.

○ 신랑, 신부는 어른들에게 차를 대접하며, 사당에서 절을 올려 조상들에게 새로운 식구를 맞이했음을 고함.

화교 결혼식 관습



식전 사당 제례



결혼식 및 하객에게 사탕 전달



신부 맞이

자료: 국립민속박물관(2012:143,146,147)

■ 성묘

○ 인천화교들은 주로 원소절과 4월 5일 청명절(清明節)에 중국화교 묘역에 조성되어 있는 조상묘에 성묘를 감.

- 중국 농경사회에서는 24절기 중 5번째 절기인 청명이 오면 기온이 오르고 강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봄철 파종에 매우 좋은 시기로 인식함.
- 1년간 비바람에 시달린 조상의 무덤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 성묘를 감.

○ 원소절 성묘는 춘절 때 집안에 모셔온 망자의 넋을 다시 저승으로 보내드린다는 의미를 지님.[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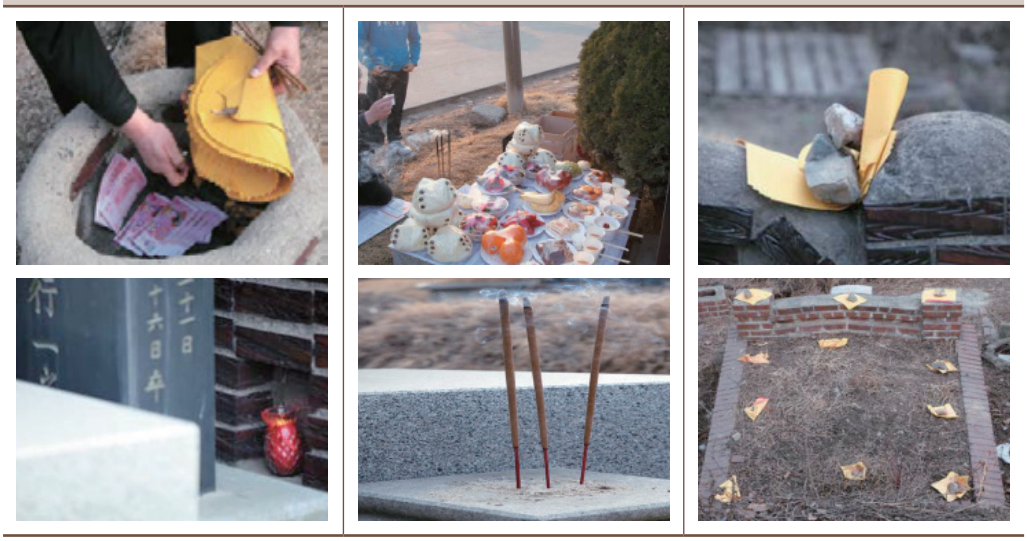
18 국립민속박물관(2012:123-125) 내용 정리

- 이에 원소절 성묘 때에는 망자의 넋이 저승으로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혼이 오고가는 길에 등불을 밝힌다는 의미를 갖는 "혼 구멍 등불 밝히기"와 "지전 태우기"를 함.

○ 화교들은 청명절 성묘를 하며 과일과 동물모양의 전통 빵과 도미, 버섯, 완자, 닭을 재료로 한 튀김을 준비하여 묘 앞에 제사상을 차리고, 향과 술, 차 등을 조상에게 바침.[19]

○ 또한 저승 노잣돈을 의미하는 지전을 무덤 앞에 마련된 문 위틈 바구니에 끼워 두었다가, 무덤 주위를 돌아가면서 가지런히 놓아두기도 함.

화교 성묘 관습



지전 태우기/ 혼구멍 등불 | 청명절 성묘 | 청명절 지전 얹기

자료: 국립민속박물관(2012:124-125,130,132)

3. 유물 및 기록 자산

○ 인천 화교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역사문화 유산으로 유물과 기록자산을 들 수 있음.

- 문화재청에 따르면 ▲회화 ▲조각 ▲공예품 ▲과학기술 용구 등을 문화재 유물로 들고 있으며, ▲전적류 ▲문서류 ▲서간류 ▲서각류 ▲근대매체 등을 기록유산으로 분류하고 있음.

19 청명절 성묘 풍습에 대해서는 국립민속박물관 (2012:130-133)의 내용 정리

○ 인천화교 관련 유물 및 기록유산은 화교들의 생활상은 물론 인천의 근현대 역사가 투영·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자산임.

○ 인천시립박물관은 <오래된 이웃 화교> 기획전시전(2014.11. 25~2015.2.1)을 통해 인천화교와 관련된 각종 기록 및 유물을 전시하였고, 그 일부가 현재 인천화교역사관을 통해 대중들에게 공개되고 있음.

- 인천시립박물관은 현재 중화민국 주경성총영사관 인천판사처가 1934년 발급한 화교등록증(華僑登錄證) 및 화교영취소맥분상세표(華僑領取小麥粉詳細表), 인천화교세대별명부(仁川華僑世代別名簿)의 기록물과 중화루(中華樓) 간판을 소장하고 있음.

인천박물관 소장 화교 유물·기록유산 및 기획전시전 전시물



화교등록증



화교영취소맥분상세표



인천화교세대별명부



중화루 간판



화교삼도(三刀)



화교 생활용구

자료: 인천박물관 홈페이지 및 인천시블로그(http://incheonblog.kr/2293(검색일: 2016-09-10)

인천 도시 가치 발굴 시민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인천발전연구원은 인천 도시 가치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인천의 도시 이미지와 인천 대표 자원의 발굴 관련 정책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본 설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사기간 : 2016년 8월

주관기관 :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책임 : 최영화 연구위원
(☎ 032-260-2694)

조사기관 : 한길리서치
조사담당 : 정현수 연구원
(☎ 02-780-8123)

응답자 사전 기록 사항						
성 별	① 여성	② 남성				
연 령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출생지	① 인천	② 서울	③ 경기도	④ 그 외 지역		
거주지	① 중구 ⑥ 부평구	② 동구 ⑦ 계양구	③ 남구 ⑧ 서구	④ 연수구 ⑨ 강화군	⑤ 남동구 ⑩ 옹진군	

A. 도시 이미지

문1. 귀하께서는 평소 인천의 도시 이미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긍정적 ② 긍정적 ③ 보통 ④ 부정적 ⑤ 매우 부정적

문2. 귀하께서는 인천의 대표 가치와 자원을 발굴할 때, 가장 우선시해야 할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고유한 것(특수성) ② 매력적인 것(탁월성) ③ 보편적인 것(국제성·일반성)
④ 진정한 것(정통성) ⑤ 활용 가능한 것(실용성) ⑥ 기타( )

문3. '인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① 고대·근대 역사 ② 문학·음악·예술 ③ 축제·관광
④ 섬·바다·갯벌 ⑤ 산업·기업 ⑥ 공항·항구
⑦ 국제도시 ⑧ 기타( )

문4. 인천은 어떤 특성을 강점으로 가진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통유산이 풍부한 도시 ② 문화예술이 다양한 도시 ③ 축제·관광이 즐거운 도시
④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도시 ⑤ 첨단산업이 발달한 도시 ⑥ 공항·항구로 개방된 도시
⑦ 국제교류가 활발한 도시 ⑧ 기타( )

문5. 인천의 미래 도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통유산 활용 ② 문화예술 활동 지원 ③ 축제관광 확대
④ 자연경관 활용 ⑤ 기업투자 확대 ⑥ 기반시설 확충
⑦ 국제교류 확대 ⑧ 기타( )

B. 장소 / 자연경관·도시경관

문6. 인천시의 가치 있는 자연경관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소래습지생태공원 ② 강화갯벌 ③ 마니산
④ 전등사 및 주변 산림 ⑤ 연미정 ⑥ 선재도 목섬
⑦ 십리포 ⑧ 서해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 ⑨ 덕적군도(굴업도·백아도 등)

문7. 인천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쉽게 조망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월미산(중구) ② 자유공원(중구) ③ 수봉산(남구)
④ 문학산(남구) ⑤ 청량산(연수구) ⑥ 계양산(계양구)
⑦ 적석사(강화군) ⑧ 화개산(강화군) ⑨ 기타( )

문8. 인천시의 가치 있는 도시경관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인천국제공항(중구) ②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중구) ③ 인천대교(연수구)
④ 동북아 트레이드 타워(연수구) ⑤ 송도센트럴파크(연수구) ⑥ 인천시청(남동구)
⑦ 부평역사(부평구) ⑧ 아시안게임 경기장(계양구) ⑨ 기타( )

문9. 인천시의 가치 있는 수변경관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월미문화의거리(중구) ② 을왕리해수욕장(중구) ③ 하나개해수욕장(중구)
④ 송도달빛공원(연수구) ⑤ 경인아라뱃길(계양구) ⑥ 동막해변(강화군)
⑦ 수해해변(옹진군) ⑧ 두무진(옹진군) ⑨ 기타( )

문10. 인천만의 특화된 마을·거리·시장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송월동 동화마을(중구) ② 신포국제시장(중구) ③ 배다리 책방골목(동구)
④ 화평동 세숫대야 냉면거리(동구) ⑤ NC큐브 커넬워크(연수구) ⑥ 부평지하상가(부평구)
⑦ 강화풍물시장(강화군) ⑧ 화문석마을(강화군) ⑨ 기타( )

문11. 인천을 방문한 외지인에게 안내하고 싶은 장소가 있다면 어디입니까?

① 자유공원(중구) ② 월미도(중구) ③ 인천항(중구)
④ 차이나타운(중구) ⑤ 문학산(남구) ⑥ 송도국제도시(연수구)
⑦ 계양산(계양구) ⑧ 덕적도·굴업도 등 섬지역(옹진군) ⑨ 기타( )

C. 역사 / 문화

문12. 인천에서 발생한 다음의 역사적 사건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미추홀 건국(기원전 18년경) ② 천주교(1784), 기독교(1885) 전래 ③ 강화도조약 체결(1876)
④ 한미수호통상조약 체결(1882) ⑤ 인천 개항(1883) ⑥ 하와이 이민(1902)
⑦ 인천상륙작전(1950) ⑧ 경인고속도로 개통(1968) ⑨ 기타( )

문13. 인천의 역사·문화 유적지(장소) 중 인천만의 고유한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문학산성(삼국시대 산성) ② 외규장각(왕실서적 도서관) ③ 답동성당(서양식 근대 건축물)
④ 광성보(신미양요 격전지) ⑤ 교동읍성(조선후기 읍성) ⑥ 홍예문(아치형 터널)
⑦ 차이나타운(중국인 거주지) ⑧ 제물포구락부(외국인 사교장) ⑨ 기타( )

문14. 인천의 역사유물(물건) 중 인천만의 고유한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마니산 참성단(단군 제단) ② 강화 고인돌(세계문화유산) ③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53(고려불전)
④ 강화 동종(조선시대 범종) ⑤ 강화 장정리 오층석탑 ⑥ 갑곶돈대(조선 대포)
⑦ 마애석불좌상(보문사 석불상) ⑧ 각국 조계석(외국인거주지 표석) ⑨ 기타( )

문15. 인천의 무형문화재(민속) 중 대중공연으로 널리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은율탈춤



②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③ 황해도 평산 소놀음굿



④ 부평두레놀이



⑤ 범패와 작법무-바라춤



⑥ 범패와 작법무-나비춤



문16. 인천의 무형문화재(공예) 중 공예상품으로 특화할 수 있는 자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궁시장(활 만드는 장인)



② 완초장(왕골 공예가)



③ 화각장(쇠뿔 판공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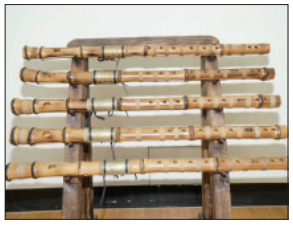
④ 목조각장(전통조각)



⑤ 자수장(전통 자수)



⑥ 대금장(대금 장인)



문17. 인천의 역사인물 중 어느 분야의 인물이 인천시를 가장 잘 대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문화·예술 ② 정치·사회 ③ 학술·교육 ④ 종교·무속

역사인물 예시

① 문화·예술 : 화가, 소설가, 시인, 극작가, 배우, 세계여행가	▷ 이규보, 한하운, 함세덕, 김찬삼
② 정치·사회 : 백제시조, 문무관인, 장군, 독립운동가, 사회운동가	▷ 비류, 임경업, 맥아더, 김구, 조봉암
③ 학술·교육 : 한글점자 창시자, 교육자, 미술사학자, 평론가	▷ 박두성, 김병훈, 고유섭, 이경성
④ 종교·무속 : 최초 목사, 천주교 영세자, 신부, 선교사	▷ 김기범, 이승훈, 랜디스, 코프

D. 관광 / 축제

문18. 귀하께서는 인천에서 개최된 축제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18-1 문항으로 ② 없다 ☞ 19문항으로

문18-1. 귀하께서 참여하신 인천시 축제는 무엇입니까? 가장 최근에 참여한 축제명을 1개만 적어주십시오.

축제명 ( )

문19. 인천의 도시적 특성과 잘 어울리는 축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발 ② 부평풍물대축제 ③ 소래포구축제
④ 고려산 진달래 축제 ⑤ 인천-중국의날 문화관광축제 ⑥ 기타( )

문20. 인천에서 개최하는 축제 중 귀하가 가장 선호하는 축제는 무엇입니까?

①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발 ② 부평풍물대축제 ③ 소래포구축제
④ 고려산 진달래 축제 ⑤ 인천-중국의날 문화관광축제 ⑥ 기타( )

E. 특산물 / 음식

문21. 인천을 대표하는 특산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복수응답 가능)

① 강화쌀 ② 강화인삼 ③ 강화약쑥(사자발쑥)
④ 강화순무 ⑤ 강화속노랑고구마 ⑥ 조기
⑦ 꽃게 ⑧ 민어 ⑨ 새우젓
⑩ 섬 포도 ⑪ 기타( )

문22. 인천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복수응답 가능)

① 짜장면 ② 쫄면 ③ 냉면
④ 칼국수 ⑤ 아구찜(물텀벙이) ⑥ 설렁탕
⑦ 추어탕 ⑧ 해장국 ⑨ 닭알탕
⑩ 닭강정 ⑪ 호떡 ⑫ 밴댕이회
⑬ 인삼막걸리 ⑭ 기타( )

F. 동물 / 식물

문23. 다음 중 인천을 상징하는 동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두루미 ② 저어새 ③ 갈매기
④ 물범 ⑤ 꽃게 ⑥ 조기
⑦ 민어 ⑧ 기타( )

문24. 다음 중 인천을 상징하는 식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목백합 ② 플라타너스 ③ 느티나무
④ 은행나무 ⑤ 소사나무(서어나무) ⑥ 동백나무
⑦ 장미 ⑧ 진달래 ⑨ 기타( )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 집중연구

인천시 도시가치자원 현황과 자원화 방안

발행일 2017년 4월 1일
발행인 남기명
기획·편집 -
발행처 인천발전연구원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화 032-260-2600 홈페이지 www.idi.re.kr
디자인·인쇄 스톰앤디자인

ISBN 978-89-5678-631-5

* 이 책의 저작권은 인천발전연구원에 있으며 무단 복제시는 법률에 의한 처벌을 받습니다.